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평가결과

문 화 관 광 부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제17회 거창국제연극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제17회 거창국제연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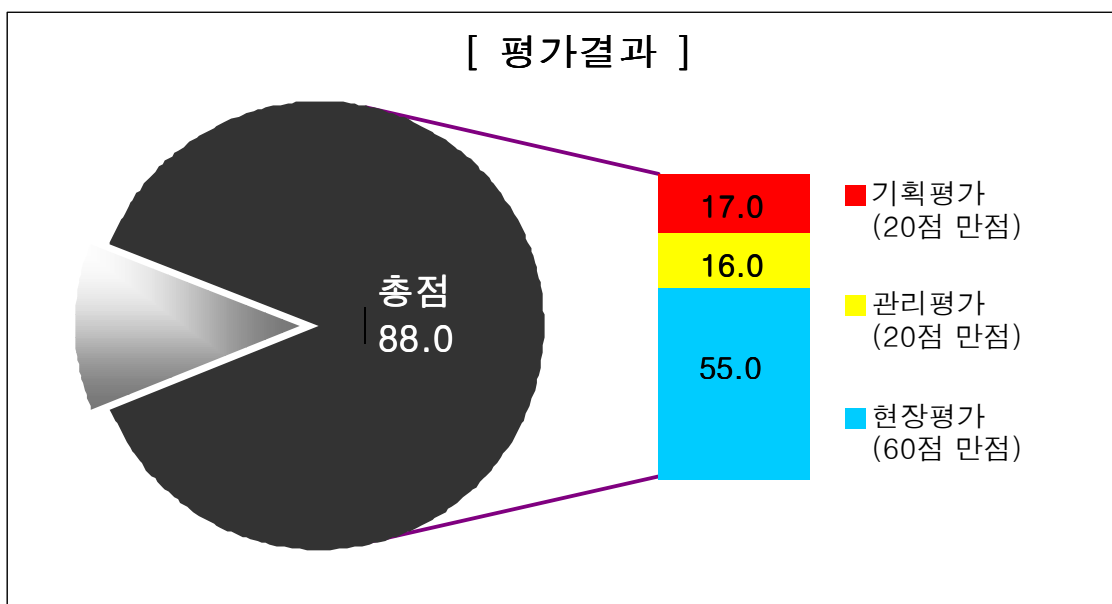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 7. 29 ~ 8. 17
- 장소 : 경상남도 거창군 일대
- 주최 : 거창군, 사단법인 거창연극제 육성진흥회
- 주관 :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경상남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거창국제연극제후원회, 한국예총거창지부, 거창문화원, 거창청년회의소, 거창기능대학, 거창전문대학, KBS, MBC, Arirang TV,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남도민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매일신문, 대구일보, 울산매일, 거창신문, 아림신문, 서경신문, 경서신문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7. 29 ~ 8. 17) → 서면평가(2005. 10.) → 개별평가회의(2005. 10. 6)

4. 평가결과 : 88.0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7.0 | 16.0 | 55.0 | 88.0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7.0/7.0 | 4.0/5.0 | 2.0/4.0 | 4.0/4.0 | 17.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55/3.0 | 7.05/9.0 | 6.35/8.0 | 16.0/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동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0) | 사업내용(30) | 관객서비스(20)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8.0/8 | 21.0/22 | 17.0/20 | 28.2/30 | 18.8/20 | 93.0/100 | 55.8/60 |
| B | 7.2/8 | 20.7/22 | 19.0/20 | 27.0/30 | 18.2/20 | 92.1/100 | 55.3/60 |
| C | 7.6/8 | 21.5/22 | 18.9/20 | 23.8/30 | 18.2/20 | 90.0/100 | 54.0/60 |
| 평 균 | 7.6/8 | 21.1/22 | 18.3/20 | 26.3/30 | 18.4/20 | 91.7/100 | 55.0/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공연예술이 서울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창이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공연예술의 대중화와 관광자원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거창국제연극제의 사업목적은 다양한 공연프로그램의 개발과 수려한 거창 수송대의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실행 가능한 사업목적으로 보임. 문제는 지역연극의 세계화를 통한 지역문화의 독창적 자립화라는 또 하나의 사업목적인데, 현재로서는 좀 더 멀리 보고 경험을 축적해서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사업목적임.
- 거창국제연극제의 사업목적은 비교적 분명하며, 지난 17년간 지속해서 사업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행사 목적에 걸맞게 잘 운영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관객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돋보임.

□ 사업 운영

- 사업운영의 방식은 그간 비대해진 사업의 운영을 고려해 보면, 현재의 인력구성은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인력구성과 조직이었으며, 운영방식이 지나치게 소수의 실무인원에

집중되어,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가 어려움. 조직국의 인원이 실제 필요인원보다 적은 것은 전체 운영예산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전문적인 축제인력양성에 소홀했기 때문이기도 함.

- 거창의 수송대라는 가족캠핑지역과의 자연스러운 연계와 연극제 공간을 거창군 전체로 확대하면서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려는 거창국제연극제의 사업운영방식은 적절함. 문제는 국내외 공식초청공연과 자유참가공연의 참가작품 선정과 연극제의 주된 공간인 수송대라는 캠핑지역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어떻게 이뤄낼까 하는 점이라고 생각됨. 한 마디로 연극의 실험성과 대중성에 대한 거창국제연극제의 독특한 사업운영방식이 앞으로도 기대됨.
- 행사운영은 체계가 많이 잡혀졌고 행사진행도 유기적으로 잘 진행됨. 거창군 전체에 홍보물 부착으로 행사장 접근이 용이함.

□ 행사 내용

- 행사의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 점차 좋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2006년도 행사의 내용 가운데 창작 초연 공연계획은 매우 고무적이며, 해외공연 초청의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아 가기 위한 내용 면의 보완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거창국제연극제는 일단 공식초청공연과 경연 형식의 자유참가공연을 두 축으로 해서 유료공연, 무료공연, 거리공연, 학술세미나, 체험실습장, 전시회, 연극아카데미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극제의 성격을 모색하는 연극축제이다. 지역축제의 성격이 분명한 현재로서는 캠핑을 즐기러 수송대를 찾은 일반 가족의 연극에 대한 관심과 연극을 보러 거창을 찾은 일반 관객의 수송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두 가지 측면으로 행사내용을 구분해서 축제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장기적으로 그 두 측면이 자연스럽게 하나로 녹아들 때 국제적인 연극축제로서의 거창연극제의 효과적인 디딤돌이 마련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관객 서비스

- 관객들에게 피서 철을 이용해서 좋은 체험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거창국제 연극제는 매우 중요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며, 앞으로 질 높은 공연서비스를 통한 관객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음. 관객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함. 물론 이런 모든 희망사항은 결국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함.
- 다양한 무료공연의 볼거리와 저렴한 입장료, 그리고 저마다 독특한 야외공연장의 분위기 등은 이미 그 자체로 성공적인 관객서비스인 셈이라 할 수 있음. 조금 욕심을 부리자면 연극제가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고, 대부분의 관객이 연극에 익숙지 않은 관객이라는 점에서 공연 시작 전에 좀 더 재미있고, 친절한 작품해설이 필요함. 거리공연 전문팀이 아닌 연극제 참가팀의 자발적인 거리공연도 축제의 성격상 바람직한 관객서비스이면서 동시에 홍보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였음. 특히 교사 및 학생들 교육. 교육 프로그램인 연극 아카데미와는 희곡 응모전이 돋보임

□ 문제점

-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그러하듯 여름방학을 이용한 관객확보라는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름

장마철과 축제 기간이 겹치게 된다. 장마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축제기간과 겹칠 수도 있고, 장마를 피해서 축제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장마대비 보완시설과 공연장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음향과 조명시설의 방수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공연장 안전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야외공연의 장점과 실내설비의 보완이 병행해야 훌륭한 지역축제로의 미래가 더욱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 해외공연 선정에 문제가 많음. 축제의 성격과 관객층을 감안 하여 선정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준도 낮고 관객층에 대한 이해가 없음. 자막이 상세하지 않아 내용 전달이 안 됨.
- 극장간 거리가 근접한 관계로 음향이 너무 커서 딴 공연장의 공연에 지장을 줌.

□ 개선 방안

- 현재의 일회적 공연지원의 방식에서 장기적 시설지원의 방식을 병행해서, 거창국제 연극제 5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5년 단위의 종합평가 이후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장기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설지원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연 프로그램지원은 장기적인 발전방안과 함께 검토해 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현재 거창국제 연극제의 프로그램을 지원규모와 발전방안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확산하고,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율과 재량권을 확보해 줘야 함.
- 지속적인 축제 사무국 운영을 위한 지원과 겨울철 준비기간에 필요한 워크숍 관련 지원도 있어야 함. 실제 축제 기간 전 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장기적 지원, 시설물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거창국제 연극제가 지역축제로 자리 잡아 국제적인 명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은행나무극장의 불편한 무대 및 객석 - 소규모라도 마당놀이 극장으로의 전환 모색필요.
- 작품 공연 시간의 중복 - 관람자 중심의 공연시간계획 필요함.
- 캠핑가족에 대한 홍보의 부족한 점을 연극제 참가 극단을 적극적으로 홍보에 투입하여 활용하고 거창국제연극제의 가족 연극제적 성격을 제고하여 캠핑 가족을 위한 공연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연극제 참여관객을 위한 숙박시설의 부족한 상황에 대해 장기적 안목으로 수송대에 어울리는 숙박시설 확보함.
- 장마철 야외공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건물 내 극장 확보해야 하며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과의 야간 드라이브코스를 홍보하기 위해 도로들에 야간표지판 보충이 필요함.
- 해외공연 선정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축제의 성격과 관객층의 성향에 맞는 작품선정이 중요함. 작품 선정 위원회는 형식적이고 개인의 단독으로 선정시 문제가 많이 발생함. 선정위원회의 철저한 책임제를 부과해 주어야함. 자막도 상세하게 제공 되어야함-전년도와 같은 지적사항임

6. 총평

거창국제연극제의 사업목적은 비교적 분명하며, 지난 17년간 지속해서 사업을 운영해 왔기에, 그간 비대해진 사업의 운영을 고려해 보면, 현재의 인력구성은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인력구성과 조직이었으며, 운영방식이 지나치게 소수의 실무인원에 집중되어, 원활한 운영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실무를 위한 조직국의 인원이 실제 필요인원보다 적은 것은 전체 운영예산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전문적인 축제인력양성에 소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행사의 내용은 전년도에 비해 점차 좋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2006년도 행사의 내용 가운데 창작 초연 공연계획은 매우 고무적이며, 해외공연 초청의 측면에서도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아 가기 위한 내용 면의 보완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객들에게 피서 철을 이용해서 좋은 체험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는 거창국제 연극제는 매우 중요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 질 높은 공연서비스를 통한 관객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으며, 관객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모든 희망사항은 결국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그러하듯 여름방학을 이용한 관객확보라는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름 장마철과 축제 기간이 겹치게 된다. 장마기간이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제기간과 겹칠 수도 있고, 장마를 피해서 축제가 미루어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장마를 대비한 보완시설과 공연장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음향과 조명시설의 방수설비가 갖추어져야 한다. 공연장 안전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야외공연의 장점과 실내설비의 보완이 병행해야 훌륭한 지역축제로의 미래가 더욱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일회적 공연지원의 방식에서 장기적 시설지원의 방식을 병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창국제 연극제 5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5년 단위의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이후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장기 지원정책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시설지원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연 프로그램지원은 장기적인 발전방안과 함께 검토해 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거창국제 연극제의 프로그램을 지원규모와 발전방안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확산하고,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율과 재량권을 확보해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축제 사무국 운영을 위한 지원과 겨울철 준비기간에 필요한 워크숍 관련 지원도 있어야 한다. 실제 축제 기간 전 후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장기적 지원, 시설물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거창국제 연극제가 지역축제로 자리 잡아 국제적인 명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서울국제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지원 평가결과 -

1. 사업명 : 서울국제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 지원

2005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for Young Audi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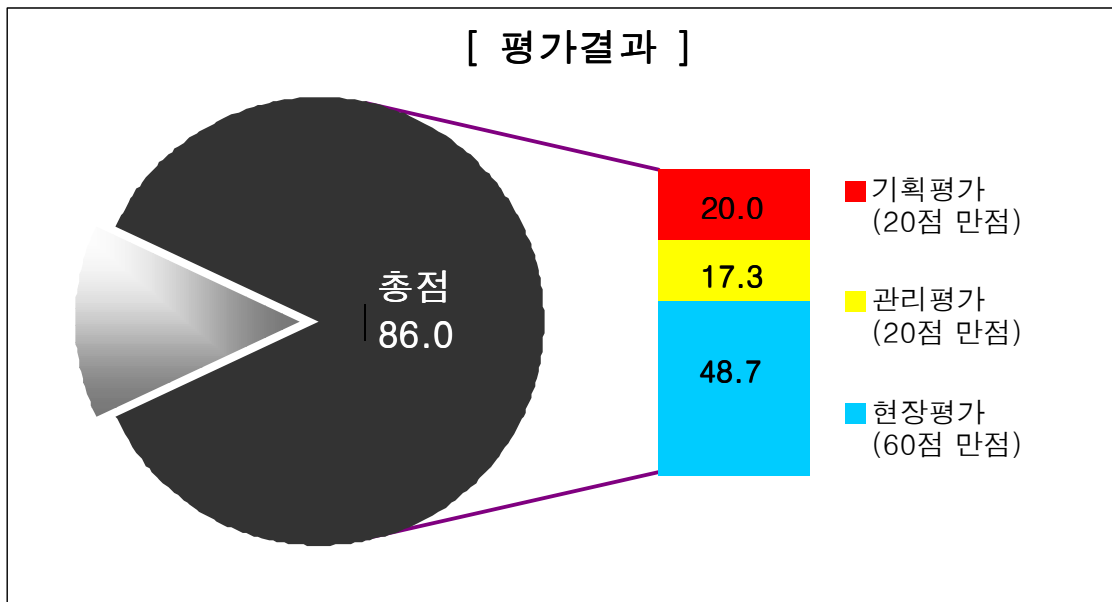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 간 : 2005년 7월 16일 ~ 2005년 7월 24일
- 장 소 : 대학로 문예진흥원 대·소극장, 사다리 아트센터 동그라미, 세모, 네모극장
- 주 최 : (사)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 후 원 : 문화관광부, 서울문화재단, 독일문화원, 이스라엘대사관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7.16. ~ 7.24.) → 서면평가(2005.9.) → 개별평가회의(2005. 9. 30.)

4. 평가결과 : 86.0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20.0 | 17.3 | 48.7 | 86.0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7.0/7.0 | 5.0/5.0 | 4.0/4.0 | 4.0/4.0 | 20.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12) | 사업목표 달성도(5) | |
| 2.55/3.0 | 7.95/12.0 | 6.8/5.0 | 17.3/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2) | 사업내용(34) | 관객서비스(14)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6.8/8 | 18.4/22 | 17.0/22 | 27.2/34 | 12.2/14 | 81.6/100 | 49.0/60 |
| B | 6.0/8 | 15.9/22 | 16.2/22 | 26.0/34 | 11.2/14 | 75.3/100 | 45.2/60 |
| C | 7.2/8 | 18.5/22 | 18.4/22 | 30.0/34 | 12.2/14 | 86.3/100 | 51.8/60 |
| 평 균 | 6.7/8 | 17.6/22 | 17.2/22 | 27.7/34 | 11.9/14 | 81.1/100 | 48.7/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어린이청소년공연축제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설정한 사업목적의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음. 예를 들어 서울에 해외 아동청소년극을 초청하여 세계무대에 서울을 인식시킨다든가 청소년의 상상력의 공간을 제3세계의 예술까지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 그러나 국내 청소년극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부한 아동극의 재현을 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진행되었고, ‘청소년’ 공연예술프로그램의 상대적인 빈약함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함.
- 또한 ‘아동’또는 ‘어린이’용어 선택 및 정립이 필요함.

□ 사업 운영

- 극장을 문예진흥원 예술극장과 사다리극장으로 집약시킨 것은 효율적이었으나, 아직 사다리극장이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라 공연을 하는 사람이나 관객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았고, 야외공간을 활용하지 못함
- 동시대 어린이청소년공연예술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래밍이 돋보였으나, 축제분위기 형성과 다각적인 문화적 자극을 제공하기 위해 관객중심의 부대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함:
- 또한 국내외 공연을 엄선하는 과정을 철저히 한 다음 그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함. 즉, 해외공연섭외가 현지에 방문해서 충분한 심의한 결과인지 편의적으로 선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국내공연의 경우도 선정과정이 좀 더 조직적이어야 하며, 국내공연의 경우 충분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행사 내용

- 행사내용의 예술적 수준이 좀 더 고려되어야 함. 참신하고 수준 높은 공연도 일부 발견되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았음. 따라서 작품의 수에 상관없이 훌륭한 작품에 좀 더 충분한 지원을 하여 질을 향상시켜야 함.
- 또한 각 프로그램별 관객권장연령 표기의 필요성 검토 요망. 예를 들어 “견우와 직녀”(극단 진동): 실제 청소년연극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관객들이 대중을 이룸.

□ 관객 서비스

- 스태프와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큰 비중을 갖고 있고, 청소년과 부모님들에게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해야 하는 행사이므로 관객서비스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따라서 스태프와 봉사자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하였으며, 각 공연별 관객권장연령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음. 예를 들어 “잠보, 짐바브웨”는 3개의 프로그램을 연속으로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 설명이 없었고, 진동의 “견우와 직녀”는 청소년연극이나 실제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관객이 대중을 이루었음.
- 거리공연시간 안내/공지 서비스 필요하며, 로비 편의시설(의자) 부족하였음. 특히 사다리아트센터 세모/네모극장 로비의 의자(12개) 부족
- 어린이관객중심의 축제 부대프로그램 부재하고, 청소년공연 시간대의 재조정 필요. 평일 오후4시 공연에는 참여하기 어려움
- 이번에 자막서비스보다 통역 자를 활용한 것은 성공적이었음.

□ 문제점

- 현재 몇 해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이 축제는 머물고 있으며, 특성과 개성을 찾기 힘들고,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연극을 하는 전문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음.
-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불분명하고 서울 대학로에서 하는 이 행사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함.
- 해외극의 경우 이미 국내에 잘 알려진 국가들에 치중되었고, 국내극의 경우 작품선정에서 미비하였으며, 국내극의 지원이 부족하였음.
- 공연프로그래밍은 전반적으로 무난하나 안팎으로 축제분위기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고, 청소년 대상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 사다리극장의 미완성이 관객에게 불편을 주었으며, 동반부모(어린이 공연축제의 가장 큰 협력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였음.
- 자원 활동가의 문제해결능력(티켓정보, 공연정보 등)이 제한됨.

□ 개선 방안

- 축제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어린이들을 위하여 지금, 여기서 어떤 연극제를 해야 하는지 되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필요성이 큼.
- 아동 청소년 공연예술축제인데, 그 대상이 너무 낮고 어리므로, 관객 대상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겠으며, 세계 ‘어린이’ 공연축제 또는 세계 ‘청소년’공연축제로서의 특화를 모색해야 함.

- o 제3세계 등 좀 더 다양한 국가의 연극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국내 극 선정을 엄선하여 선정된 공연에는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함.
- o 이와 함께 극장설비의 충분한 보완과 어린이청소년관객중심의 부대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고, 스태프와 봉사자들에게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져 관객서비스에 질을 향상시켜야 함.

6. 총평

평가위원들이 먼저 제기한 문제는 아시테지의 행사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었다. 1)아시테지의 전체적인 성격은 교류가 전혀 없이 폐쇄적이다. 서울에 해외 아동청소년극을 초청하여 세계무대에 서울을 인식시킨 점, 청소년의 상상력의 공간을 제3세계의 예술까지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 점은 인정되지만, 국내 아동 청소년극의 질을 높이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 아시테지의 폐쇄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진부한 아동극의 재현을 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진행되었다. 2)이 공연예술제는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어린이 청소년 연극을 아우르는 대표성이 없다. 위의 항목과 관련하여 행사내용의 예술적 수준이 좀 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신하고 수준 높은 공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았다. 작품의 수에 상관없이 훌륭한 작품에 좀 더 충분한 지원을 하여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3)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단체의 참여도가 낮다. 4)국내의 참여도가 매우 낮다는 것은 실제 연극인들의 참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5)따라서 국내 참가작품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국제단위의 행사로서 아동. 청소년 연극제 행사를 대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6)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제청소년연극제는 많은 관객들이 공연을 즐기며, 동시에 연극인들이 함께하는 협력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7)무엇보다 한국 아시테지의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겉으로 공연의 정체성에서 용어정리가 필요하며 아동이라는 말은 권장하지 않는 용어라는 것을 밝혀둔다. 자막서비스보다 통역자를 활용한 것은 성공적이었다. 부대프로그램에는 소수의 어린이 참가자들로 제한된 “장애, 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하는 연극교실”을 제외하고는 심포지엄, 서울어린이 연극상 시상식만 준비되어 있어서 어린이, 청소년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국내 유일의 어린이청소년공연축제로서 다각적으로 미적, 지적 자극을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작품의 수준이 낮았으며 국내 참가작의 참여도 미흡하였다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최소한의 축제분위기도 없었다는 것이 평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공연시간은 청소년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대였고, 관객 대부분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이었다.

예컨대 청소년공연인 <견우와 직녀>는 평일 4시 공연이었고 견우직녀의 사랑, 억압된 사랑과 동성애 등을 편견 없이 전달하는 작품임에도 주된 관객들은 어린 아이들뿐이었다. 프로그램의 예술적 질에서는 일정한 수준을 담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운영방법에서는 좀 더 세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1)각 공연프로그램의 관객권장연령을 표기하여 부모들과 어린이의 선택을 돕고, 2)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의 공연시간을 주중 오후에서 주말 오후로 옮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3)어린이관객의 보호자로서 축제의 협력자로 참여하는 부모들의 휴식 공간(의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4)관객들을 대응하는 자원 활동가들의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위한 사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5)상대적으로 소외된 청소년공연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및 확대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공연이 있었던 사다리극장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는 행사단체의 사전준비 미흡으로

볼 수 있다. 홍보물 등의 안내가 부족했고 공사 중이라, 허가가 나지 않은 건물에 공연을 진행함으로써 안전 문제가 우려되었다. 입장료에 대해서는 티켓가격이 비싼 편이라 그 적절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사랑티켓 이외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할인제도가 없었다.

이번 행사의 관객은 누구였는가? 국제아동청소년은 모든 이를 위한 연극이어야 하고, 그것이 행사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일부 고정된 관객들이 관극함으로써 경제적 불균형이 고착화되고 있어 어린이 연극이 보여주어야 할 바 즉 극장에 오는 관객들의 민주화가 절실했다. 국고지원을 받는 행사라면 관객의 민주화를 위해 애쓸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05 평가결과 -

1. 사업명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05 (The 8th Seoul Fringe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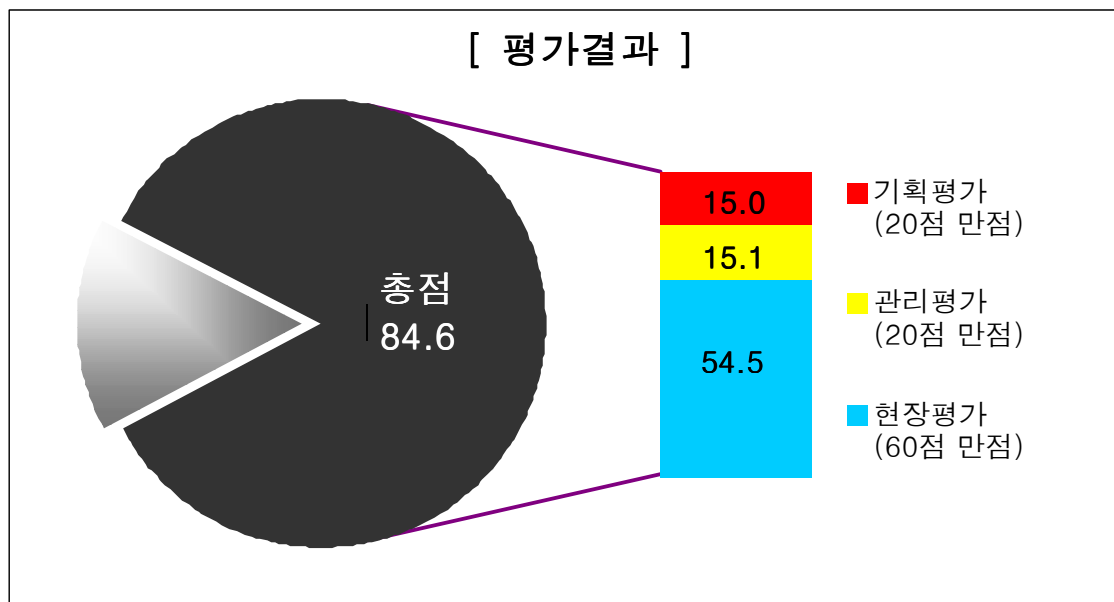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8월 12일 ~ 2005년 8월 28일, 17일간
- 장소 : 홍대 인근 25여 개 공연/전시장 및 프린지스트리트 (걷고 싶은 거리)
- 주최 : 서울프린지네트워크 Seoul Fringe Network
-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마포구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8. 12. ~ 8. 28.) → 서면평가(2005.9.) → 개별평가회의(2005. 10. 21.)

4. 평가결과 : 84.6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5.0 | 15.1 | 54.5 | 84.6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7.0/7.0 | 3.0/5.0 | 1.0/4.0 | 4.0/4.0 | 15.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55/3.0 | 6.15/9.0 | 6.35/8.0 | 15.1/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2) | 사업내용(34) | 관객서비스(14)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7.6/8 | 20.2/22 | 20.0/22 | 31.0/34 | 12.8/14 | 91.6/100 | 55.0/60 |
| B | 6.8/8 | 19.8/22 | 19.8/22 | 29.4/34 | 13.0/14 | 88.8/100 | 53.3/60 |
| C | 7.6/8 | 20.7/22 | 20.6/22 | 30.6/34 | 12.8/14 | 92.3/100 | 55.4/60 |
| 평 균 | 7.3/8 | 20.2/22 | 20.1/22 | 30.3/34 | 12.9/14 | 90.9/100 | 54.5/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젊은 예술가의 실험적인 무대인만큼 참신하고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일반시민을 비롯한 인근 지역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 속에 훌륭하게 마친 축제에 보임.
- 모든 공연예술 장르와 영화, 전시까지 포용하여 자유로운 실험정신과 형식 등을 중요시하는 독립예술의 잔치로 기존의 체계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작품을 일반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목적을 가진 축제에 그 목적에 부합하였다고 봄.
- 문화는 다양할수록 좋다는 기본명제를 인정하면 권위적이거나 상업적인 문화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독립문화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사업목적은 당연히 좋음. 문제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사회의 공공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가에 있음. 일단 지금보다 지원금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하여 좀 더 다양한 독립문화의 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문화 생산자의 창조적 독립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 수용자의 창조에 대한 자극을 통해 일반 대중의 일상적 삶의 질을 고취하는 방향으로도 사업목적에 확대할 수 있을 거라 평가됨.

□ 사업 운영

- 횡수를 거듭하면서 쌓여진 자원봉사단(서포터)의 적극적인 참여와 적절한 운영으로 성공적인 축제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전체적으로 잘 운영된 편. 전시공간과 공연예술의 공간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개념의 방식은

독특하고 흥미로웠음.

○ 페스티벌 참가작품에 대한 심사나 선정과정이 없는 방식의 사업운영은 원칙적으로 좋음.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프린지네트워크 쪽에서 참가팀들과 활발한 소통의 기회를 갖는 자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해 참가팀들과 페스티벌 양 쪽 모두가 원하는 생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됨.

□ 행사 내용

○ 홍대 앞거리의 특성(미술, 음악의 거리)을 십분 잘 활용하여 무용과 연극만이 아닌 미술전시와 음악 프로그램의 적절한 안배로 다양하면서도 실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 일반관객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과 그런 작품들이 선보일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었음. 참여 작품들의 다양성과 여러 발표형식 등은 이 축제의 목적에 잘 맞았다고 생각됨.

○ 음악, 미술, 영화, 무대예술, 거리예술 그리고 아시아 차세대 예술가들의 공동창작 프로젝트의 발굴 등으로 구성된 페스티벌의 내용에서 아무래도 무게중심은 미술이나 영화보다는 음악이나 공연예술 쪽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생동감 있는 미술전시 쪽의 고민과 좀 더 폭넓게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행사내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거라 생각됨.

□ 관객 서비스

○ 많은 자원봉사단에 비해 유기적인 결합 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공연 안내와 주변 편의 시설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부 자원봉사단이 있어 관객서비스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나 자원봉사단이 안내 뿐 아니라 행사 홍보 등 다른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봄.

○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발표형식과 그것을 즐기는 관객의 반응이 돋보임. 그리고 전체적인 관객의 흐름을 유도하는 공간적 서비스가 잘 되었다고 봄.

○ 중구난방의 거리예술제는 그 행사내용의 다양성과 무료라는 점에서도 이미 충분한 관객서비스라고 생각됨. 축제에 참가하는 그 밖의 팀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거리로 나와 관객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질 수 있었음. 일부 공연 팀에서 협찬을 받아 관객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누어 주기도 했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참가팀들의 관객에 대한 태도임. 처음 접하는 독립예술들에 대해 관객들이 당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리 하고 관객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관객서비스가 아닐까 생각함. 공연장이나 전시장의 시설 등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됨.

□ 문제점

○ 아직 전문적인 무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움일 수 있는데, 행사의 대규모적인 특성, 다양한 장르의 많은 공연,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상당수 참여하는 연중 상설화 된 축제가 아닌 이상,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서포터의 일부(핵심 몇 명)를 사전 교육을 하여 전문적인 스태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예산의 대부분이 공연지원보다는 기획단 운영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더 우수한 공연을 유치하거나, 지속적인 축제운영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필수임.

○ 홍대의 상업지역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 측면이 있었다. 거리의 상인들의

인식 부족은 자유로운 축제를 이끄는 데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특히 관의 협조가 부족함으로 발생 하는 여러 가지 행사 차질과 질의 저하가 발생함.

□ 개선 방안

- 상근 인력 외에 자원봉사단 중 핵심 인력을 사전에 충원하여 전문 교육을 통해 전문 스태프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축제의 지속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예산 지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으며, 축제 기획단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업 협찬이나, 인근 상가의 협찬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음. 인근 상가에서의 협찬은 자원봉사단의 식비절감 뿐 아니라, 관객 서비스 차원에서 프린지 페스티벌 기간 중 제휴 상가들이 일정 정도의 할인협정을 맺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음.
- 홍대의 상업 지구에서 자유로운 예술 축제가 벌어진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주최 측과의 유기적인 협력은 절대로 필요하다. 관의 무성이한 태도와 관심 부족을 적극적인 협력 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미술, 음악, 영화 등에서 보이는 독립문화의 제한된 폐쇄성 → 좀 더 확대된 예산지원.
 - 제한된 예상관객층 → 서울프린지네트워크가 상시적인 기획조직으로 장기적인 기획을 수행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지원 가능한 예산 확보.
 - 제한된 관객참여 → 페스티벌 기간 중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판을 벌일 수 있는 분위기 유도. 예를 들어 필 프린지의 공간 등 이용. 그밖에 다양한 워크숍 기획.
 - 제한된 홍보 → 페스티벌 기간 중의 모든 공간에서 인디스트 등을 활용해 행사 프로그램 및 일정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의 필요. 참가팀들의 좀 더 적극적인 홍보참여의 가능성 협조.

6. 총평

이번 프린지 페스티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매우 의미 있고 진척된 페스티벌로 나아가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 특히나 프린지 페스티벌은 ‘블루오션’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상업적이고 유흥적인 소비지역의 문화를 건전한 시민문화로 탈바꿈 할 수 있는 계기를 강하게 촉발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번 카우치라는 그룹의 해프닝이 가져온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상당한 관객을 이끌어 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아보아야 한다. 즉 이번 프린지 페스티벌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반문화의 저속한 혹은 자기들만의 ‘해프닝’이라는 식의 부정적인 사회 시각은 단순한 기우였음을 나타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새롭고 신선하며 역동적인 다양한 장르의 교류와 시도들의 빛나는 재치 앞에 젊은 세대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세대들이 즐거운 축제를 즐겼다는 평이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 자체의 성격과 규모라는 측면에서 보면 프로그램은 상당히 흥미롭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일간 245회에 달하는 다양한 공연들은 날씨로 인해 부득이 취소된 공연을 염두에 두더라도 그 다양성에서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의 만남을 즐거워하는 공연의 순수함에서도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프린지의 성격상 그것을 일관된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가지고 작품선정을 하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문제점은 있었다. 그러나 이점은 프린지의 성격을 잘 홍보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홍대의 상업 지구에서 벌어진 공간의 개념은 매우 흥미롭고 의의가 있었지만 상업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이 지역의 지역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은 숙제로 남았다. 이

축제는 단지 주최 측뿐만 아니라 행정주체도 함께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왜냐하면 도시의 축제는 여러 가지로 행정 주무부서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더욱이 시민이 누려야하는 문화향유권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최 측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좀 더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가 적극 협력해야 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야한다.

프린지 페스티벌이 공연 중심이라 미술과 같은 전시 작품은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도 있다. 하지만 기회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지원비 없이 참가하는 많은 열정적인 젊고 실험적인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분명 보다 나은 한국 문화예술계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때문에 이러한 순수하고 독창적인 열정이 레드오션의 영역 속에서가 아닌 문화경쟁력을 확보하는 블루오션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중요성과 성과에 비추어 현재의 지원예산(50,000,000원)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원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은 매우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블루오션이라는 측면에서의 당위론적 정당성과 현재 보이는 페스티벌 주최 측의 능력, 이에 비추어 가늠할 수 있는 앞으로의 잠재능력을 본다면 이 프린지 페스티벌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에 비추어 장기적인 지원육성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축제는 가능하다면 3년 정도의 최소한 장기 프로젝트 속에서 지원해주고 평가해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 없이 단기적인 계획에 급급하다보면 축제의 연속성이 쌓이지 못하고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힘을 낭비하는 실수를 되풀이 할 것이다. 연속성 차원에서 반드시 축제는 지원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 속에서 유관기관의 지원도 절실하며 이를 평가할 아이디어도 동반되어야 한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제10회 공주아시아1인극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제10회 공주아시아1인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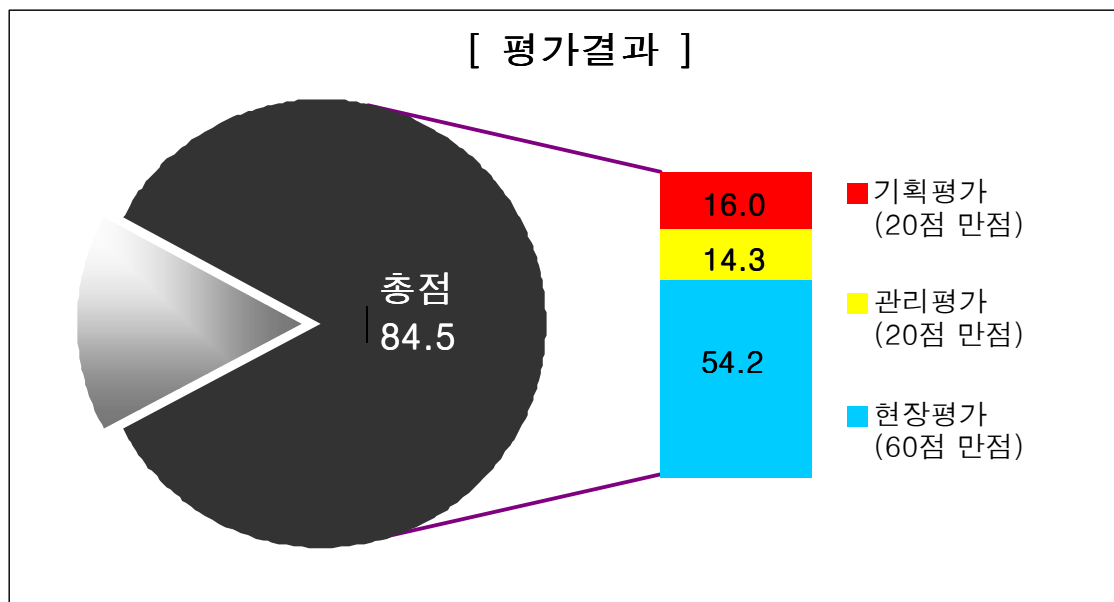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10월 7일(금) ~ 10월 9일(일), 3일간
- 장소 : 공주민속극박물관 (아리랑소극장, 돌모루당, 천막극장, 놀이마당)
- 주최 : 아시아1인극협회
- 주관 : 제10회 공주아시아1인극제 실행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충청남도, 공주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10. 7 ~ 10. 9) → 서면평가(2005. 12.) → 개별평가회의(2005. 12. 9.)

4. 평가결과 : 84.5 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6.0 | 14.3 | 54.2 | 84.5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7.0/7.0 | 3.0/5.0 | 2.0/4.0 | 4.0/4.0 | 16.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1/3.0 | 6.6/9.0 | 5.6/8.0 | 14.3/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0) | 사업내용(30) | 관객서비스(20)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7.6/8 | 19.3/22 | 17.6/20 | 27.0/30 | 17.0/20 | 88.5/100 | 53.1/60 |
| B | 7.2/8 | 20.6/22 | 18.0/20 | 25.1/30 | 18.0/20 | 88.9/100 | 53.3/60 |
| C | 8.0/8 | 20.3/22 | 19.0/20 | 28.6/30 | 17.9/20 | 93.8/100 | 56.3/60 |
| 평 균 | 7.6/8 | 20.1/22 | 18.2/20 | 26.9/30 | 17.6/20 | 90.4/100 | 54.2/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공주아시아1인극제는 독특한 연극제로 아시아 전통극과 이를 바탕으로 한 아시아의 새로운 연극들을, 1인극이라는 틀로 한 자리에 모으는 축제라는 점에서 그러하며, 그 동력이 민간의 개인으로부터 이루어져 무려 10년을 이어왔다는 점. 1인극이라는 규정이 종종 무너지는 작품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전통적인 연극유산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는 정체성을 잘 지켜오는 축제임.

○ 무분별하게 유입되어 서구문화로부터 아시아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공주 아시아1인극제는 필요한 사업이며 2005년 제 10회 아시아1인극제는 전년도에 비해 축제프로그램 구성 및 운용 면에서 질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 서울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공연예술 행사를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였다는 것이 의미 있었음. 특히 공주 민속극박물관을 중심으로 지역과 지역민에게 높은 수준의 1인 연희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과 지역민의 문화를 다양하고 수준 깊게 만든 행사라고 평가함. 서양 연극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공연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 행사의 의미와 중요성이 높이 평가됨.

□ 사업 운영

○ 1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축제이기 때문에 매우 안정된 축제이며, 예산 배분이나 축제 진행 등 운영자의 안정감뿐 아니라 관람객과 초청된 공연예술인 등 참가자들 역시 안정된 모습을 보임. 다른 축제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여 우왕좌왕하거나 시끌벅적한 분위기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음.

○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한 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부족한 공연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야외 천막극장을 설치 운용하였으며 참여스텝진의 행사운영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국제적인 행사를 운영하기에는 주 공연장이 너무 빈약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고마나루 예술축제’와 ‘백제문화제’가 동일한 지역에서 개최되어 축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행사 내용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축제에서 늘 볼 수 있는 쇼단 스타일의 해외 민속공연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능숙하든 아마추어적이든 참가작품들은 이 축제에서나 볼 수 있는 독특한 작품들이라는 점이 중요해 보임. 그런 점에서 이 축제는, 일반인들이 흥분되도록 즐겁게 볼 수 있는 대중적인 축제라기보다는, 각 나라에서 모인 전문가와 민속학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레퍼토리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전문인 중심이라고 보기에 각 레퍼토리에 대한 전문적 관심을 북돋워주는 장치는 적고, 또 일반 대중들이 즐기기에 달콤한 자극이 적다. 한편 참가단체들은 비교적 국가 안배나, 전통·현대의 안배, 장르 안배가 고루 이루어진 편이며, 음악과 춤, 인형극, 워크숍 등의 안배는 꽤 많은 편이나, 인형극이나 춤극이 아닌 순수한 1인극이 좀 부족해 보임.

○ 아시아 1인극제 사업목적에 명시된 ‘아시아 공연예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계 공연예술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시아 전통공연양식의 소개에서 진일보하여 아시아 전통공연의 현대화, 세계화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작업이 필요함.

○ 1인극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행사이어서 조출한 느낌이 많았음. 예년에 비해 한국 작품이 다른 나라의 작품에 비해 많이 배치되어 있었던 점이 아쉬웠음. 또 주로 한국, 중국, 일본 작품이 많았는데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또는 서남아시아의 작품이 첨가되어 명실상부한 아시아 1인극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공연축제이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나 오전 시간대의 행사가 많이 없었던 것이 학술제나 워크숍 등의 배치로 개선된다면 좀 더 알찬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함.

□ 관객 서비스

○ 어린이 및 청소년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연 시간대를 조정하고 고등학교 연극반 대상으로 인형극을 강습하여 학생들이 우리 전통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의 기본 목적에 충실하고자 노력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특히 공연에 참가한 배우들이 공연 후 현장에서 일반관객들을 위해 인형극 조작법 등을 가르쳐주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음.

○ 홍보 관광 도우미들이 적소에 배치되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주차장도 많이 개선되었지만 공간이 협소해서 관객이 한꺼번에 몰릴 때는 주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공주민속극박물관을 찾아 들어가는 길이 꽤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중요지점이나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행사에 찾아오는 관객들에게 친절한 배려를 엿볼 수 있었음.

□ 문제점

- 지나치게 안정된 느낌이 장점이자 단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을 더 많이 이끌어올 동력이 약한 편이며, 위치도 외지고 장소도 협소함. 그러나 전문인들끼리의 교류를 좀더 강하게 심화시킬 장치가 필요함.
- 축제의 상품력 축진을 위한 프로그램 부재, 축제 이벤트의 중복 개최 및 개최시기의 편중
- 공주 민속극 박물관이 공주 시내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단체로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공연장을 찾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행사의 목적이나 내용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일정범위의 관객을 제외하면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기 힘들다는 점.
- 예산과 공연장소 그리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아시아의 1인극을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는 행사로서 유일하다고 할 때 이 행사는 좀 더 확장되어야 함. 현재의 적은 예산과 협소한 공연장 그리고 부족한 전문 인력으로는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통 연희의 보급과 확장이라는 당위성에 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이 부족함.

□ 개선 방안

- 이벤트를 촉진시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이 필요함. 베네치아 카니발의 경우 축제운영위원회에서 지역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면과 의상을 입고 축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임.
공주아시아1인극제, 백제문화제, 향토연극제는 같은 시기에 동일한 지역에서 개최되어 축제 상호간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지역의 문화축제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최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며 부득이 할 경우 공주아시아1인극제, 백제문화축제, 향토연극제를 통합 운용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 전문인들끼리의 교류도 강화하는 한편, 일반인을 위한 대중화의 노력이 필요함. 만약 두 가지 모두가 힘들다면, 그 중 하나로 집중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함.
- 주최단체인 공주민속박물관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음. 행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방자치단체와 정부 또는 관련 지역 대학의 협업이 필요함. 조직의 확장과 행사의 구성에서부터 관객창출과 관람편의의 방안 창출에 이르는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이 개인의 역량에 의존해서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탈피할 수 없음. 따라서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 지원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전제로 지원금의 확대하여 이 행사의 양적, 질적 수준의 향상을 요구해야 함.

6. 총평

2005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충남 공주 민속극박물관(아리랑소극장, 돌모루당, 천막극장, 놀이마당)에서 제 10회 아시아1인극제가 개최되었다. 올해 제 10회의 행사를 치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올해 행사는 아시아1인극제의 취지가 뚜렷하게 드러날 정도의 안정적인 행사의 형식과 내용을 보였다. 물론 작은 부분에서 취약한 점들도 드러내었고 또 개선해야할 부분도 눈에 띄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필자를 포함한 모든 평가자들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점을 주었다. 아래의 내용은 이러한 평가의 내용들을 총 정리한 것이다.

먼저 본 행사의 사업 목적에 있어서는 평가자 3인이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구 문화 위주로 흐르기 쉬운 문화 축제 가운데 특히 아시아의 1인극 축제를 개최한다는 주최 측의 취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지역적으로도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외되

기 쉬운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개최되는 것이 지역 문화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물론 개최한지 10년이 지난 행사가 갖는 안정적인 사업 진행과 내용이 이러한 긍정적 평가에 일조했음은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 사업 운영에 있어서 평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사업의 내용은 만족할 만 하나 그 형식에 있어서는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그 중 가장 공통적인 의견은 행사를 치르는 극장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 지역의 분위기를 좌우할 정도로 크지 못하고 오히려 조출한 느낌을 주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극장 규모의 개선과 전문 인력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느꼈다. 물론 이에 앞서 지원 예산을 포함한 행사 전체 예산이 좀 더 확충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셋째, 이런 점에서 본다면 사업 내용에 관한 평가는 앞으로 아시아1인극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현재와 같은 레퍼토리의 구성보다는 좀 더 대중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공연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역량 있는 예술 감독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것은 이제 10년을 넘긴 행사가 다음에 고민해야 할 문제가 질적 향상이라고 한다면, 차후의 아시아1인극제는 초청가능한 공연집단의 초청으로 행사를 꾸미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공연 집단의 발굴과 초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관객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홍보 사항에 대한 평가도 현 상태에 대한 긍정적 의견보다는 개선해야 할 지적이 많았다. 올해의 행사가 현재 주최 측이 갖고 있는 최대의 역량을 기울여 치른 것이었다면 차후에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학계 그리고 지역의 공연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좁은 지역성을 탈피해 적어도 공주 또는 충남 지역 전역에 그 행사의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베네치아 카니발의 경우와 같이 지역민을 포함한 축제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 한 가지 방안의 예일 것이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위 사업에 대한 평가자 3인의 의견은 대체로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사업의 형식 즉 행사의 규모, 진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 주된 내용은 대중성 확보의 경우, 사업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이 대중성,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 대중성과 전문성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학계, 지역 예술인, 지역민을 아우르는 운영위원회의 결성과 효과적인 운영의 필요성이었다. 전문성 확보의 경우는 역량 있는 예술 감독의 초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이 역할을 심우성 선생이 맡아 해결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기대에서 이러한 의견을 내렸다. 위 사업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문화의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역량 있는 인재들의 자발적 참여가 넘치기를 기원한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2005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2005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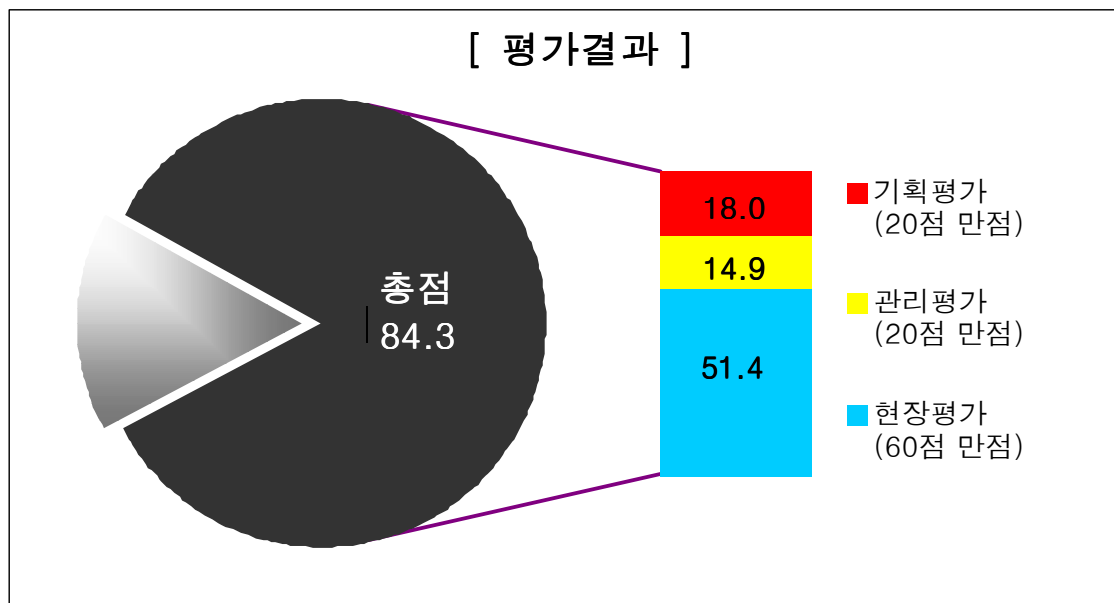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 5. 4 ~ 5. 29
- 장소 : 의정부 예술의 전당(대극장, 소극장, 야외무대, 전시장)
- 주최 :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 의정부 예술의 전당
- 주관 :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경기도 의정부시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5. 4 ~ 5. 29) → 서면평가(2005. 6.) → 개별평가회의(2005. 8. 26)

4. 평가결과 : 84.3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8.0 | 14.9 | 51.4 | 84.3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7.0/7.0 | 5.0/5.0 | 2.0/4.0 | 4.0/4.0 | 18.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55/3.0 | 6.0/9.0 | 6.35/8.0 | 14.9/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0) | 사업내용(30) | 관객서비스(20)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6.0/8 | 16.7/22 | 15.0/20 | 22.1/30 | 15.2/20 | 75.0/100 | 45.0/60 |
| B | 6.4/8 | 21.1/22 | 19.0/20 | 26.2/30 | 19.2/20 | 91.9/100 | 55.1/60 |
| C | 6.8/8 | 20.6/22 | 18.0/20 | 25.8/30 | 19.0/20 | 90.2/100 | 54.1/60 |
| 평 균 | 6.4/8 | 19.5/22 | 17.3/20 | 24.7/30 | 17.8/20 | 85.7/100 | 51.4/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2005년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국제적인 수준의 해외공연단체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선보임. 그 예로, 독일 샤우비네의 <리퀘스트 콘서트>, 다국적 댄스 프로젝트 <와유>등과 같은 실험적인 작품들을 초청하여 동시대 현대예술에서 선행되고 있는 장르간의 다양한 실험을 우리 관객들이 직접 눈으로 체험하게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하지만, 국내 작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외 초청공연이 무용극, 연극, 인형극 중심으로 편성되어 음악극 축제의 정체성을 약화시킴. 총 6편의 해외공연 중 음악극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은 프라하 국립 마리오네뜨 극단의<돈 조반니> 정도. 최초의 음악극축제를 표방하며 축제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려는 노력은 돋보이나 실제로 음악극적 성격은 상당부분 약화되었음.

○ 지역민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려는 축제로서의 성격은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사업 운영

○ 비교적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보이고 있음. 조직도 방만하지 않으며, 주최 측의 변동이 심하지 않아 일정정도의 예술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자체 진단에서도 드러나듯 사업국의 구성이 보다 조기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축제의 완성도는 전년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

○ 일부 해외 초청 팀에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은 개선되어야 함. 독일극단의 <리퀘스

트 콘서트>의 경우, 출연자 두 명의 소품인데 반해 참여 스태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고 스태프 일인당 항공료 숙박비 등을 감안하면 계약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초청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함.

□ 행사 내용

- 독일 샤우뷔네 <리퀘스트 콘서트>, 다국적 댄스 프로젝트 <와유> 등과 같은 실험적인 작품들을 초청하여 동시대 현대예술에서 선행되고 있는 장르간의 다양한 실험을 관객에게 체험하게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음악극축제의 방향성과는 연관이 적은 프로그램 구성은 작품 선정 등 기획단계에서 축제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의 특성화 작업이 필요함.
- 미 2사단 군악대의 야외콘서트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하여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아쉬운 점은 야외 공연 이후나 이전의 운영이 전무하여 단순히 관람하는 것에 그쳐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지역민(관객)에 대한 배려가 없어 참여도는 낮은 편이었음.

□ 관객 서비스

- 전체적인 행사의 진행은 전문적인 스태프 진들의 운용으로 관객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고 특히 지역간 셔틀버스 운영은 이용자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됨. 반면, 일부 실내공연의 경우 관객에게 매표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연이 지연되거나 티켓 교환 과정에서의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운영한 것은 돋보이나 관객을 위한 먹을거리나 여흥거리가 지나치게 부족하였음. 관객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안내요원들의 수를 늘려 우왕좌왕하는 관객의 수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문제점

- 음악극제로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지역축제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함.
- 진행상의 어려움으로 계획수립 단계에서 추진되었던 쇼케이스 등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함.
- 올해는 여러모로 축제 프로그램이 충실하지 않았으며 이는 예산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부재 탓이라고도 할 수 있음. 음악극축제의 방향성과 연관이 적은 무용극, 마임극 위주의 작품선정은 개선되어야 함.
-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힘들게 초청한 외국 단체를 소극장에서 2회 공연으로 그치게 한다는 것은 낭비임.

□ 개선 방안

- 축제와 축제를 즐기는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 큰 거리가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정부 시민축제로서 분명한 방향 재고가 요구됨. 시민과 시민축제에 대한 큰 논의 필요.
-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지닌 성공적인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연구가 필요함. 해외에서의 유명도에 의존하지

않는 개성 있는 작품 선정이 필요함.

○ 해외 초청 작품의 경우 극장의 객석수를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작업이 필요함.

○ 진행요원의 확보 등을 통해 전체적인 기획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민들의 흥겨운 축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시급.

6. 총 평

○ 의정부 음악극 축제의 방향성 : 4회를 맞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행사의 성격을 특성화, 상품화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음악극의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통해 한국 음악극 발전의 베이스캠프로 만들겠다는 예술 감독의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횡수를 거듭할수록 음악극축제라는 목표와는 연관이 적은 무용극, 마임극 위주로 작품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공연된 작품 중에 음악극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은 별로 없다. 그 결과 실내 공연장에서는 무용극, 마임이 공연되고 야외에서는 음악 연주를 하였다는 인상을 받는데 그쳤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성공적인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특성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축제로서의 의미 미흡: 올 해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축제로서의 성격이 다소 미흡하여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야외 공연팀의 경우 1시간 안팎의 자체 공연 이후 바로 해산하는 모습을 보여 축제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모여든 지역민들은 허탈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적당한 먹을거리나 여흥거리에 대한 준비도 부족하였다. 결국 의정부 시민들이 얼마나 이 축제를 즐길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축제의 향수자는 일차적으로 의정부 시민이어야 한다. 축제가 시민들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다거나 시민이 대접받기 보다는 병풍처럼 자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곤란하다. 이제 의정부라는 지역 사회에서 ‘의정부 음악극축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사업 운영 : 사무국이 적은 인원으로 늦게 구성된 것에 비해 비교적 원활하고 깔끔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편성된 예산 운용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독일 샤우뷔네의 공연이다. 샤우뷔네의 <리퀘스트 콘서트>는 지나치게 개성적인 작품이어서 몇몇의 연극관계자들만이 즐길 수 있는 성격이었으며 음악극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출연자가 2명 임에도 불구하고 초청 경비만 8천만 원 정도이다. 이는 국내 5개 참가단체에 지불한 예산(4700만원) 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금액이다. 게다가 그들의 공연은 소극장에서 2회 한 것에 그쳤다. 결국 414명의 관객을 위해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소수관객에게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서 적절한 선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공연료에 비해 작품의 지명도나 공연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작품들이 있었다고 보이며,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2005 경기세계야외공연축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2005 경기세계야외공연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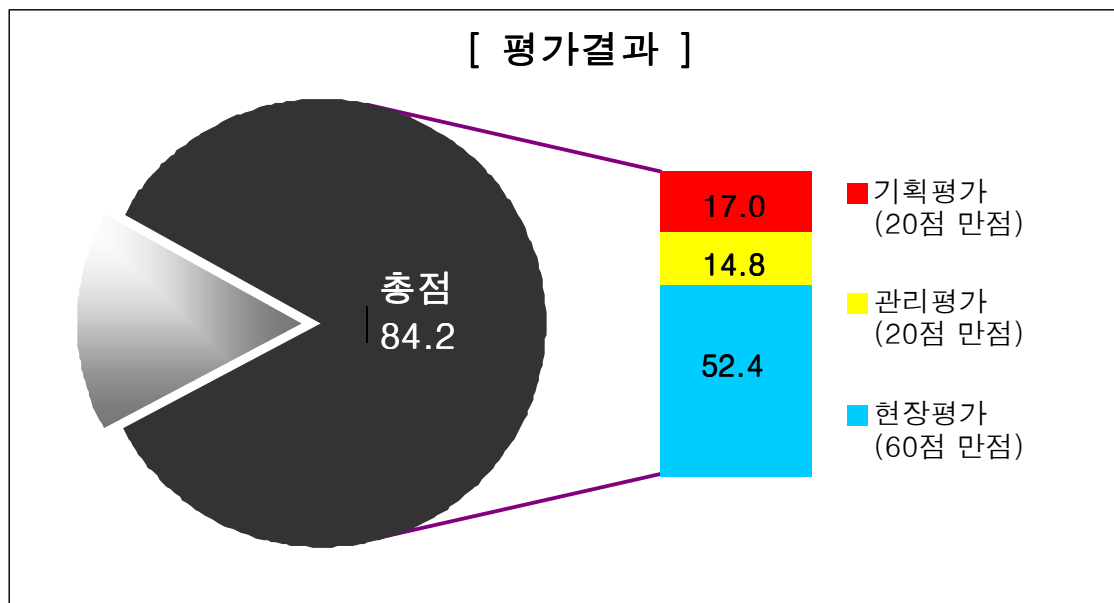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8월 5일~ 8월 9일
- 장소 : 양평 두물 머리, 율희생태학교, 가평 대성리 국민관광단지, 남양주 덕소고등학교, 퇴계원, 어린이공원, 호평동 호평중학교, 구리 장자호수 공원
- 주최 : 세계야외공연축제 집행위원회
- 후원 : 경기도,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양평군,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8.5 ~ 8.9) → 서면평가(2005. 10.) → 개별평가회의(2005. 10.12)

4. 평가결과 : 84.2 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7.0 | 14.8 | 52.4 | 84.2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7.0/7.0 | 5.0/5.0 | 2.0/4.0 | 3.0/4.0 | 17.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1/3.0 | 6.3/9.0 | 6.35/8.0 | 14.8/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0) | 사업내용(30) | 관객서비스(20)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7.6/8 | 19.9/22 | 18.9/22 | 25.0/30 | 18.7/20 | 90.1/100 | 54.1/60 |
| B | 6.4/8 | 18.1/22 | 17.0/20 | 25.2/30 | 15.2/20 | 81.9/100 | 49.1/60 |
| C | 6.8/8 | 19.8/22 | 18.9/20 | 25.7/30 | 18.7/20 | 89.9/100 | 53.9/60 |
| 평 균 | 6.9/8 | 19.3/22 | 18.3/20 | 25.3/30 | 17.5/20 | 87.3/100 | 52.4/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총평 포함)

□ 사업 목적

○ 사업목적 측면

- 세계야외공연축제 2005는 환경친화적인 야외공연예술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북한강변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강조하여 휴양·관광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보임. 그러나 이 축제가 공연예술 향유의 저변확대에는 도움이 되었으리라 보지만, 공연예술 그 자체가 질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는 힘들.

○ 축제의 기반이 되는 지역의 확장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한 제고 측면

- 4회까지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로 진행되던 축제의 명칭이 금년에는 ‘세계야외공연축제-2005 경기’로 변경됨에 따라 축제의 정체성과 축제의 기반이 되는 지역의 장소성의 문제가 향후 본 축제의 커다란 과제로 남게 되었음. 따라서 축제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와 축제의 방향성에 관한 본질적인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축제의 개최지가 경기지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축제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축제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도 체질개선이 필요함.

- 축제의 명칭과 근본적인 지역기반 자체가 급작스럽게 변경, 확장됨에 따라 금년 행사에서는 경기 동북부 북한강의 자연과 환경을 강조하였으나, 전반적인 느낌은 아직 변경된 축제의 방향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유사한 내용의 지역적 확대에 그친 경향.

○ 축제의 정체성 측면

- 행사의 내·외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과 갈등을 감안하더라도 행사의 내용과 프로그램이 질적인 면이나 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보다는 불안정하고 비안정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감스러움.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야외공연축제’를 표방하고 있는 행사의 국제성이 많이 퇴색된 느낌.

- 프로그램과 더불어 관객참여 측면에서도 ‘국제’ 또는 ‘세계’라는 명칭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또한 5회를 맞는 축제가 지니는 축제기능과 축제를 구성하는 내용과 프로그램의 발전적인 모습과 신뢰도가 상실된 측면이 있어 아쉬움.

- 축제의 국제성, 예술축제로의 전문성,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지역축제로서의 정체성, 야외공연과 환경축제를 표방하는 축제의 주제와 내용이 상충되는 갈등요소가 행사 곳곳에서 이질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프로그램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를 느낌.

□ 사업 운영

○ 축제조직구성 측면

- 한국의 축제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임진택 집행위원장의 고심한 흔적이 보이며, 지역기반이 확대된 만큼 조직의 규모와 형식의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고문, 자문위원, 후원회, 집행위원회(기획, 작품선정, 대외협력, 지역추진) 사무국, 자원활동가 등 형식적인 모임이 아닌 실제로 각자의 역할이 있는 조직이 되기를 희망함. 또한 공연예술프로그램 뿐만이 아닌 전문적인 분야(음향, 무대, 미술감독, 마케팅, 국제교류, 지역행정, 재원조성)의 인적자원의 확보 및 충원을 통해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짜임새 있고, 개방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이 만들어져 축제운영의 모델이 되기를 바람.

○ 축제사이트 운영 측면

- 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아 축제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된 편임. 그러나 주 공연장과 지역별 축제 공연장 간에 긴밀성이 떨어지는 편임. 지역별 축제의 목적을 좀더 명확히 하여 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연리허설을 통해 점검했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공연섹션간의 인접성으로 말미암아 소음 때문에 특정 공연이 방해를 받는 사례가 있는 등, 운영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 행사의 권역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지역을 축제의 사이트로 선정하였고, 찾아가는 공연이 확대됨에 따른 행사운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사료됨. 그러나 경기 북부 지역의 다양한 장소와 자연환경을 축제 사이트로 개발하고, 보다 많은 지역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 점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축제의 명칭과 특히 참여행사의 경우에 사전 홍보물이나 계획서의 내용과 현장에서의 진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김. 순회공연의 증대와 지역의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도는 좋으나 장소성을 충분히 살린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행사 장소에 대한 안내, 행사운영에 있어서도 미숙함이 드러남. 즉 실내 공연을 야외에다 그냥 옮겨놓아 내용 전달에 문제가 많았고 지역 주민이 아니라서 그렇겠지만 행사장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음.

- 축제공간과 지역에서 치러지는 축제 공간 간의 긴밀성이 높아져야 함. 현재로서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의미가 크기는 하지만, 해당 지역민들이 그 지역에서의 행사를 통해 공연예술 향수의 기회를 누리는 동시에 주 축제공간으로까지 발걸음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

- 그게 아니라면, 해당지역민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고 주 축제공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공연들을 배치하여 주 축제공간을 찾았던 관객들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

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요컨대 지역별 축제의 정체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으로서는 주 축제공간을 찾은 외부관객(非지역민)이 지역별 축제를 관람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힘들었음.

- 또한 행사시기가 가장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 개최되어 행사장을 방문하기까지 교통체증의 심하였고, 축제를 관람하기에는 기후적인 문제 (지나치게 더운 날씨)가 심각한 장애로 발생하여 야간프로그램 중 일부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공연관람이나 행사참여가 매우 힘든 상황임. 향후에는 행사개최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였음. 2004년과 비교하면 사업운영이 일정부분 안정적으로 보였으나 남양주시와의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음. 향후 남양주시와의 타협과 지역적인 협조에 대한 여지를 남겨 놓아 관계재설정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함. 남양주지역의 자연적, 지리적인 특성이 축제에 계속 반영되기를 희망함.

○ 경기북부 및 찾아가는 순회공연

- 대성리, 남양주, 구리 등지에서는 지역별 축제가 열려 해당 지역민들의 공연예술 향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기회가 되었음. 8월 7일 남양주 호평중학교에서 열린 행사의 경우, 본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행사종료 시간이 지연되었는데도 끝까지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주었음.

- 이는 구리지역의 장자호수공원, 퇴계원 어린이공원, 덕소고등학교 모두 지역주민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서 공연이 진행되었고, 지역 추진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돋보였음.

- 공연 내용에 있어서도 풍물 공연 출연자들의 기량이 뛰어났고 광개토 시범단 단원들의 개인 기량과 무대 연출능력이 뛰어남. ‘오월의 신부’는 공연의 질이나 내용을 떠나서 지방 고등학교의 강당을 분위기 있는 공연장으로 변신 시켜 놓은 것이 축제의 백미였음. 반면에 행사명에 어울리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 점이 과제로 남음.

□ 행사 내용

○ 초청공연의 내용 및 프로그램 측면

- 해외초청공연 편수가 적어 국제적 규모의 수준에는 미흡했음. 프로그램의 예술적 완성도가 썩 높은 편은 아님.

- 5회를 맞이하는 축제의 축적된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인 발전과 국제적인 위상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함. 국제성이나 세계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세계축제’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고려해 보아야 함. 특히 외국인 관객이나 전문가의 참여와 관람이 매우 저조하였고 해외초청공연도 구색을 맞춘 느낌이 강함. 국내프로그램의 경우 작품의 수준과 장르가 혼용되어 혼돈스럽고, 예년과 비교하여 새로운 시도와 기획의 참신함은 없었으나 자연적인 장소를 개발한 것은 좋은 시도라고 여겨짐.

- 예산 문제가 따르기는 하지만 리허설을 통해 예측가능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가령, 오데트 정원에서 조용한 기타 연주(<클래식 기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양서문화체육공원으로부터 격렬한 음악이 들려와 행사 자체가 집중력을 잃어버려 엉망이 되어버린 예가 있다. <황포돛배 선상 풍류마당> 역시 두물머리로부터 세미원 강가로 이동하며 진행되었으나 세미원 강가에 근접해서야 노랫가락을 들을 수 있었고 그나마 음향의 불안으로 아무런 감흥을 느낄 수 없었다. 또한 지역별 축제에 동원된 음향 스태프의 부주의로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예도 있다. 사업운영상 아주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행사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야외공연예술의 육성 기반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공연예술’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는 거의 모든 장르가 포함되었는데, 이 축제를 대변할 만한 기획 공연이 마련되어야 함. 아니면 올해와 같이 진행될 경우 다소 산만하고 어수선했던 행사가 될 공산이 큼. 야외공연예술의 진작을 위한 기획력이 필요하며, 특히 해외초청의 경우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소림웅풍>에 대한 관객의 호응도는 폭발적이었지만, 그것은 차력사에 대한 놀라움과 같은 것이며, 어떤 부분은 다분히 쇼와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음.

○ 행사장 구성 및 참여행사

- 참여행사의 경우에는 환경과 생태를 내세운 기획의 의도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많았고 구성에 있어서도 일관적이지 않아 혼란스러움. 이러저러한 부대행사들도 많았지만 관객들의 참여도는 낮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제한할 필요도 있어 보임.

- 야외축제가 지니는 어려움은 있겠으나 행사장의 사인, 홍보물, 기타 설치물이나 무대, 연출 등이 완성도가 떨어지고, 환경친화적이라는 주제를 공연내용이나 연출에 접목하기 보다는 단지 자연을 배경으로 한 공연과 산만한 구성의 부대행사가 대부분이었음.

- 세미원 강가에서 진행된 황포돛대 선상풍류마당 공연에서는 나룻배에 설치된 모터보트가 강가를 빠르게 순회하여 황포돛대의 풍류를 느끼기에 역부족이었고, 한복을 입고 마이크를 든 공연자들의 모습에서 이질적인 느낌을 받음. 또한 음향의 문제가 심각하여 공연을 감상하기 어렵고 클래식기타 공연 때는 여러 소리가 뒤섞여 공연관람이 어려웠음. 두물머리에서 공연된 연극은 두물머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두물머리 공연은 연극보다는 자연을 그대로 배경으로 한 음악공연이 적절해 보였음.

- 야외 공연용으로 각본, 조명, 음향, 미술의 연출의 보다 세밀한 연출과 완성도가 요구됨. 진입로 표시 등 행사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공연시간 가까이는 길안내 도우미를 세우기 바람. 일정과 장소를 고정시키고, 차기 행사가 동시에 기획되어 행사의 연속성을 보여 주기 바람. 문예진흥원 예산만이라도 당해연도가 아닌 차기 년도 준비비로 지급되어서 미리 기획 할 수 있기를 바람.

□ 관객 서비스

-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변 지역이 지나치게 혼잡하여 현장을 찾아 이동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행사장에 부설로 마련된 장터의 폭리는 여전하여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줌. 행사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책자가 없었고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장소, 시간 등을 숙지하지 못해 안내에 도움이 되지 못함.

- 지역민의 높은 참여로 관객 점유율은 우수한 편이고 호응도도 좋았음. 자원봉사자들의 친절도는 높음. 기본적인 편의 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식음료 등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 행사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객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었음.

□ 문제점

- 축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진화와 발전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한 축제의 목적과 방향이 재정립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함. 축제의 대상과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사업운영, 재정, 조직 등의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임.

- 주 공연장과 지역별 축제 공연장 간의 긴밀성이 떨어짐 : 지역별 축제의 목적이 ‘찾아가는’데 목적이 있다면 주 축제공간의 공연작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주 축제공간에

서는 볼 수 없었던 공연들이 있었고,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공연장을 찾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해외초청공연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고, <소림웅풍>처럼 관객의 반응은 뜨거웠으나 이 축제의 성격과 부합한다고는 할 수 없는 예도 있었음.

□ 개선 방안

- 축제의 기반이 되는 지역이 남양주에서 경기도로 변경됨으로써 장소가 다변화됨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우선적으로는 기존의 축제가 지니고 있던 축제의 주제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축제조직이 결성되어야 함. 축제의 방향에 있어서도 지역축제의 성격과 예술축제의 성격이 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명확한 지향점을 찾아야 함.
- 지역별 축제의 프로그램을 <주 공연장의 프로그램 + 해당지역민의 참여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해당 지역의 축제로 만드는 동시에 주 축제공간으로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주 축제공간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공연도 유치하되 주 축제공간에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리허설을 통해 기술상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고 해외초청공연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 여러 가지 사정과 축제추진위의 노력을 상기해 보면 ‘세계야외공연축제 2005’는 분명히 발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임.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경기지역의 문화다양성에 기여하고 지역민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임. 향후 상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다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함.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제18회 전국민족극한마당 평가결과 -

1. 사업명 : 제18회 전국민족극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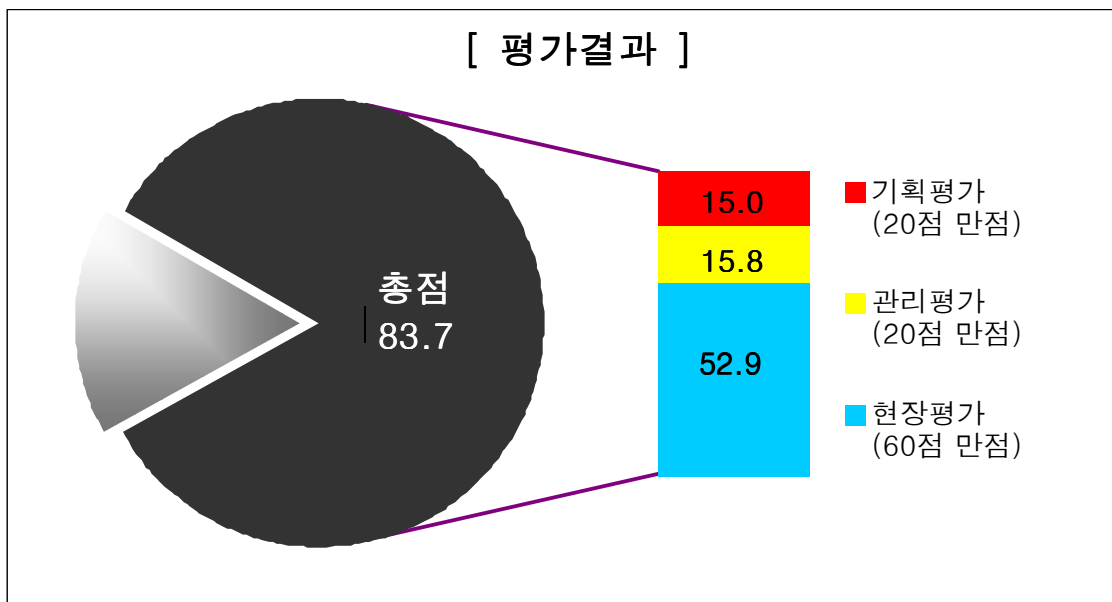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8월 4일 ~ 2005년 8월 7일
- 장소 : 경상북도 성주군 성 박 숲과 그 일원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민족극운동협회
- 주관 : 전국민족극한마당 집행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성주군, 성주문화예술회관, 금수문화예술마을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8. 4. ~ 8. 7.) → 서면평가(2005. 9.) → 개별평가회의(2005. 10. 14)

4. 평가결과 : 83.7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5.0 | 15.8 | 52.9 | 83.7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7.0/7.0 | 2.0/5.0 | 2.0/4.0 | 4.0/4.0 | 15.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1/3.0 | 7.65/9.0 | 6.05/8.0 | 15.8/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동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0) | 사업내용(30) | 관객서비스(20)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7.6/8 | 19.8/22 | 18.0/20 | 28.2/30 | 18.5/20 | 92.1/100 | 55.2/60 |
| B | 8.0/8 | 19.7/22 | 18.0/20 | 27.6/30 | 17.4/20 | 90.7/100 | 54.4/60 |
| C | 6.8/8 | 17.3/22 | 16.9/20 | 24.6/30 | 16.0/20 | 81.6/100 | 49.0/60 |
| 평 균 | 7.5/8 | 18.9/22 | 17.6/20 | 26.8/30 | 17.3/20 | 88.1/100 | 52.9/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명확한 축제 테마가 돋보임. ‘연극’ ‘연극인’ 등 창작자 중심의 축제라는 점과 연극마니아, 혹은 마당극 마니아들처럼 구체적인 취향과 적극적인 문화향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잠재 관객 등은 특화된 공연예술축제로의 발전가능성이 보임.
- 전통연회를 민중적으로 접근하여 현대적 재창조를 위한 작업방식과 수준을 공유하기에 적합한 행사임.
- 단순 공연뿐만 아니라 워크숍 및 공동 숙식을 통하여 정체성 확인 및 서로의 창조적 역량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되었음.
- 창작자들이 중심이 되어 연극적 실험, 연극적 실천에 대한 교류와 소통, 논쟁이 축제내용을 주도하였고, 군 단위에서 개최되는 전국행사로서 문화 소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성주에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소외된 농촌사회에 문화적 혜택의 기회 제공과 지역 문화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음.

□ 사업 운영

- 순수 민간주도의 축제로 출발하였음. 초기 민간주도의 자생적 동력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음.
- 행사장 전반에 관한 안내 체계는 다소 미흡. 역외지역의 방문객이 행사장으로 가는 안내 홍보물 체계 미흡
- 자원봉사와 워크숍을 결합한 ‘대학생참관단’은 적극적인 관객개발 프로그램으로 주목됨. 자원

봉사활동을 통해 축제를 보다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더불어 자원봉사자활동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워크숍을 통해 훈련방법들을 소개받고 기성연극인 창작자들과 밀접한 교류를 나누고, 창작자 중심을 표방하면서도 적극적인 관객층, 향수 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함.

□ 행사 내용

○ 주 행사장인 성 밖 숲 세 개의 공연장에서 하루 평균 4-5편, 성 밖 숲 외에 성주군 내의 문예회관과 한 개 마을의 공연, 그리고 두 곳은 성 밖 숲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축제의 통합성이 떨어짐.

○ 주공연장 주변은 물론 성주군 시가지 곳곳에서 펼친 거리공연은 공연장에 한정되지 않는 축제의 확장, 젊은 공연자들의 실험의 장, 새로운 예술체험 등 다양한 역할과 시도를 보임.

○ 개방적인 콘서트, 젊은 배우들의 재기발랄한 소규모 공연 등 내용과 진행 전반의 분방함으로 공연예술의 직접성 현장성 그리고 축제의 일탈을 관객이 함께 체험함. 특히 '신새벽난장'은 늦은 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으로 관객과 공연자가 어울리는 뜨거운 분위기였음.

○ 워크숍은 창작자들 간의 교류의 장으로 명상춤, 거리극, 코미디 등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었고, 부대행사로 개막 전에 진행한 연극교실은 축제 지역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함.

○ 일부 공연에서 발견되는 과격한 발언 및 욕설 등이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적합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 있음. 농촌사회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공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자체판단 필요.

□ 관객 서비스

○ 객석참여와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행사인 만큼 어린이 연극 교실, 연극인들이 펼치는 워크숍 등이 제공됨.

○ 축제 홈페이지와 공연관련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행사에 대한 정보 접근은 용이했고, 안내부스 주변에 물물교환장터를 운영하여 현물과 몇몇 유료 공연의 티켓을 교환할 수 진행됨.

○ 행사장 안내도가 있긴 있었으나, 단 한 장의 현수막으로 처리한 것, 화장실 안내 등에 다소 미흡

○ 지역민 외에 외부에서 축제를 관람하러 오는 관객들을 위한 숙박 등 정보제공이 미흡함.

□ 문제점

○ 개막 사전행사로 실시된 길놀이는 더운 날씨인 탓인지 활기와 신명, 또는 볼거리가 부족했고, 운영 및 홍보, 그리고 현장 안내체계관리 등에 다소 미흡하였음. 특히 행사장이 군단 기초단체임을 감안한다면 외지 관람객 유치와 접근성 제고에 노력을 하여야 했으나, 전혀 그에 대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음.

○ 마당극, 민족극이라는 명료한 테마나 창작자 중심이라는 축제 성격 상 마당극 마니아 연극마니아와 같이 특화된 관객층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잠재관객을 개발하기 위한 홍보전략, 성주 이외 지역의 관객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편의정보 제공 등이 필요함.

○ 성주의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축제운영에서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시도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함. 한개 마을 공연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지역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에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축제의 프로그램을 다양화는 물론 지역연계

성을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개선 방안

-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고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즐겁고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잔치와 축제라는 이미지를 보다 부각되길 바람. 전국민족극한마당이 성주 시민들의 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람.
- 18회의 연륜을 바탕으로 민족극의 성숙은 어느 정도 이루었으나, 그에 어울리는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운영과 관리, 홍보 등의 전문성과 세밀함이 필요함.
- 잠재된 적극적 관객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언론홍보이외도 특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함.
- 축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민족극 행사를 알리는 깃발 등을 사용해도 좋을 듯함. 시내에서 성주 숲으로 들어가는 길에 조그만 깃발 등을 촘촘히 꽂아 놓으면 축제 분위기가 더 높일수 있을 것 같고, 자신들만의 공연이 아닌 일반 주민, 외지 관람객들을 위한 안내 체계, 서비스 체계 등이 개선되어야 함.
- 성주군과 밀접한 연계를 통하여 청소 및 관람객(성주지역이외의 관객 포함) 서비스 대책 필요함.
- 성주군 홍보 및 특산물 등의 판매 홍보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도 좋을 듯함.

6. 총평

민족극한마당이 18회를 맞이했다. 정치적 대변혁기인 87년에 처음 개최되어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민족극한마당을 통하여, 민족극은 시대의 고민을 담아내는 한국적 연회 양식으로서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한때 한국공연예술계의 변방 혹은 별난 부류로 치부되기도 하였지만, 18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 누구도 민족극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당당한 무게감으로 우리 앞에 서있다. 이는 민족극 계열의 작가, 연출가, 배우들의 활동상에서도 드러난다. 그들을 통하여, 한국연극은 전통의 양식과 투철한 정신을 수혈 받아 더 건강해지고 풍요로워졌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극한마당은 전국의 민족극 전사(?)들의 교류와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민족극 발전에 기여했고, 또한 일반 관객들의 인식전환과 친밀감 형성에도 기여했다.

이번 제18회 민족극한마당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열정들을 보여주었다. 공식참가 작품과 자유참가 작품 26편의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하여 어린이, 대학생, 관계자 모두를 품어 안는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였다. 또한 매일매일 작품토론회를 거쳐 민족극의 내실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치열한 의식의 지향점도 보여주었다. 18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채로운 행사 구성을 통하여 대중성과 전문성을 획득하고자 노력이 엿보였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의 기획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경험 속에서 획득된 노하우를 피드백 시키는 과정 속에서 다져진 행사 기획이라 보인다.

또한 민족극한마당은 그 행사가 개최되는 경상북도 성주군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대체로 문화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단체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활성화는 물론 문화적 소외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의 향수권 신장과 현실 문제에 대한 각성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은 문화가 단순히 특정계층의 전유물이 아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약화되기 쉬운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재확인하는 실험의 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족극한마당이 연례 순회·개최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한 거점을 마련하고 집중적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민족극한마당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지점에서 평가위원 각자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A평가위원의 경우, 첫째 특화된 공연예술축제로서 가능성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둘째 마당극 마니아와 같은 특화된 관객층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셋째 성주군의 문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B평가위원의 경우, 첫째 성주군 주민(특히 노년층)들이 적극 관람할 수 있는 유도 책이 부족하였다는 점, 둘째 성주군과 연계하여 성주군의 지역축제로 활기차게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C평가위원의 경우, 주로 운영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바, 첫째 행사장 안내 및 편의 시설의 부족, 둘째 외지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등의 지역 마케팅 부족 등을 꼽았다.

18년의 연륜은 내적인 성숙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르는 형식과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숙달된 모습이 동시에 요구된다. 어차피 민족극한마당이 민족극 내부의 행사가 아닌 지역과 함께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 운영의 기술적 측면도 집중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제 축제는 단순히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던 과거의 축제와 달리, 지역 마케팅의 도구로써 활용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민족극한마당은 이제 그 축제의 지리적 장소를 제공하는 성주군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역과 연계한 홍보,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연계된 전시 및 판매행사, 지역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축제 아이템, 성주군의 문화유산에 대한 소개 등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장 안내 사인물, 안내요원 배치, 공연장 안내 및 편의시설 확충, 청소 등의 운영 관리의 매끄러운 진행이 요구된다.

이제 민족극은 18년 전의 모습과 위상이 아니다. 또 민족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마당극이 탄생하던 그 이전의 상황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21세기 새로운 문화변혁기에 깊이 들어와 버린 민족극은 과거처럼 일부 계층이나 당파적 이해를 표출해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 지식인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더더욱 안 된다. 그 내용과 형식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내부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적어도 대중과 접촉하는 창구로서 ‘민족극한마당’은 축제로서 기본적 운영 매뉴얼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참가작품의 내용과 형식도 단위 공장이나 농성장이 아니고, 지극히 소외된 농촌지역의 평범한 주민들이라는 점도 그 매뉴얼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고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20세 성년을 맞이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좀더 새로운 형식의 자기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제5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제5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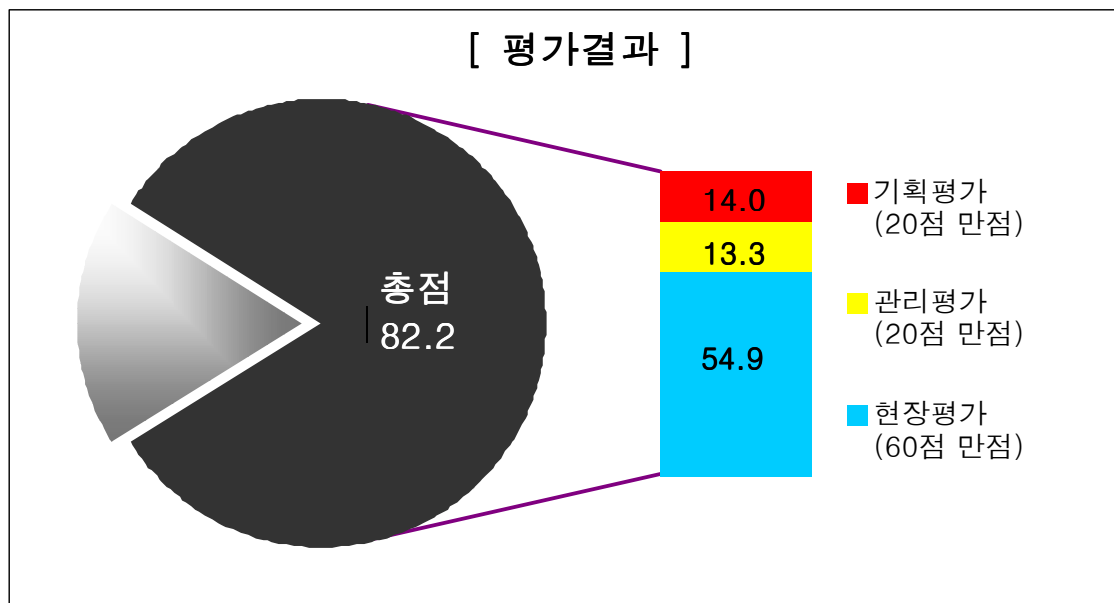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7월 16일 ~ 2005년 7월 31일, 16일간
- 장소 : 밀양연극촌(우리동네극장, 숲의 극장, 실내창고극장), 밀양시(미리별관, 남천강변 야외무대)
- 주최 : 밀양시, 마산MBC 밀양연극촌
- 후원 : 문화관광부, 경상남도, 문예진흥원, 독일문화원, 국립밀양대학교, 한국연극협회, 밀양경찰서, 밀양소방서, 밀양여성단체협의회, 밀양시의회, 밀양교육청, 예총밀양지부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7. 16 ~ 7. 31) → 서면평가(2005. 8) → 개별평가회의(2005. 10. 17)

4. 평가결과 : 82.2 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4.0 | 13.3 | 54.9 | 82.2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7.0/7.0 | 1.0/5.0 | 2.0/4.0 | 4.0/4.0 | 14.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1/3.0 | 5.55/9.0 | 5.6/8.0 | 13.3/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0) | 사업내용(30) | 관객서비스(20)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8.0/8 | 21.2/22 | 19.6/20 | 29.5/30 | 19.2/20 | 97.5/100 | 58.5/60 |
| B | 7.2/8 | 20.2/22 | 18.0/20 | 26.0/30 | 18.7/20 | 90.1/100 | 54.1/60 |
| C | 6.8/8 | 19.7/22 | 17.0/20 | 25.7/30 | 17.8/20 | 87.0/100 | 52.2/60 |
| 평 균 | 7.3/8 | 20.4/22 | 18.2/20 | 27.1/30 | 18.6/20 | 91.5/100 | 54.9/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지역축제 행사로서의 2005 밀양공연예술축제는 그 사업목적에 적절하게 지역 문화의 육성과 관객 수요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국내외 젊은 연극인들의 교류와 소통 속에서 한국연극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공연예술 축제의 장으로서 개최되고 있는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는 축제의 개최목적에 맞게 밀양지역과의 원활한 연계 속에서 활력 있는 공연예술축제로 개최되고 있다고 판단됨.
- 전반적으로 축제프로그램 수준이나 기획구성력이 탄탄한 편이며, 2001년 시작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지역에 정착하고 있음. 밀양연극촌의 일상적인 활동이 축적되다가 축제시즌에 모아지는 방식이므로 지역에서 개최되는 공연예술축제로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젊은 국제실험연극제를 표방하며 올해부터 단순한 연극제 교류공연 차원을 넘어 젊은 국내, 해외 연극인들의 국제적인 협력 작업을 통한 새로운 연극 만들기의 실험현장, 그리고 젊은 연극, 무용전공자들에게 새로운 연기술과 안무법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연예술 워크숍 등은 다소, 전문 공연예술인들과 그들의 공연적 실험에 익숙한 관객들을 겨냥한 기획이라 보여 진다. 이에, 인근지역 주민들을 아우르며 일반인들을 대거 유치하여 밀양의 이미지 개선, 밀양관광문화 및 향토음식, 특산물 개발에 이르기 까지 밀양을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는 주최 측의 목적과는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 사료됨.

□ 사업 운영

- 국내외적으로 평가받는 수준 높은 공연예술 축제가 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매우 적절하게 운영되어 그 파급 효과에 극대화를 꾀한 점이 돋보인다. 향후 지역 문화 창달과 수준 높은 관객 창출을 위해 상향조정된 관계 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함.
- 밀양연극촌에서의 축제운영은 대체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05년 새롭게 시도한 강변무대의 경우 몰려드는 많은 관객들을 운영하는데 다소 혼선을 빚기도 하였지만 처음 축제장소로 활용되는 곳이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대처방식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밀양연극촌과 밀양 시내 실내극장에 국한되었던 축제를 올해엔 밀양시 중심에 위치한 남천강변으로 확대, 일반인들의 참여를 확대시킨 점은 바람직함.
- 올해 경선제로 바뀐 젊은 연출가전, 대학극전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고 수준 있는 작품을 겨냥한 점 등은 새로운 시도이나 그 선정 작품들과 공연양식상 일관성이 배제되어 합리적인 심사기준과 정당한 평가과정이 수월하지 않았음.

□ 행사 내용

- 밀양연극촌 3개 극장과 강변극장에서 대학극/젊은 연출가전/기획공연/국내외 공식초청 공연/이윤택전 등으로 나뉘어 효율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기획공연 2에 삽입된 '어린이 명창무대와 어린이 극(토끼와 자라)와 '시 낭독 행위전'(7월 27일)은 다채로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해준 무대였다. 해외 공식 초청작들도 훌륭한 작품들로 지역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관객의 재미를 더해준 것으로 평가됨.
- 전반적으로 행사내용은 축제의 목적과 기획에 부합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됨. 특히 축제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젊은 연출가전과 대학극전은 밀양공연예술축제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있어 축제의 성격에 맞는 젊은 열기를 축제현장에서 잘 느낄 수 있었음.
- 공식초청작 국내 3편, 해외 4편, 젊은 연출가전 11편, 대학극 9편, 기획공연 5편, 연희단거리패 고정 레퍼토리 3편 등 총 35편의 작품이 춤, 마임, 행위, 연극, 시...등의 장르의 벽을 넘어 다소 지나치게 다양하게 펼쳐짐.
- ‘접촉’이란 올해의 테마에 걸맞은 점도 있어 보이나 춤극, 마임극, 시극, 시낭송, 시행위공연, 그 외 대사위주의 공연, 젊은 연극, 노장들의 고정 레퍼토리, 동양, 서양, 고전, 현대 등 축제의 주된 색깔과 그 정체성에 혼선을 빚을 수 있음.
- 예상보다 빈약하게 치러진 전통공예학습체험 부대행사, 다소 일관성 없는 워크숍 커리큘럼, 행사장 자체의 산만한 공간배치 등이 아쉬움.

□ 관객 서비스

- 밀양 연극촌 내에 마련된 간이식당과 매점 등을 통한 편의 시설과 무료로 운행되는 셔틀 승합차 등 주최 측의 치밀한 관객 서비스 정신이 돋보이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보다 격조 있고 수준 높은 지역 예술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지원과 시설 투자가 절실함.
- 관객서비스는 비교적 무난한 편임.
- 타 지역민들을 위한 배너, 플래카드 등을 이용한 거리 홍보 등이 미비하고 주. 관객을 행사장

초입부터 축제 현장으로 인도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함.

- 주차시설이 충분치 않아 행사장 한가운데 차량들이 가득하고 다소 산만한 주변여건에 비해 관객들은 격의 없이 편안해 하는 모습 이었음.
- 전 공연자들과 일부 관람자들이 축제현장에서 한데 숙식을 한다는 점은 공연관람뿐 만 아니라 참여자들 간의 정보교환과 친목도모, 탈일상적인 축제분위기 창출을 용이함.
-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각 작품 당 해설이 자세히 되어 있어 예약하기에도 용이하게 꾸며져 있음.

□ 문제점

-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미비한 시설과 어수선한 주변 환경을 들 수 있다. 폐교를 개축하여 크고 작은 공연장을 꾸며 운영한다는 방식 자체는 평가 할 만 하지만, 가건물 식으로 여기저기 칸막이로 막아 여러 가지 시설을 꾸며 운영하는 현 체제는 아무래도 미래 지향적이라고 말하기 곤란함. 그리고 극장 진입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변이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딘지 고립된 느낌이 들며, 주변에 연계된 시설들이 조성되지 않은 관계로 숙박 및 식사, 그리고 주변 관광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임. 밀양 지리를 잘 모르는 관객이 자가용으로 방문할 경우 교통 표지판만으로는 찾기 어려울 정도. 극단 측에서 자구책으로 운영하는 무료 셔틀 버스(11인승 승합차)도,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밀려드는 관객들에게 골고루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됨.
- 전반적인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핵심적인 축제장소로서 밀양연극촌과 새로운 축제공간으로 사용된 강변극장 외에도 밀양시내, 밀양연극촌과 강변극장으로 이어지는 곳곳에 축제와 관련된 홍보물이나 사인 등이 보다 풍성하게 연계되는 것이 필요함.

□ 개선 방안

- 밀양시와 경남도청 등 지방자치 관계 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교통 표지판 등을 보충하여 외지인들의 진입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밀양 연극촌을 찾는 관객들의 숙박 식사 등 편의시설들을 대폭 개선하여 밀양시를 경남지방 공연예술의 메카로 키워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이와 같은 외적 환경의 개선과 병행하여, 폐교초등학교를 아쉬운 대로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 극장 및 사무행정 공간, 참가 연극 단원들 합숙시설 등도 대폭 개선할 것이 시급한 데, 이는 구미 선진국들의 예를 참조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영국 스트라트포드-업온-에이븐에 소재한 셰익스피어 극장이나 미국 오레건 주에 소재한 애쉬빌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극장 등을 모델로 한국 공연예술의 진수를 장르를 초월하여 관람할 수 있는 '멀티콤플렉스 시어터'의 형식이 가장 훌륭한 대안이 될 것임.
- 축제스텝 및 자원봉사 운영에서 보다 축제운영조직으로서의 전문성이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봄. 주로 연극인 혹은 예비연극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 축제의 주체이지만 일반 관객들에게는 축제조직의 운영자로서의 충실한 안내자이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어야 하는데, 때때로 축제에 참가하는 주체로서의 모습이 부각되기도 하였음.
- 국제적으로 그 범위를 넓힐 것이 아니라 밀양 연극촌과 그 안에 상주하는 연희단거리패의 특성을 살려 우리의 전통연희를 기초로 하는 신명나는 난장으로의 축제현장, 연희자와 관람자들이 실제로 어우러 질수 있는 토속적이고 민속적인, 자연친화적인 축제를 겨냥하여, 타 지역 축제와의 차별성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 함.

6. 총평

2005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 사업 개별 평가회의에서 개진된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제 5회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2005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모범적인 행사 운영과 타 지역 공연예술축제에 비해 수준 높은 작품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관객 확보 등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폐교초등학교를 개조하여 복수의 크고 작은 실내외 극장이 구비된 공연예술 복합공간으로 활용하여 인근지역의 잠재 관객층의 수요를 개척해가며 지역문화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밀양연극촌의 노력과 성실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이제 5년차인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가 아직은 미흡하기만 한 연극촌의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축제기간동안 인근 지역의 관객층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은 타 지역 공연예술축제 주최자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이는 밀양연극촌을 이끌고 있는 이윤택과 하용부를 중심으로 뚝뚝 뭉쳐 전진하고 있는 연희단거리패의 공연예술에 대한 신념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여겨진다. 이러한 그들의 행보는 앞으로 지역문화창달의 선봉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및 행정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해마다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점 (올해의 경우에는 ‘접촉’이 그 주제였음)은 바람직한 점이지만, 대사위주의 정극에서부터 춤극, 마임극, 시낭송, 시낭송행위전(실험극), 아카펠라 뮤지컬, 젊은 연출가들의 실험성 짙은 퍼포먼스, 그리고 마당극을 변형한 듯한 야외극에 어린이 판소리까지 방대한 카테고리의 다양한 공연들을 길지 않은 행사 기간 동안에 모두 시도된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해외 초청 공연의 경우에도 행사의 주제에 걸맞은 단체를 초청하기보다는 제한된 예산에 맞추어 초청된 단체가 행사 주제에 맞추려고 노력한 듯 한 인상이 더 짙어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다.

손 숙씨가 주연을 맡아 열연한 “어머니”와 강부자씨가 직접 출연한 “오구” 등과 같이 이미 서울에서 검증받은 연희단거리패의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축으로 적절하게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행사 기간 중 관객동원에 성공을 거둔 점은 평가 할 만하지만, 점차적으로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과 보다 전문적인 기획 및 홍보 등 축제 운영 전반에 걸친 소프트웨어의 인프라 확대 및 보다 쾌적한 시설을 갖춘 복합 공연예술 공간으로서의 하드웨어 인프라 확충 등은 매우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1-2년 내에 이러한 점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미비할 경우, 이제 겨우 타오르기 시작한 밀양공연예술축제의 불길은 서서히 꺼져갈 운명이라는 사실은 평가위원 전원의 공통된 의견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 측의 분단 없는 노력과 행정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앞으로 지방 문화 예술의 선봉에서 밀양공연예술축제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밀양 연극촌은 연희단거리패의 명성에 걸맞은 정체성을 더욱 발전시켜 한 판 놀이판, 평가용 행사가 아닌 공연자와 관람자가 한 데 어우러지는 축제마당으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한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2005 서울국제공연예술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2005 서울국제공연예술제(THE 5TH SEOUL PERFORMING ARTS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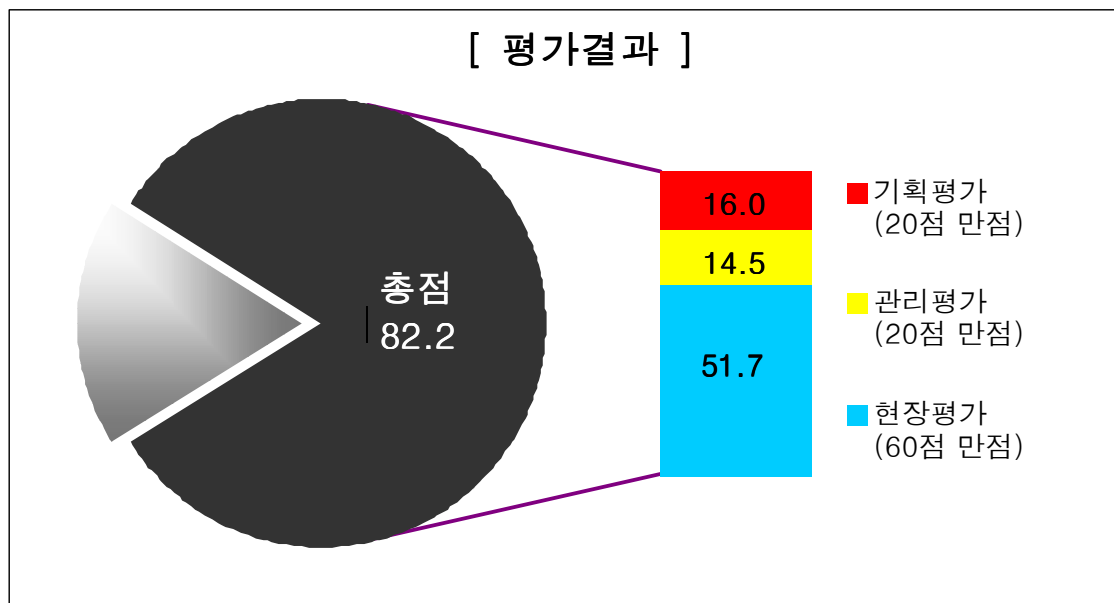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9월 23일(금) ~ 10월 16일(일)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구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충무아트홀 등
- 주최/주관 : (사)서울국제공연예술제
- 후원 :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5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9. 23 ~ 10. 16) → 서면평가(2005. 12) → 개별평가회의(2005. 12. 9)

4. 평가결과 : 82.2 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6.0 | 14.5 | 51.7 | 82.2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7.0/7.0 | 3.0/5.0 | 2.0/4.0 | 4.0/4.0 | 16.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55/3.0 | 6.3/9.0 | 5.6/8.0 | 14.5/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2) | 사업내용(34) | 관객서비스(14)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7.2/8 | 19.3/22 | 20.6/22 | 30.6/34 | 12.8/14 | 90.5/100 | 54.3/60 |
| B | 6.4/8 | 18.4/22 | 17.6/22 | 26.6/34 | 11.6/14 | 80.6/100 | 48.4/60 |
| C | 6.4/8 | 19.3/22 | 17.4/22 | 27.8/34 | 11.4/14 | 82.3/100 | 49.4/60 |
| D | 6.8/8 | 19.0/22 | 18.4/22 | 27.8/34 | 12.0/14 | 84.0/100 | 50.4/60 |
| E | 7.6/8 | 19.8/22 | 20.4/22 | 31.2/34 | 14.0/14 | 93.0/100 | 55.8/60 |
| 평 균 | 6.9/8 | 19.2/22 | 18.9/22 | 28.8/34 | 12.4/14 | 86.2/100 | 51.7/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연극의 개혁’이라는 사업목적이 확실하게 설정된 연극제라는 사실이 잘 드러남. 이만큼 뚜렷하게 연극제의 목적을 부각시킨 연극제는 여태까지 거의 없었을 정도로 사업목적의 부각이 뛰어남.
- 우수한 해외공연 소개라는 측면에서의 사업목적은 예술 감독의 지나치게 편파적인 참가작품 선정으로 인하여, 보편성과 일반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었으며, 사업목적이 분명하지 않음.
- ‘개혁적(innovative) 성향을 지닌 예술가들의 작품을 통한 예술의 개혁’을 표방하면서 미적 형식의 변화 즉 ‘다른 방식의 만들기’에 중점을 둔 작품이 초대되었고, 이렇게 낮은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진보적인 작품들이 관객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음.
- “서울이 자랑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국제공연예술축제”라고 소개 책자에는 쓰여 있음. 또 SPAF 예술 감독은, 예술개혁과 이를 통한 사회개혁이 목표이고, 이를 “미적형식의 변화”에서 찾고자 함. 따라서 연극부문 초청공연들은, 실험적 형식의 공연이 대부분이었음. 즉 SPAF는 그 기본특징이 실험적 공연예술제라 할 수 있음.
- 예술제가 성공적인 예술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관객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아야 한다고 볼 때, 실험적 공연 위주의 예술제는, 우리의 대중관객들에게는 아직 익숙지 못할뿐더러, 어

리등절하기까지 함. 우리 관객들의 공연예술 향유의 역사가 짧은 점에서, 실험형식 위주로만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봄.

○ 해외의 유수의 예술제와 차별화해야, 서울 국제 공연예술제가 진정한의미의 서울이 자랑할 수 있는 예술제가 될 것인즉, 이번 연극 초청작들은, 그저 나라별로 7개국을 대변할 뿐, “세계수준의 공연예술제”가 되기에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이나 선정이유 등에서 변별적 특징을 찾아볼 수 없음. 한국적 변별성을 개발하여, 사업목적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연극과 무용, 음악 등 세계의 흐름과 함께 하는 한국의 공연예술을 제대로 보여줌. 특히 개혁성이라는 큰 주제 아래 현대성, 크로스오버, 네트워킹 등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 주목됨. 공공자금을 사용한다는 공익적 목표아래 티켓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많은 할인 제도를 도입한 것도 평가할 만 함.

□ 사업 운영

○ 사업목적에 맞게끔 레퍼토리의 선정이나 부대 행사들이 잘 운영되었음. 홍보나 자막처리 등 관객 서비스도 수준급이었음. 전체적으로 사업운영이 매끄러웠음.

○ 사업운영의 측면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며, 일반인 관객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 매우 부족했음. 특히 공연관련 전문인들의 참여와 평가에 매우 인색했으며, 매우 고압적인 자세로 공연장을 찾아오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음.

○ 개막식이나 폐막식 등을 없애고 새로운 방식의 축제를 시도하였음. 이는 일면 참신하기도 하고 일면 일정한 축제분위기에 익숙한 관객의 입장에서 난처한 것이기도 함. 그러나 이의 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그 반응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관객의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이미 이 예술제가 5회째 접어들었으므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고 보겠지만, 예술제 사업국을 1년 내내 운영하는 규모나 비용 대비로 볼 때는, 연극부문의 초청작이나, 기획이 해외 우수예술제와 비교해 볼 때,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지 않음.

○ 지난 4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홍보, 공연운영, 출연자 관리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음. 공연 첫날 예술가들을 위한 자리는 공연효과와 예술가는 물론 관객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줌. 관객들도 많이 들어 1억 원 이상의 흥행수입을 기록한 것도 주목됨.

□ 행사 내용

○ ‘개혁(Innovation)’ 이란 주제에 걸맞게, 최근의 해외 실험작들을 선보였음. 다양한 부대행사도 적절했다고 사료됨. 대체로 부대행사에 참여도는 다소 낮았지만,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 적절했음.

○ 매우 특이한 공연을 유치하여, 일반적인 관객을 당혹하게 만들었으며, 전체 공연의 수준이 아주 다른 질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었음. 특히 최근 해외 연극계의 동향을 읽을 수 있는 예술감독의 안목이 부족하여, 이제는 낡은 표현방식으로 전락한 그룹의 초청과 검증받지 못한 실험적 그룹을 동시에 초청하여, 전반적인 공연예술제의 목적과 방향이 뒤죽박죽이 되었고, 뚜렷한 예술제의 성격을 찾을 수 없었음. 매우 안이한 행사진행방식으로 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음.

○ 연극과 무용으로 이분되었던 공연예술제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진 행사였음. 무용과 연극을 동시에 아우를 뿐 아니라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 공연작품들로 인해 예술제의 특성

을 강조할 수 있었음.

o 연극부문 해외 초청작은, 캐나다 극단의 경우, 2002년 등 이미 여러 번 내한한 극단을 재 초청한다든가, 행사내용 구성이 너무 안이하다. 또 예술 감독 1인이 선정했다고 함. 이러한 선정방식은, 해외 초청공연을 선택함에 있어서 상당한 한계성을 야기한다 할 것임.

o 개혁적이고 실험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작품만을 골라와 보는 재미와 함께 한국 공연예술계에도 큰 자극을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됨. 공연 외에도 시파티, 카페 운영, 거리공연 등 필요한 공연을 골고루 잘 구비했음.

□ 관객 서비스

o 비교적 홍보도 잘 되어서, 공연장을 찾거나 공연 목록을 확인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었음. 특히 공연시 자막처리도 깔끔하게 진행되어서, 공연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느끼게 하였음. 특별한 관객서비스는 없었지만, 별 불편 없이 기본은 잘 제공되었음.

o 일방적으로 관객이 찾아서 봐야 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공연장 선정과 작품의 수준 및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관객동원과 관객의 수월한 공연장 진입이 어려웠음. 반면 개별 공연작품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어떤 공연이 좋은 것인지 어떤 공연이 형편없었는지 공연이 종료된 후에야 알게 되어, 좋은 공연에는 관객이 없었고, 터무니없는 공연엔 관객이 몰리는 관객의 역류현상이 심했음.

o 예약 상황이 원만하지 않아 티켓 구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인 관객서비스는 무난한 편이었음. 또한 자막은 일정정도 확보되었으나 그밖에 공연관련 안내가 부족한 편이었음. 공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공연안내가 보다 충실해질 필요가 있음.

o 최근에 바뀐 행사 사무국담당자는 문화적 감각이나 분위기를 전혀 모르는 딱딱한, 위압적 태도를 보여, 예술제 분위기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없음. 행사 운영자들의 친절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짐.

o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는 좋은 작품을 싼 가격에 보여주는 것 이상의 관객 서비스는 없음. 그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충분해 보임. 공연이 끝나고 준비된 예술가와의 대화를 따로 마련, 이해를 도왔음. 예술적, 교육적, 경제적, 또 오락적 측면에서 관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했다고 생각함.

□ 문제점

o ‘개혁’이라는 예술제의 철학을 반영한다고 너무 한 쪽의 개혁만을 소개한 것 같음. 개혁도 여러 종류의 개혁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몸과 경계만을 강조한 듯싶음. 문제는 이 개혁을 과연 우리 관객들이 100% 즐길 수 있나 하는 점. 그 외설성과 경계성으로 불쾌했을 관객들도 있을 터인데, 중도적 개혁은 없었을까 의문으로 남았음.

o 서울 공연예술제는 언제부터인지 공연작품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종합적인 의견 수렴의 절차는 사라지고, 오직 예술 감독 일인의 판단과 결정으로 집행되는 축제로 자리 잡기 시작했음. 물론 아비뇽을 비롯해서 성공한 해외의 축제는 예술 감독의 독자적인 권한이 큼. 그러나 해외의 경우에는 예술 감독이 거의 십년 넘게 축제를 책임지며,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축제가 아님. 즉 축제의 성공과 실패가 예술 감독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임. 반면 한국의 공연예술 축제는 예술 감독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고, 실패한 축제에 대한 책임이 예술 감독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래서 축제의 구성과 운영의 방

식에 있어서 철저함과 종합적인 의견의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음. 예술 감독 개인의 취향과 인간 관계에 따라 전체 축제가 구성되고 운영된다면 매우 답답한 노릇. 예술 감독의 권한과 판단을 조절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예술 감독의 능력여부에 따라 임기를 조절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o 예술향유는 하나의 문화적 습관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길러진다고 볼 때, 공연예술의 대중화 역사가 비교적 짧은 국내 대중관객들이 더 많이 호응하는 예술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제 구성을, 다양한 관객층을 겨냥하여, 실험적/마니아 관객 용 형식과 사실주의/대중적 형식의 연극을 나누어 초청할 필요가 있음. 전적으로 실험형식 위주의 공연 초청방식은, 전문 관객에게는 흥미로울지 모르지만, 대중관객들에게는 ‘왜 왔는지 회의가 든다(인터뷰)’는 반응이 나올 수 있음. 따라서 in/ out 식의 방식이나, 본 페스티벌과 프린지 페스티벌 구조로 나누어 구성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o 해외 연극초청작의 경우, 예술 감독 1인에 의한 선정방식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각 언어권의 연극전문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대변되어야 할 것임.

o 이 예술제가 “서울이 자랑하는 국제 예술제”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보아서는 세계 각국의 예술제, 작게 보아서는 아시아 주변의 예술제와(홍콩예술제, 동경 예술제, 중국, 호주의 여러 페스티벌 등등) 문화/예술적 차별성을 획득해야 함. 이는 다양한 언어권 연극분야의 국제적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문화차별 전략위원회 등의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 수립과 실천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을 것임.

o 대체적으로 아주 만족함. 아쉬운 점이라면 행사가 대학로와 신촌, 국립극장으로 좀 분산돼 축제의 응집력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음.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을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시설을 보완, 좀 더 응집력을 갖추었으면 함.

□ 개선 방안

o 보다 초청 극단의 레퍼토리의 다양성과 성향을 고려해서, 다양한 ‘개혁’을 선보였으면 함. 또 부대행사로 공연 후 카페에서 공연을 이야기 하며 즐기는 ‘악인악담’같은 기회가 더 늘었으면 함.

o 서울 공연예술축제는 무용과 연극의 종합적인 축제가 되어 버림. 그러나 관객은 무용관객과 연극 관객이 구분됨. 따라서 같은 시기에 같은 축제의 형식으로 묶여 있지만 엄연히 다른 두 개의 축제로 존재하고 있음. 다르면서도 같은 형식을 지녀야 하는 축제의 성격을 구분해서 연극축제와 무용축제로 다시 각기 다른 축제로 나누어서, 각 축제의 조직위원회가 자유롭게 다른 영역의 예술을 초청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함. 그래서 두개의 각기 다른 축제, 다른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기 다른 예술적 만족과 성취도를 찾아야 할 것임. 그리고 현재 한국의 공연예술제의 실정으로는 예술 감독에게 이렇게 큰 권한을 주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무모하다는 것이 이번 축제의 결과라면, 예술 감독중심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임.

o 프로그램 선정 : 지나치게 예술성을 강조한 프로그램은 관객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예술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음. 관객의 눈높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선정이 필요함

o 축제 분위기의 조성 : 야외카페 등이 조성되기는 하였으나 지나치게 공연관련자들에 한정된 분위기였음. 보다 관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o 응집력의 부분인데 하드웨어 부분이므로 어쩔 수 없을 것 같음. 하지만 이 부분은 대학로 주차장 부지에 새로 짓는 극장 2개가 완공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임.

6. 총평(평가위원 종합의견)

○ 이번 연극제는 ‘왜 예술개혁인가?’라는 선명한 철학을 바탕으로, 이를 적절히 구현해 내는데 성공하였다. “미적 형식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현실적 기억은 예술적으로 전이(轉移)되고 그것은 다시 새로운 현실과 만나다”는 신념으로 무엇보다도 형식의 개혁을 보여주기ye 주력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장르나 일상과의 경계에서, 몸을 강조하는 공연이 주로 초청되었다. 포스트모던 시대답게 대중성을 바탕으로 신제국주의가 비판되기도 했다.

이에 따른 레퍼토리나 행사 내용은 적절했다. 공연작들은 어느 점에서든지 일정 형식의 개혁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예술적 수준 역시 어느 수준을 유지했고, 실험 작으로는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단기간에 이만한 수준작들을 불러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관객에게 여과 없이 서구의 최신 실험 작들만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일말 문제로 여겨졌다. 과연 우리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문제와 최근 실험 작들이 반드시 높은 예술적 경지와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초청작들은 아비뇽 연극제의 공연들과 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보다 다양한 연극제에서 초청하고, 개혁을 좀더 넓은 개념으로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한 실험 작들도 포함시켰더라면 싶다. 적어도 국가적인 예산을 쓰는 연극제가 ‘실험’에만 머문다는 것은 좀 아쉬웠다. 근년에 보다 폭넓은 지지를 받는 화제작 한두 편을 함께 초청하는 것도 좋은 방도라고 생각된다.

홍보와 관객 서비스는 대체로 만족할만하다. 특이하게 기발한 서비스는 없었으나, 관람 장소나 일시 혹은 공연 자막 등 일반적인 관객 서비스로는 손색이 없었다. ‘젊은 비평가 상’ 공모 같은 것은 관객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연극제를 전문적 비평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훌륭한 발상이다. 다만 보다 축제의 분위기를 띄우는 관객과의 공동 여흥의 장이 마련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았다. 또한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로, 서울 시민의 예술 축제로까지 발전했으면 싶다. 이를 위해서는 미디어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부대 행사에서 축제적 행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하겠다.

굳이 개선 사항을 지적한다면, 관객의 확보율과 참여도이다. 가장 큰 공연 행사인데 반하여, 시너지적인 관객 확보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한 듯싶다. 이는 앞에서 말한 서울시민 예술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번 연극제는 주로 엘리트 관객들만이 참여한 아쉬움이 있다.

어쨌거나 이번 연극제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예술의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가늠하기에는 좋은 지표였다. 이번 연극제는 탈장르 내지 종합화 해 가는 표현의 방향과 충격 효과와 외설의 경계에서 있었으며, 동시에 파편화 되어가는 중심의 해체를 확인시켰다. 이러한 해체는 포스트모던 한 대중성과 연결되었으며, 동시다발적이고, 일상과의 경계에 있었다.

○ 2005년 서울 국제공연예술제는 하지 않아도 될 실험과 아직은 수용의 단계가 아닌,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랍권 연극, 예술적인 완성도가 전혀 없는 국내 참가 작품으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이것저것 되는 대로 다 모아 놓은] 축제가 되어 버렸다. 엄청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이렇게 무책임한 축제를 만들어 내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조의 비판과 함께, 도대체 이런 무모한 낭비와 허세가 왜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는지 화가 날 지경이다.

우선은 전체적인 포스터의 문구가 매우 도발적이며, 도전적이다. [쫓지는 마!] 10대를 주요한 관객으로 삼았다면, 이렇게 유치한 표현은 적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 계층, 여러 세대의 관객을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공연예술제의 메인 아이디어로는 지나치게 엽기적이지 않은가?

홍보와 선전 문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공연에 관한 정보와 참여 예술가에 관한 소개가 매우 부족했다. 그리고 그들의 프로필이 결코 자랑스럽지 않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제 세계 연극의 큰 흐름에 한발 다가가야 할 대한민국의 국제 공연예술제로는 매우 ‘유아적’인 축제가 되었다.

예술 감독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너무 많은 것을 맡겼고, 결과에 대한 반성과 대안에 지나치게 소홀했던 축제였다.

o 규모와 목표에는 미흡한 예술제 :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제를 만들겠다는 커다란 이상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5회를 맞는 올해의 경우도 그리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는 못함. 타 예술제에 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고, 사무국이 상설화되어 안정된 조건을 확보하였으나 이러한 상황에는 미흡한 행사 진행이었음.

o 프로그램 선정의 문제 :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실험적이거나 진보적이어서 일반관객이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였음. 개별 작품에 대한 홍보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들이 있었음. 관객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작품 선정이 필요함.

- 끝없는 탐욕의 신제국주의에 조롱에 찬 경배를!

- 반라의 육체가 패스트푸드의 홍수 속에서 몸부림친다.

- 당신의 머리를, 가슴을 후려치는 시각적·청각적 충격들

- ‘도망치는 미친년’ 안은미

- 보이는 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_ 뒤집어 엎는 그녀 헬레나 발트만 (Helena Waldmann)

- 부르주아의 성도덕에 저항하는 데렐의 에로티시즘과 섹슈얼리티, <정화된 밤>

- 예술제 분위기 조성 : 행사 진행도 예술제의 분위기를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 대학로와 서강대, 충무아트홀로 나누어진 공연장은 지난해의 산만한 분위기보다는 다소 안정된 느낌을 주었으나 올해도 역시 예술제의 분위기를 응집하지는 못하였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연장 설립이 완성되어 대학로의 공연환경이 조성되는 시점에는 보다 나은 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현재의 환경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함.

- 미래 비전 : 올해도 PAMS와 연결되기는 하였으나 첫째라 그 성과는 다소 미미하였음. 이후 아트마켓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축제의 의미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o 제5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예술개혁’의 문제 : 2005년 올해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개최 5주년을 맞는다. 국내 공연예술분야에서 국제화 경향은, 아이러니 하게도 90년대 말 IMF 위기 이후, 경제 분야의 세계화와 함께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때는 서울 국제연극제로도 불렸던 이 예술제가, 이제는 상설 사무국과 예술 감독을 갖춘 어엿한 국제 공연예술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올해 참가작품 수만도, 12개국 25단체 22작품으로, 연극과 무용공연을 망라한다. 이외에 서울포럼과 워크숍 등 부대행사도 준비하게 열렸다.

앞으로의 관건은,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어떻게 지구촌에 수없이 많은 다른 국제적 공연 페스티벌들과 양적, 질적 경쟁에서 변별적 독자성을 확립하면서, 문화적, 예술적 경쟁력을 갖춘 페스티벌로 발전해 나가는가 하는데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이 예술제에 참가하는 작품들의 문화적, 예술적 질의 문제가 그 답이라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올해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주제와 관련하여, 예술 감독은, ‘예술개혁’이라는 말로 특징짓는다. 그는 예술적 개혁의 개념을, “동시대 예술에 나타나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예술성”이라고 정의하고, “예술의 소재는 크게 변화하거나 발전하지 않는다. 단지 이를 다루는 방식이 바뀔 뿐 이다” 라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예술적 개혁은 무엇보다도, “다른 방식으로 만들기” 즉 미적 형식의 변화 혹은 양식화를 말한다고 풀이한다.

다시 말해, 공연예술에서 형식적 실험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예술감독은 이러한 미적 형식의 개혁을 통해, 궁극적으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 사회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

올해 연극부문 초청 공연작들을 보면, 상기한 예술 감독의 ‘예술개혁’ 의지와 맞물리는 작품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국내 초청작들을 보면, 대개 젊은 작가와 연출가 및 공연집단의 작품들이 4편 초청되었다. 극단 골목길의 박근형 작으로 연출한 <서쪽부두>, 목화레퍼토리 컴퍼니가 오태석 연출로 무대화한 <로미오와 줄리엣>, 극단 파티가 박상현 연출로 올린 <자객열전>, 사다리움직임연구소가 임도완, 이수연 연출로 올린 <벗나무 동산>등 이다. 국립극장의 기획공연 시리즈인 ‘셰익스피어 난장’의 한편인 <로미오와 줄리엣>은 여러 번 재공연을 거친지라, 공연적 완성도가 높았다. 젊은 배우들을 기용하여, 연기의 원숙미는 덜했으나, 대신 신선감을 더했고, 시각적, 청각적 장면 만들기가 무리 없는 예술 감을 창조했다. 박상현 작/연출의 <자객열전>은 글로벌 역사를 통시적으로 종횡무진으로 테러리즘의 모티프를 추적하고 있는데, 무대적 장면 만들기는 간편하면서, 기능적인 공간구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시대와 공간을 넘나들다 보니, 주제적 초점이 산만하게 된 감이 있다. 실험적 장면 만들기에 치중한 나머지, 작품의 중심 아이디어가 흐려져 버린 또 다른 경우가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의 <벗나무 동산>이다. 체홉의 <벚꽃 동산>을 일제 시대로 옮겨와 한국화한 이 공연은, 첫 장면이 6-7 개의 긴 의자와 그 위에 서있는 인물들로 시작된다. 이 긴 의자들은, 장면마다 위치를 바꾸면서, 배우들의 연기를 돕는 배경이 된다. 구조물을 기능적으로 이용하는 러시아의 명연출가 레브 도진의 연출방식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공연에서는 여러 개의 긴 의자가 장면변화에 따라 기계적으로 위치를 바꿀 뿐, 작품의 의미창조에 유기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대적 새로운 표현형식의 추구가, 작품의 콘텐츠와 효과적으로 융합을 이루지 못하고만 경우다.

초청된 해외공연들 역시 새로운 무대적 표현방식에 초점을 둔 공연들이었다. 호주극단 NYID와 극단 돌곶이가 공동제작한 <K>, 한국/일본이 공동 제작한 노다 히데끼 작 <빨간 도깨비>, 러시아 포르말리아 극단의 <광대들의 학교>, 캐나다 레두 몽드 극단의 <2191 Nights>, 스페인 라 까르니세리아 극단의 <맥도날드의 광대, 로널드 이야기>, 튀니지의 파밀리아 극단의 <주눈의 눈> 등 6편이다. 우선, 튀니지 공연은, 필자도 이번에 처음 보았는데, 그 희소성이 가치라고 할까. 무대장치 없이, 텅빈 무대에 의자와 마이크만 놓고 대사를 전달하는, 낭독극 흡사한 스타일의 공연이었다. 소설을 바탕으로 쓰인 이 공연은, 주눈이라는 한 청소년 남자아이가, ‘여자는 악마다’ 라는 아버지의 억압적인, 가부장적인 교육 때문에, 자신의 내부에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갈등 때문에 고통을 격다가, 한 여성 정신과 의사의 사랑과 관심 어린 치료로 내적인 치유를 얻고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로, 마치도 그 내용 전개가 영국공연 <에쿠스>의 튀니지 판 같기도 하다.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런 유의 ‘생각하는’ 공연보다는, 튀니지의 전통극이나, 그것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공연을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캐나다의 레 두 몽드 극단은 2002년에도 <약속의 땅>이라는 공연으로 내한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동양적 세계관과 서구적 테크놀로지 문명의 혼합 성을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공연 <2191 Nights>를 가져왔다. 어린 아들을 포함한 한 가족이 여행길에 올라, 747 비행기를 타고가다, 산맥에서 폭발, 사경을 헤매다, 어린 아들은 죽고, 어린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은 아버지만 아이러니 하게 살아남는, 현대판 실존적 상황을 그려 보인다. 747 비행기 폭파장면은 한국관객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KAL 기 소련영공 폭파 사건을 생각나게 하면서, 감정적 동일시의 효과를 자극한다. 여기에, 아들의 심장이 아버지의 몸에서 살아감으로서 삶과 죽음의 개념이

하나로 연결되고, 자연의 일부로 연결되는 동양적 일원론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동시에 어떻게 서구적 테크놀로지가 아들과 아버지의 삶을 재생시키는데 핵심적으로 작용하는지도 보여 준다. 첫 장면에서 컴퓨터 그래픽과 배우와 융합시켜서 무대 위에서 창조하는 멀티미디어적 이미지가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이 공연 역시 일반 대중관객들에게는, 그 장면 장면의 심오한 의미구조 보다는, 단순한 멀티미디어적 플레이로 비쳐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러시아 포르말리 극단의 공연인 <광대들의 학교>는, 두 남성배우들이 극중에 펼쳐질 과거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유머스럽게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펼쳐지는 무대 위의 장면들은, 한 소년의 삶의 회고록이다. 그 속에는 주로 가족관계와 학교 등 어린 소년의 사회생활의 장면들이 펼쳐진다. 러시아 특유의 형식주의적 실험적 장면 만들기는, 무대 위 배우와 그의 움직임들 극의 의미적 구조에 대한 하나의 도상으로 설정한다. 문제는 이러한 문화적, 연극적 도상으로서 무대 위 배우와 그들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이 공연의 배경이 되는 러시아 정서나 문화적/역사적 상황 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 한국관객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직도 생소하기 그지없다. 그래서인지, 관람 온 서양관객(러시아인인 듯)들은, 장면 장면에서 웃음을 터트리는데 비해, 우리 관객은 공연 내내 호기심에 찬 눈초리로 진행되는 장면들의 시각적 이미지만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나 할까. 비록 이 공연이 2001년 러시아 황금마스크 상과,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퍼스트 상을 받아서 그 수준은 인정받았다 해도, 한국관객 친화적인 공연은 분명 아니었던 것 같다.

필자의 관점에서 여러모로 흥미로웠던 공연은, 한국과 해외 합작공연인 <K> 와 <빨간 도깨비>였다. <K>는 호주의 NYID 극단과 연극원의 돌곶이 극단이 한국배우와 호주배우들의 합동공연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카프카의 K 자를 나타내는 K는 Korean의 K 일수도 있다. 한 한국인 여행자가 영어권 나라에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억류된다. 이어 그는 그의 사상을 검증받는 컴퓨터로 프로그램된 인터뷰에 반강제로 임하게 된다. 인터뷰 프로그램은, 이 사람이 자본주의 신봉자인지 아니면 사회주의자 인지를 가려내는 시스템으로, 일단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인터뷰 대상자는 시스템이 원하는 데로 yes 혹은 no 라는 대답만 할 수 있을 뿐, 주체적인 개인으로서 행동할 수 없다. 이 시스템이 하는 질문은, 억류된 한국인을 감시하는 푸코의 감시탑 역할을 대행한다.

이어지는 컴퓨터 그래픽과 TV 수상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적 이미지 플레이는 글로벌 세계에 여전히 존재하는 제국주의적 힘과 정치적인 편견 등에 대한 패러디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러한 합작 공연은, 참여하는 제작진이나 배우들에게는, 각 나라 특유의 각기 다른 연기, 감성, 가치관, 사고방식의 문화적 특수성의 구도를 접하고 배운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값진 공연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공연이 전하는 탈 식민주의적 관점이나, 추상적 메시지 구조가, 사실주의 연극스타일에 익숙한 한국관객들에게 얼마나 제대로 전달 됐을지는 또한 미지수인 것 같다.

또 다른 흥미로운 합작공연이, 일본의 세계적인 극작가/연출가인 노다 히데끼 작 <빨간 도깨비>다. 작가 자신이 직접 선발한 한국배우들과 함께 이 공연에 작가 자신도 빨간 도깨비로 출연한다. 구체적 시간이나 장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아마도 인류적 보편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듯한데, 어느 해안지역 마을에 한 외지 남자가 표류하면서, 빨간 도깨비로 불리고 취급을 받는다. 그는 마을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타자’에 대한 편견, 오해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빨간 도깨비는 어느 날 사라져 간다. 관객들의 가슴 속에 아련하지만 심각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히데끼 특유의 의미구도를 전달하는 우화적 방식, 그 밑에 깔린 삶에 대한 깊은 철학적 인식과 이를 재미있게 대중 친화적으로 전달하는 일본 ‘망가’적 분위기와 코믹한 언어유희가 인상적이다.

이제 이상의 토론들을 바탕으로, 이 글 처음에서 인용했던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주제인 “예술적 개혁”과 새로운 표현형식의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초청되었던 모든 공연은, 소위 말하는 실험연극형식을 채용하는 공연들이었다. 새로운 표현형식의 추구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과 세계관, 문화의 차원까지 개혁을 확대해 갈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이 예술제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희망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대한 목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된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이 예술제가 우리 관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는 예술제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또 예술제 기획자의 시각과 우리 대중관객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추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 대학생 관객이 캐나다 공연을 보고 나오면서 하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교수님이 이 극단이 캐나다 최고의 극단이라고 해서 왔는데, 보고나니까 회의만 듣다” 고. 또 호주/한국 합작공연인 <K>를 보고난 한국연극계의 원로급 연출가 한 분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저런 연극도 있구나 하지요 뭐.” 라고 대답했다. 이 는 비록 몇몇 관객의 반응일수도 있지만, 아마도 많은 대중 관객들의 반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았나 싶다.

다시 말하면,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우선, 한국관객 친화적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새로운 표현형식 추구의 공연들만으로 이 예술제를 일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연극을 포함한 공연예술에 대한 우리 관객들의 친숙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음을 감안 할 때, 전문가적 시각에만 눈을 맞추어 실험적 형식의 공연작품 만을 초청하는 것은 지나치게 야심 찬 구도가 아닌지 모르겠다. 세계 각지의 유수 페스티벌이 그래서, 본 페스티벌과 프린지 페스티벌로 나누어 구조를 짜는지도 모르겠다. 또 주변에 홍콩과 일본, 북경등지의 여러 페스티벌과 장기적 관점에서 변별력을 키우려면, 실험형식의 예술제로서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과연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등등 글로벌적 차원에서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예술제의 구성방식도 우리 관객의 현실을 감안해 좀 더 세분화된 구도로 차분하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o 제5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2005년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서강대 메리홀, 국립극장, 아르코 예술극장 등 서울 강북 구도심 지역에서 열렸다.

5회 째를 맞는 이 축제는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를 합해 만들어졌다. 연극과 무용, 음악 등 더 이상 장르를 가리지 않는 세계 공연예술의 추세에 맞춰 2002년 한일월드컵을 1년 앞둔 2001년 시작됐다.

그러나 월드컵이 끝난 뒤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연극협회와 무용협회의 갈등으로 인해 3회 축제가 변칙적으로 진행된 끝에 2004년 서울연극제와 서울무용제가 다시 독립해 나가고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법인화해 남았다. 5회 축제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법인화해서 본격 시작한 첫 축제로 평가된다. 4회 축제의 경우 사실상 축제사무국이 급조된 탓에 제대로 준비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축제는 예술개혁을 대주제로, 현대성(contemporary), 크로스-오버(cross-over), 네트워킹(net working)을 구체적인 실현 방침으로 내세웠다. 주제와 방법론과 관련,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구체적인 철학과 방법론으로 일관되게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은 그동안 한국 축제에서 찾기 힘들었다. 때문에 이번 축제는 하나의 철학과 구체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으로 치밀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한 본격적인 예술축제의 한 전범이 아닌가 생각된다.

해외 무용작품의 경우 개혁을 대전제로 현대성과 장르간 혼합, 네트워킹 등 현재 세계 공연예술의 첨단을 걷고 있는 작품들이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들이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격적이고 도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벨기에 미셸 누와레 컴퍼니의 '두 위 에버 노우(Do we ever know)?'는 영상과 실체, 그림자를 섞어 인

간 존재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그려냈다. 영상과 실체를 이용하는 경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림자까지 이용한 점이 놀랍고, 영상이 현실이고, 실체가 환상처럼 보이는 혼돈의 형태를 그림자까지 섞어 그려낸 표현은 놀라웠다.

독일, 스위스, 멕시코 등 7개국 젊은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도키 콤파니의 '백 투 더 프레젠티(Back to the present)'는 연극, 무용, 영상 등을 복합, 도시적 삶의 문제를 만화경처럼 펼쳐냈으며 마지막에 출연자 모두가 옷을 벗어 던지는 과감한 장면을 보여줬다.

남성들에게 춤추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한 이란의 풍습을 풍자해 텐트 속에서 춤을 추는 '레터스 프롬 텐트랜드(Letters from tentland)'는 영상과 텐트를 이용한 재미있는 형식미와 감성이 넘치는 현실 풍자를 보여줬다.

가장 대중적일 것으로 예상됐던 브라질의 'H2-2005; 철학하는 브레이크 댄서들'은 가장 미니멀한 예술 춤을 보여줘 이채로웠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국내 무용작품의 경우 이를 따르지 못했다. 해외 작품의 경우 분명히 '검증된 실험'으로서 호오(好惡)의 논란은 충분히 있을지언정 형식과 내용에서 재미있는 실험성과 파격미가 있었다. 현대성이 강했고 장르간 통합, 교류가 분명히 느껴졌으며 세계의 동류(同類)를 찾아 또는 이류(異類)를 찾아 교류하려는 네트 워킹 욕구가 느껴졌다. 하지만 국내 일부 작품의 경우 진부한 과거의 형식을 답습하며 과연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모호했다. 작품 자체로만 본다면 아량을 갖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의 축제에서 앞서 있는 외국의 작품들과 대조되면서 단점이 더욱 크게 부각돼 보여 아쉬움이 컸다. 물론 여기에는 외국 작품의 경우 선택의 폭이 넓어 좋은 작품을 골라올 수 있지만 국내 작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 애초에 경쟁이 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을 고른 사람들이 개인적 관계가 작용, 일부 무리한 작품들이 선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상반기에 화제를 모은 정영두의 '내가 가진 하늘'이나 박나훈의 '세 개의 공기' 같은 작품이 출품됐다면 충분히 외국의 도발적 작품들과 한판 좋은 비교가 됐을 것으로 생각돼 아쉬움이 남는다.

각 작품의 구체적 리뷰는 다음과 같다.

- 댄스씨어터 까두 '푸른 돌'(안무 박호빈·9월23, 24일 충무아트홀 대극장) : 댄스씨어터 까두는 DanceTheater Ccadoo加頭라고 쓴다. 영어로 읽으면 '까두'로 읽히는 데 한자음은 '가두'다. 한글로 내놓는 자료는 '까두'인데 '머리를 더했다'는 한자음이 '까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름의 정체성에는 혼란을 준다. 그런 사족(蛇足)의 혼란이 이번 신작에서 읽혀졌다.

댄스씨어터 까두의 '푸른돌'은 성악과 영상, 춤이 어우러진 미스터리극 형식의 크로스오버 공연이다. 축제의 주제와 방침에 부응하려는 성실한 의도가 읽힌다. 해일로 새로운 유적지가 드러나고 그 유적지에서 이상한 문자가 쓰인 푸른 돌이 발견된다. 그리고 이 푸른 돌을 신봉하는 사교집단이 있고, 이 사교집단은 소녀들을 납치해 교화시키려다 살해한다. 좀 뜬금없는 이 스토리를 모던한 원색의 도시로 무대화하고 높은 빌딩을 세워 남녀 성악가를 세웠다. 사교집단은 아엘리안 냄새가 나는 SF풍으로 묘사했다. 춤의 움직임은 군무 위주로 해 집단광기를 표현하면서 아크로바틱함을 더했다. 무대의 색상이나 조명, 영상은 표현을 구체화하면서 환상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너무 구체적인 서사가 춤의 입지를 애매하게 하지 않았나 싶다. 지나치게 사실적이고 분석적인 스토리 라인에 본래 아날로그한 상징적인 춤이 끼어 들 여지가 많지 않다. 이 부분을 음악으로라도 보완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음악이 스토리 라인보다 더 가벼웠다. 미스터리 TV드라마의 효과음악처럼 감정을 그대로 노출해 춤이 더욱 숨을 곳이 없어졌다. 거석송배, 난생신화, 절대존재의 유토피아 등 안무자가 원래 계획한 의도가 무대에서 관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된 것 같지 않아 보인다.

- 이경은&에비스 사무티즈 '더 투'(안무 이경은·9월24, 25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 '더 투'는 이경은의 출세작 '오프 데스티니(Off Destiny)', 키프로스 작곡가 에비스 사무티즈와 함께 한 '투(Two)', 일본

사이트 페이지와 공동안무한 '사이(Between)' 등 세 작품으로 구성됐다.

'오프 테스트니'는 이미 언론에 소개된 대로 무대를 절반으로 잘라 몸으로 먼저 춤을 추고, 폭발적인 음악을 나중에 들려주며 나머지 공간을 보여주며 인간의 소통을 절실하게 그려냈다. 명불허전의 힘이 넘쳤다. '투'도 독특한 라이브 퍼큐션 연주에 맞춰 색다른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끝날 때 관객들을 압도하며 뭔가 강한 것을 남기며 확실하게 끝낸다는 것이다. 이날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것은 '사이'. 사이트 페이지와 그림자 같은 이중성으로 자아분열, 나아가 원래의 반쪽과의 끝없는 경쟁과 따르기 등 수줍은 사람살이의 일상을 아름답고 재미있게 표현했다. 한 면은 하얗고, 다른 한 면은 주홍색인 판 하나를 이용해 이렇게 많은 서로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 놀랍다. 이경은과 사이트 페이지는 이 판자를 마치 마법의 양탄자처럼 이용하면서 가슴 따뜻한 즐거움을 만들어냈다. 축제의 주제에 꼭 부합하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다.

- 서울발레시어터 '삼색 모던발레'(안무 제임스 전·9월26, 27일 충무아트홀 대극장) : '바흐와 나'(안무 허용순), '생명의 선'(안무 제임스 전), '12를 위한 변주'(〃) 등 상당히 클래식한 모던 발레 3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아름다운 무대였지만 현재성, 크로스-오버 측면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발란신의 네오클래식 모더니즘이 고전발레에 대해 보인 개혁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현재 그것은 이미 새롭지 않은 고전으로 자리잡았다.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발레 특유의 단정함을 보였지만 축제 전체의 기조와는 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이런 기조의 작품도 가능하다면 국립발레단이나 유니버설발레단으로 확대, 모던한 작품을 주문하면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 미셸 누와레 컴퍼니 '두 위 에버 노우?'(안무 미셸 누와레·9월27, 28일 서강대 메리홀) : 벨기에 미셸 누와레 컴퍼니의 '두 위 에버 노우(Do we ever know)?'는 영상과 실체, 그림자를 섞어 인간 존재의 의미를 복합적으로 그려냈다. 영상과 실체를 이용하는 경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림자까지 이용한 점이 놀랍고, 영상이 현실이고, 실체가 환상처럼 보이는 혼돈의 형태를 그림자까지 섞어 그려낸 표현은 놀라웠다.

현대 예술에서 영상은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미술뿐 아니라 공연양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작품의 경우 현재 영상을 이용하는 가장 복잡한 작품 구성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다. 국내에 공연된 작품 가운데 영상을 무용수의 몸에 쏘여 여러 가지 왜곡 효과를 나타낸 것이 가장 전위적인 영상쓰기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은 올해 서울국제무용제에서 핀란드 무용가 테리 샤로넨이 같은 방법을 선보였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영상이 사실 같고, 무용수의 실체가 환상처럼 보이는 절묘한 영상사용에 그림자까지 덧붙여 존재와 허상, 실체 등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스크린 앞뒤에서 만들어내는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한 인물의 복합적 이미지가 2의 제곱, 세제곱으로 확대되는 복합적 무대였다.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스토커'에서의 물음 '새 통 자메(Sais-on jamais·우리는 절대 모른다)?'의 비의적 의미를 천착케 한 방법이 환상적이었다.

- 프로젝트그룹 '레터스 프롬 텐트랜드'(연출 헬레나 발드만·10월2, 3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 남성들에게 춤추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게 한 이란의 풍습을 풍자해 텐트 속에서 춤을 추는 『레터스 프롬 텐트랜드(Letters from tentland)』 는 영상과 텐트를 이용한 재미있는 형식미와 감성이 넘치는 현실 풍자를 보여줬다. 텐트 위에 영상을 쏘고, 텐트가 텐트를 서로 잡아먹는 장면 등이 재미있었으나 좀 단순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무용이 현실에 깊이 들어가 고민하고 천착하는 진지함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공연이 끝난 뒤 이국의 여성관객들을 막이 내린 무대 뒤로 초청, 간단한 티파티를 열며 연 '그들만의 파티'가 재미있었다. 세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하는 작품과 이벤트라는 생각이다.

- 안은미 컴퍼니 '렛 미 체인지 유어 네임'(안무 안은미·10월3, 4일 충무아트홀 대극장) : 안은미는 분명 국내를 넘어 세계무대를 상대로 작품을 만들고 있음을 입증한 작품이다. 오디션을 통해 외국 무용수를

캐스팅, 다국적 색깔로 작품을 꾸며 2005 독일 베를린 아시아태평양주간-한국주간 행사에서 초연했다. 외국에서 초연하고 국내에서 발표한 작품 제작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한국 춤이 어떻게 세계화해야 할지 의미 있는 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푸른색, 분홍색, 등 단색의 조명의 변화 속에서 수영하기, 땅 집고 헤엄치기, 네발로 미끄러지기 등 다양한 재미있는 동작으로 구성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조명을 이같이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극장의 조명에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 즉석해서 조정했다고 했다. 만들어진지 얼마 된 극장인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형광색, 원색의 키치미는 안은미의 독특한 색깔이 되버린 것 같다. 연두, 노랑, 파랑, 보라, 주황 등 각색의 탄력 있는 치마를 이용한 데포르마시옹(déformation·왜곡)효과는 관객들에게 여러 가지 상상을 줬다. 치마를 벗고 뛰는 것도 관능을 넘어 아무 거리낌이 없었던 어린 시절의 유희를 연상시켰다.

안은미는 자신의 색인 '빨강'을 입고 나와 특유의 몸비틀기로 장난스러우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모델의 워킹에서부터 어린 시절 개구쟁이들의 속칭 '아이스케키'하며 치마 걷어 올리기 놀이를 비롯해 다양하고 명랑한, 유희적 역동미를 만들어 냈다. 이 동작을 옷과 연결해 내면서 옷이 오브제로서의 미를 갖으면서 다양한 의미의 리듬과 색채를 만들어 냈다. 역동성과 속도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춤의 구성이 신이 났다. 옷을 벗어 귀신의 혀, 또는 구토 등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는 세상의 허울을 벗겨내려는 것으로도 읽힌다. '네 이름을 바꾸자'는 도전적인 주제의식이 비로소 강렬하게 다가온다. 흰옷을 입고 한바탕 씻김굿을 한 뒤 옷을 벗어 빨래하는 듯한 장면에서는 위선의 껍질들을 사금파리로 긁어 벗겨내 씻어내는 의식처럼도 보였다. 『하얀 무덤』 시리즈의 아이디어와 단아한 미니멀리즘이 이후의 키치미한 왁자지껄한 작업과 어울려 새롭게 정리된 안은미의 춤 방향을 보는 것 같아 즐겁다.

-W; 조우 그리고 반란(10월5, 6일 서강대 메리홀): 진부한 과거의 형식을 답습하며 과연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모호했다. 작품 자체로만 본다면 아직 젊은 작가들인 만큼 아량을 갖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의 축제에서 앞서 있는 외국의 작품들과 대조되면서 단점이 더욱 크게 부각돼 아쉬움이 컸다. 은유나 상징은 너무나 많이 사용돼 익숙할 경우 그 힘을 잃고 진부한 서사, 첩사가 된다. 그런 진부한 서사와 모방이 많이 보였다.

'고래무덤'(안무 정신혜)은 첼로와 피아노 등 라이브 연주에 맞춰 사선 무대를 연출하는 등 공들인 흔적이 역연했다. 작품 자체로만 보면 딱히 나무랄 데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성공한 실험'들 한 가운데 놓이다 보니 속도감이 떨어지고 초라해 보였다. 입에서 입으로 물어 늘인 빨간 리본의 이미지는 이미 여러 작품에서 본 것이어서 진부한 느낌도 났다.

'춤을 추며 산을 오르다'(안무 김효진)는 영상을 사용했는데 마치 개인 사진첩처럼 써버렸다. 그나마도 프로젝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지 공연 중 오퍼레이터가 부지런히 움직여 공연의 분위기를 망쳐버렸다는 느낌이다.

'욕망'(안무 김윤진)은 무엇을 '욕망'하는지 모르겠다. 훈련이 안된 목소리가 귀에 거슬리는 가운데 장애인 소재로 한 영화 '오아시스'의 이미지가 느껴지면서 좀 불쾌했다.

- 도키 콤팩터니의 '백 투 더 프레젠트'(안무 연출·콘스탄자 마크라스 10월7~9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독일, 스위스, 멕시코 등 7개국 젊은 아티스트들로 구성된 도키 콤팩터니의 '백 투 더 프레젠트(Back to the present)'는 연극, 무용, 영상 등을 뒤섞어 도시적 삶의 문제를 만화경처럼 펼쳐냈으며 마지막에 출연자 모두가 옷을 벗어 던지는 과감한 장면을 보여줬다. '도키 콤팩'은 '너드(nerd)'라는 뜻. 우리말로로는 '성적이 신통치 않은 수줍은 범생이' 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의 몸짓은 이런 체제 순응적인 '아웃사이더 범생이'로서의 각각의 삶을 고백하고, 한판 난장으로 씻김굿을 한 뒤 온 몸으로 세계에 항거하는 아름다운 몸짓으로 보여줬다. 이는 마치 가장 아름다운 옷은 인간이라며 상업주의에 물든 옷을 벗

어 던지고 나체로 무대에 오른 패션쇼를 그린 영화 '프레타 포르테'의 마지막 장면 같기도 하다. 연극, 춤, 서커스, 마임, 영상 등 가능한 모든 표현방법을 동원한 세계 각 국 젊은이들의 통렬한 자기고백과 몸짓이 유쾌했다.

- 김삼진 무용단의 '터미널'(안무 김삼진·10월9, 10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올 초 예술의 전당에서의 초연때 보다 단정해지고 정리된 느낌이다. 하지만 여전히 작품 내 에피소드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모래알처럼 부스러져 있는 느낌이다. 나열된 에피소드들이 하나로 이어져, 아니면 종합적으로 조합해, 또는 공통적인 무엇으로 객석에 뭔가를 전달해야 하는 데 그것을 좀처럼 찾기 쉽지 않았다. 춤인지, 의미인지, 형식인지, 독특함인지, 사회적 고발인지, 풍자인지 전략적 목표가 모호했다. 김삼진 특유의 회화적이고, 연극적이면서 뚜렷한 선을 가진 아름다운 춤을 찾기 쉽지 않았다.

- H2-2005; 철학하는 브레이크 댄서들(안무 연출 부르노 벨트랑·10월11~13일 서강대 메리홀): 가장 대중적일 것으로 예상됐던 브라질의 힙합공연 『H2-2005; 철학하는 브레이크 댄서들』은 오히려 가장 미니멀한 예술적인 춤을 보여줘 이채로웠다. 5분 정도 일상의 힙합을 무음 악으로 춘 다음 'Hip Hop loves the beat of the music'이라는 영상을 쏘고 뒤에서부터 영상을 지워나가며 주제에 맞춘 춤을 추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음악에 대한 힙합, 관계 'of'를 주제로 한 힙합 등 단어의 의미를 주제로 해체해 나갔다. 비트를 사랑한다면서 비트가 없는 독특한 미니멀리즘의 힙합이었다. 힙합을 해체한 순수 추상 형식의 안무가 재미있었다.

공격적인 미국의 힙합과 달리 삼바 스타일의 애수가 느껴지는 힙합이었다. 몸은 사라지고 영혼만 남아 춤을 춘다는 한국 인간문화재들의 춤과 맥이 닿는 그런 힙합공연이었다. 너무 짧아 아쉬움이 있지만 그 것도 안무자의 철학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다.

- 모쭈 봉떼 컴퍼니의 '트윈 하우스'(안무 니콜 모수 & 파트릭 봉테·10월15, 16일 서강대 메리홀): 엄밀한 의미에서 무용이라기보다는 마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장르를 넘어선다는 크로스-오버 측면에서, 음악과 무용, 연극이 통합하는 추세에서 연극보다 무용에 더 가까운 마임을 그 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인간의 이중성을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한 1인극마임의 표현이 절묘하다. 인형의 서사성과 비극적 결말의 카타르시스가 감동적이다. 너무 유명한 작품이 너무 늦게 한국에 왔다는 생각도 든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제5회 포항바다연극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제5회 포항바다연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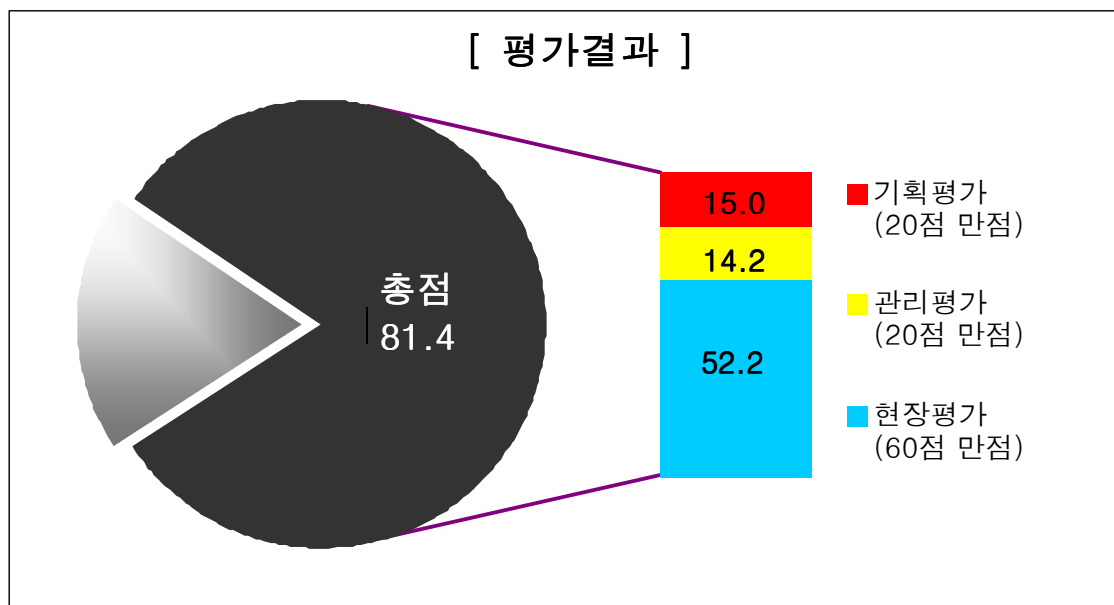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7월 22일 ~ 7월 31일
- 장소 : 포항 환호해맞이 공원 내 3개 야외무대
- 주최 : 포항시, 사)포항바다국제연극제진흥회
- 후원 : 문화관광부, 경상북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연극협회, 대산농촌문화재단 , 포항 1대학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7. 22. ~7.31.) → 서면평가(2005. 10.) → 개별평가회의(2005. 10. 6.)

4. 평가결과 : 81.4 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5.0 | 14.2 | 52.2 | 81.4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5.0/7.0 | 4.0/5.0 | 4.0/4.0 | 2.0/4.0 | 15.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1/3.0 | 6.0/9.0 | 6.1/8.0 | 14.2/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동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0) | 사업내용(30) | 관객서비스(20)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7.6/8 | 19.0/22 | 18.0/20 | 26.4/30 | 18.9/20 | 89.9/100 | 53.9/60 |
| B | 6.8/8 | 19.4/22 | 18.0/20 | 21.6/30 | 18.5/20 | 84.3/100 | 50.6/60 |
| C | 6.8/8 | 19.7/22 | 18.0/20 | 24.0/30 | 18.2/20 | 87.0/100 | 52.2/60 |
| 평 균 | 7.1/8 | 19.4/22 | 18.0/20 | 24.0/30 | 18.6/20 | 87.1/100 | 52.2/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포항지역에 미약한 연극적(예술적) 체험을 통해서 지역 예술 활동의 활성화 및 지역 시민들의 예술 발전과 이를 통해 보다 더 활발한 예술적 자치 문화형성의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며, 문화도시 포항을 추구하고 문화예술축제로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축제임.
- 지역인 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축제에 참가한 관객들이 일찍 자리를 뜨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지역인 들이 축제의 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타의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행사목적이 너무 광범위하여 축제의 성격이 모호하며,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 설정이 필요.

□ 사업 운영

- 지역 예술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조직위가 불안하게 출범한 것에 비해 비교적 전체적인 조직 운영은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사업운영은 예산과 인력 규모를 생각할 때 적합한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었다고 할 수 있음.
- 공연장소를 ‘해맞이 공원’으로 한정된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임. 행사의 집중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음.
- 그러나 야외공연이 안는 가장 큰 문제인 우천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고, 음향 등에서 문제

점을 보임.

- 또한 관객에 대한 기타의 서비스 제공이 전혀 없었으며, 안내요원과 행사 진행요원이 부족하였음.
- 이와 더불어 홍보면 에서 행사장 주변과 바닷가 쪽 입구에 행사 표시판 설치가 필요함.

□ 행사 내용

- 어린이 연극에서부터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무대 설치를 통해 하나의 시적인 축제 분위기와 지역 시민들의 참여와 배려가 엿보였으며, 분위기 조성에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목적에 부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고 할 수 있음.
- 주 행사로서 검증 받은 연극들의 초청으로 기초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극 체험에 시민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앞으로의 문화 발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 그러나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고, 개막작을 비롯하여 해외작품의 경우 지나치게 전문적인 공연이 많아 일반관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며, 너무 무겁고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 때문에 중간에 많은 관객이 나감. 예를 들어 <피그말리온>이나 <조금만 더>의 경우 뚜렷한 스토리 없이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한 해체 극으로 이를 관객이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베케트의 작품 역시 전문가들도 편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작품임이 분명함. <지저스크라이스트>의 경우 역시 많은 뮤지컬 작품 중에서 종교성 등의 색채로 인해 한정된 관객층을 갖는 작품으로 이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이 작품의 어려운 곡들을 소화하기에는 한성뮤지컬 컴퍼니 배우들의 역량이 부족하였음.
- 또한 행사의 참신성이 부족하고 특히 외국 초청 공연의 경우 야외공연으로는 적합지 않은 공연들이었고 참가단체의 질적 수준도 떨어짐.

□ 관객 서비스

- 전반적으로 관객서비스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작품들의 관람이 무료로 제공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행사의 발전과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국내 공연의 경우 관객도 많고 관객의 반응이 좋음.
- 그리고 관객의 편의 시설이나 행사장 환경은 좋았으나, 현장에서의 자원봉사 또는 집행부의 인력부족 등의 문제와 공원 전체를 사용하고 서로 다른 4개의 공연장에서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려짐을 고려할 때 홍보가 미약했다고 생각됨.
- 또한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두개의 매점 외에는 관객들이 다른 먹을거리를 선택할 기회가 없었고, 아이들의 놀이기구의 요란한 소음으로 공연관람에 어려움을 주었으며, 공연장외에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여타의 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 문제점

- 전체 예산규모가 국제 행사를 하기에는 부족하며, 특히 행사장 시설 설치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 되므로 공연단 초청경비가 적은 관계로 우수 단체 초청은 어려운 실정임.
- 프로그램과 진행에 문제가 있었는데, 공연을 관리하는 진행요원이 전무하여 행사에 대한 안내나 공연에 대한 안내를 받기 어려웠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공연 중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제재는 없었음.
- 시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많

은 시민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매우 넓은 공원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행사들에만 지나치게 포커스가 맞추어졌음. 또한 관객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폭넓은 행사에 대한 관심을 위한 참여 행사들이 부족했음.

□ 개선 방안

- 포항시의 보다 폭넓은 홍보(거리에 플랜카드, 축제에 대한 분위기 고조 등등)가 선행되어야 함.
- 행사공간이 바닷가 공원으로 다른 지역 축제와 차별화 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바다 야외 공간에 어울리는 작품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주 행사 이외의 단막극, 또는 거리극, 즉흥극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으므로 장소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객들이 쉽게 접근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완이 병행되면 현재보다 한층 더 좋은 축제로서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작품수를 줄이더라도 바다에 어울리는 수준 높은 작품 선택이 필수적이며,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국제 행사로서의 발돋움을 위하여 시민들의 축제에 대한 주인의식과 함께 보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협조가 뒤따르면 지역 문화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됨.
- 이를 위해 진행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행사 중 관객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지역 내 후원을 적극 유도하고 일부공연의 유료화 검토 필요.
- 이와 더불어 장소의 특성상 그리스 야외극을 초청하는 것과 국내에서 제작된 그리스 연극을 초청하여 그리스연극을 전문적으로 상연하는 것도 특성화 하는데 검토할 수 있음.

6. 총평

포항시와 포항바다국제연극제진흥회 주최로 올해 다섯 번째를 맞으며, 국제적 행사 성격을 띠는 것으로는 두 번째인 <포항바다국제연극제, 2005년7월22일~2005년7월31>는 지방의 의미 있는 축제로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총평에서는 본인을 포함한 다른 평가위원들의 의견들을 집약한 하나의 소견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이번 5회를 맞은 <포항바다국제연극제>는 점진적인 행사 규모의 확장이 보였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축제 규모의 확장에 따른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꾀하는 데는 아쉬움을 남겼다.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함께 고려의 대상이었어야 할 개별적인 작품들이 지니는 전문성과 대중성에 대한 파악이 없었던 점은 관객층에 대한 배려가 미비했다고 볼 수 있다. 관객들의 수준과 참여의식을 생각해서 프로그램이 보다 더 많은 관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변화된 프로그램으로의 변신이 기대되는 행사였다. 즉 축제 분위기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공연들과 전문적 예술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검증된 작품들로 이원화시켜 더 알차게 꾸며졌더라면 포괄적인 축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모든 공연들이 야외공연으로 이루어져서 시설의 문제점들과 함께 공연 자체가 지니고 있던 색채를 관객들에게 전달해 주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야외에서 공연들이 올려진다는 점은 구조물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작품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향후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 역시 생각해 봐야 한다.

프로그램의 다른 한편으로는 요즘 같이 많은 공연 축제가 열리는 상황에서 <포항바다국제연극제>가 다른 기타의 공연예술제 거창, 춘천, 밀양 등과의 차별성이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보여

주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미래의 <포항바다국제연극제>를 지역성을 탈피하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타 공연 예술제와의 차별성이 필수적인 부분이다. 넓은 공원과 빼어난 자연 경관을 지닌 야외극장들을 이용해 더 특색 있으며, 다른 공연 예술제와 차별화될 수 있는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지역사회의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측면까지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공연 예술제의 운영과 홍보에 있어서 포항시의 협조 또한 지적해야 될 것이다. 포항시 시내에조차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은 포항시의 적극성이 결여된 듯이 보였다. 포항시의 적극적인 홍보는 포항 시민들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 축제로, 더 나아가서는 국제 연극제로의 도약의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시 차원에서의 관심은 자원봉사자 등의 진행요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와 수적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안내요원의 수적 부족, 공연에 대한 정보 부재 현상, 미흡한 안내 서비스는 축제의 즐거움을 반감시킨다. 그리고 공원 내에 축제를 위한 부수적 장치가 없었다는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었다. 축제라고 생각할 때 분위기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공원을 찾는 관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과 다양한 휴식 공간은 앞으로 연극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이번 제5회 <포항바다국제연극제>는 운영과 프로그램에서 몇몇 문제들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이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포항바다국제연극제>는 우선적으로 그 시도와 타당성에 있어서 해당 지역의 시민들에게 공연 예술의 진정한 체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만족도와 참여의식과 함께한 제 5회를 맞은 <포항바다국제연극제>는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의욕과 그 국제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 준 공연 예술제였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제2회 고마나루전통예술축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제2회 고마나루전통예술축제(1Gomanaru Local Theater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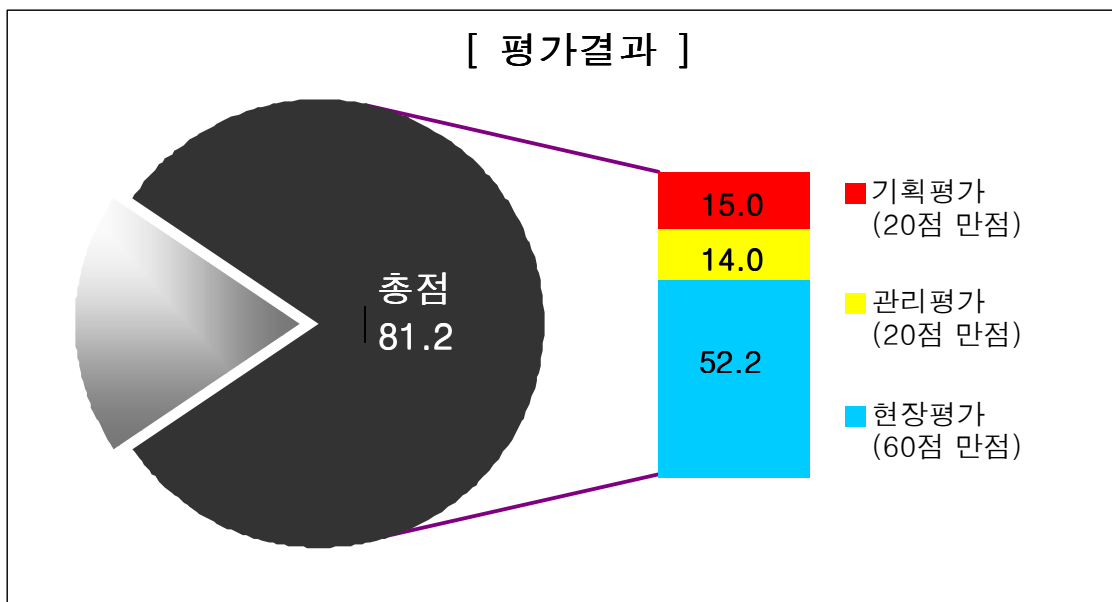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9월 24일 ~ 10월 5일(12일간)
- 장소 : 충청남도 공주시 공산성(쌍수정 야외극장, 공북루 야외무대)
- 주최 : (사) 한국연극협회
- 주관 : 고마나루 전국 전국향토연극제 집행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충청남도, 공주시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9. 24 ~ 10. 5) → 서면평가(2005. 12.) → 개별평가회의(2005. 12. 9)

4. 평가결과 : 81.2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5.0 | 14.0 | 52.2 | 81.2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6.0/7.0 | 5.0/5.0 | 4.0/4.0 | 0.0/4.0 | 15.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1/3.0 | 6.3/9.0 | 5.6/8.0 | 14.0/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0) | 사업내용(30) | 관객서비스(20)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6.8/8 | 18.4/22 | 17.1/20 | 25.3/30 | 17.0/20 | 84.6/100 | 50.8/60 |
| B | 7.2/8 | 20.6/22 | 18.0/20 | 25.0/30 | 17.2/20 | 88.0/100 | 52.8/60 |
| C | 7.2/8 | 17.6/22 | 16.5/20 | 28.9/30 | 18.3/20 | 88.5/100 | 53.1/60 |
| 평 균 | 7.1/8 | 18.9/22 | 17.2/20 | 26.4/30 | 17.5/20 | 87.1/100 | 52.2/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2005년 제 2회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는 작년보다 국내 참가팀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며 지역연극 활성화 및 우리 고유의 창작극 발굴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향토성이 무엇인지, 예술문화 현실에 왜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심화 가능한 개념인지, ‘향토성’이라는 핵심개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전국적으로 소비성 축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재 이러한 문화 축제는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연극을 중심으로 행사를 구성하되 기존의 전국연극제와의 차별을 갖기 위해 향토성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행사를 구성한 의도도 돋보인다.

□ 사업 운영

- 주 행사장인 공산성은 향토연극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되며 행사진행에 관객 프로모션까지 전반적인 사업운영이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잘 이뤄졌다고 평가됨.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공주아시아1인극제’와 ‘백제문화제’가 동일한 지역에서 개최되어 축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전국 단위의 연극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홍보와 운영에 소홀한 점이 있었고, 축제의 내용 구성에 비하면 홍보와 운영은 공주의 지역성을 크게 탈피하지 못한 점, 관객들도 대부분 공주지역민들이어서 전국단위의 축제라기보다는 지방 도시인 공주의 문화행사인 것 같은 느낌이 많았다. 충청남도의 타 도시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거의 없었고 또 홍보요원들의 배치도 부족해 행사를 널리 알리는데 취약성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됨.

□ 행사 내용

○ 공식 참가작의 경우 지역의 숨겨진 설화와 민속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정하여 우리 고유의 창작극을 발굴,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하지만 외국 초청작품은 우리가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속공연단(몽골 민속 무용단, 브라질 삼바팀, 페루 안데스 뮤지 트리오)수준임. 이것은 타 지역 축제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전통문화를 관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야 하며 나무 곤충 만들기, 기악탈 전시, 널뛰기, 탈그리기와 같은 타 지역 축제 이벤트 프로그램에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삭제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향토성 깊은 공연물과 관객의 참여를 위한 부대 행사들의 구성이 좋았지만 공연물들의 형식이 전통연희, 뮤지컬, 연극 등으로 통일되지 않아 향토연극제의 정체성(통일성)을 찾기가 어려움. 향토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 필요.

○ 경선 부문인 참가작과 비경선 부문인 초청작으로 나뉘는데, 참가작은 대부분 지역 극단의 작품으로 채워졌고, 흥미로운 것은 향토성이 주로 ‘지역 인물’과 ‘잘 알려진 고전’이라는 소재적 상투성을 벗지 못하고 있고 형상화 방법이나 무대 쓰임새도 엇비슷하다는 점.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해외 민속예술공연을 축제의 성격과 무관하게 국내에 체류 중인 공연 팀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함.

□ 관객 서비스

○ 대부분의 관객이 공주 시민들이라 이들에게 공주성은 편안한 장소였고, 밤 공연이 중심인데 공주성 안은 너무 어두웠고, 음향적 문제 때문에 공간을 집중시킬 수 없었음. 또한 공연장 분위기를 정돈하는 진행요원도 아직은 수적 질적으로 부족했음.

○ 먹을거리 장터 운영과 같은 편의시설 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공연 장소가 두 곳으로 분리되어 행사의 분위기를 돋우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 타지에서 찾아온 관객들을 위한 행사장 안내가 미흡했음. 홈페이지의 안내만으로 공연장을 찾아가기가 어려웠고, 전화 안내원들의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던 점은 개선되어야 함..

□ 문제점

○ 관광객 및 지역주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부재, 축제 이벤트의 중복 개최 및 개최시기의 편중의 문제.

○ 행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향토’라는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것임. 공연의 내용을 전통 연희물을 가져온다고 해서 무조건 향토연극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즉 내용과 형식에 관한 치열한 논구가 있고 난 후에야 사업 목적에 적합한 행사가 될 수 있음. 올해 행사의 경우에도 공연의 모양은 전통 연희 즉 향토 연극인 것 같았지만 그 공연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공연장의 모습은 사업 주체들이 의도하는 향토 연극제와는 거리가 있음. 공연을 알리는 홍보의 방법과 범

위 그리고 홍보요원의 교육과 배치에도 전문적이지 않았음.

○ 방대한 조직구성의 문제와 내부적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

□ 개선 방안

○ 조직을 단출하게 하고 역량 있는 예술 감독을 선임하고 그 예술 감독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함.

○ 전시형 부대행사는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기획이 요구되며, 베네치아 카니발의 경우 축제운영위원회에서 지역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면과 의상을 입고 축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임.

○ 공주아시아1인극제, 백제문화축제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지역에서 개최되어 축제 상호간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개최시기 변경 및 축제통합운영방안이 요구됨.

○ 향토 연극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데 먼저 초점을 두어야 하며, 막연하게 전통연희의 구성물들을 가지고 축제를 만들 것이 아니라 향토 연극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학술제와 현장실습 그리고 공연을 통한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함. 공주라는 지역성을 탈피하면서도 공주 지역 전통 연희 전문가들을 축제 기획위원회에 포함시킬 방안이 요구됨.

6. 총평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는 지역의 숨겨진 설화와 민속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정하여 우리 고유의 창작극을 발굴,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5년 제 2회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는 작년보다 국내 참가팀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며 지역연극 활성화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행사진행에서 관객 프로모션까지 전반적인 사업운영이 작년에 비해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과 이벤트 축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눈에 띈다.

첫째, 외국 초청작품은 우리가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속공연단(몽골 민속 무용단, 브라질 삼바팀, 페루 안데스 뮤지 트리오)수준이다. 이것은 타 지역 축제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전시형 프로그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나무 곤충만들기, 기악탈 전시, 널뛰기, 탈 그리기와 같은 타 지역 축제 이벤트 프로그램에 상투적으로 등장하는 부대행사는 지양하고,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벤트를 축진시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베네치아카니발의 경우 축제운영위원회에서 지역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면과 의상을 입고 축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축제의 상품력을 높이기 위해 ‘홍콩공연예술제’ 처럼 방문자를 리스트 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캐릭터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축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축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시기 변경 및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공주아시아1인극제, 백제문화축제, 향토연극제는 같은 시기에 동일한 지역에서 개최되어 축제 상호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의 문화축제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최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며 부득이 할 경우 공주아시아 1인극제, 백제문화축제, 향토연극제를 통합 운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춘천인형극제 2005 평가결과 -

1. 사업명 : 춘천인형극제 2005 (PUPPET FESTIVAL CHUNCHEON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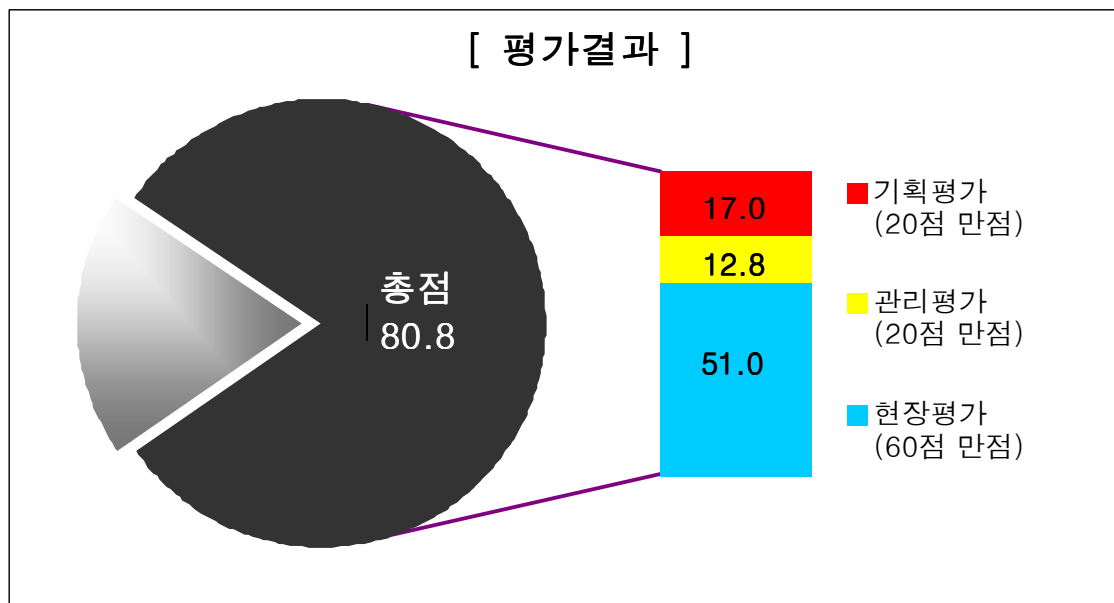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 간 : 2005. 8. 9(화) ~ 8. 15(월), 7일간
- 장 소 : 춘천인형극장, 육림랜드, 춘천 시내 일원 등
- 주 최 : 춘천시, (재)춘천인형극제
- 주 관 : 춘천인형극제집행위원회, 춘천인형극제협의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인형극협회, UNIMA KOREA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8. 9 ~ 8. 15) → 서면평가(2005. 12.) → 개별평가회의(2005. 10. 17)

4. 평가결과 : 80.8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7.0 | 12.8 | 51.0 | 80.8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7.0/7.0 | 5.0/5.0 | 2.0/4.0 | 3.0/4.0 | 17.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8) | 사업목표 달성도(9) | |
| 1.65/3.0 | 5.55/12.0 | 5.6/5.0 | 12.8/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0) | 사업내용(30) | 관객서비스(20)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5.6/8 | 17.6/22 | 15.1/20 | 22.4/30 | 16.5/20 | 77.2/100 | 46.3/60 |
| B | 7.6/8 | 20.7/22 | 19.4/20 | 28.1/30 | 19.5/20 | 95.3/100 | 57.2/60 |
| C | 6.4/8 | 19.9/22 | 16.9/20 | 23.4/30 | 16.0/20 | 82.6/100 | 49.6/60 |
| 평 균 | 6.5/8 | 19.4/22 | 17.1/20 | 24.6/30 | 17.3/20 | 85.0/100 | 51.0/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세계 공연예술의 흐름과 견주어 정체성 또는 발전적 모색이 보이지 않음.
- 대부분의 관객이 어린이로 채워지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모색이 없음. 따라서 이번 축제는 개막 행사 등의 일부 신선한 연출을 제외하면 종래의 한국인형극의 보수적이며 유아관객중심의 경향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일부 관객들의 반응을 볼 때 오히려 안이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 국내외 인형극단과 인형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적인 축제 한마당이라는 목적이 잘 이루어짐
- 인형극이라는 특수 장르를 매개로 국내외 인형극단과 인형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적인 축제 한마당으로 인형극과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통해 새로운 예술적 체험을 제공한다는 목적에 대체로 부합하는 축제임.

□ 사업 운영

- 인쇄물의 디자인을 제외하면 운영측면에서는 특별히 다가오는 부분이나 감동적인 경험이 없음.
- 축제가 춘천에서 이루어진다는 단순한 장소의 의미 이상을 느끼게 하는 장소 성을 담보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역민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은 지역축제로서의 의미를 의심케 함.
- 17회째 운영되는 축제행사여서인지 기존의 안정된 틀에서 운영이 이루어 졌으나, 그 규모나 인형극의 다채로운 양상들이 확대되지 못하고 그간의 관행을 되풀이 하는 듯 실험정신이 돋보이지 않음. 2001년 춘천인형극장과 2004년 춘천인형극박물관의 개관은 진일보한 측면이나 그 활용범위나

효용가치가 그다지 부각되지 않음.

□ 행사 내용

- 해외 7개국 8개 극단, 국내 39개 전문극단, 29개 아마추어 극단들이 공식초청공연, 일반참가공연, 자유참가공연, 거리공연의 형식으로 공연. 이외에도 체험프로그램인 양말인형, 짚풀인형 등 다양한 인형만들기 프로그램과 함께 뒤죽박죽 만물장터, 인형극 아트마켓, 아마추어 인형극 경연대회, 창작 인형극 대본 공모 등이 부대행사로 무리 없이 진행됨. 또한, 일반인들, 교사전문인형극인들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과 세계 인형극 학교의 교육사례 발표 세미나 등이 교육적인 측면을 담당하고 있음.
- 야외공연이 대부분 외국팀에 의해 채워져 국내 인형극 또는 인형오브제의 개념이 축제 성을 보여주지 못함. 전체적으로 이번 축제는 외국작품과 국내작품의 소개라는 평면적인 기능 이상의 축제 성을 드러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종래의 어린이 대상의 행사라는 이미지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관객 서비스

-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하고, 극장이 가까운 곳에 밀집되어 있어 관객의 동선을 줄여준 점은 좋았으나 더운 여름 한낮을 보낼만한 쉼 공간이 부족해 보임.
- 타 지역으로부터의 기차, 버스, 춘천 내 셔틀버스 노선안내, 티켓예매 및 이용안내가 자세히 제시되어 있음.
- 다양한 음악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관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함.
- 팸플릿, 브로슈어 등이 행사를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적절히 제작되었음.
- 관객점유율은 높은 편이나 관객의 호응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관극 환경과 진행자들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됨)
 - 유아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관객에 대한 주최 측의 태도가 질서 중심과 행정 편의적으로 보였으며, 관객서비스라는 측면에서 매너리즘과 자족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 문제점

- 한국인형극계에 제시하는 새로운 비전이 약함. 특히 외국인형극단의 경우 안정과 실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작품들이 선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세계 공연예술의 흐름과 견주어 정체성 또는 발전적 모색이 보이지 않음.
- 어린이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인형을 가지고 노는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함.
- 대부분의 관객이 어린이로 채워지는 현실에 대한 반성적 모색이 없음.
- 작은 규모의 손 인형들, 동화 스토리 위주의 극 구성으로 인해 인형이 주는 무한한 상상의 세계와 그 특유의 판타지가 결핍되어 있음.
- 인형극장의 실내 공간 이용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인형 박물관의 전시물이 턱없이 빈약하며, 그 해설이 비전문적임
- 사전 홍보, 거리 홍보 등이 미흡하고, 장소 성을 담보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역민의 참여가 없었음.

□ 개선 방안

- 춘천인형극제는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인형극제다. 따라서 축제 기간 중에 한국의 인형극의 흐름

을 조망하거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인큐베이팅 개념이 필요하다고 봄. 먼저 해마다 새로운 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작품의 선정, 경연, 쇼케이스, 세미나 등의 방향 등이 기획될 필요가 있음.

o 성인대상의 인형극에 대한 특별한 기획 및 관리가 필요. 이는 공연예술 전체에 대한 인형극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는 바, 현재 한국의 인형극계에서의 공급이 문제가 된다면 인형 오브제와 접목된 타 장르 또는 복합장르 등을 초청하거나 일정한 제작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인큐베이팅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임.

o 인형의 개념 확대에 따른 다양한 소재와 사이즈, 이미지의 발굴에 역점을 두고, 타 장르와의 접목을 통한 제3의 공연양식을 창출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o 춘천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해프닝이나 춘천의 명물을 캐릭터화 하는 일차적인 시도에서부터 지역민이 참여하는 연중 인형극워크숍을 실시하고 이 과정을 전시하거나 결과를 발표하는 지속성 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겠음. 물론 이 같은 프로그램은 지난 해 축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극단이나 작가를 초청하거나 일반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운 예술교육을 실험하는 등의 진취성이 요구됨.

o 인형은 작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축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시각적 상징적 요소임. 극장을 벗어나 지역축제나 크고 작은 행사의 콘텐츠로서 인형극을 육성할 필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춘천인형극제는 또 하나의 축제 콘텐츠 시장이 될 수 있음. 야외공연 형식으로 제작된 작품을 우선적으로 초청한다든가 하는 식의 기획이 필요

o 축제의 주 고객인 어린이에 대한 서비스현장 같은 것을 마련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내적으로는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 그러면 어린이가 대접 받는 축제로서 이미지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음.

o 일상의 이벤트와 함께하는 인형극, 퍼레이드, 인형/오브제 퍼포먼스 등, 그 제작과정 초반부터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자연 속의 축제, 거리의 축제로 그 공연 공간 확대 필요.

6. 총평

사업목적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많은 인형극단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직간접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주어진 것까지 의미도 있고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나 세계 공연예술의 흐름과 견주어 정체성 또는 발전적 모색이 있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이렇다 할 기획 상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 국내 인형극의 경우 역시 새로운 인형극인들의 작품들을 공식참가작으로 초청하여 적극적인 인형극계의 발전을 유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안정과 실험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원봉사자들은 친절하게 관객들을 대했으나 지정된 곳에서만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지정된 곳을 벗어나면 안내를 받거나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없어 아쉬웠다. 곳곳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 공연장 및 부대행사에 대한 안내를 하거나 팻말 혹은 안내 표지판 등이 좀더 눈에 쉽게 띄이는 곳에 설치되었으면 했다.

긍정적인 부분은 국내인형극단의 단원들이 자원봉사자로 직접 참여하여 행사운영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는 점이다. 춘천인형극제는 국내 인형극인들의 축제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취약점은 언론을 통한 홍보였다고 생각된다. 공연에 대한 기사가 다루어 진 사례가 거의 없어 보였다. 춘천인형극제가 춘천지역에 국한된 축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보도가 필요하다.

사업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척도를 보통으로 한 것은 인쇄물의 디자인을 제외하면 특별이 다가오는 부분이나 감동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연계성의 항목은 축제가 춘천에서 이루어진다는 단순한 장소의 의미 이상을 느끼게 하는 장소 성을 담보하는 프로그램이나 지역민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은 지역축제로서의 의미를 의심케 한다.

행사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신선함과 지리멸렬함이 교차된다. 국제행사로서 초청된 외국 작품의 수준은 일정수준을 담보한 것으로 여겨진다. 작품의 다양성이 확보되었고 전통적인 형식과 새로운 시도들이 고르게 소개되었다. 특히 프랑스극단인 파란공 아뜰리에에는 한국과 프랑스간의 소재 및 표현방식의 결합이 상호 상승효과를 보여주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국내 작품의 경우 한두 작품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인 교류의 차원에서는 수준작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늘어놓기 이상의 교류 프로그램은 파티 형식의 친목프로그램으로 처리되었던 것 같다. 축제가 인형극백화점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그것은 서로 다른 것들의 만남에 의한 섞임과 충돌, 우연성에 의한 새로운 것의 발견이 동반되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공동 작업이나 워크숍 등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야외공연이 대부분 외국팀에 의해 채워져 국내 인형극 또는 인형오브제의 개념이 축제 성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인형극시장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축제 주최 측이 이 부분에 대한 일정한 역할을 자임하지 않는 관점과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엄정애씨의 인형전시와 같은 콘텐츠는 규모나 전시방식의 소박함에도 불구하고 축제 성도는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균형 잡힌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하고 싶다. 전체적으로 이번 축제는 외국작품과 국내작품의 소개라는 평면적인 기능 이상의 축제 성을 드러내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종래의 어린이 대상의 행사라는 이미지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객점유율은 높은 편이다. 이는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콘텐츠 공급의 취약성에 비해 부모들의 교육적인 열의가 상대적으로 높아 그리 쉽지 않은 가족동반의 여행을 감행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관객의 호응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수준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관극 환경과 진행자들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유아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관객에 대한 주최 측의 태도가 질서 중심과 행정 편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대체로 처음 방문한 관람객의 반응이 긍정적인 반면 재방문객의 경우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축제가 적어도 관객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매너리즘과 자족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번 기회로 춘천인형극제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된 필자는 내심 인형이 인간에게 주는 판타지에 취하고 싶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체류기간 내내 작품들과 마이크를 통해 들리는 공연자들의 목소리,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움직임 그리고 복잡한 스케줄만이 다가 왔다. 물론 교회 주일학교나 유치원, 백화점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존해야하는 인형극 시장의 한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역축제나 문화예술교육, 국민의 창의성 신장 등과 관련된 새롭게 열리는 지평에 대해 그리고 오늘의 공연예술이 지니는 복합장르나 다원적 예술과 관련한 과제와 그에 대한 일련의 노력들과는 대체로 무관해 보이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이 축제의 기획과정이 외부의 정보에 대해 일정하게 닫혀있거나 보수화되어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제9회 수원화성국제연극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제 9회 수원화성국제연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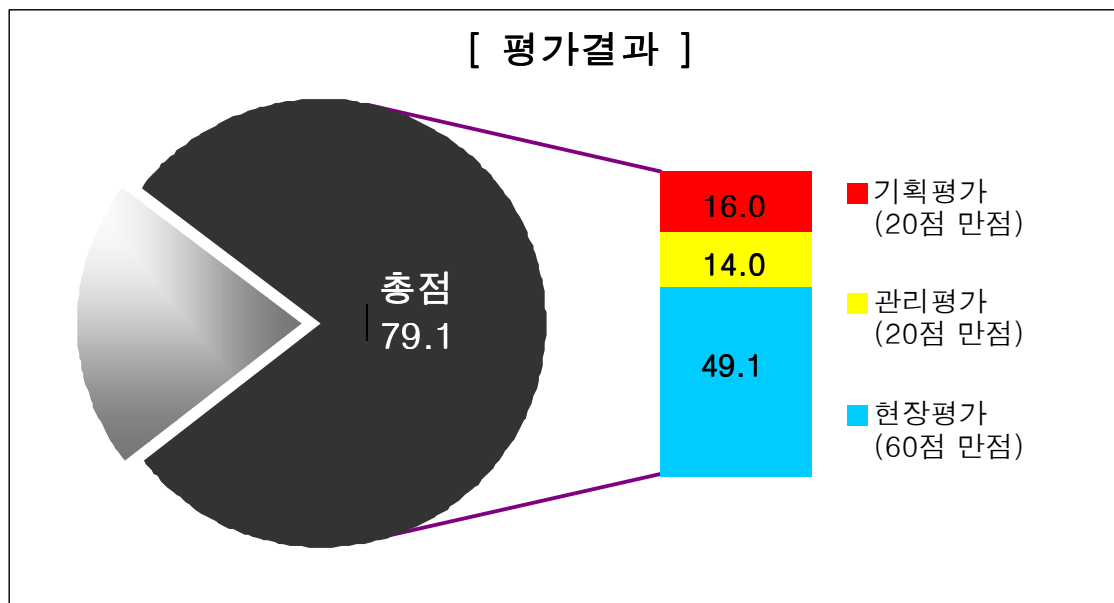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 간 : 2005년 8월 17일 ~ 2005년 8월 28일
- 장 소 : 화성행궁, 경기도 문화의 전당, 수원야외음악당 등 수원시내 일원
- 주 최 : 재단법인 수원화성문화재단
- 주 관 : 제9회 수원화성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수원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8. 4. ~ 8. 7.) → 서면평가(2005. 9.) → 개별평가회의(2005. 10. 14)

4. 평가결과 : 79.1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6.0 | 14.0 | 49.1 | 79.1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7.0/7.0 | 4.0/5.0 | 1.0/4.0 | 4.0/4.0 | 16.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55/3.0 | 5.85/9.0 | 5.6/8.0 | 14.0/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0) | 사업내용(30) | 관객서비스(20)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7.2/8 | 20.7/22 | 18.5/20 | 26.4/30 | 14.0/20 | 86.8/100 | 52.1/60 |
| B | 6.4/8 | 15.5/22 | 14.5/20 | 23.9/30 | 14.0/20 | 74.3/100 | 44.6/60 |
| C | 7.2/8 | 18.1/22 | 17.0/20 | 25.8/30 | 16.0/20 | 84.1/100 | 50.5/60 |
| 평 균 | 6.9/8 | 18.1/22 | 16.7/20 | 25.4/30 | 14.7/20 | 81.8/100 | 49.1/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1996년 수원 화성 축성 2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서울에 집중된 문화 예술 행사를 좀 더 균형감 있게 다른 지역에도 분배하려는 목적을 지님. 지방이 갖는 상대적 빈곤함을 극복하고 지역 예술 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를 기획함.
- 자연, 성, 인간을 주제로 한 국제 연극제로, 세계 문화유산인 성곽과 유산 물을 충분히 활용하여 200년 전통의 수원 화성에 그 문화적, 예술적 깊이를 더해 주고 있음.
- 그러나, 사업 목적이 분명하게 설정되거나 홍보되지 않음. 가령, 리투아니아의 <말괄량이 길들이기> , 러시아의 <소년> 등의 공연을 7~8살 어린이가 관람하기에 무리였음. 예술적 성취도에 비하여 객석이 소란스러워서, 출연진에 미안할 정도였음. 어떤 시민인가 등의 사업목적을 명확하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연극축제로서 의미 획득하였고 다양한 공간 활용, 대중성 있는 공연의 유치를 통한 연극에 대한 관심도 제고 노력과 우수 해외 공연을 통한 연극 발전의 기회 제공에 의미가 있음.

□ 사업 운영

- 개막식 행사도 미약했으며 보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흥겨운 기획이 요구됨.

- 장소 및 기간의 확대를 통한 다수 공연 유치가 풍성한 축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집중과 선택을 통한 핵심 공연을 구별하기 어려웠음.
- 인터넷 및 잡지, 방송, 언론 보도를 활용하고 오프라인에서는 포스터와 팸플릿, 전단지, 플랜카드 등을 경기도 고속도로 휴게소, 동사무소등 주요 지역에 부착하여 홍보함. 그러나 전년에 비하여 전혀 홍보가 되지 않은 느낌과 더불어 조직적이지 못함.
- 수원 이외의 지역 관람객을 위한 안내 체계 미흡(수원역, 터미널 등에 홍보 사인물 필요.)

□ 행사 내용

- 국내 공연작의 경우, 신작과 기존작의 비율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해외 초청작의 경우, 비용 대비 우수한 프로그램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되나 외국공연이나 국내공연 모두 비교적 공연의 수준은 높았다고 생각됨. 일부 공연(프랑스, <멕베스> 정도)을 제외하고는 관객과의 교감을 이루어지지 못함.
- 부대행사로 ‘자연, 성, 인간’을 주제로 설치 미술전이 총 12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연극과 미술의 관계를 주제로 삼아 또 한편의 극을 창조해냄. 북미 아메리카 팀과 에콰도르 팀의 공연은 거리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극제 이전에 미리 시내 거리에서 펼쳐졌고 비공식 행사로 영화 상영과 댄스 등이 제공되어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음.
- 거리공연 및 일부 아마추어 공연의 경우, 행사의 풍성함만을 위한 배치로 국제연극제에 걸 맞는 수준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관객 서비스

- 작품 선정에 있어서도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고, 일반 관객뿐만 아니라 문화에서 소외된 계층까지 참여할 수 있는 작품들로 선정하여 연극인만을 위한 연극제가 아니라, 모두 함께 즐기는 연극제로 만들 고자 함.
-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관객과 배우가 소통하는 연극을 기획하여, 연극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높이하고자 함.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관객과의 교감을 필요로 함.
- 부대 행사로 거리 공연이 펼쳐졌는데, 이는 연극제 시작 이전에 수원 시민들에게 축제 분위기를 조성 함.
- 외지 관람객을 위한 안내 체계 미흡함. 야외 공연의 경우에도 행사장 표시 및 안내서비스 미흡

□ 문제점

- 수원 화성 국제 연극제는 하나의 행사로서 이미 확고한 자리를 잡은 듯 함.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이 문화 예술 행사로서 그 근본정신을 훼손시킬 수도 있음. 시민의 축제, 그리고 예술이 우선순위가 되는 행사가 되어야함.
- 운영 및 홍보, 그리고 현장 관리 등에 다소 미흡하였음. 특히 실내 공연장의 경우, 일반 공연행사와 다른 바 없는 운영 체계를 유지하였고, 야외 공연장의 경우, 현장 표시 및 안내 서비스 체계 미흡함.
- 출연진과 관객과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음. 우선 누구를 겨냥한 공연인지를 분명히 해야 함. 서울의 학자들까지를 염두에 둘 것인가, 시민을 위한 공연인가, 시민이라면 적어도 연령층을 나누어 홍보해야 함.
- 핵심 공연과 부대 공연의 구별이 미흡하여, 관람객들의 관람 선택에 어려움. 관객 서비스 차원

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함.

□ 개선 방안

- 축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함.
- 도시 마케팅 및 지역 활성화 전략과 연계한 홍보 및 운영 전략 도입 필요함.
- 국제연극제로서 국내외 공연프로그램의 구성 비율 조정 필요함.
 - 거리공연 등과 같은 비공식 공연, 초청공연 등을 축소하여 양보다는 질적 수준 제고 필요함.
- 주요 공연작품과 보조 공연작품에 대한 구분을 한 후, 공연일수나 회수의 차별화
- 관객과 공연의 교감을 끌어내도록 해야 하며, 관객 연령층을 고려하여, 공연 관람을 홍보가 필요함.
- 외지 관람객에 대한 안내 및 야외 공연의 행사장 안내 관련 관람객 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 서울 연극제와는 구분되는 수원 화성 연극제의 독자적인 모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자연과 성, 인간”이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수원의 문화적 배경과 자연이 연극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이 구성되고 공연장도 선정하면 좋을 듯. 또는 화성 행궁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6. 총평

이번 제9회 수원 화성 국제 연극제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홍보와 관객 서비스 및 연극제 철학의 결여에 있었다. 특별히 예년에 비하여 공연의 예술적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관객들과 어우러졌을 때 공연의 질은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연극이 공연으로 현장에서 완성되며, 연극의 삼대 요소가 배우, 극장, 관객이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던 연극제였다. 연극제를 널리 알리는 홍보는 차치하고라도, 공연 장소나 시간 등 구체적인 사실조차 알기 힘들었을 정도로 관객 서비스가 부족했다. 이번 연극제의 시정 사항과 차기 연극제를 위한 제안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극제 관객 서비스와 나아가서 연극제 홍보에 좀더 충실해야 하겠다. 이번 연극제 현장에서 눈에 띄는 가장 큰 부족함은 우선 공연장이 어디이며, 언제 어떤 공연이 있는지 조차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가령 한 위원의 경우 “연극제 종합 안내소에 전화를 걸어 물어 보았는데, 그곳 위치를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그러면 그 곳 전화번호라도 가르쳐 달라고 하니 그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경험을 했는데, 이는 단적으로 이번 연극제의 관객 서비스나 홍보의 부족을 말해준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우선 자원봉사자단의 선출을 미리 미리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겠다. 스스로 지역 연극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며, 교통비나 점심비와 같은 기본 소요비를 지원하는 것도 방도라고 하겠다. 또 공연상의 특질을 미리 파악하여, 이들에게 교육시키는 것도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공연장과 시간에 대한 답변은 물론이고, 공연 진행에 따른 사항들을 관객에게 선도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공연 작품의 관람 가능 연령을 필히 명시해야 하겠다. 성인과 아동이 뒤섞여서는 모두에게 불편한 공연이 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야외공연이라도 외국 공연의 경우, 그 줄거리 요약이라도 미리 관객에게 배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위하여, 홍보 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둘째, 연극제의 철학을 세워야 하겠다. 작년까지는 그래도 「자연, 성, 인간」이라는 주제가 어

느 정도 살아있었는데, 올해의 경우는 왜 그런 제목으로 했는지가 의아할 정도이다. 지난 몇 해 같이 공연장소를 화성이나 성벽을 활용했다면, 자연과 성에 어우러진 인간을 연상하기 쉬웠을 것이다. 또 이렇게 장소를 활용할 수 없었다면, 다른 주제를 제시했어야 했을 것이다. 이 연극제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관객에게 분명하게 알릴 때, 축제로서의 응집력이 생긴다고 하겠다.

셋째, 연극제 관객층 대상에 대한 연극제 측의 고려가 미흡했다고 여겨진다. 수원권 인접지역으로서, 한국연극의 변방이기도 하지만 중심지 역할 역시 가능한 곳이다. 이는 연극제 철학과도 직접 연결되는데, 그냥 지방축제를 겨냥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중심을 시도했는지를 분명히 해야겠다. 지방축제라면 좀 더 지역과의 연계를 분명히 하며, 지역 극단의 참여도 높이고, 지역 관심사를 연극화했어야 할 것이다. 꼭 연극이 아니더라도 지역 무형문화재들의 공연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착안일 수 있다. 한마디로 지역민과의 교류를 최우선으로 하고, 소박하지만 응집력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반면 연극제 중심을 겨냥했다면, 다소 응집력이 떨어지더라도 우수한 해외 공연을 유치하고 이들을 심미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관극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의 연극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평론가나 학계의 관심도 끌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술 감독의 임기를 보장하고, 연극제를 미리미리 준비 할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해외공연은 일 년 이내에는 절대로 좋은 공연을 유치하지 못한다.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연하고도 행운적인 경우로 어느 곳에서 갑자기 초대를 최소화하게 된 경우일 것이다. 사실 2년 안에 초대하기도 상당히 빠듯한 일정이다. 그런데 예술 감독이 선임되고서야 초대할 극단들을 선정하니, 이만큼 운영된 것도 어찌 보면 다행스럽다. 연극제의 연속성을 위해서, 차기 예술 감독을 현행 예술 감독 마지막 해에는 함께 일하도록 하면 좋겠다. 가령 임기가 3년인 경우, 3년 차에는 차기 예술 감독이 부감독으로 현행 예술 감독과 함께 해외 연극제를 다닌다든지 해서, 연극제의 연속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분명히 해야 하겠다. 혹은 두 명의 예술 감독을 선정하여, 격년제로 행사를 맡겨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세계의 대표 연극제인 아비뇽 연극제만 보아도, 예술 감독이 십 수 년 씩 연극제를 맡아왔다. 현재제로는 예술 감독이 시행착오를 깨달을 만하면, 시행착오를 막는다고 다시 예술 감독을 경질하는 현실이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2005 마일 연극의 날 평가결과 -

1. 사업명 : 2005 마일 연극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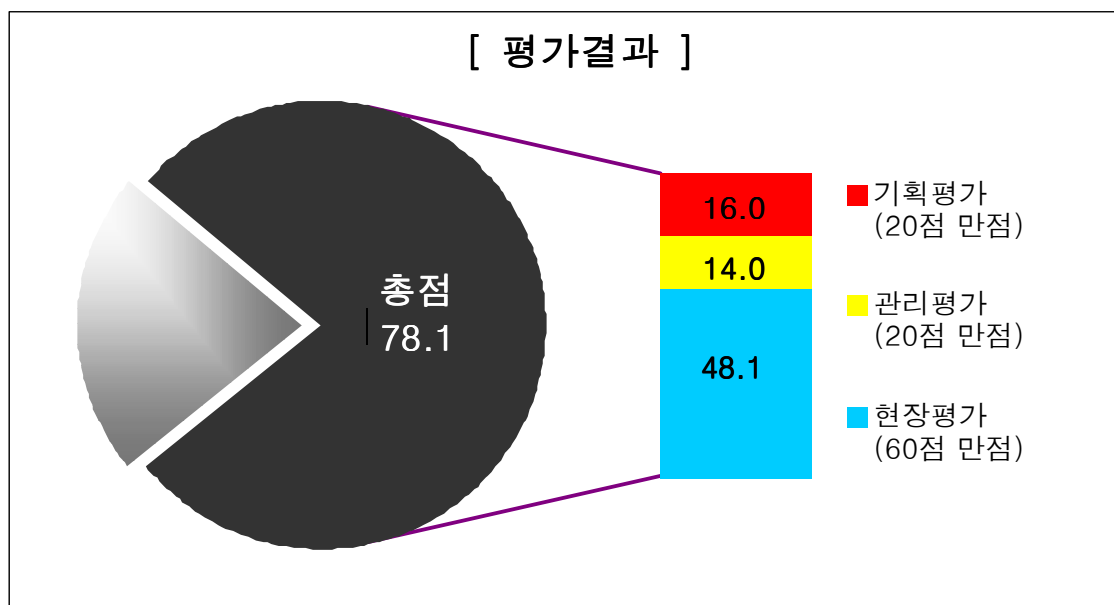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 간 : 2005년 3월 ~ 2005년 11월(9개월간), 매월 마지막 일요일 13:00 - 21:00.
- 장 소 : 마로니에 공원 및 대학로 일대 교통통제 구간
- 주 최 : 전국소공연장연합회
- 후 원 : 문화관광부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4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3. ~ 11.) → 서면평가(2005. 12.) → 개별평가회의(2005. 12. 7)

4. 평가결과 : 78.1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6.0 | 14.0 | 48.1 | 78.1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5.0/7.0 | 4.0/5.0 | 4.0/4.0 | 3.0/4.0 | 16.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12) | 사업목표 달성도(5) | |
| 2.1/3.0 | 6.3/12.0 | 5.6/5.0 | 14.0/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2) | 사업내용(34) | 관객서비스(14)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6.8/8 | 18.6/22 | 19.8/22 | 26.6/34 | 11.8/14 | 83.6/100 | 50.2/60 |
| B | 6.8/8 | 18.6/22 | 18.4/22 | 27.0/34 | 11.4/14 | 82.2/100 | 49.3/60 |
| C | 5.6/8 | 18.5/22 | 16.6/22 | 25.0/34 | 11.2/14 | 76.9/100 | 46.1/60 |
| D | 6.4/8 | 16.8/22 | 16.8/22 | 26.6/34 | 11.0/14 | 77.6/100 | 46.6/60 |
| 평 균 | 6.4/8 | 18.1/22 | 17.9/22 | 26.3/34 | 11.4/14 | 80.1/100 | 48.1/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마일 연극의 날의 사업목적으로 ①300석 미만 소공연장 활성화 도모, ②일반시민과 연극과의 친밀감 조성, ③점점 상업화 되어가고 있는 대학로의 문화환경 정화, ④관광문화상품으로써의 세계화 등 총 4가지로 행사목표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부스행사가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끈 것과 연극에 대한 친밀감을 약간 높인 정도를 제외하자면 사업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움.
- 마일 연극제의 사업 목적은 ‘민간 소공연장의 활성화, 대학로 거리정화, 세계적 문화상품으로서의 발전 도모’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연예술을 접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임.
- 공연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일반인에게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음.
- 대학로를 연극의 메카로 만들고 관객들이 연극에 관심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공연물이 너무 수준이 낮음.

□ 사업 운영

- 사업 운영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사전 및 현장 홍보가 부족하고 기존 홈페이지마저 폐쇄되어 행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실패하였음.
- 우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서 행사가 취소되고 지연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항시 시위가 많

은 대학로의 환경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등 기획력과 수행능력 부족으로 목적에 비해 운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

○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치르는 행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사업의 기획력과 수행능력이 다소 부족함. 더욱이 10월의 경우, 종로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차없는 거리)와 겹쳐 본 행사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었음. 야외극이라면 언제든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필요함.

○ 마일연극의 날에 대한 사전홍보를 찾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현장홍보 역시 잘 이뤄지지 않았음. 플랫폼카드와 진행자의 멘트 외에 별다른 안내체계가 없었음. 그나마 프로그램 순서를 적은 1장짜리 복사물이 있었지만 이를 알고 있거나 이용한 관객들은 극히 적었음.

□ 행사 내용

○ 프로그램은 다양한 관객들을 끌기에 적합하게 편성 되어 있었지만 야외공연의 특성과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함. 특히 가족들이 많이 있었지만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수준임.

○ 공연 자체가 관객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여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 결국 공연 당일까지 프로그램이 확정되지 못하여 홍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차례 반복되었음.

○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르로 편성되어 어느 정도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대부분 공연 수준이 떨어짐. 마치 공연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한 느낌을 주었음. 또한 작품들 간의 편차가 심한 편이어서 전반적으로는 공연작들의 예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인상을 줌.

○ 개방된 공간이라 소음도 심한데 대사 전달도 되지 않거나, 기기작동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해 공연이 중단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관객 서비스

○ 객석 시설이 불편하여 관객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 객석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조명시설도 타워를 더 높여야 공연자에 지장이 없음.

○ 사전 정보가 미흡하여 중간에 들른 관객은 무슨 내용의 공연인지 알 수 없었으며 어떤 공연이 이어질지 정보가 없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함.

○ 야외 공연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주위의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레퍼토리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냄.

○ 운영스태프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없어서 행사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가 없었음.

□ 문제점

○ 취지도 좋고 관객의 참여도도 높은 편이었지만 역시 야외공간의 특수성에 맞는 공연 형태의 개발과 공연수준의 향상이 문제이며 관람객들이 주로 가족들이 많았는데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적다는 것도 문제임. 어떤 관객을 주로 대상으로 할 것인지 목표 설정이 분명치 않음.

○ 행사가 일정한 패턴을 벗어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음. 작년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연극인들의 호응도가 높지 않음. 많은 연극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연극제임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한정된 연극인들만 참가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연극의 날만의 개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여전히 연극의 날에서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기존의 공연을 축소하거나 재구성하여 공연하는 것에 머물고 있음.

- 소음의 문제 : 주말의 대학로는 젊음의 거리임. 마일연극제의 메인스테이지는 그 거리의 중심부에 위치함.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는 당연함.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왕래는 많은 소음을 야기 시킴. 더구나 자유롭게 농구와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모아 개그를 하는 사람들, 풍물을 연습하는 사람들(9월의 경우 방통대의 풍물이 시끄러운 소리를 냄으로써 공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이 내는 소음은 통제가 불가능하며 야외 공연에서는 어느 정도 이를 감안해야 함. 말하자면 소란한 주위에도 잘 견디거나 관객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공연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임.

- 조명의 문제 : 오후에 공연되는 경우 밝은 햇볕아래에서 공연해야 함으로 조명효과는 없음. 그러나 오후 6시를 넘기면서부터는 약간씩 조명이 가능해짐. 말하자면 시간대에 따라 또한 조명의 효과의 유무에 따라 레퍼토리가 결정되어야 함.

- 날씨의 문제 : 야외 공연은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여름에 너무 덥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겨울에 너무 추울 경우, 눈이 올 경우에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 8월과 9월의 경우 다행히도 날씨가 화창하였고 온도도 적당하였음. 그러나 8월은 9월에 비해 약간 더운 편이었고 9월은 초가을의 화창한 날씨였으므로 9월에 훨씬 많은 관객이 몰려들었음. 이런 점들은 행사 주최측에서 세밀하게 연구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무료공연 : 무료 공연이 무조건 능사는 아님. 높은 입장료는 오히려 관객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는 마케팅 전략일 수 있음. 어떤 사람들은 무료 공연이란 썩 수준 높은 공연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음. 그러나 마일연극제의 프로그램 가운데는 상당한 수준의 공연이 들어 있는 것이 사실임으로 비록 무료 공연이지만 양질의 공연이라는 점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사실 홍보에 들어가면 마일연극제는 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듯.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임. 하지만 꾸준히 의미 있는 마일연극제를 실행한다면 입소문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홍보가 가능하리라 간주. 중요한 것은 꾸준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튼 관객들은 오늘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연을 관람해야 하므로 말 그대로 지나가다 걸리면 발걸음을 멈추고 관람을 하는 형태의 공연이 되고 있었음. 이런 점은 재고해 볼 문제라 생각됨.

- 레퍼토리의 문제 : 2005년 8월 28일(일요일)과 2005년 9월 25일(일요일)의 두 번의 경우를 놓고 볼 때, 공원 전 지역 또는 관리소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일종의 거리극 형태와 메인스테이지에서 벌어지는 공연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 물론 메인스테이지의 공연 역시 폭넓은 장르와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음. 또한 마로니에 공원 곳곳에서 가면을 만들거나, 흙 줄기를 한다거나, 그림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극단에서 나와 자신들의 연극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처럼 다양한 가족행사와 퍼포먼스, 마임, 풍선 쇼 등을 선보임으로써 많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인 컨셉이라고 생각함. 가족들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면서 놀이에도 참여해보고 공연도 즐길 수 있는 것임. 전체적으로 인상적인 행사인 것이 분명한데 메인스테이지의 레퍼토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극단에 따라 수준의 편차가 심하다는 점. 어떤 식으로 참가단체가 결정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호모루텐스 마임컴퍼니’의 <해설이 있는 마임>과 장두이 레퍼토리의 <춤추는 원숭이 팔간피터>는 상당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함. 그만큼 관객들의 호응이 뜨거웠음은 두말할 것도 없음. 야외극의 성패 가운데 하나는 관객을 얼마나 집중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약간만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면 관객은 아무런 심적 제지 없이 그 장소를 떠나고 말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음. 관객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은 공연의 수준이 높아야 하고, 공연이 강약의 리듬을 타야하며, 관객을 집적 참여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함. 이벤트를 기획하여 관객의 집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개선 방안

- 레퍼토리와 공연 형태에 대한 개발과 발굴이 필요함. 서울 중심의 공연단만을 초청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보면 거리극에 어울리는 공연들이 많이 있을 것임.
- 공연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수를 줄이고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함. 매시간 다른 공연으로 숫자만 채울 것이 아니라 좋은 공연은 시간대를 달리해서 여러 번 공연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프로그래머가 중심이 되는 기획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포함시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함. 기획력 보강의 방안으로 현 기획팀을 재교육시키는 방안,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 또는 새로운 기획팀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것임.
-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대상 관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 예를 들어 마일연극의 날에 참관하는 관객들이 가족단위, 친구나 연인관계의 그룹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주력 공연작들을 선정하고, 적절한 시간대에 배치하도록 함. 야간에는 좀더 집중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그에 맞는 공연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장홍보의 경우, 안내 데스크의 위치를 바꾸어(무대 바로 옆이 아니라 관객석 후방에) 관객들의 접근이 용이토록 하며, 안내 스태임을 알아볼 수 있는 인력의 배치가 필요함.
- 공연장 확보, 거리공연의 다양화 등을 통해 대학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야외공연인 만큼 환경의 변수가 늘 있으므로 집중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참여단체 준비여부와 상관없이 핀 마이크를 제공하여 대사전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는 기획과 더불어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홈페이지 운영은 당연한 것이며 가능하다면 일 년 전에 전체 레퍼토리를 결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다음 달 레퍼토리는 관객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 연극계의 다양한 목소리, 한국연극협회 또는 서울연극협회의 참여를 통해서 수용하여야 함. 소수의 인원내 의해 주관되는 행사는 한계를 지니며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음. 연극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전체 연극계의 동참을 이끌어 낸다면 마일 연극제는 분명 사업 목적에 걸 맞는 행사가 될 것임. 연극계의 의견 수렴은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동참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전체 연극인들의 지혜를 모아 마일 연극제가 진정한 연극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함.

6. 총평

2005년 마일 연극제는 전반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기획력 및 홍보 부족은 마일 연극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사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은 대부분 이미 과거에 제시된 것이었지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근본적이고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항목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다음과 같다.

□ 사업 목적

- 마일 연극제의 사업 목적은 ‘민간 소공연장의 활성화, 대학로 거리정화, 세계적 문화상품으로서의 발전 도모’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연예술을 접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다.
- 공연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일반인에게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사업 운영

- 기획력과 수행능력 부족으로 목적에 비해 운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사전 및 현장 홍보가 부족하고 기존 홈페이지마저 폐쇄되어 행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 야외극이라면 언제든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였다.

□ 행사 내용

- 프로그램은 다양한 장르로 편성되어 어느 정도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대부분 공연 수준이 떨어졌다. 마치 공연의 질보다는 양에 치중한 느낌을 주었다.
- 공연 자체가 관객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여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 야외공연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지 못하였다.

□ 관객 서비스

- 객석 시설이 불편하여 관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사전 정보가 미흡하여 중간에 들른 관객은 무슨 내용의 공연인지 알 수 없었으며 어떤 공연이 이어질지 정보가 없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다.
- 야외 공연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주위의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레퍼토리 선정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 문제점

- 소음의 문제 : 주말의 대학로는 젊음의 거리이다. 마일연극제의 메인스테이지는 그 거리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는 당연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왕래는 많은 소음을 야기 시킨다. 더구나 자유롭게 농구와 배드민턴을 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모아 개그를 하는 사람들, 풍물을 연습하는 사람들(9월의 경우 방통대의 풍물이 시끄러운 소리를 냄으로써 공연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이 내는 소음은 통제가 불가능하며 야외 공연에서는 어느 정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 말하자면 소란한 주위에도 잘 견디거나 관객을 집중시킬 수 있는 공연이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조명의 문제 : 오후에 공연되는 경우 밝은 햇볕아래에서 공연해야 함으로 조명의 효과는 없다. 그러나 오후 6시를 넘기면서부터는 약간씩 조명이 가능해진다. 말하자면 시간대에 따라 또한 조명의 효과의 유무에 따라 레퍼토리가 결정되어야 한다.

- 날씨의 문제 : 야외 공연은 날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름에 너무 덥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겨울에 너무 추울 경우, 눈이 올 경우에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8월과 9월의 경우 다행히도 날씨가 화창하였고 온도도 적당하였다. 그러나 8월은 9월에 비해 약간 더운 편이었고 9월은 초가을의 화창한 날씨였으므로 9월에 훨씬 많은 관객이 몰려들었다. 이런 점들은 행사 주최 측에서 세밀하게 연구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무료공연 : 무료 공연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다. 높은 입장료는 오히려 관객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는 마케팅 전략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무료 공연이란 썩 수준 높은 공연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마일연극제의 프로그램 가운데는 상당한 수준의 공연이 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록 무료 공연이지만 양질의 공연이라는 점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사실 홍보에 들어가면 마일연극제는 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듯하다.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꾸준히 의미 있는 마일연극제를 실행한다면 입소문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홍보가 가능하리라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튼 관객들은 오늘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연을 관람해야 하므로 말 그대로 지나가다 걸리면 발걸음을 멈추고 관람을 하는 형태의 공연이 되고 있었다. 이런 점은 재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 레퍼토리의 문제 : 2005년 8월 28일(일요일)과 2005년 9월 25일(일요일)의 두 번의 경우를 놓고 볼 때, 공원 전 지역 또는 관리소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일종의 거리극 형태와 메인스테이지에서 벌어지는 공연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메인스테이지의 공연 역시 폭넓은 장르와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마로니에 공원 곳곳에서 가면을 만들거나, 흙 즐거움을 한다거나, 그림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극단에서 나와 자신들의 연극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가족행사와 퍼포먼스, 마임, 풍선 쇼 등을 선보임으로써 많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인 컨셉이라고 생각한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거닐면서 놀이에도 참여해보고 공연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인상적인 행사인 것이 분명한데 메인스테이지의 레퍼토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극단에 따라 수준의 편차가 심하다는 점이다. 어떤 식으로 참가단체가 결정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호모루텐스 마임컴퍼니’의 <해설이 있는 마임>과 장두이 레퍼토리의 <춤추는 원숭이 팔간피터>는 상당히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관객들의 호응이 뜨거웠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야외극의 성패 가운데 하나는 관객을 얼마나 집중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약간만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면 관객은 아무런 심적 제지 없이 그 장소를 떠나고 말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관객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은 공연의 수준이 높아야 하고, 공연이 강약의 리듬을 타야하며, 관객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벤트를 기획하여 관객의 집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개선방안

- 레퍼토리와 공연 형태에 대한 개발과 발굴이 필요하다. 공연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수를 줄이고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대상 관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 기획력 보강의 방안으로 현 기획팀을 재교육시키는 방안,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 또는 새로운 기획팀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는 기획과 더불어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홈페이지 운영은 당연한 것이며 가능하다면 일 년 전에 전체 레퍼토리를 결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다음 달 레퍼토리는 관객들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 소수의 인원만 의해 주관되는 행사는 한계를 지니며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연극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전체 연극계의 동참을 이끌어 낸다면 마일 연극제는 분명 사업 목적에 걸 맞는 행사가 될 것이다. 연극계의 의견 수렴은 그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동참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체 연극인들의 지혜를 모아 마일 연극제가 진정한 연극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총평 내용이 항목별의견을 재 종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음.)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마산국제연극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마산국제연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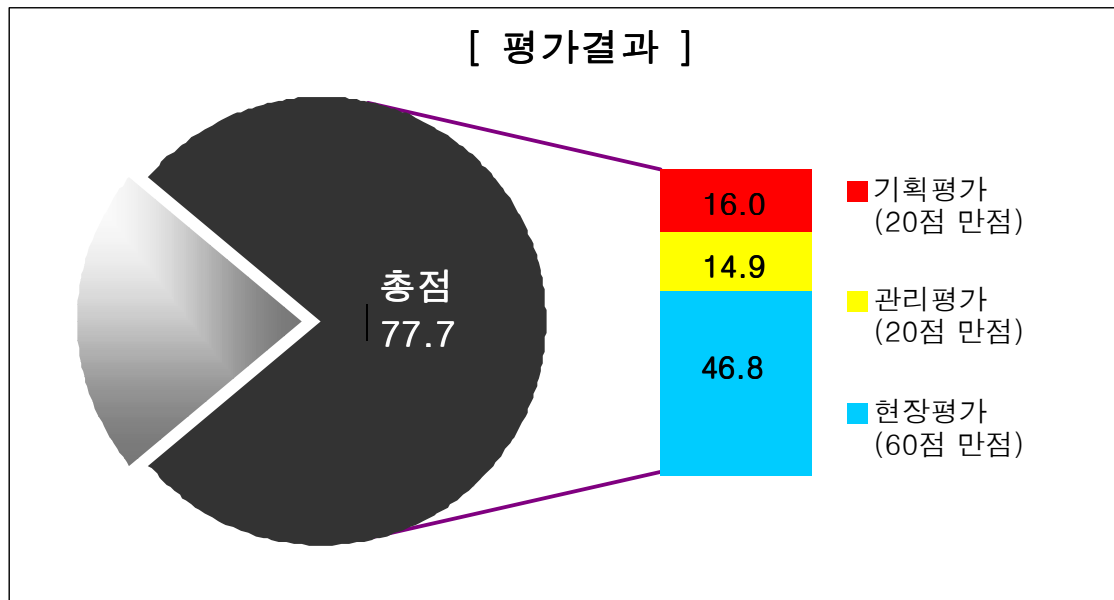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 5. 21 ~ 5. 31
- 장소 : 마산 돌섬
- 주최 : 사단법인 마산국제연극제진흥회
- 후원 : 문화관광부, 경상남도, 마산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사, 부산일보, 국제신문, KBS창원방송총국, PSB부산방송, 마산상공회의소, 경남대학교, 한국연극협회·경남연극협회, 마산예총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5. 21 ~ 5. 31) → 서면평가(2005. 6.) → 개별평가회의(2005. 8. 26)

4. 평가결과 : 77.7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6.0 | 14.9 | 46.8 | 77.7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5.0/7 | 4.0/5 | 3.0/4 | 4.0/4 | 16.0/2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55/3.0 | 6.0/9.0 | 6.35/8.0 | 14.9/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0) | 사업내용(30) | 관객서비스(20)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5.6/8 | 17.7/22 | 14.8/20 | 22.3/30 | 15.2/20 | 75.6/100 | 45.4/60 |
| B | 5.6/8 | 16.7/22 | 15.4/20 | 21.0/30 | 15.5/20 | 74.2/100 | 44.5/60 |
| C | 6.4/8 | 19.4/22 | 18.0/20 | 23.4/30 | 17.0/20 | 84.2/100 | 50.5/60 |
| 평 균 | 5.9/8 | 17.9/22 | 16.1/20 | 22.2/30 | 15.9/20 | 78.0/100 | 46.8/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국내외 수준 높은 공연예술작품을 중심으로 개최하고자 하는 축제 목적과 2005년 프로그램 구성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축제프로그램 수준이나 기획구성력에서 미흡한 편이며, 89년 시작된 축제 역사가 무색할 만큼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작품들에서 축제로 결집되는 공통된 주제나 경향을 찾아보기 어려움.
- 국제연극제로서의 축제적 정체성이 모호함.
- 목적 부합성 : 야외공간인 돌섬에서의 개최는 야외 공간 또는 생태적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향의 연극의 교류 또는 발전을 지향하는 등의 차별화 가능성이 보임. 그러나 작품의 선정이나 무대의 조건이나 개념, 기획의 방향 등이 그와 같은 가능성을 살리거나 미션을 담거나 하지는 못함.
- 예술적 기여도 : 여타의 국내연극축제에 비해 참가작들의 실험성이나 완성도를 주목할 만한 작품은 없었지만 야외 공간에 맞추어 연출, 제작되지 못한 작품들이 현장에서 적응하는 과정이 나름대로 의미 있었음. 따라서 섬 연극제라는 컨셉을 발전시킬 의지가 있다면, 섬의 생태적 공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작품의 선정이나 기획(creative producing)이 따라야할 것으로 보임.

□ 사업 운영

- 축제공간으로서의 섬 환경은 기존의 위락시설환경으로부터 정돈되지 못하여 축제장소로서의 효과 떨어짐.
- 지역연계성 : 시의 담당 공무원이나 돌섬의 경영주체 그리고 지역예술인의 참여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돌섬으로의 장소이동은 지역민의 다양한 계층을 연극의 관람객으로 끌어들이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됨.
- 프로그램 시간운영의 변경 및 부대행사의 형식적인 운영(체험공간 등) 등에서는 축제운영의 체계성이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프로그램의 수준이나 운영체계의 미흡함을 고려할 경우, 전체 예산운영의 적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가 필요함.
- 재원의 적절성 : 행사의 규모에 비해 사무국직원에 대한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직원의 헌신적인 복무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기획이나 집행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음. 축제의 차별성이나 미션을 명료화하고 중심적인 과제에 재원을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예술 감독을 중심으로 한 기획팀의 근무 기간을 늘이고 전문성확보를 위한 재원이 확보될 필요함.
- 참여인력의 전문성 : 참여인력의 헌신성이나 성실함은 긍정적으로 평가. 그러나 창의적인 기획이라는 관점에서는 다소 경험이나 선진적인 정보가 부족함. 외부인력의 무조건적인 영입은 축제의 지역 지역밀착적인 특성이나 협동을 중시하는 장르의 성격으로 보아 성공하기 어려울 듯 보임. 사무국을 상설화 하거나 근무기간을 늘려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됨.

□ 행사 내용

- 전체 공연 프로그램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며, 연극제(예술축제)로서의 예술적 지향성이나 모호하고 연극축제로서의 주제가 분명하지 않음.
- 부대행사의 경우, 전체 축제주제와의 어떤 연계성을 찾기가 어렵고, 축제일정에 나와 있는 공연(각설이 공연 등)도 실제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인 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웠음.
-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 일정한 포커스가 없어 산만해 보이며 해외초청극단의 경우 전통이나 마임 등에 치우쳐 현대 연극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는 거리가 있는 구성으로 평가됨.
- 프로그램의 다양성 : 다양한 장르와 예술인의 참여를 하나로 묶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의 강화가 요구됨.
- 프로그램으로 예정된 공연들이 많이 취소되었음. 축하공연 외에는 주로 전통연희를 중심으로 한 외국팀의 공연이었고 현대적인 작품인 싱가포르의 공연도 진행상의 문제로 취소되었으며 일요일, 베트남 마임단 공연도 비자문제로 취소되어 볼 수 없었음.
- 행사의 독창성 : 행사장의 환경은 독보적일 수 있겠으나, 이러한 환경의 장점이 예술에 있어서의 독창성으로 연결되지는 못함.
- 예술적 완성도 : 개개의 예술 작품들을 축제라는 미디어 안에 배치하고 시너지를 만든다는 의미에서의 예술적인 역량은 우려할 만함.
- 참여인력의 예술성 : 축하공연의 출연진이 보여준 기량은 대부분 수준이 높고 잔잔한 감동을 줌. 특히 인근 지역의 예술인의 공연태도나 성의 있는 준비는 이 축제만이 지니는 특별한 에너지를 느끼게 해주었음.
- 유일하게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연극작품은 극단 예도의 ‘짬뽕’이었는데, 연기력이 안

정되어있고 영상을 사용한 시각적 효과를 훌륭하게 결합시킴. 그러나 프로시니엄 무대에 맞춘 연출이나 세트가 야외무대에서 빛을 받하기는 어려움.

○ 안내책자에 실린 참가극단의 기획·연출의도를 살펴보는 것만으로 대략적인 경향을 짐작해 본다면, 마당극 형식의 한 작품을 제외하면 야외 공간을 전제로 한 모색을 찾기 어려웠으며 따라서 대부분 ‘짬뽕’과 비슷한 적응의 문제에 봉착했을 것으로 생각됨.

□ 관객 서비스

○ 섬으로 들어와야만 공연을 볼 수 있는 축제환경에서 섬을 오가는 체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함(공연시간, 부대행사의 활발함, 배 시간 등의 긴밀한 연계성 떨어짐)

○ 관객확보율 : 개막식, 축하공연, 부대행사 등 무료공연의 경우 참여율이 높음. 유료공연은 다소 낮았으나 공연의 분위기를 현저하게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었음.

○ 관객의 참여도 : 관객의 호응은 대체로 좋은 편이었으며, 관객들은 공연 자체보다도 그와 같은 경험 즉 축제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었음.

○ 관객의 편의성 : 외국팀의 공연을 위한 공연자막의 준비는 없었으나, 그 필요성은 부차적인 것으로 느껴졌으며, 있었다면 오히려 공연 자체의 전체적인 느낌이나 연기자의 섬세한 움직임보다는 내용에 함몰될 위험이 있음. 홈페이지는 행사개요나 참가방법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세부적인 공연 정보를 얻기에는 불편함. 안내책자는 세부 내용을 충분히 담았지만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시각적인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측면은 거의 없음. 편의 시설은 섬 자체의 시설로서도 충분히 보였으며, 일부 영업이 중단된 식당까지 자원봉사를 통해 살려서 운영하는 열의가 보임. 운영스텝이나 자원봉사자의 경우 대체로 자부심을 느끼며 친절함 모습이었음.

□ 문제점

○ 국내외의 다른 연극축제와 견주어 독자적인 미션과 기획 컨셉이 불분명함.

○ 축제장소로서의 마산 돌섬의 문제 : 축제공연장 문제 및 섬 안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위락시설의 부조화 문제

○ 축제운영의 체계성 및 전문성의 문제.

○ 프로그램 수준의 문제와 프로그램 구성 및 기획력에서의 산만함.

○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연계성이 떨어짐(주요 행사와 부대행사 특별행사 등)

○ 행사를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환상성이나 난장의 형성 등을 연출하는 역량의 부족.

○ 관객층이 인근 지역의 주민들로 한정되어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

□ 개선 방안

○ 마산의 공연장환경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여 공연장 관련 기반시설의 조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보다 전략적인 축제장소의 선정과 개발이 필요함.

○ 돌섬을 축제장소(festival site)로 조성하기 위한 기획적인 노력과 행정적인 협의를 충분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섬이 지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예술 체험적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외지 관객층 개발 요구됨.

○ 국제연극제로서 축제의 미션과 비전을 명확하게 재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축제운영의 체계성과 더불어 적합한 프로그램 구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차라리 국제라는 타이틀을 벗고, 소박하게 마산시민들을 위한 축제로 거듭나길 바람.
- 프로그램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안목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래머 필요함.
- 예산의 합리적 집행방안의 노력이 필요함. 또한, 행사의 규모보다는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안을 조정(사무국 운영 기간의 확대, 실무자의 연수, 전문가 또는 기관에 컨설팅 의뢰)
- 축제성의 연출은 애정을 가진 여러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디자인이라고 할 만큼의 매우 정교한 노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축제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함. 따라서 워크숍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내거나 전문가에게 디자인을 의뢰가 요구됨.
- 국고의 지원의 경우, 개입이 간섭과 통제의 개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육(incubating)개념의 또 다른 지원의 성격을 가져야 함.

6. 총평

- 축제의 위상과 정체성 측면 : 마산국제연극제 2005는 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산 지역의 유일한 국제연극제이지만, 국제연극제로서의 국제적 축제의 면모나 연극제로서의 뚜렷한 축제미션(정체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면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산을 둘러싼 주변 지역인 거창, 밀양에서 개최되는 연극축제들이 점차 고유한 축제의 정체성을 쌓아가고 있는 것에 비해 마산국제연극제는 독자적인 연극축제의 특성이나 수준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마산의 지역적 문화예술 환경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에서 마산국제연극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마산국제연극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연극축제가 될 수 있는 전반적인 개선 및 축제의 리모델링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축제 프로그램 측면 : 국제연극제로서 축제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산만하고 수준이 축제의 미션과 주제에 부합하도록 조율되어 있지 않다. 섬에서 운영되는 국제연극제에서 기대할 만한 수준 있는 작품들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축제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섬으로 옮겨 개최된 올해 축제 프로그램은 야외공연이라는 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모습들도 많이 나타났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관객의 참여도가 활발한 것도 있었지만 관객참여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프로그램도 상당부분 있었다. 축제프로그램 운영에서 축제공간의 역할이 중요한데, 섬에 있는 기존의 위락시설 장소성과 과 축제장소로서의 섬 환경이 불협화음을 나타내었다고 평가된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과 수준을 명확히 한 가운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 축제운영 측면 : 일부 축제프로그램이 취소된 것을 축제현장에 가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축제 방문 날짜에 따라 상이한 축제운영평가가 보여주듯이 축제 전 기간을 통해 긴장감을 가지고 세심하게 운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이미 오락시설 중심의 공간으로 성격이 뚜렷한 섬으로 축제공간을 옮긴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축제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준비나 조율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축제운영에서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무국의 전문역량을 본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광복50주년 기념창작공연 ‘바리’ 평가결과 -

1. 사업명 : 광복50주년 기념창작공연 ‘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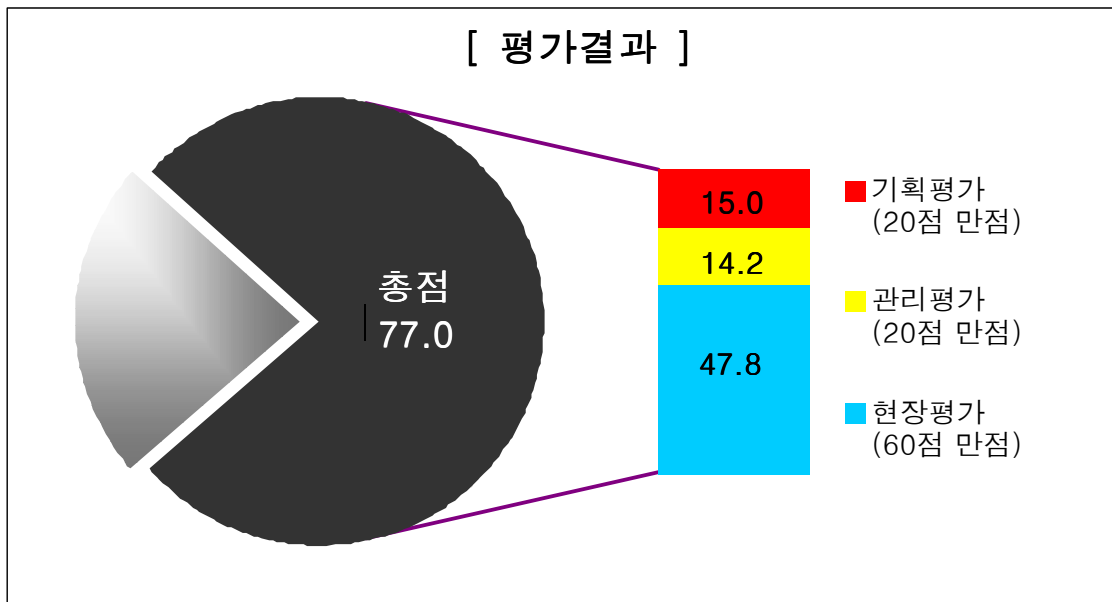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11월 4일 ~ 9일(6일간)
- 장소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제작 : 서울예술단
- 후원 : 문화관광부, 샘터비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11. 4 ~ 11. 9) → 서면평가(2005. 12.) → 개별평가회의(2005. 12. 2)

4. 평가결과 : 77.0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5.0 | 14.2 | 47.8 | 77.0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6.0/7.0 | 5.0/5.0 | 2.0/4.0 | 2.0/4.0 | 15.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55/3.0 | 6.0/9.0 | 5.6/8.0 | 14.2/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2) | 사업내용(34) | 관객서비스(14)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6.8/8 | 18.4/22 | 17.6/22 | 28.2/34 | 12.4/14 | 83.4/100 | 50.0/60 |
| B | 6.4/8 | 18.0/22 | 17.4/22 | 26.0/34 | 11.6/14 | 79.4/100 | 47.6/60 |
| C | 6.0/8 | 16.7/22 | 17.0/22 | 26.0/34 | 10.6/14 | 76.3/100 | 45.8/60 |
| 평 균 | 6.4/8 | 17.7/22 | 17.3/22 | 26.7/34 | 11.5/14 | 79.6/100 | 47.8/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한국 무가전통의 시조인 바리설화를 우리의 전통예술에 뿌리를 둔 독창적인 가무극으로 창작, 한국의 정체성, 다양성, 보편성을 끌어내고 동시대성 한국대표작품으로 해외무대를 겨냥하고자 했으나, 이를 실현함에 있어서 ‘범아시아적인 음악과 소리와 빛깔 그 조화로움과 보편성에 초점을 맞춘다.’ 는 생각은 서로 걸맞지 않음.
- 한국 고유의 장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평가할만하다고 인정됨.
- ‘바리데기’ 신화가 가지고 있는 범세계적인 영웅 신화의 전형성을 기초했다는 점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됨. 그러나 바리데기 신화에서 ‘효’의 정신 혹은 생명존중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바리데기의 영웅 신화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가무극’이 한국 공연의 고유한 양식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

□ 사업 운영

- 각 민족의 체질에 남아있는 문화유산, 즉 고유한 색깔의 에너지와 그 에너지를 운용하는 방식인 움직임에서 민족문화의 정체성이 가장 잘 드러나게 마련인데 외국인에게 작품의 안무를 맡긴다는 발상은 무리가 있음.
- 예산의 거의 50%정도를 작품제작과 인건비에 투입할 만큼 작품의 완성도에 주력한 측면이 역력하나, 8억이 넘는 국고지원금을 일시에 쏟아 붓는 방식보다는 중 극장 규모에서 밀도 있는 공연을 만든 후, 순회 및 반복 공연을 통한 수정작업과 다양한 관객개발이 기획의도에 일치 할 것

으로 판단됨.

○ 한국적 정체성을 갖춘 총체 가무악 극을 만들겠다는 서울예술단의 역량에 걸맞은 조직적인 운영과 작품제작으로 홍보, 마케팅 등 무리 없었음. 그러나 여타 공연과 차별화될 수 있는 행사 진행은 발견되지 못하였음.

□ 행사 내용

○ 전체적으로 환상적인 시각적 요소를 많이 사용하면서 비교적 매끄럽고 곱게 제작 의도였으나, 역동적인 군무와 극적인 장면연출이 미흡한 관계로 전체 작품의 스케일에 비해 기본 에너지가 약하고 그 에너지의 운용이 다채롭지 못함.

○ 한국의 대표적인 무속 ‘바리데기 신화’를 평이하게 그려졌고 무대는 화려했음. 중국 안무가와 합동 작업을 진행했지만 대본의 줄기가 워낙 평범하고 허술한데다가 아직 정제되지 않은 듯한 중국 춤 특유의 가벼움으로 투입된 인적, 물적 자원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남음.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요소들이 지나치게 희석되어 우리 가무극의 문화적인 정체성 결여됨.

○ 바리데기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음악극으로 뛰어난 연기력뿐만 아니라 무대, 의상 등의 공연요소들은 화려하면서도 안정적이었으나, 음악적 요소 및 그에 대한 운영기술에는 치밀함과 깊이가 다소 부족(과도한 음량, 반주와 노래의 불일치, 단조로운 화성, 배역과 어울리지 않는 일부 출연자들의 음색 등), 정형적인 인물(캐릭터), 단순 플롯 등의 극적 구조의 아쉬움.

□ 관객 서비스

○ 일반적인 국립극장 운영 및 서비스 관행과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외국인을 위한 자막 서비스가 눈에 띄었음.

○ 아직도 우리의 가무극이라는 장르가 대중화되지 못해 고정관객층이 형성되지 않아 상당부분 초대에 의존했던 관계로 일상적으로 공연으로부터 소외된 그룹들에게 오히려 가무극 관람의 기회 제공 함.

□ 문제점

○ 한국 고유 공연 양식으로 정착하기 위한 형식과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보다는 스케일과 규모에 치중한 것으로 평가됨. (정형적인 인물, 단순 플롯, 대중가요식 발성, 단순한 화성 등)

○ 한국 신화, 국악 반주, 동양적(또는 한국적)인 춤동작 등과 서양 무대미술의 물리적인 결합, 국악 관현악, 보컬, 디지털 악기(신디사이저) 등의 음향 조절 및 조화 미흡(2막의 경우, 전체 악기와 보컬 등이 함께 울릴 때(tuti), 지나치게 음량이 커지는 경향), 이중창 및 합창곡에서 너무 단순한 화성의 문제점으로 평가됨.

○ 화려한 무대와 좋은 배우, 무용수 등 준비는 충분히 갖춰졌으나 문제는 시나리오와 이를 현대적으로 세련되게 구현할 연출. 서울예술단은 창단 이래 이 문제를 꾸준히 모색해왔지만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음. 물론 이는 서울예술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공연예술계 전체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창단된 지 20년이 다 되는 창작을 위한 전문예술기관에서 제대로 앙코르 공연할 만한 창작 레퍼토리가 없다는 것은 문제로 평가됨.

○ 차별화된 작업과정과 단원 선발 기준 등, 기존의 예술현장과 다소 유리되어 있는 관계로 공연 예술계 내에서도 공감대를 넓게 형성하지 못하는 부분임.

□ 개선 방안

- 세계 모든 신화에서 보이는 영웅 신화의 통과례 과정에 덧붙여진 극적 장치 필요. (현재는 단순히 통과례의 과정만 드러냄. 또 다른 복합구조를 통하여 캐릭터 보완 및 갈등 구조 구축이 절대 필요함.)
- 좀 더 깊이 있고 현대적인 음악 편곡 및 운영이 필요함. (화성, 조성, 악기 음색과 캐릭터 및 분위기 일치, 라이브 공연에 맞는 녹음과 라이브 병행), 연기력에 비해 비교적 떨어지는 일부 출연자들의 빈약한 발성과 음정 교정 필요.
- 작품제작의 목표와 방향성, 작품의 성향과 공연양식 등에 관한 점검을 다시금 시도해 확실한 창작 작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현대성, 정체성, 대중성을 갖추고 고정 레퍼토리가 되기 충분한 대본을 공모 또는 의뢰해 작품 제작 필요.
- 총감독과 예술 감독, 즉 수입구조를 창출하기 위한 기획, 행정과 예술작업 분야가 이분화 되어야 하며, 기존의 연극, 무용, 음악계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긴밀하게 연대해 작업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6. 총평

오랜 기간 동안 한국적 공연 양식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은 서울예술단의 공연다운 저력과 예술성을 보여준 작품이었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한 출연자들의 안정적인 연기, 압도적이면서도 세련된 무대, 화려한 색채감의 의상 등은 오랜 세월 동안 다져온 서울예술단의 능력을 보여준 작품이었다. 동시에 대만의 안무가를 초빙하여 한국적인 가무극에서 벗어나 동양적인 아우라를 담아내려고 기획한 부분 역시도 참신한 의도였다.

또한 우리 고유의 바리테기 신화를 나름대로 개작하여, 여성성의 부각시키려고 한 점. 또한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이야기 구조를 탈피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초기 이야기 부분(탄생과 버려짐)을 생략하고, 바로 영웅의 통과례 구조로 극을 전개한 점 등은 서울예술단이 이번 공연을 얼마나 고민하였는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적 공연 양식으로서 가무극이라는 형식 실험에 보다 치밀하고 근본적인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드러난 공연이었다. 일단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번 공연은 과거의 가무극이 그러했듯이 한국적 공연 요소와 서양적 무대기술의 물리적 결합이라는 측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극적 구조, 전개 양식, 연출, 무대미술 등 극적 장치는 모두 서양 연극의 트루기이며, 특히 출연자들의 노래 발성법은 전적으로 현대 대중가요(서양 뮤지컬) 방식이었다. 음악 역시 국악 관현악을 사용하였지만, 서양 음계와 화성에 의한 작곡과 신디사이저를 활용한 배경음 구축이 그 중심에 있었다. 물론 그러한 시도가 화학적 결합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이었지만, 서양 화성에 비해서 단순할 수밖에 없는 악기 간 특성, 그리고 음색과 음량의 부조화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이고도 음향학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했었다.

희곡의 구조도 단순했다. 바리의 통과례는 단순하게 진행되었고, 캐릭터로써 고뇌와 고민 없이 시련을 이겨냈다. 특히 바리의 행동과 충돌하고 갈등하는 캐릭터의 부재는 치명적인 극적 결함이다. 뒤늦게 제관들이 바리의 존재를 부정하고 반란을 일으키지만, 이는 단순 사건에 불과하지 극적 구조로써 작용하지 못한다. 그럼으로 인하여 바리의 영웅적인 통과례의 완성은 웬지 싱겁고 밋밋한 느낌을 준다.

음악극으로써 현장성도 좀더 치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천편일률적인 MR사용은 자제되어야 한다. 녹음과 현장 연주를 겸한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독창과 이중창의 피날

래의 극적인 맛을 살려야 할 것이며, 일치감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쉽게 고쳐질 수도 있고, 또한 견해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이미 구축된 서울예술단의 예술적 역량과 경험이 가무극을 만들기 위한 연속된 실험을 통하여 진정으로 한국적인 공연양식으로서 가무극을 창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과거 가무극의 형식과 내용에서 규모와 세련미를 넘어서는 형식과 내용을 구축해왔는가, 하는 고민은 여전히 필요하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제6회 영호남연극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제6회 영호남연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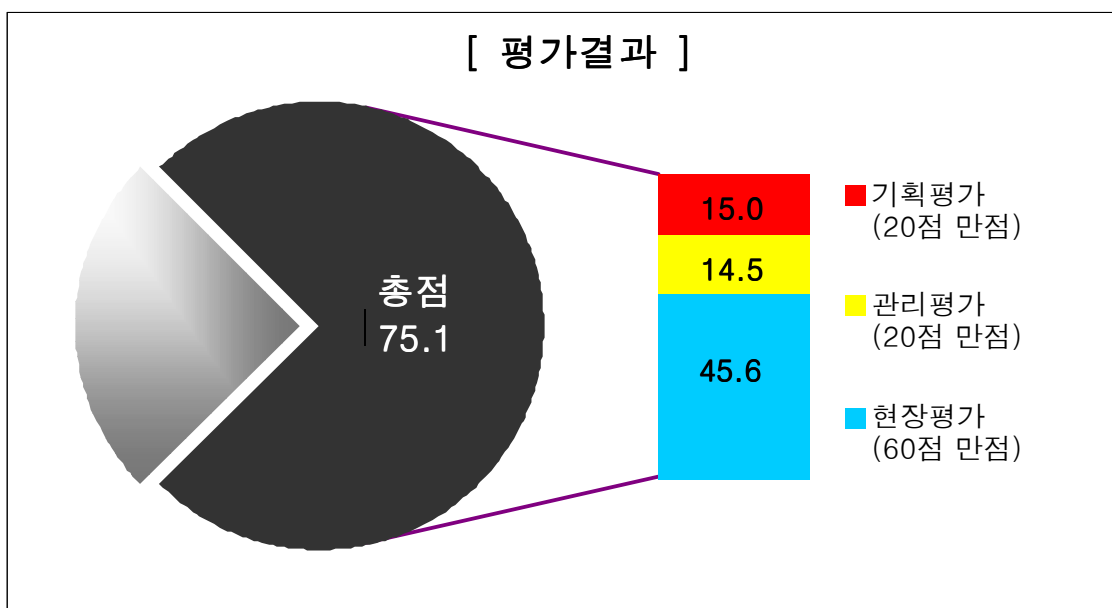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9월 5일(월) ~ 9월 9일(금), 5일간
- 장소 : 금당야외공원,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최 : 영호남연극제 조직위원회, 전라남도, 순천시
- 주관 : 순천연극협회
- 후원 : 문화관광부, MBC여수방송, KBS순천방송, KBC광주방송, DBS동부방송, 전라북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주시, 진주시, 창원시, 무등일보, 전남일보, 순천신문, 순천시민의신문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9. 5 ~ 9. 9) → 서면평가(2005. 10.) → 평가위원 개별의견수렴

4. 평가결과 : 75.1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5.0 | 14.5 | 45.6 | 75.1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6.0/7.0 | 5.0/5.0 | 3.0/4.0 | 1.0/4.0 | 15.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55/3.0 | 6.3/9.0 | 5.6/8.0 | 14.5/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0) | 사업내용(30) | 관객서비스(20)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6.4/8 | 17.1/22 | 13.0/20 | 19.0/30 | 15.0/20 | 70.5/100 | 42.3/60 |
| B | 6.4/8 | 17.6/22 | 15.4/20 | 21.0/30 | 16.0/20 | 76.4/100 | 45.8/60 |
| C | 6.4/8 | 17.6/22 | 16.4/20 | 24.0/30 | 16.5/20 | 80.9/100 | 48.5/60 |
| 평 균 | 6.4/8 | 17.4/22 | 14.9/20 | 21.3/30 | 15.8/20 | 75.9/100 | 45.6/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영호남 연극제는 순천과 진주 두 도시에서 매년 번갈아 시행하는 연극제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 연극인의 상호교류와 협업으로 문화교류를 통한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이해와 융합을 바탕으로 사업목적에 두었으나 이러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 발전했는지는 의문이 제기 되며 이번 행사에는 서울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단체들이 참가하면서 원래의 취지와는 매우 벗어난,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고 만 듯한 느낌을 받았음.

○ 영호남 연극제는 진주와 순천에서 매년 교차로 열리는 지역축제로 올해는 순천에서 그 행사를 주관하였는데, 사업목적은 우리나라 남도 지역민들의 독특한 공연예술을 통하여 문화생활의 질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영호남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함으로써 중앙과 지역 간의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축제의 목적이 돋보임. 그러나 제시하고 있는 ‘목적’이 축제의 성격, 운영 등 행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음. 영호남 지역 화합이라는 사회적 과제와 연극이라는 특정한 장르 속에서 모색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음.

□ 사업 운영

- 사업운영이 새로운 자원 확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지원금에 의존하는 행사로 규모가 매우 작아졌고, 지역의 기금도 확보하지 못했고, 전체적인 행사의 규모나 내용이 매우 축소된 느낌 이었고 6회를 맞이하는 행사로 향상되거나 발전된 모습이 보이지 않음.
- 프로그램 일정에 있어서 주말에는 관객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행사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로 정해 놓고, 우천으로 공연을 하지 못했던 단체에게 토요일 특별공연을 배려하는 것은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음. 주중 5일간 진행된 행사 기간도 다소 짧은 감이 있음.
- 사업운영 면에서는 주최 측인 순천시 영호남연극제 조직위원회의 노력과 행사를 주관한 순천연극협회의 협조가 돋보일 만큼 모든 면에서 조직적으로 잘 진행된 것으로 여겨지나 금당야외공원에 마련한 특설무대와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 제한된 공연으로 보다 공연 작품의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했음.
- 개최지의 문화 인프라가 일천하기에 축제운영에 많은 한계를 안고 있는 부족에 따른 한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지는 못함.

□ 행사 내용

- 9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5일간 진행된 영호남 연극제의 프로그램에는 퍼포먼스, 인형탈춤, 아동극, 춤, 변형된 마당극 을 주축으로 서울 및 전남, 부산, 창원 등에서 초청된 공연들로 이루어졌는데, 공연 작품들이 특정 주제에 맞추어 구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특히 수요일 개최된 학술세미나의 경우 지역 관계자 3명의 발제로 조출하게 이루어져, 한국연극학회 등과 같은 전국규모의 학술행사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이 아쉬움.
-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오후 시간의 행사와 저녁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행사의 구조는 축제의 행사진행에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금요일 저녁에 마련된 발리댄스는 이 지역 문화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남녀노소가 함께 하는 공연장에 배꼽을 드러내 놓고, 선정적인 춤을 추는 행위는, 비록 발리댄스의 예술적 역량과 문화적 특이성을 충분히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축제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음. 특히 영호남 합동공연으로 준비한 [오구]공연은 원작에 대한 이해와 표현방식이 매우 부정적이었음.
- 영호남 지역 간의 화합은 영호남 연극인들의 교류이외에 뚜렷이 드러나지 않음. 영호남 연극인 교류와 영호남의 화합이라는 사회적 과제로 확장되는 내용을 보여주지 못함. 연극인 교류도 공연단의 출신지 배분에 머물고 있음.
- 올해에는 공동제작 작품이 있어서 연극인 교류, 영호남 문화교류의 충실도가 높음. 그러나 공동제작이 제반 여건의 미비로 이 축제에서 아직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야외극장의 경우 ‘인간조각 퍼포먼스’ ‘인형’ 등의 부대공연으로 축제의 개방성을 높이하고자 하였으나 부대공연, 부대행사 프로그램이 풍부하지 못함.

□ 관객 서비스

- 무료로 진행된 행사라 관객 서비스 측면에서는 무난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관련 행사 병행이나, 사전/사후 관람기 공모 등의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잠재 관객들로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야외공연은 가족 단위 관람객이 주인데 작품선정에서 이러한 관객 성향을 고려하지 못한 경우가 보임. 연극관객층이 제한적이기 때문인지 문예회관의 경우 학생단체관람이 객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관람객들에게 최적한 환경이 되지 못함.

○ 공연개시 직전까지 문예회관, 금당야외공연장 모두 축제 안내 부스를 운영하지 않아 적절한 안내를 받기 어려웠음. 공연장도 도시의 전혀 다른 두 곳에서 진행되었기에, 처음 방문한 관객들에게는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으며, 한 공연이 끝나고, 다음 공연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관객 편의시설은 전혀 제공되지 않았음.

□ 문제점

○ 영호남 공연예술 축제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우선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주기에 충분한 수준 높은 공연 작품 발굴이 미흡했다는 점. 특히 야외극장에서 벌어진 마당놀이는 작품 선정의 참신성이 떨어져 공연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주변 도시민들까지 주목할 만큼 특색 있는 공연도 미흡했기 때문에 주체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얼마 되지 않는 일부 순천 시민들만의 잔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음.

○ 영호남연극 축제만의 특성화된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있지 못함. 영호남화합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영호남 연극인들의 교류 이상으로 사회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모색을 보여주고 있지 못함. 특히 축제의 중심이 지역 토박이 극단을 중심으로,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영호남 화합이라는 사회적 과제와 연극 혹은 공연예술의 문제의식을 결합하고 있지 못함.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함.

□ 개선 방안

○ 축제참여극단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 인력 중심의 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위원회 구성과 책임운영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집행부의 교체와 임기제한이 있어야함.

○ 영호남을 관통하는 지역 정서에 부합되는 독특한 공연예술작품 발굴이 무엇보다도 시급함. 이 행사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으로 중앙 무대에 초청될만한 경쟁력 갖춘 작품들이 매년 누적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의 어느 시점부터는 중앙무대와 지역무대를 잇는 교두보로서 영호남 공연예술축제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지역문화의 균형 있는 발전도 전망 가능함. 매년 축제 때마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주최 측의 노력도 더 좋은 결실을 맺으려면, 보다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홍보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보다 공격적으로 해도 좋을 것으로 여겨짐. 순천을 중심으로 (또는 진주를 중심으로) 반경 한나절 거리에 있는 주요 지방도시의 잠재 관객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과 서울 및 수도권의 잠재 관객층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전략이 병행 되어야 할 것이며, 행사장 진입을 알리는 각종 유도 게시물들도 일관성 있게 제작하여 외지에서 방문하는 관객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함.

○ 영호남 화합이라는 사회적 과제와 연극제라는 축제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 좀더 구체적인 모색이 필요함. 공연단만이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지역화합’이라는 주제가 부각될 수 있는 축제운영이 필요함.

○ 순천과 진주에서 격년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두 지역의 공동프로그램, 공동기획과 각 개최지별 특성에 맞는 개별프로그램의 안배가 필요함. 즉 지역축제로서 개최지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각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가 다른 만큼 지역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예를 들어 지역의 타 장르 예술인들과의 교류, 청소년연극제 등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의 연계 등

6. 총평

영호남연극제는 ‘영호남 갈등’이라는 사회적 현안을 다루고 있는 연극축제이다. 이는 여타의 연극제들과는 달리 연극의 사회적 역할을 중시하는 이 축제만의 독특한 컨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첨예한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영호남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 간의 화합을 이룬다는 축제의 컨셉은 영호남 연극인 교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영호남 화합이라는 축제 컨셉에 비추어 영호남 연극인들의 인적 교류는 의의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아직 정례적으로 정착되지는 못하였지만 올해 <오구> 합동공연은 어려운 작업환경에서도 공동 작업을 통해 적극적인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기에 적절한 작품선정을 보여준다. 그러나 <오구> 합동공연 이외에 여타의 공연작품들이나 부대행사 등에서 ‘지역화합’이라는 이 축제의 주제,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참가작을 보면 참가단체들의 지역안배만이 보일 뿐 공연작들의 내용이나 형식에서 이 축제의 지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지역화합’이라는 축제의 컨셉이 연극인 교류에 머물고 있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들의 공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뮤지컬 코미디 등이 야외극장에서 공연되었는데 축제의 개방성, 축제의 활기를 위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축제의 컨셉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심야시간도 아닌데다가 주거지 인근의 야외극장에서 공연된 코미디 작품은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객석에 비추어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 작품 선택에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연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현실에서 부족한 지원으로 내용 있는 축제를 꾸려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도리어 이러한 한계 때문에라도 축제의 컨셉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화합’이라는 축제의 컨셉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영남과 호남의 지역어를 빼어나게 표현한 작품을 선별한다거나 영남과 호남의 역사나 현안을 다루는 작품을 선별하는 등 축제의 컨셉을 드러낼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물론 축제의 개방성을 위해 다양한 작품을 공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축제의 컨셉을 집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중심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중심의 변주로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 축제는 진주와 순천에서 격년으로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영호남연극제의 중심 주제를 변주하는 데에서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별 특성화 전략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진주에서 벌어지는 영호남연극제와 순천에서 벌어지는 영호남연극제가 공통의 주제를 공유하며 서로 각 지역의 문화환경, 연극인구, 지역적 특색 등을 고려한 개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연극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점에서 각 지역에서 아마추어 문화예술 소모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화려해 보이는 서울 극단들의 공연을 초청하는 것보다 축제의 개방성 축제에 대한 관객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는 데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천에서 열릴 경우 순천지역의 고교 연극반 혹은 특기 적성연극반 활동 등과 연계한 청소년 연극제를 영호남연극제에서 수용한다거나 혹은 순천의 아마추어 연극반 아마추어 공연동아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회관 공연의 경우 관객의 대다수가 학생들이었는데 이들이 단지 관객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축제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과 지역의 잠재된 문화예술욕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점에서 지역 연계성의 측면에서도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동호인들의 프로그램이 양 지역에서 교류할 수 있다면 ‘지역화합’이라는 이 축제의 주제에 비추어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이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제4회 세계현대전통예술축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제4회 세계현대전통예술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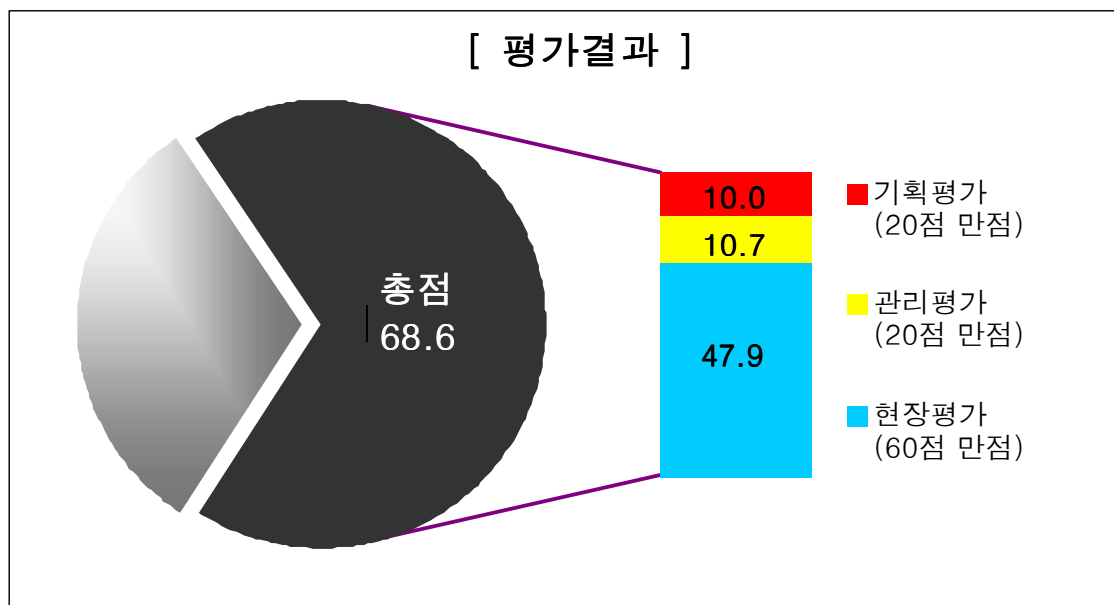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8월5일~7일
- 장소 : 경기도 가평 가일미술관
- 주최 : 예술축제 팜 집행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가일미술과, 가평군청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8.5 ~8.7) → 서면평가(2005. 12.) → 개별평가회의(2005.10.12.)

4. 평가결과 : 68.6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0.0 | 10.7 | 47.9 | 68.6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2.0/7.0 | 3.0/5.0 | 3.0/4.0 | 2.0/4.0 | 10.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1.65/3.0 | 4.65/9.0 | 4.4/8.0 | 10.7/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2) | 사업내용(34) | 관객서비스(14)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6.4/8 | 16.9/22 | 16.8/22 | 27.8/34 | 11.4/14 | 79.3/100 | 47.6/60 |
| B | 6.4/8 | 17.2/22 | 16.0/22 | 27.2/34 | 10.6/14 | 77.4/100 | 46.4/60 |
| C | 6.4/8 | 17.6/22 | 18.4/22 | 30.0/34 | 10.8/14 | 83.2/100 | 49.9/60 |
| 평 균 | 6.4/8 | 17.2/22 | 17.1/22 | 28.3/34 | 10.9/14 | 79.9/100 | 47.9/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전통과 현대 예술의 만남, 실험성, 우수성, 자연주의 등의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행사장소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마침 2005 세계야외공연축제가 근접한 지역과 일정(8월5일~9일 남양주 일원)이 겹침으로 인해 혼란과 더불어 행사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막대한 예산대비 관객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4회까지 서울 각지에서 진행하던 행사가 금년에 처음으로 서울 지역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 가일미술관의 북한강을 배경으로 치러짐으로써 축제의 형식이 많이 달라진 느낌. 예술축제 판이 지향하는 목적은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크로스오버를 통해 새로운 신진 예술을 창조하는 실험적인 정신에 있다. 축제 자체의 목적성과 의미는 충분히 유의미하고 매년 다양한 시도를 추구하는 점에서는 젊고 신선한 감각을 느낄 수 있어서 좋으나 여전히 추상적인 주제와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장소성, 지역성의 존재의식과 행사내용의 구성에 간극이 존재하여 축제의 정체성이 모호하며 연속행사라는 느낌을 받기 어려움.

○ FAM이 지향해 온 전통과 현대의 접목은 대체적으로 구현되었으나 올해의 주제인 '현(顯, string)'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 및 프로그래밍의 일관성이 약하다는 인상을 받음.

- FAM이 소수의 마니아를 위한 실험적인 축제를 지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방법 및 평가기준 적용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며, 대중적인 축제를 지향할 경우에는 접근성이 용이한 공연장 선정과 대중적인 프로그래밍이 보장되어야 함.

□ 사업 운영

- 더운 날씨와 갑작스런 우천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성실하게 행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임. 다만, 접근성이 용이치 않은 교외의 프로그램으로는 적절치 않은 3일간 각기 다른 내용의 행사를 운영하다보니, 출연진 대비 예산은 과다하지 않으나 효과대비 예산은 과다한 것으로 보임.
- 매년 지적되는 문제이지만 예술축제 팜은 정기적인 일정과 장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프로그램의 다변성, 그리고 행사를 진행하는 운영조직의 불안정성이 금년 행사에도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음. 따라서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의 내용이나 지역과의 연계성, 프로그램의 질적인 다변화, 축제 기능의 확장가능성을 스스로 상실하고, 매년 새로운 행사를 진행하는 듯 하여 행사의 신뢰성과 대외적인 홍보 및 축제 브랜드 포지셔닝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행사진행이 매끄럽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도 제기됨. 사전홍보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행사시기가 휴가철과 맞물려 행사장을 가는 길이 너무 혼잡하였고 더운 날씨로 인해 야외공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여 축제 성을 반감시킨 결과가 되었음.
- 가일미술관의 지리적 조건, 야외공연에 불리한 기후조건, 홍보 부족으로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프로그램들이 있음.

□ 행사 내용

- 김애라 해금트리오, 콰르텟엑스, 서울솔리스트재즈오케스트라 등 수준 높은 공연이 주를 이루었으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관객을 유치하면서 관객참여 프로그램으로는 마리오네트 만들기를 제외하고는 관객 위주의 프로그램 구성이어서 아쉬움으로 남음.
- 금년 행사에서는 황병기의 가야금 연주 등 수준 높은 공연도 있었고 주제와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도 현악기를 위주로 한 공연 중심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축제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해외연주자가 행사를 앞두고 돌연 공연일정을 취소하여 연주자가 대체되기도 하였으며, 신진 연주자의 등용문으로 마련한 팜클럽에 대한 홍보부재로 참여연주자의 장르가 전반적인 팜축제와 이질적인 경향을 띠며, 기후 악재로 인한 캠프운영 등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일정과 시기, 장소의 조정이 필요해 보임. 미술관전시가 예술축제 팜의 전반적인 축제주제와 일치하지 않아 동일한 기획으로 느껴지지 않아 아쉬웠고 관객의 참여가 저조함.
- <아시아의 불빛> 시리즈 공연을 포함,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예술인들의 즉흥협연은 국내에서도 흔히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으로 예술적, 지적 자극을 제공함.
 - 렉처워크숍(남무성의 “크로스오버음악의 세계”, 김현준의 “현대음악의 실험성과 그 가치”)은 FAM축제의 공연을 감상하는 데 유익한 길잡이 역할을 함.

□ 관객 서비스

- 전반적으로 자원봉사단의 운영이 매끄럽고 친절한 진행으로 보이나, 오후 2시부터 심야까지 이어지는 각종 공연에 극히 소수의 관객이었기에 큰 혼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매 공연 100명 가까운 인원이 상시 관람하였다면, 화장실, 숙식 등에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등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장소임.
- 가평 가일미술관은 공연, 전시, 야외행사와 강변의 수상스포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장소였으나 축제를 진행하기에는 장소가 조금 협소한 느낌이 들고 야외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특히 메인공연장인 홀과 야외 데스크는 많은 관람객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고 음향이나 기타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문제점을 보임.

- 이 장소는 종합적인 축제보다는 정기적인 자체 공연이나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로서 더 적합해 보임. 그러나 기타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은 잘 갖추어진 편이었고 장소가 크지 않아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정보획득에는 어려움이 없었음. 특히 야간의 공연관람과 바비큐파티, 관객과의 대화, 야외퍼포먼스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유도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보였음.
- 예술장르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즉흥공연 및 다국적 예술인들의 협연프로그램으로 특화된 프로그래밍에 비하여 관객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비함.

□ 문제점

- 축제 장소 : 접근성이 용이치 않은 곳이며, 최대 수용인원 자체가 100여명 정도의 작은 공간으로 축제 장소로서 적절치 못함.
- 축제 시기 : 주말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며, 특히 수도권에서 예술축제 팜에 가기 위한 길목에서 하는 남양주 야외공연축제와 행사시기가 겹쳐 불편이 더 가중됨.
- 축제의 차별성 : 자연, 예술, 가족을 모토로 건 축제의 차별성이 잘 살아나지 못함. (예: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과 비교)
- 홍보의 절대 부족 : 계획상으로는 막대한 홍보예산에도 불구하고 축제 3일전까지 축제홈페이지가 제대로 정비 안 되어 약도조차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축제 당해 지역은 물론(남양주 야외공연 축제에 묻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음) 수도권 오프라인 홍보뿐 아니라 온라인 홍보에서도 역부족임.
- 예술축제 팜의 역사가 금년으로 벌써 5회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종합예술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해 보임. 축제가 지향하는 바에 의하면 보다 실험적인 성격의 예술 공연이 기획되거나, 공연예술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장르간 퓨전에 대한 혼합장르의 크로스오버 형식도 시도해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으나 여전히 기존축제의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느낌.

□ 개선 방안

- 휴가철 자연에서의 축제 또는 도심 속의 특별한 예술 향연으로 축제의 성격과 목표를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적절한 장소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프로그램 또한 차별적으로 구성하여 축제의 변별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홍보인력 강화가 절실함.
- 조직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보임. 축제 집행위원회가 보다 공공적인 부분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신뢰를 쌓으려면 집행위원회의 조직개편과 공공적, 개방적인 운영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관객개발 추진

6. 총평

○ 사업목적

지난 5년동안 FAM이 지향해 온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이전의 축제보다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전년도 평가에서 FAM의 실험성과 창의성은 유의미하지만 축제의 추상적인 메시지가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이 문제는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대두되었으며, 공적지원을 받는 축제로서 다수를 위한 대중성과 소수를 위한 예술성 사이에서 적정

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예산 집행에서도 타당성(예. 홍보예산의 과다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사업운영

이 축제를 지켜본 모든 이들은 축제 장소의 선정에서부터 무리수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교통 체증이 심한 지역, 행사기간 내내 야외공연을 어렵게 한 기후조건, 인근 남양주에서 실시된 세계 야외공연축제와의 행사 중복, 무엇보다도 행사시작 3일전에도 축제 홈페이지를 개시하지 못한 홍보의 전략부재 등은 이 축제에 불리하게 작용한 요인들이었으며, 앞에서 열거한 요인들은 축제를 준비하는 이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대응하였다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범위에 속한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더한다. 짧은 기간 동안에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급급했던 방식을 지양하고, 축제 조직위원회가 연중 운영되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제에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축제는 장기적으로 축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공연장소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를 권한다.

○ 프로그램

장소, 기후, 홍보부족으로 인한 관객들의 저조한 참여 등 프로그램 외적인 조건들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호불호를 떠나 비주류예술과 대중간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하드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방만한 구성으로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 관객서비스

전반적으로 관객 수가 적었기 때문에 관객서비스에 관한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관객을 가족관객, 청소년관객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나, 관객들의 호응이 적었다. 오히려 공연프로그램에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본다.

○ 기타

어느 정도 역량을 구축한 축제의 경우, 축제 조직위원회에 외부 인적자원들이 유입되고, 상호 교류를 가능케 하는 개방성을 제도를 통하여 축제의 지속적인 혁신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미 몇몇 축제들은 기존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술축제의 고유성을 찾기 어려운 정도로 지역문화축제와의 변별력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축제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길 바란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제8회 서울세계무용축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제 8회 서울세계무용축제 SIDance 2005(The 8th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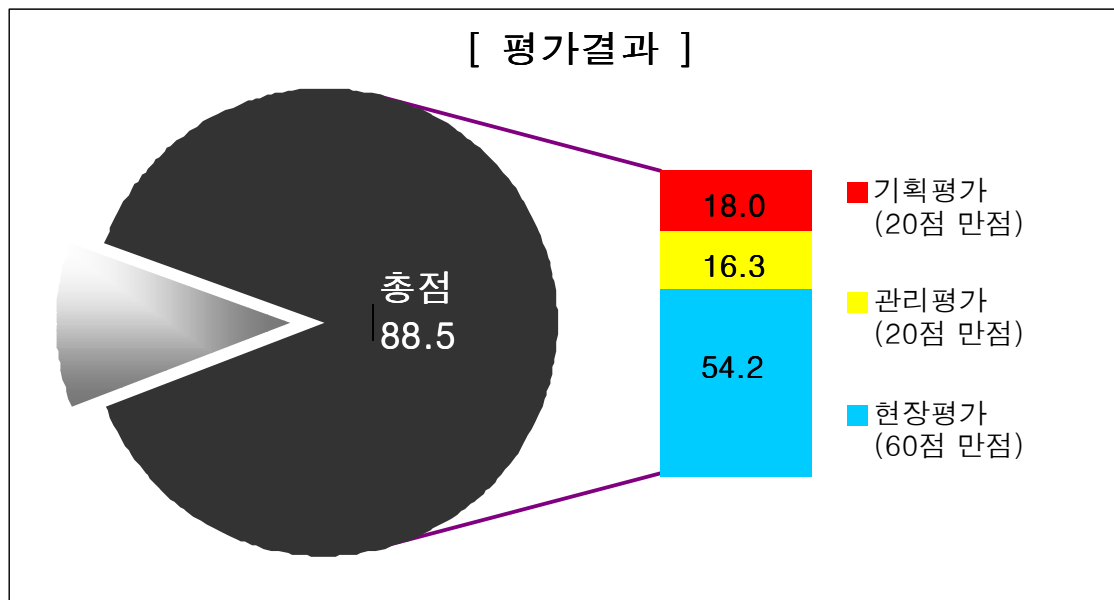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9월 27일(화) ~ 2005년 10월 18일(화)(총 22일간)
- 장소 :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자유소극장, 호암아트홀
- 주최 : 국제무용협회(CID-UNESCO) 한국본부
- 주관 :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조직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재)서울문화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 프랑스 외무부 예술진흥협회, 멕시코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유카탄 문화연구소,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핀란드 국립문화위원회, 핀란드 교육문화부, 호주 아트 프로젝트,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일본 문화청, 홍콩예술센터, 홍콩예술발전국, 댄스아트홍콩, 타이베이 댄스 포럼, 대만국립문화예술재단, 일본국제교류기금, 일본 AN Creative, 주한 프랑스대사관, 주한 영국문화원, 삼성생명, 호암아트홀, 무용박물관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9. 27 ~ 10. 18) → 서면평가(2005. 11.) → 개별평가회의(2005. 11. 14)

4. 평가결과 : 88.5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8.0 | 16.3 | 54.2 | 88.5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7.0/7.0 | 4.0/5.0 | 3.0/4.0 | 4.0/4.0 | 18.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8) | 사업목표 달성도(9) | |
| 2.55/3.0 | 7.35/12.0 | 6.35/5.0 | 16.3/20.0 |

◦ 현장평가

| 구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2) | 사업내용(34) | 관객서비스(14)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7.2/8 | 21.1/22 | 19.8/22 | 29.4/34 | 12.0/14 | 89.5/100 | 53.7/60 |
| B | 8.0/8 | 20.3/22 | 19.0/22 | 30.0/34 | 11.0/14 | 88.3/100 | 53.0/60 |
| C | 7.2/8 | 21.1/22 | 21.4/22 | 30.0/34 | 13.4/14 | 93.1/100 | 55.9/60 |
| 평 균 | 7.5/8 | 20.8/22 | 20.1/22 | 29.8/34 | 12.1/14 | 90.3/100 | 54.2/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총평 포함)

□ 사업 목적

- 1998년 시작된 서울세계무용축제는 해외무용 국내 소개, 해외합작, 국내무용가 육성 등을 목표로 매년 열리는 행사임. 그중 가장 뚜렷한 성과는 유명 해외무용단 소개로, 모리스 베자르 발레단, 프렐조카주발레단, 필립 드쿠플레 무용단 등을 초대해 무용 감상의 예술적 폭을 넓혀 주었음.
- 한국 춤의 차원 높은 국제교류와 세계의 춤의 현 주소를 국내관객에게 알리는 최대 규모의 행사로서 우리 춤을 해외로 수출하고 국제적인 무용계의 스타들의 작품을 감상에 목적이 있음.
- 세계 무용단체들을 초청하는 국제규모의 행사이고 8년 동안 세계무용계의 화제작을 초청해 온 시댄스의 경우 대중적이고 유명한 외국무용단체 초청과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외국무용단 발굴 등 양대 과제를 착실하게 수행해 왔으며, 세계무용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축제성격을 확실히 하고 있음.

□ 사업 운영

- 국제무용협회에서 8년째 주최하는 행사로 규모 면에서 기획과 운영 면에서 전문성이 돋보임.

o 유네스코와 연계되어 있어 국제적인 춤의 흐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국내 최대의 국제 페스티벌로서 손색이 없는 사업적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음.

□ 행사 내용

o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예술의전당과 호암아트홀에서 열린 서울세계무용축제는 전통에서 현대까지, 춤 문화 일견의 장으로 외국단체 여섯, 한국과 외국단체의 합작이 넷, 한국 무용가들이 나누어 채운 공연이 세 차례로, 총 열세 개의 공연이 진행되었음.

o 페스티벌의 전반적인 작품수준은 높은 편이다. 그리고 다양한 무용단과 다양한 레퍼토리구성으로 단조로운 행사에서 탈피하고 있음.

o 젊은 국내 무용수들이 보여준 춤 솜씨는 전반적으로 참신했음. 아시아에서 우리 춤꾼들의 테크닉은 가장 우수함. 그런 무용인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9월27일, 10월4일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열린 한국 젊은 무용가의 밤에는 윤푸름, 이해경, 정동은, 지운선(이상 9월27일), 박영중, 오민정, 윤석채, 이지은(10월4일)이 각각 나왔음.

지운선의 현대무용 '스물아홉...미스 지'는 의자 2개로 자신이 처한 갈등과 갈등을 보여준 무대였음. 긴장과 이완의 적절한 몸짓은 두 다리를 의자 다리 사이에 뻗거나 의자를 대화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온 몸으로 휘어감은 동작으로 이어짐. 직선으로 뻗는 사지의 동작들은 젊은 포효 같고 의자위에 쪼그리고 앉는 소극적이고 정적인 동선은 29살 미혼여성의 많은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을 던져 무대에 쏟아놓는 투혼의 춤은 좋지만 반복되는 동작이 많았음. 이해경의 '입묵'은 의상부터 무대구성까지 신인답지 않게 과감했으며, 무대를 붉은 선으로 권투장의 링처럼 만들고 그 안에서 푸름과 검정이 매치된 도복의 여성 무용수 2명이 주인공의 주소를 설명함. 검고 거칠고 과장된 의상을 입은 주인공은 가슴을 찢어내고 한문으로 '默'이라 쓴 흰 옷차림으로 거듭남. 세속의 화려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택한 구도의 과정을 온 몸에서 터져 나오는 고통스러운 몸짓으로 소화했고 어렵지 않게 주제를 부각시킨 작품임.

정동은의 현대무용 '벽-또 다른 새로움'은 두 명의 여성이 깔끔하게 이룬 구성으로 정적인 동작의 이어짐이 많아 지루한 대목이 많았고 관객들은 이어지는 그들의 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긴장 과다성 주목을 했을 것임.

오민정의 현대무용 '놀이터'는 지치지 않고 뛰어노는 아이들의 천진함을 담기 위해 무용수들이 무대를 원형모양을 그리며 뛰거나 뒷벽에 세워놓은 대형 판에 장난하는 그림을 배경으로 두 명의 무용수는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처럼 동작을 만들어 갔고, 안무가는 무용수들의 하의를 벗기고 팬티차림으로 무대를 뛰게 함. 무대 위에서 무용수들은 치열하게 서로의 지체들을 이었다 붙이며 춤을 만들어가지만 하늘(객석)에서 본 놀이터 모습은 그저 숨찰 뿐이며, 아무런 사유 없이 춤출 순 없겠지만 움직임 그 자체에 많은 비중을 두어 몸으로 추는 정직한 춤을 보여주었다. 상반신을 숙여 앞으로 구르기과 다시 거꾸로 구르기를 시도하는 등 움직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보여주었음.

윤석태의 '빨간 주머니'는 재미있다. 춤의 시각적 효과 외에 오디오 부분에도 신경 썼다. '오, 노우, 어떻게 해' '누구나 실수는 한다.' 등 빨간 주머니의 당위성을 전달하며 춤은 시작된다. 첫 장면에서 무대엔 빨간 덩어리들로 가득한 의상을 입은 '빨간 주머니'가 서서히 무대 뒤로 향함. 빨간 주머니 퇴장과 함께 등장한 윤석태는 강력한 몸짓으로 답답한 마음을 훌쩍인다.

치마차림의 윤석태는 치마가 흘러내려 알몸 상태의 하반신을 보여주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누구나 실수는 한다'며 치마를 추켜올린다. 배경음악 없이 이어지는 동작의 연결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만 의례히 짐작하던 대로의 연결은 없다. 무대 뒤에서 객석으로 연결된 4개의 줄은 비밀노출직

전의 아슬아슬한 상황을 보여주고 객석에서 당기고 있던 그 줄은 관객이 놓자마자 반격으로 한번에 무대 뒤쪽으로 순식간에 튀겨 가버린다. 윤석태의 춤은 센스 있고 앞에 어디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춤이었음.

박영준의 '버섯'은 쉴 세 없이 반복해 자신의 몸을 혹사하는 무용임. 일직선으로 꼳꼳이 서 있다가 그 상태로 동작의 변화 없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는 인내를 보여줌.

이지은의 'RefillrEfill'은 무거운 주제에 음악까지 반복되는 신디사이저 음악이다. 현대인의 욕심을 거꾸로 놓은 책상을 대상으로 자꾸만 그 무엇인가를 그 속에 채우려는 시도로 풀었다. 조명의 효과적 작업이 기대됐지만 이뤄지지 않았음.

리틀 아시아 댄스 익스체인지 네트워크에 참가한 5명의 아시아 무용수들은 이번에 솔로 춤을 보여주었다. 싱가포르, 일본, 타이완, 홍콩,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수들은 실력의 편차가 컸다. 붉은 망사와 머리 뒤에 쓴 가면으로 감시당하는 인간의 불안감을 고발한 일본 카사이 미즈타케의 '인형'은 독특한 색깔이 있다. 한국 정연수의 '사물의 윤회'는 길을 의미하는 좁은 직사각형 형태의 조명이 각도를 달리해 연결되고 그 조명 속에서 무용이 이뤄지는 춤이다. 긴 조명은 직각으로 또는 일렬로 연결되고 그 진행의 길목에서 정연수는 소생을 꿈꾼다. 직선위에 이어지는 원형 조명, 마지막 직선 조명들의 방사형 연결 형태는 시작과 끝, 인간의 생과사를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는 몸짓으로 보여줌.

리틀 아시아 댄스 익스체인지 네트워크에 참가한 5명의 아시아 무용수들은 이번에 솔로 춤을 보여주었다. 싱가포르, 일본, 타이완, 홍콩,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수들은 실력의 편차가 컸다. 붉은 망사와 머리 뒤에 쓴 가면으로 감시당하는 인간의 불안감을 고발한 일본 카사이 미즈타케의 '인형'은 독특한 색깔이 있다. 한국 정연수의 '사물의 윤회'는 길을 의미하는 좁은 직사각형 형태의 조명이 각도를 달리해 연결되고 그 조명 속에서 무용이 이뤄지는 춤이다. 긴 조명은 직각으로 또는 일렬로 연결되고 그 진행의 길목에서 정연수는 소생을 꿈꾼다. 직선위에 이어지는 원형 조명, 마지막 직선 조명들의 방사형 연결 형태는 시작과 끝, 인간의 생과사를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는 몸짓으로 보여줌.

첫날 오프닝 공연인 일본 파파 타라후마라의 '배를 보다'는 어촌을 배경으로 한 사람 사는 이야기다. 후반부엔 뻥뻥이는 연푸른 녹색의 의상을 갈아입은 무용수들이 '지구'라는 거대한 배를 탄 인간들의 현장을 코드화하고 있다. 지 작품은 우선 시작되자마자 조명부터 객석을 압도한다. 손에 잡히지 않는 미지의 세계와 현실세계를 오가는 느낌의 연한 푸른색과 녹색이 혼합된 조명은 감탄을 자아낸다. 무용수들이 한두 명씩 짝을 이뤄 펼치는 희로애락이 잔인함과 끈적함과 웃음과 괴로움을 동시에 던져줌.

파도소리 잔잔한 가운데 밤바다를 뚫고 들어오는 배는 2개의 작은 불이 꺼졌다 켜지는 조작만으로도 귀선을 알린다. 무대 가운데는 망루가 서있고 오른 편에는 자전거가 쓰러져 있다. 무용수들은 등대인 망루를 사이에 두고 각자 평범한 동작과 일본식 구움으로 작품을 서서히 움켜쥐어간다. 자체가 그림으로 다가온다. 부토형식의 몸놀림과 진한 정신이 담긴 호흡은 정적인 가운데에 살아있는 치열함을 보여준다. 시간차 구성의 동작들은 단순한 몸 움직임에도 의미를 부여한다. 무용수답지 않게 뚝뚝한 무용수의 열연도 이상적임.

다분히 일본의 민속적 동작과 어울려 다국적 춤이 기호화된 안무는 개개인의 서로 다른 몸놀림을 하나의 고급스런 합창처럼 만들었다. 무용수들이 일본 노래를 부를 때 자막처리가 없어 작품전달 효과가 반감됐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들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뚜렷하다. 물 컵을 들고 서로 껴안기, 등 뒤에서 칼들이고 찌르려는 유혹, 의자에 앉은 남자무릎에 여자가 앉기 등 파격적인 동

작이 지루한 놀림들 사이에서 빠죽빠죽 나온다. 칼들이고 있는 동작들은 그다지 춤적이지 않다.

안무가는 피난처가 필요한 이 세상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천정에서 선풍기가 내려와 망루위 깃발이 펄럭이고 무대 뒤 건은 막은 노란 전구가 달린 일직선 무대장치에 의해 구획되어 서서히 올라가다 다시 내려간다. 하나하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많고 길다. 후반부 무용수들이 의상을 갈아입고 출연한 후 작품이마무리 되도 관객들은 안무자의 외침을 알고 있다. 요즘 관객들, 우리 한국관객들은 특히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다.

우리 안무가와 외국 안무가가 서로 각자의 무용단을 교환해 만든 춤도 성공적이었으며, 전미숙과 멕시코 유카탄 주립현대무용단의 만남, 멕시코 루르테스 루나와 전미숙무용단의 공연은 기대이상으로 짝짖했다. 멕시코에 대한 호기심도 어느 정도 풀어주었다. 그들의 몸은 우리와 다르면서도 같다. 호흡이 우리처럼 조용하기보다 격렬한데, 정교하게 시간과 공간을 썰어서 보여주는 동작들은 섬세했음.

‘무슨 일이...’에서 안무가 전미숙은 4개의 조명이 보여주는 4개의 방에 남녀 무용수 4명을 한 사람씩 배치해 모용 초반부터 극적 긴장감을 보여준다. 남성무용수가 여성무용수 허리 뒤에서 두 다리를 감고 껴안는다. 그리고 방은 2개로 합쳐진다. 두 쌍의 이야기들은 한국과 멕시코, 두 나라의 상황을 말하고 멕시코 음악에 깔린 이야기는 한국이나 멕시코나 갈등 애정으로 가득하다. 간정의 격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무용수가 갑자기 뒤돌아 남자 품에 안겨 180도 돈다. 그리고 남성의 등에 타고 오른다. 반대로 남성이 여성의 등 뒤를 타기도 한다. 움직임의 철학은 국적이 없음.

‘거위군단’은 전미숙 무용단원들이 몸으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보여준 작품이다. 무대 뒤 그림자 영상으로 시선을 잡은 뒤 잘 훈련된 신체들이 싱싱하게 뛰어다닌다. 춤과 춤외적인 요소가 긴장-이완-긴장의 강렬한 표현으로 탄탄한 춤의 토대를 이룬다. 사회 조직원들의 갈등 협상 반목 등이 어렵지는 안돼 대중성을 확보한 춤사위에 얹힌다. 뒷부분 영상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소진한 형상은 무대 전면 가득 찬 채 혼란한 느낌을 준다. 뱃속 태아사진과 수정란의 움직임을 고속으로 촬영한 영상들도 춤의 일부가 되 다가온다.

유카탄 주립현대무용단이 보여준 ‘살다, 죽다, 환생하다...’는 150여개의 테니스공들을 이용한 재미있는 춤이다. 무용수들은 긴 줄을 돌려 자신의 몸에 감았다 풀며 장난하고 수많은 공들을 갖고 신체와 접촉한다. 공위에 서서 평형을 유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 여성 두 명이 서로 이마를 맞댈 때도 공을 사이에 대고 두 손을 잡을 때도 공을 사이에 두고 잡는다. 서로의 신체를 맞대는 부위마다 테니스공이 존재한다. 공으로 연결된 신체를 뗄 때 마다 공들은 무대로 떨어져 구르고 무용수들은 공을 가지고 놀며 탄력에 대해 연구한다. 한 여성무용수는 공을 긴 줄에 달고 나와 그 줄을 힘껏 빙빙 돌린다. 거의 무대를 가득 채우며 공이 돌아간다. 공을 가지고 놀다 못해 남성무용수는 짝짝이가 달린 옷을 입고 나와 무용수들이 자신의 온 몸에 공을 던져 착착 붙이도록 한다. 박수소리에 맞춰 공을 던지며 역동성을 강조한 몸짓은 춤의 작품성보다 대중성이 강조된 놀이 춤이었음.

일본댄스 셀렉션과 한국 서울 세계무용축제가 공동 제작한 콘도스와 흥댄스 컴퍼니의 한일공동작 ‘팜프 파탈’ 3부작도 소득은 컸다. 콘도스는 관객을 직접적으로 웃기는 코미디 춤을 추면서 일본관객의 사랑을 받아왔다. 흥해전은 상황을 비틀어 웃기는 안무가다. 두 안무가를 매치시킨 노력이 가상하다. 1부는 일본사람들이 한국말을 해가며 펼치는 코미디춤이다. 단원전원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춤을 추기 때문에 연습할 시간이 많지 않을 텐데도 3년 전 서울에서 첫 공연을 가졌을 때보다 기량이 좋아졌다는 평이다. 양복차림 중창단의 코믹상황 연출, 흑인머리가발에 빨간 바지

와 노란 셔츠차림의 무용수는 변기를 뚫어주는 검은 반원형의 뽕 뚫는 기계를 펜싱칼, 재떨이, 스키폴 등으로 사용하며 너스레를 떠다. 일본 전통춤동작을 무예적 움직임과 접목해 보여주는 일본인들은 다듬어진 몸매는 아니지만 코믹한 무용단 정신과 자신들이 살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스런 웃음을 춤에 담아 보여준다. 키 작은 무용수가 커튼 뒤로 들어가 잊혀 지는 상황, 양복을 벗고 하얀 내복차림에 숫자 `666' `588' `69' 등을 달고 기계체조 선수들의 몸짓을 본따 춤으로 보여주는 장면도 재미있다. 근엄하고 심오하고 춤 언어가 다양하고 무게 있는 우리나라에선 이것도 춤이나 싶지만 춤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명제가 있다면 그들의 춤은 성공이다. 대중성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흥혜전은 5명이 화장실에서 펼치는 해프닝으로 시작한다. 4곳엔 휴지가 없고 1곳에만 휴지가 있는데 서로 휴지를 달라고 하자 휴지를 가진 화장실에선 휴지를 마구 쓰고 소량의 휴지를 전해 받은 두 번째 화장실 사람은 그나마 얻어 쓸 휴지를 챙긴 후 다음 사람에게 건넨다. 결국 마지막 사람에겐 우표만한 휴지가 전해진다. 그런데 5명이 똑같이 바지를 입고 화장실을 나온다. 요지경 세상을 빗냈다.

낙시터 장면에선 객석의 여성에게 책이라는 미끼를 던져 그들을 무대에 오르게 한다. 그중 한 여성이 `팍트 파탈' 춤의 주인공이 된다. 5명의 여성을 각각 품에 안은 채 자신의 양말을 벗어서 1등을 가리는 게임이 주어지고 가장 근수가 많이 나가는 여성의 남성무용수는 양말을 벗지 못해 그 여성을 상대로 러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무대에서 그 여성을 대상으로 남자 무용수들이 서로 싸우고 유혹하고 몸이 달아 난리다. 4명의 남성이 펼치는 춤의 경우 한 남성 무용수가 세 사람의 손과 어깨와 등을 옮겨 다니는 동작을 구사, 남녀 2인무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 색 다르다.

한국단원들은 `오늘 고기들이 싱싱해서 잘 안 잡히네요' 등 계속 한국말로 중계하고 상황에 따른 몸짓들이 코믹하게 연결된다. 검은 양복 4명과 선택된 여성의 파트너인 1명의 남성무용수는 서로를 의심하고 제거하려 한다. 총을 들고 검은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든 안기부 직원 같은 이들을 혼내주기도 한다. 사회병리현상의 고발하였다.

또 한일합작 공동안무작인 3부에선 검은 양복바지에 흰 와이셔츠차림의 남성 무용수 9명이 바닥에 슬라이딩 하듯 엎어져 미끄러진 후 서로 자신의 하반신의 `거시기'가 아파 찢찢 때는 상황으로 여성에 빼앗긴 현대 남성들의 본분을 고발하고 있었다.

프랑스 다니엘 라리외무용단의 `네 감을 잊지마' 는 무용수들이 너무 내적인 감정을 은근히 나타내는 바람에 미지근한 춤이 되어버렸다. 남들이 하지 않는 춤의 틈새를 노리다보니 그들이 추는 정적인 춤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독특한 춤이어도 보기 좋아야 독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 무용단 공연은 뜨거운 춤을 즐기는 우리 관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반면 영국랜덤무용단의 `운동장애'와 `지네이트라' 는 기대하지 않은 즐거움과 놀라움을 주었다. 작품 첫 장면에 안무자가 직접 나와 춤추는 춤은 그에게 빠가 있는 지 궁금하도록 만든다. `운동장애'라는 제목조차 너무도 역설적인 단어일 만큼 그들은 너무도 탁월한 몸놀림을 보여준다. 어느 동작이건 장애가 전혀 없음을 알려주고과 한국에 온 것 같다. 멀티미디어와 조명 등의 활용에 익숙한 안무가의 특성 때문에 춤이 더욱 살았다. 음악인 너무 단순한 게 흠인데 자신들의 동작을 강조하기 위해 음악조차 단순하게 만들어 버린 듯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된 쿠바무용단 나르시소 메디나무용단은 민속춤을 보여주었다. 무용수들은 무대에서 민속춤을 추는 것으로 모자라 객석에까지 내려와 관객들에게 우리로 치자면 흥겨운 길놀이를 보여준다. 그들이 두 번째 공연한 `변신'은 정말 놀라운 작품이다.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신체 적 특성과 자신들의 역사를 춤에 담아 강렬한 언어로 풀어내는 솔직함이 좋

다. 붉은 조명 속에서 둥근 원통 속에 세 명의 남성무용수가 들어가 서로 허리까지 원통에서 몸을 드러낸 채 상반신을 이용한 몸의 절규를 계속 한다. 가운데 한명은 허리를 굽혀 자신의 등을 내놓았을 뿐이고 나머지 두 명은 원통에서 서로 빠져 나오려 기를 쓴다. 그들 통속에서 나온 두 명은 서로 반대로 겹쳐 누워 맞물려 둥글게 돌아간다. 3명이 절규하며 붉은 핏빛 조명 속에서 일렬로 퇴장하는 장면은 춤이 모든 상황을 말해주는 무대예술의 장점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음.

□ 관객 서비스

○ 무용 전공자들은 물론 여가선용 자들을 위한 홍보에서도 성공을 거둬 유료 객석 점유율이 높은 행사다. 인터넷, 사랑티켓 등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와 패키지 티켓 할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었음.

□ 문제점

○ 국제무용축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무용가들의 참여도가 여전히 너무 높았으며, 특히 젊은 안무자들 공연 비중이 높았던 것에 비해 결실로 내놓을 만한 실험성이나 작품성이 약했음. 유사한 경우인 ‘리틀 아시아 익스체인지’ 역시 실력보다는 인맥으로 연결된, 국제행사의 극단적 폐단의 하나로 보일 위험성에 유의해야 함. 특히 올해는 유명단체 초청이 줄어들어 이 행사가 지녀왔던 가장 큰 장점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음.

○ 지나치게 예술성을 강조한 단체위주의 선정으로 대중성 있는 단체들의 초청이 거의 없었음.

○ 리틀아시아댄스익스체인지의 경우 이번에 참가한 안무가들은 각 국에서 선정된 무용인들인데, 수준의 고른 분포가 없이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물론 우리나라 춤 수준이 높고 우리 무용수들의 기량이 뛰어난 사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춘 공연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음.

리틀아시아댄스익스체인지 네트워크 토론의 경우 토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 행사의 흐름에 방해가 되었는데 진행자 또는 토론참여자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 개선 방안

○ 한국대표라는 위상에 걸맞은 무용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대중적 명성을 얻은 단체 한 두 개 정도는 매년 초청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후에 올해 초청된 실험성이 돋보이는 단체들인 다니엘 라리의 무용단이나 랜덤 무용단이 초청되고, 민족춤이나 대중춤 단체가 가세한다면 무용 전반을 고루 다루는 축제행사로 손색이 없음. ‘모다페’가 실험성을 추구하는 현대무용 축제인 만큼, 세계무용축제는 실험성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대중적 인기의 재확인 쪽으로 나가는 차별화된 목표 설정 필요.

○ 그동안 시댄스를 통해 춤을 감상하는 일반관객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다시 주춤한 상태이며, 우리의 춤이 춤꾼을 위한 공연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우리의 무용관객이 전체 공연 예술의 관객층에 비해 지나치게 소수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용관객의 폭을 넓혀 갈 수 있는 관객의 개발을 위한 작품의 개발과 초청 필요.

○ 쿠바무용단의 경우 국내 첫 선을 보이기 때문인지 두 개의 민속춤을 선보였음. 이는 시댄스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내용임. 행사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선 아무리 처음 소개되는 단체여도 그들이 가진 우수창작품을 선보여야 함. 또한 관객들의 감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각종 미디어 관련자들의 촬영과 사진촬영에 대한 선별과 제재 필요.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2005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 대공연 평가결과 -

1. 사업명 : 2005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 대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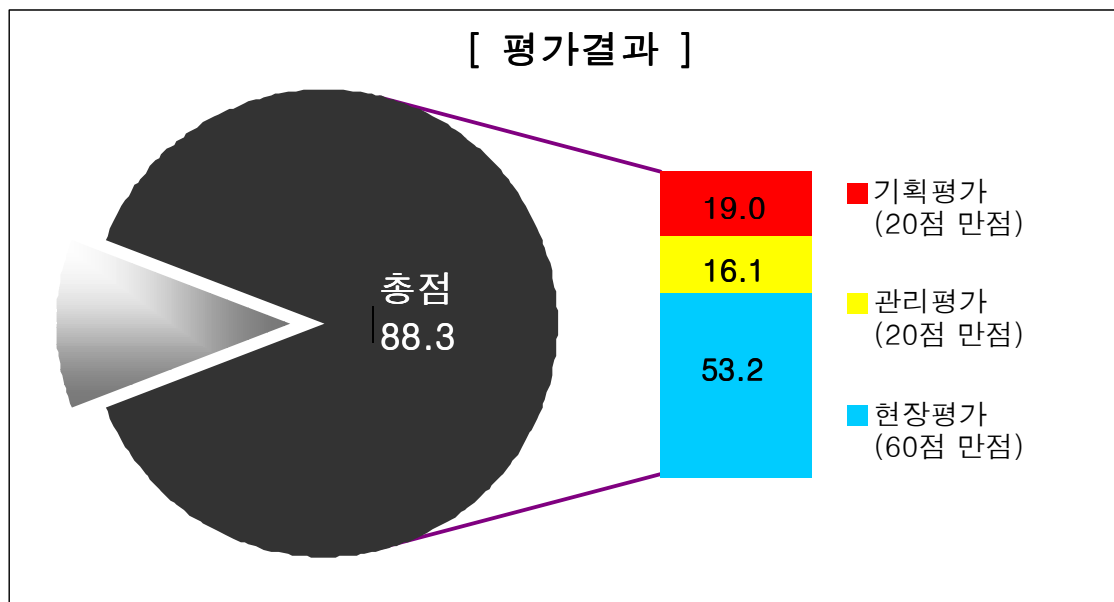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 7. 21 ~ 7. 22
- 장소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주최 :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IPAP), 국립극장, 동아일보사
- 주관 : 공연예술기획 온스테이지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7. 21 ~ 7. 22) → 서면평가(2005. 9.) → 개별평가회의(2005. 9. 21.)

4. 평가결과 : 88.3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9.0 | 16.1 | 53.2 | 88.3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6.0/7.0 | 5.0/5.0 | 4.0/4.0 | 4.0/4.0 | 19.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12) | 사업목표 달성도(5) | |
| 2.55/3.0 | 7.2/9.0 | 6.35/8.0 | 16.1/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2) | 사업내용(34) | 관객서비스(14)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6.8/8 | 19.3/22 | 19.8/22 | 29.4/34 | 12.8/14 | 88.1/100 | 52.9/60 |
| B | 6.8/8 | 19.3/22 | 19.2/22 | 27.0/34 | 12.0/14 | 84.3/100 | 50.6/60 |
| C | 7.6/8 | 21.5/22 | 21.2/22 | 29.0/34 | 14.0/14 | 93.3/100 | 56.0/60 |
| 평 균 | 7.1/8 | 20.0/22 | 20.1/22 | 28.5/34 | 12.9/14 | 88.6/100 | 53.2/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목적

- 해외무대에서 활약한 한국출신 무용수들의 현 주소를 통해 무용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해외 파들로 하여금 한국 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자긍심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며 한국무용의 우수성을 국내 무용 팬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공연하는 해외작품을 통해 국제교류를 이룰 수 있음.
- 국내외 안무가, 무용수의 연계를 통해 국제무용교류 확산 및 우리나라 무용의 국제경쟁력 확대와 해외에서 활약하는 무용수들을 통해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
- 한국에 소개되지 않은 한스 반 마넨, 하인즈 슈뢰엘리 등 유명 안무가들의 작품과 공연을 위해 현지 안무가로부터 새롭게 안무 받은 작품 소개를 통해 국내 예술발전 기여 및 해외 무용계 최신 흐름 가늠할 수 있음.
-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출신 무용수들에 대한 국민적 국가적 관심 고취를 통한 지속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해외 진출 한국 무용수들에 대한 관심유발로 국내 유망 무용수들의 해외 진출 적극 도모
- 사업목적은 공연내용, 예술발전의 질적 성장, 그리고 관객들 만족도에 적절하게 부합되어짐.
- 외국 직업무용단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그들의 활동상을 확인하고 격려하며 더 많은 해외 진출을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행사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녔으며, 지속적인 진행이 필수적인 사업임.

□ 사업운영

- 올해는 모두 여덟 명이 초청되었는데, 취리히 발레단 수석 김세연, 네덜란드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김지영, 캐나다 국립발레단원 서동현, 네바다 발레단 수석 이유미, 리옹 오페라발레단원 이윤경, 에센발레단원 장유진, 호페쉬 쉬치터 무용단원 차진엽이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선보였고, 뒤셀도르프발레단 객원지도위원 허용순은 초청 안무자로 참가했음.
- 공연의 발레클래스가 인상적이었으며, 점점 우리 무용수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무용의 발전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강조하고 있음.
-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올해는 유난히 현대발레 작품이 많았으며, 해외춤 동향을 알려주기 위해 해외유명안무가들의 작품도 포함되고, 전체작품 16개 중 10개가 국내외 초연이며, 특히 세계 초연도, 5개 작품이나 됐음.
- 전문공연기획사의 체계적 기획과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무용 관객 유도 및 관객층 개발과 무용기획 공연의 문화상품화를 통한 무용시장 활성화 등 사업운영에 있어서 적절하게 운영 되었다고 판단됨.

□ 사업내용

- 세계 메이저 직업 발레단과 현대무용단에서 활약 중인 한국출신 프로 무용수 초청 발레·현대무용 공연(격년제)으로 이일 간에 걸친 공연일정으로 동일 무용수들의 다른 레파토리 공연이 이루어졌음.
 - 초청 아티스트 및 단체
 - 해외 초청 한국 무용수 : 7명(김지영, 김세연, 서동현, 이유미, 이윤경, 장유진, 차진엽)
 - 해외 초청 한국 안무가 : 1명(허용순)
 - 해외 초청 동반 무용수 : 4명(Altin Kaftira, Jozef Varga, Jorg Simon, Hofesh Shechter)
 - 국내 초청 영스타 무용수 : 4명(이충훈, 임정윤, 이상은, 장이지)
 - 특별초청단체 : 3개 단체 26명(국립발레단 14명, 유니버설발레단 4명, 서울발레시어터 8명)
- 행사내용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나 예술적인 완성도는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첫날 1부는 국립발레단의 <심포니 인 C>를 개막 작품으로, 캐나다 국립발레단의 서동현과 네바다발레단의 이유미가 <해적> 그랑 파드되로 호흡을 맞췄고, 이윤경의 <내가 볼 수 있는 한(As far as your eyes can see)>, 영 댄서 이상은의 <레이몬다>, 김지영과 알틴 카프티라의 <로미오와 줄리엣> 순으로 진행되었음. 유니버설 발레단의 <프레스코>가 두 번째 날의 개막을 맡았고, 이를 모두 서울발레시어터의 <나우 & THEN(Now & Then)>이 2부를 개막했으며, 개막공연 중에서는 유니버설 발레단의 화려하고 정돈된 무대가 축제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유망주 공연에서는 선화예고 졸업 후 곧장 유니버설 발레단에 입단한 이상은의 <레이몬다>가 돋보였음.
- 모두 객석은 초만원이었고 스타를 보러온 관객들의 만족도도 높았으며,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수타 초청공연의 경우 프롤로그로 제작한 영상이 참으로 산뜻하고 기발했음.
- 세계초연된 작품도 다섯 작품이 있었고 국내초연작도 다섯 개였으며, 직업무용단인 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레단, 서울발레시어터가 특별출연해 행상의 의미를 더했음. 유니버설발레단 출신 김세연은 발군이었는데 『그랑파 클라식』도 좋았지만 국내에 첫선을 보인 『Angel』에서 그의 숨겨진 무대를 제압했고, 신체선이 예쁜 무용수로 소문난 그는 긴장과 이완에 따라 작용하는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고스란히 자랑했음. 남자파트너와 만드는 어깨선 동작은 마치 새가 하늘을 나는 형상을 이루며 신체의 과학적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으며, 몸의 연장선을 극대화하는 안무

와 신체움직임, 발등이 이루는 고조차도 하나의 추상화로 구성하는 세련된 춤을 완벽히 소화했음.

- 김지영은 첫날 국내초연된 『로미오와 줄리엣』 중 발코니 장면으로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으나 프로코피에프의 음악을 요리하는 네덜란드 안무가의 아이디어는 싱거웠음. 애타는 사랑의 유혹을 보여줄듯하다 끝나고 말았는데, 김지영은 무언가 더 추고 싶은 데 안무는 그의 욕심을 따르지 못했음. 김지영은 『Sarcasm』에서 한스 반 마넨의 안무를 충분히 소화했는데, 서로를 비아냥거리려는 남녀관계를 위트있게 표현했으며, 연기력과 순발력이 없으면 곤란한 작품을 제대로 소화했음. 연습실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동원된 피아노 라이브연주도 좋았고 파트너에게 몸을 던져 안기는 시간차 동작의 조합이나 남성무용수의 어깨위에서 몸을 한바퀴 돌리는 테크닉 등 동작 연결의 완성도를 보여주었음.

- 캐나다국립발레학교를 나와 캐나다국립발레단에서 활약하는 서동현은 유안유안 탠과 춤추는게 소원라고 했는데, 그럴려면 신체훈련을 더 쌓아야 할 것 같았음. 네바다발레단 수석무용수 이

유미는 화려한 테크닉이 부족했고 두 사람이 함께 한 첫날 첫 작품 『해적 2인무』에서 박자에 맞춰 회전하다 속도를 못 맞춰 엉거주춤한 상태로 회전을 마무리했으며, 회전 후 중심을 잡지 못해 휘청거리기도 했음. 제임스전 안무의 초연작 『레이스』에선 발랄하고 축제적인 춤을 보여주어 전 날의 미진함을 채워주었으며, 차바퀴를 연상시키는 이유미의 의상도 재미있었음.

- 프랑스 리옹오페라발레단 무용수 이윤경의 가방춤 『끝없는 여행』은 세계초연작으로 여러 무용단을 전전하는 무용수의 일생을 여행객의 트렁크와 채치 있는 동작으로 의미화했음. 트렁크를 끌고 가다 앞으로 뻗는 다리의 자유로움, 트렁크안에서 꺼내는 남자 옷을 통해 보여주는 로맨스, 원피스를 올려 머리를 덮거나 원피스로 바닥을 닦기도 하는 위트와 슬픔의 춤으로서 춤이 이렇게 단순한 소품하나로도 일생을 말할 수 있고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음을 던져주는 춤이었음. 그러나 뒷날 이윤경이 보여준 『반딧불』은 야광연두색의 반딧불 의상부터 거칠었고 음악과의 조화도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음.

- 현대무용가 차진엽은 『파편』 『Pleasure』를 통해 현대문명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의 갈등을 몸 전체로 보여주는데, 재빨리 이어지는 근육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소화하는 숨씨가 무난했지만 무대가 너무 넓어 작품성이 반감된 게 사실임.

- 이번 초청스타 가운데 기대치를 채우지 못한 무용수도 있었는데 현대무용작품의 경우 공연장 무대가 운동장처럼 넓어 보였고, 또 국내초청 영댄서 4명이 해외무용스타들과 한 무대에 서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행사의 색깔이 희석된 느낌이었으며, 발레를 돋보이게 하는 무대장치나 조명도 단조로웠음. 김지영과 장유진이 각각 보여준 『로미오와 줄리엣』 발코니 파드되 장면에만 커텐, 침대 등이 무대를 채웠음.

□ 관객 반응 및 서비스

- 제작감독과 예술 감독 모두 유사행사에 경험이 많아 주최 측의 관객 서비스는 적극적. 합리적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공연장이 국립극장이어서 최상의 조건 아래서 행사 진행이 이뤄졌음.

- 공연 전 초청스타들의 공연 실황이 담긴 영상물을 방영함으로서 관객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 해외 스타들과 함께 하는 워크숍을 통해 스타와 일반무용전공자 간의 거리를 좁힘.

- 이 밖에 해외 스타들이 직접 출연해 설명을 곁들여 보여주는 감상회, 전문가와 해외 초청스타들이 참여하는 간담회, 팬들과의 만남 등 관객서비스가 적절하였음.

□ 문제점

- 사업운영의 목표설정이 불분명하였음. 즉 외국에서 활동하는 무용가들이 주역인데, 국립. 유니버설. 서울발레시어터의 단원 및 주역들이 개막공연에 동원되었고 이는 관례에 어긋났으며, 한국에서의 활동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을 은연중 강조할 수 있어 국내 스타들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음. 또한, 영댄서로 불린 국내 학생들이 사이사이에 끼어들 듯 출연한 것도 이 공연의 진정한 목적을 흐리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으며, 수적으로 열세인 현대 무용가는 여전히 겉도는 인상을 주었음.
- 이틀 공연 전후반, 총 4명의 장래가 촉망되는 [영댄서]들이 출연했는데 티켓판매를 의식한 배경이 컸을 테지만, 행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대목이었음. 최고 7만원씩 내고 입장권을 구입하는 관객들은 해외에서 빛나는 활동을 하는 무용수들의 춤을 보고 싶어 공연장에 찾아왔을 것이며, 신인들의 춤을 보러 오진 않았을 것임. 따라서 신인등장은 별도의 행사로 마련했어야 했음.
- 공간구성의 경우 춤 공연을 하기엔 너무 넓은 극장이었는데, 특히 현대무용의 경우 너무 넓어 무용수의 동작이 미처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대극장 무대를 액자처럼 꾸며 무대 공간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
- 무대장치도 거의 없었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의 발코니 장면에서 침대와 발코니가 등장했고 다른 공연에서도 소품으로 의자를 사용하는 선에서 그쳤고, 이 때문에 아름다운 발레공연이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작품이 되어버렸음. 예산이 들더라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무대, 음악, 의상 조명 등이 어우러져야 함.
- 공연내용과 출연자를 알리는 자막도 첫날엔 준비되지 않았으며, 어두운 공간에서 관객들은 다음 작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프로그램을 들춰야 했음.
- 또한, 중복된 무용수를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다른 무용수를 초청할 경우, 초청 무용수 기량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며, 검증되지 않은 작품 설정 문제가 있음.

□ 개선 방안

- 한번 출연한 무용수들의 진보된 기량을 보기 위한 중복 출연이 필요하며, 격년제 공연에서 3년제 공연으로 개선 요구되고, 검증된 작품 설정이 필요함.
-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무용수들은 초청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번 초청 출연자중 최소한 2명 정도는 프로무용수로서의 훈련이 덜된 무용수들이었음.
- 이 행사는 ‘스타’를 강조하면서도 고전발레부터 현대무용까지를 폭넓게 수용하는 현대의 예술춤 무대를 추구해 현실적인 문제가 많은데, 현대무용과 발레는 춤을 만들고 감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임. 세계적 추세를 따르다보면 현대적 작품을 적극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기교파 스타들을 확인하고 갈채를 보내는 자리라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아야 함
- 한편, 작품성이 특별한 현대무용단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안무 면에서의 새로운 관점을 강조하는 공연을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며, 아는 안무 마니아층이 생겨야 가능한 문화일 것인데, 대학생이 많은 한국 무용계 정도면 이 역시 가능한 일이라고 봄.

6. 총평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초청공연’이 2001년과 2003년에 이어 세 번째 막을 올렸다. 외국 직업무용단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그들의 활동상을 확인

하고 격려하며 더 많은 해외 진출을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이 행사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가장 화려했던 올해는 어수선했던 느낌도 그만큼 컸다. 국립, 유니버설, 서울발레시어터의 단원 및 주역들이 개막공연에 동원되어 한국에서의 활동은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을 은연중 반영한 감이 없지 않았다. 또한, 영 댄서로 불린 국내 학생들이 사이사이에 끼어들 듯 출연한 것도 이 공연의 진정한 목적을 흐리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으며, 수적으로 열세인 현대 무용가는 여전히 절도는 인상을 주었다.

올해는 다른 해에 초청되었던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여덟 명을 초청했다. 그들을 중심으로 축하공연, 파트너 동반자, 유망주까지 포함하면 출연진의 규모가 상당했다. 특히 한국 데뷔 공연을 가진 신인들이 처음으로 포함되어 국제화 바람의 위력을 실감했는데, 서동현, 이윤경, 장유진이 그들이다. 서동현은 선화예중 재학 시 유학길에 올라 캐나다 국립발레학교를 졸업했고, 이윤경은 서울예고 2학년 때 러시아로 떠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무용과를 졸업한 이후 독일을 거쳐 프랑스 리옹에 정착했다. 장유진은 로잔 콩쿠르 세미 파이널리스트 경력을 바탕으로 독일 뮌헨발레학교를 졸업했다. 무용에 인생을 건 용감한 신인들을 만나는 기쁨이 컸다.

한편, 안부가 궁금한 스타들의 근황을 보는 즐거움도 있었다. 김세연과 김지영은 각각 유니버설발레단과 국립발레단에서 최고의 스타로 각광받았고, 차진엽은 LDP무용단에서 활약했었다. 허용순은 무용가로, 안무가로 이미 여러 차례 한국공연을 가진 바 있어 더욱 친숙했고, 유니버설발레단 솔리스트였던 이유미가 유일하게 오류년이 넘는 세월을 넘어 고국의 무대에 섰다.

가장 먼저 출연한 이유미와 서동현은 첫날에 <해적> 그랑 파드되, 둘째 날에 제임스 전이 안무한 <더 레이스(The Race)>를 공연했다. 이윤경의 솔로 <네가 볼 수 있는 한(As far as your eyes can see)>과 <반딧불>은 둘 다 세계 초연작이었지만 작품성은 물론 무용가를 배려한 구성조차 갖추지 못해 안타까웠다. 작품 확보가 마땅치 않았다면 차라리 상황 파악이 가능한 국내 안무가의 작품이 좋았을 것이다.

반면 장유진은 작품 선정이 매우 성공적이었다. 허용순이 안무한 <슬픔의 왈츠>는 낭만적인 멜로디에 따르는 독무로 속도감과 활력을 강조했다. 현대무용과 현대발레가 뒤섞인 동작구는 기량과 연기력의 겸비를 요했고, 장유진의 해석은 나이답지 않게 여유로웠다. 특히 둘째 날에 춤춘 <로미오와 줄리엣>은 한국 초연작, 높은 완성도, 성공적 해석력으로 눈길을 끌었다.

차진엽은 호페쉬 쉬치터의 두 작품 <파편>과 <쾌감>을 안무자와의 2인무와 독무로 공연했다. 좋은 기량이나 구성에도 불구하고 현대무용의 작품 해석법이 발레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이번 무대에서의 교감이나 집중도는 약했다. 이 숙명적 거리감은 이 행사의 끊임없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영은 알틴 카프티라와 함께 루디 반 단지그의 <로미오와 줄리엣>, 한스 반 마넨의 <빈정거림(Sarcasm)>을 한국 초연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반 단지그의 동작구가 단순하고 묘사적이라는 사실을 알리는데 그친 반면 피아니스트의 연주에 따라 남녀가 장난스럽게 싸우는 압축된 드라마 <빈정거림>은 대가의 명작답다는 느낌을 주었다.

김세연은 파트너 조제프 바르가와 함께 <그랑 파 클래식>과 <엔젤>을 선보였다. <그랑 파 클래식>은 섬세한 라인과 함께 절도와 품위를 강조하는 기교의 연속이라 발레적인 라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양인의 체형과는 어울리지 않는 대표작이기도 하다. 그런 작품을 소화해낸 김세연은 진정 세계적 스타급에 오를 만했다. <엔젤>은 2002년 취리히 발레단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두 사람에게 보다 잘 어울렸다. 조화로운 호흡을 최대한 과시한, 우아함을 간직한 곡예적 기교가 놀라웠다. 이 행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단지, 너무 화려한 치장이 행사의 본질을 흐린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내 직업무용가들의 동원, 학생들 끼워 넣기, 발레와 현대무용의 어정쩡한 결합이 가져오는 근본적 혼란이 문제였다. 외국에

서 활동하는 한국 무용가들의 기량을 확인하고 격려하며 또 다른 후보자를 양산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되 춤의 특성에 따른 무대 연출에 신경을 쓴다면 최고의 행사가 될 것이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국제현대무용제(Modafe 2005) 평가결과 -

1. 사업명 : 국제현대무용제(Modafe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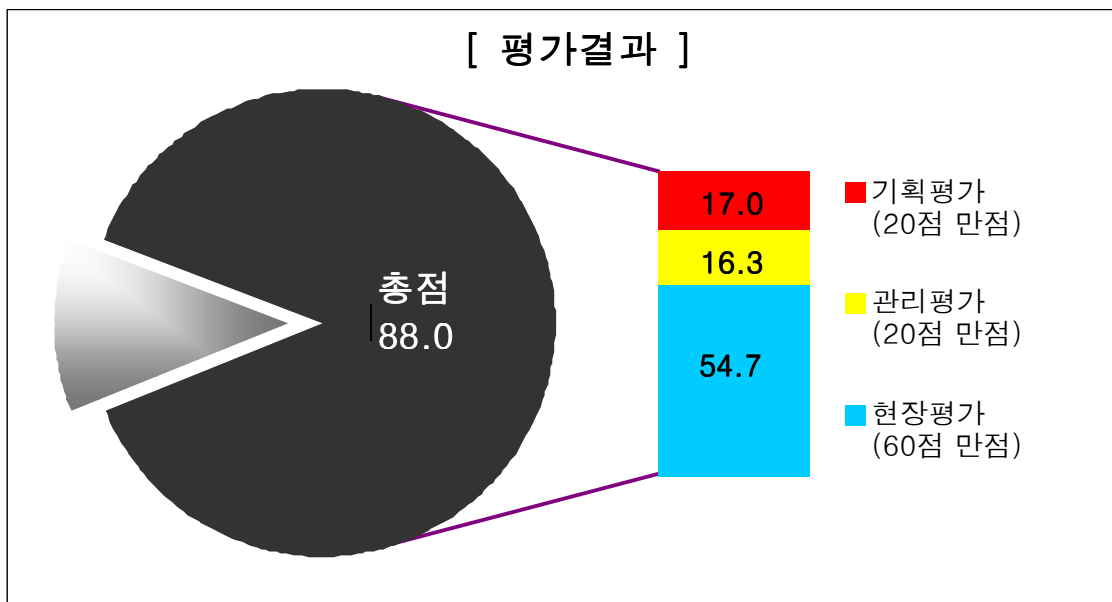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 5. 24 ~ 6. 7.
- 장소 :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대극장, 소극장, 서강대학교 메리홀
- 주최 : 한국현대무용협회
-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주한 프랑스 대사관, 일본 문화청, 주한 벨기에 대사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5. 24 ~ 6. 7) → 서면평가(2005. 6.) → 개별평가회의(2005. 9. 21.)

4. 평가결과 : 88.0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7.0 | 16.3 | 54.7 | 88.0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7.0/7.0 | 3.0/5.0 | 3.0/4.0 | 4.0/4.0 | 17.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55/3.0 | 7.35/9.0 | 6.35/8.0 | 16.3/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2) | 사업내용(34) | 관객서비스(14)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7.6/8 | 21.0/22 | 20.6/22 | 31.2/34 | 13.2/14 | 93.6/100 | 56.2/60 |
| B | 7.2/8 | 19.8/22 | 19.8/22 | 30.6/34 | 12.4/14 | 89.8/100 | 53.9/60 |
| C | 7.2/8 | 19.8/22 | 19.8/22 | 30.6/34 | 12.6/14 | 90.0/100 | 54.0/60 |
| 평 균 | 7.3/8 | 20.2/22 | 20.1/22 | 30.8/34 | 12.7/14 | 91.1/100 | 54.7/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목적

- 지난 24년간 국내무용계에 국제무용의 흐름을 전하고 국내무용인들의 해외진출의 기회를 열어 준 행사임.
-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로 정착되어,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국내외 무용교류의 역할을 지속 해 옴.
- 최근 세계적인 무용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올해는 국가와 인종을 초월한 해외 단체를 초청해 새로운 흐름을 소개함. 특히 제롬 벨이 이끄는 연극단체와 빌 반데키부스의 울티 마 베즈가 보여준 공연은 관객의 반응내용을 떠나서라도 국내무용인들에게 변화무쌍한 국제예술 시장의 흐름을 보여줌.
- 우수한 해외단체를 초청하여 우리 무용문화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업목적에 충실하게 사업내용 이 이행됨. 특히 미래의 춤 형태 소개에 감정이 있음.
- 무용 감상 인구확대에 큰 역할을 함.

□ 사업운영

- 주제, '몰락하는 문명, 탈출하는 육체'에 맞게 미래사회에 살아남는 춤 예술의 진위성과 대중 성을 모색했음.

- 공연기획 능력 우수함.
- 공연은 국제단체가 보여준 공연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고 단체 간 관객동원율의 편차가 심함. 즉 기대를 모은 공연엔 관객이 넘쳐나 일찌감치 매진되고 지연 학연이 없는 국내무용수의 경우 관객동원이 저조.
- 무용전공자들을 위해 티켓을 저렴하게 판매했기 때문에 일반 공연과 달리 관객접유율을 높여도 수익성은 관객동원에 비해 낮은 편임.
- 무용전공생들에게 해외 춤 정보를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이해해야하는 국제현대무용제의 특성이기도 함.
- 예산규모에 비해 좋은 해외단체 유치로 전반적으로 열의와 성의 있는 기획진행을 전달함.
- 행사 또는 공연 스태프의 전문성은 우수함.

□ 사업내용

- 행사의 독창성과 차별성 그리고 참신성 우수하며, 사회적 파급효과 큼.
- 일부 국내공연의 수준이하 작품은 문제.
- 유럽의 앞서가는 단체소개, 최신 춤 경향을 알게 하는 공연 내용, 워크숍 등 부대행사가 돋보이며, 참여인력 예술적 수준과 완성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작품별 내용
 - 맥 스튜어트의 고장 난 제품들 : 신체이외의 모든 걸 배제한 춤. 신체움직임에 비중을 둔 이 작품은 사람 몸의 일상적인 움직임을 통해 과학적인 동작의 본질을 탐구함. 우리가 신체에 부상을 입어 어느 한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상상해보라. 특히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을 다쳐 사용할 수 없을 때의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함. 생활에서의 그런 불편함을 춤으로 위트 있게 엮어낸 안무자의 신체에 대한 탐구가 신선하며 엉뚱하고도 기발함.
 - 제롬 벨의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 이 작품에 대한 반응은 딱 두 가지. 미친 듯 박수를 치거나 심지어 기립박수와 환호를 아끼지 않음. 반면, 저것도 춤이냐며 냉소적인 반응도 있음. 그동안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행위가 공연되었다는 자체는 높이 살만함. 그리고 요즘 유행이라는 논댄스의 유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음. 춤의 움직임조차 거부하며 단순화한 동작을 통해 생각을 던지는 공연이며 철저히 노래 내용에 따라 행동함. 출연진 중 춤적인 훈련을 받은 이보다는 연극배우들로 거의 이루어지며 이 단체는 극단이나 무용단이 아님. 대중성의 확보인지, 도를 넘은 자만심의 발로인지 판단이 힘들 정도임. 그러나, 새로운 시도에 점수를 보냄.
 - 빔 반데키부스의 울티마베즈 : 2시간동안 공연장이 경악으로 가득. 영화와 춤의 혼합구성으로 인간의 잔인함과 동물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황당한 영화장면과 극적이고 역동적인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불거리와 생각할 여지의 조합을 아슬아슬한 비율로 이루어짐. 우리 정서로는 섬뜩하면서도 이런 춤도 있다고 호기심을 느낄 만큼 메시지가 강렬하다. 춤 전공자들은 좋아하고 일반관객은 등줄기가 서늘하고 무겁게 느낄만한 공연. 무용수중에선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출신인 남성무용수가 두각을 보임. 무기력하고 고독한 인간들의 탄생과 죽음이 연극적인 대사와 영상과 춤으로 표현됨.
 - 안은미의 렛츠고 : 안은미는 멀리뛰기를 위한 도약, 옆드려뻗쳐 자세의 동작 등을 자신만의 춤으로 만듦. 평소 춤은 무조건 재미있어야 한다며 장난스런 동작을 보여주곤 하던 안은미는 이 작품에서 정색하며 많은 이야기하고 있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세지향적인 인간의 속성, 의관을 갖춘 채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 알몸으로 뛰어나가는 사람들,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자신

만 살아남으려는 인간들이 안은미의 화두.

□ 관객 반응 및 서비스

- 일정한 공연의 경우, 관객이 몰려 좌석배치 후에도 많은 이들이 객석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공연시작 후 입석으로 입장함. 공연장과의 문제임으로 주최 측과 원활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함.
- 비교적 순조롭게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관객 점유율 및 운영 스태프, 봉사자 친절했고, 관객 호응도 좋았음.

□ 문제점

- 평균객석점유율은 80%이상으로 다른 행사에 비해 우수했지만 입장권 매표수입은 생각만큼 많지 않음.
- 초청단체의 수준도 고르지 않은 점과 프로그램 구성은 좋으나 외국작품 경우 하나의 성향만 선정됨.
- 매스컴에 외국단체위주로만 홍보가 되어 국내단체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국내무용단체의 경우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어떠한 형식으로 작품을 검증했는지 홍보되지 않음.
- 관객동원(참여)면에서도 외국공연에 비해 국내공연이 두드러지게 떨어짐.
- 국내 작품 경우 젊은 층의 안무가로만 구성됨.

□ 개선 방안

- 할인혜택을 통해 국제 춤 흐름을 수용해야 하는 만큼 할인작업은 계속되어야 함. 정부지원이나 스폰서가 필요한 대목임.
- 해외단체 초청시 일회성 공연과 워크숍에 그치지 말고 해당 단체 및 단체의 해당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갖기 위해 행사운영진의 연중상시 운영시스템이 필요하며 행사를 위한 사무직원이 상주해야 함. 물론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행사의 일관된 색깔 유지를 위해 초청단체간의 수준과 특징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해외유명단체공연을 경비에 비해서 관람관객숫자가 적은 편임.
- 외국작품 선정시 주최 측과 더불어 현장 예술가 및 평론가들의 참여가 필요함.
- 국내 참가팀에 대한 배려가 아쉬웠음. 선정된 단체나 개인을 집중 홍보하여 작품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함.
- 국내작품 선정시 100인의 현장 예술가 및 평론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품선정 필요함.

6. 총평

국내무용계에서 한국현대무용제처럼 오래된 현대무용행사가 없다. 내년이면 25년이다. 그러나 없는 예산 탓에 외국단체 한두 단체를 초청해 `국제'라는 제목을 위한 들러리로 구색을 맞추는 때도 많았다. 국제무용의 흐름을 전하고 국내무용인들의 해외진출에 많은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취지도 퇴색했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적인 무용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올해도 입소문이 난 해외단체를 초청해 새로운 흐름을 소개했다. 특히 제롬 벨이 이끄는 연극단체와 빌 반데키부스의 울티마 베즈가 보여준 공연은 국내무용계에게 최근 국제예술시장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춤 시장의 발전을 위한 모색은 이 행사하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미래춤사

회에서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수배우기용 외국공연은 적었다. 충격적인 작품초청으로 관객들에게 깜짝 놀랄만한 현대 춤 시장의 흐름을 보여준 공은 인정할만하지만 우리 무용인들이 배울만한 춤 테크닉이나 춤 정신은 부족했다.

전반적으로 행사가 진행된 공연장에는 무용인들이 모여들었고 일부공연은 자리가 없어 입장하지 못할 만큼 인기를 모았다. 관객들에게 ‘이런 공연도 있구나’ ‘이런 것도 공연이 될 수 있구나’ 던져준 교훈도 짚고넘어가야할 성과다. 우리 현대무용계의 차세대리더들이 펼치는 스파클 플레이스도 춤 잘 추는 안무가들의 공연이 많았다. 지역무용인까지 아우른 시도는 좋았지만 앞으로 그 비중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부대행사도 꾸준히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그러나 모다페 워크숍의 경우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 무용수들의 해외진출에 깊숙이 관여할 현장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워크숍이라는 장을 통해 적극적인 댄스마켓으로의 활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외국단체초청과 우리 무용인들의 춤만 감상하려는 행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무용수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현대 무용가들이 나서서 현대무용의 살길을 뚫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주겠는가. 국내시장에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제 돈 들여 적자투성이 공연을 이어가면 무얼 하겠는가?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만큼 공연실적이 좋지 않다면 이런 바람도 하나마나한 소리지만 그나마 이번 행사가 성공적이라 평가하기에 이런 제안을 해본다. 이로 인해 안무자의 의도나 작품의 완성도가 잘 전달되지 않아 안타깝다.

또한 외국작품과 국내작품 의 비율이 5 대 5 이었으면 한다. 이 행사의 주관이 한국이므로 한국 무용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한국 무용계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Modafe는 이미 견고한 위치를 자리 잡은 국제적인 축제로 인정받고 있으며 행사의 짜임새나 조직력 그리고 관객의 참여율 및 전문적인 예술인이 참여하는 인지도가 매우 높은 행사로서 이와 같은 몇 가지 점을 참고하여 행사에 반영하였으면 한다. Modafe 행사가 아시아 축제 에서 더 나아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제2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평가결과 -

1. 사업명 : 제2회 서울국제무용콩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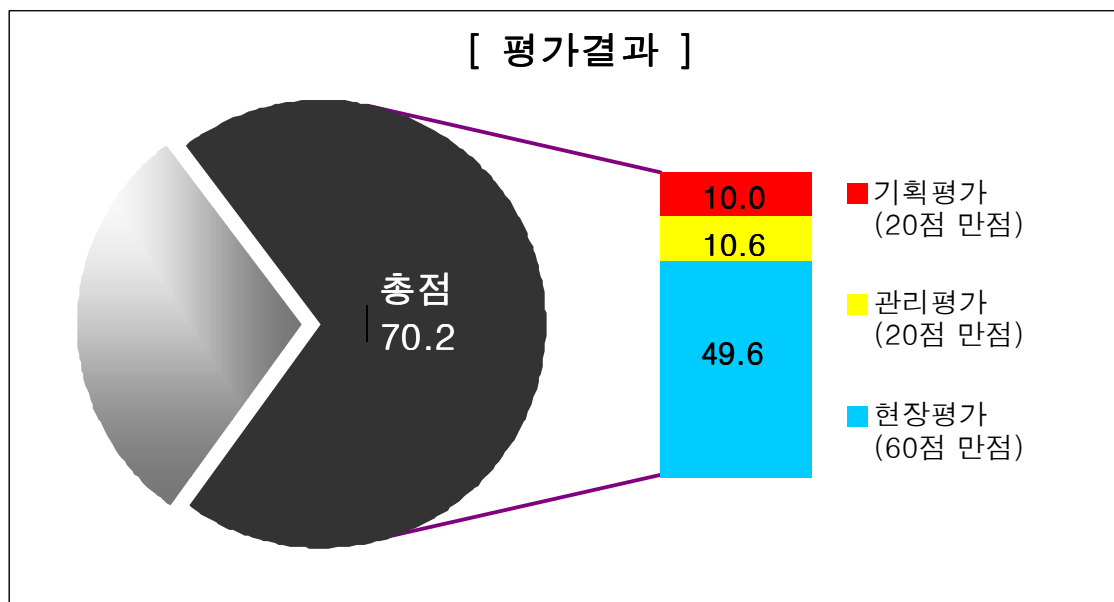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9월 4일 ~ 7일, 3일간 / 해외예선(6월 23일 ~ 25일), 국내예선(7월 4일 ~ 7일)
- 장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국립국악원 예약당
- 주최 : 서울국제문화교류회
- 후원 : 문화관광부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5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7. 4. ~ 9. 7.) → 서면평가(2005. 10.) → 개별평가회의(2005. 10. 21)

4. 평가결과 : 70.2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0.0 | 10.6 | 49.6 | 70.2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4.0/7.0 | 2.0/5.0 | 3.0/4.0 | 1.0/4.0 | 10.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1.65/3.0 | 4.05/9.0 | 4.85/8.0 | 10.6/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6) | 사업내용(33) | 관객서비스(12)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7.2/8 | 18.5/22 | 24.2/26 | 28.5/32 | 9.2/12 | 87.6/100 | 52.6/60 |
| B | 6.8/8 | 19.3/22 | 23.4/26 | 27.8/32 | 10.0/12 | 87.3/100 | 52.3/60 |
| C | 7.2/8 | 19.1/22 | 23.4/26 | 28.4/32 | 9.2/12 | 87.3/100 | 52.3/60 |
| D | 6.0/8 | 16.7/22 | 18.2/26 | 25.9/32 | 9.2/12 | 76.0/100 | 45.6/60 |
| E | 5.6/8 | 16.6/22 | 18.2/26 | 25.0/32 | 9.2/12 | 74.6/100 | 44.8/60 |
| 평 균 | 6.6/8 | 18.0/22 | 21.5/26 | 27.1/32 | 9.4/12 | 82.6/100 | 49.6/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이 행사는 공연예술 발전의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홍보 기간을 두고 좀 더 완성도 있는 행사가 되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 국제적인 발레 콩쿠르라는 사업목적에 걸맞은 심사위원을 초청. 콩쿠르 참석자의 수준도 전년에 비해 올라가는 등 향상이 있었음. 특히 서양 중심인 발레와 현대무용 외에 민족무용이라는 장르를 두고, 주제별 경연이라는 방법을 적용한 것은 좋은 착상으로 보임. 한국이 국가 수준에 걸맞은 국제무용 콩쿠르를 하나 가질 만 하다면 이 같은 정체성 있는 방식의 콩쿠르는 적정할 것으로 보임.

○ 국제무용콩쿠르의 사업목적은 한국의 유망한 젊은 무용수를 해외에 소개하고 능력 있는 젊은 무용수들이 국제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3개 국(한국, 일본, 중국) 무용수들만의 경합이 아니라 외국의 무용수들과의 경쟁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민족무용부문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국제무용콩쿠르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무용이 존재하는 세계 각국, 예를 들어 스페인, 라틴, 아프리카는 물론 아시아에 있어서도 필리핀, 태국, 인도 등이 참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9월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의 민족무용부문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만 참가하였음.

○ 경연의 장과 축제를 피하는 사업목적은 타당하나, 국제적인 무용예술의 교류와 문화 나눔의 장

이 되려면 일반인들을 위한 무용축제가 강화되어야 함.

□ 사업 운영

-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기획하였으나 이 기간이 개강을 한 후라 학생들의 행사참여도가 많이 떨어짐. 이런 좋은 행사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함.
- 콩쿠르 자체의 운영은 좋았음. 관객들도 관련 전문가와 학생들 중심이지만 적정수준을 차지함. 콩쿠르가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어렵게 초청한 심사위원들을 이용한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국내 문화발전을 꾀하고, 국내외 스타를 초청, 화려한 갈라 쇼를 하면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봄 조성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음.
- 극장(서울교육문화회관)이 접근성이 나빠서인지, 홍보미숙인지 관객이 출연자들보다도 없어서 외국의 콩쿠르 참가자들에게 부끄러웠음. 국제콩쿠르 하나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는 한 나라의 이미지를 고려할 때 관객을 유치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콩쿠르 운영의 조직에서 전문적인 실무조직이 빠져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운영은 전문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있음.

□ 행사 내용

- 예선이나 본선의 경연은 아주 잘 진행되었고 스태프의 전문성도 우수하였다고 봄.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심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은 양호했음.
- 콩쿠르 내용은 좋았으나, 개막식과 폐막식의 진행이 아주 서투름. 특히 폐막 행사가 오페라극장에서 치러졌는데 무대에 스피커가 설치돼있지 않는지 혼란이 빚어졌으며, 개막식에서도 한 아나운서가 우리말과 영어로 동시에 사회를 보면서 혼란스러웠음.
- 콩쿠르 출연자의 실력이 무용학도들이 보아서 배울 점이 있어야 하며, 좀 더 세계적인 수준의 훌륭한 무용인의 참가가 필요함.
- 개·폐막식과 축하공연이 이 사업의 성격에 안 맞는 내용이 있었으며, 각 종목의 경연에서 민족무용의 경연은 차라리 개막축제로 진행되어 일반인에게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민족무용과 발레의 경연이 같은 날에 진행되어 관람의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함. 발레의 주니어 본선 참가자의 수준(외국인)이 기대 이하였음.

시상식 진행의 미숙은 국제적인 망신임. 폐막 축하공연의 설정은 콩쿠르의 축하공연답게 국내 외각 발레단의 최고의 무용수, 그 외의 춤의 장르에서 최고의 춤꾼들의 춤으로 짧게 진행되는 것이 좋지, 학생들의 공연이나 무거운 주제의 무용은 축하의 성격에 맞지 않음.

□ 관객 서비스

- 관객의 서비스는 좋았다고 생각하나 관객참여도가 많이 떨어졌음.
- 예술의 전당과 교육문화회관으로 콩쿠르장소가 나뉘어져 있어 불편. 그 외에는 무리 없는 관객 서비스였음.
- 민족무용부문의 극장인 서울교육문화회관은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음. 폐막 갈라 공연은 축하공연이 너무 길어서 밤 11시 무렵 끝나는 등 너무 늦게까지 진행되어 귀가가 어려울 정도였음.
- 당일 프로그램의 홍보나 진행시간의 지연, 진행의 미숙함, 불편사항 해결능력이 매우 부족함.

□ 문제점

- 심사위원장이 프로그램에는 나와 있으나 본선과 시상식 때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전혀 설명되지 않음. 그리고 시상식 때 통역들의 준비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국제행사로서 많은 미비점을 보여줌.
- 개·폐막식에서 의전절차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 국제행사인 만큼 국제적 전례를 따라야 하는 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음. 개막식에서 행사가 너무 많았으며, 앞에서 지적인 대로아마추어 사회자 문제가 있고, 폐막식에서도 무대와 객석, 시상자와 참석자가 따로 움직이는 등 행사진행에 문제가 많았음.
- 국제콩쿠르라는 이름에 버금가게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는 행사가 되지 못함. 관객 수가 너무 적었고 공연의 시간배분이 적절하지 못함.
- 사업 개최 시기의 문제점과 실무진의 부실 : 큰 규모의 국제행사가 매년 개최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음. 그 이유는 이 행사를 위해 조직된 전문 실무진이 없다는 것. 기획, 홍보, 섭외, 진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계획 하에 이루어져도 매년 콩쿠르를 치르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현 상태의 운영으로는 국제적으로 이 사업의 공신력을 잃어갈 것임. 그래서 전문적인 상임 실무진이 구성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됨. 그리고 사업 개최는 2년마다 개최되는 것이 효율적임.(적절한 예산의 확보와 참가 무용수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 행사기간의 부적합성 : 4일의 기간은 이 많은 행사를 치르기에 부적합.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민족무용과 발레의 중복진행은 관객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목적에도 위배됨.
- 민족무용경연의 문제 : 민족무용을 어떻게 경연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됨. 경연의 평가기준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설정되었는지 매우 궁금함. 차라리 이 민족무용은 개막전의 대규모 축제 형식으로 운영되어 국제 문화교류의 차원으로 끌고 감이 옳다고 생각됨.
- 홍보의 개선 : 예선이후 결선에 이르기까지 연계성을 갖는 홍보 전략이 필요함. 국고를 사용하는 사업인 만큼 국내의 홍보에도 철저해야 함. 충분한 기간의 지속적인 홍보, 홍보 대상의 확대, 결선 기간의 언론보도 및 중계 등.
- 폐막제시 외국 심사위원과의 의사소통, 통역 등의 문제가 노출되어 대회의 전문성이 떨어짐.
각 민족의 문화를 담고 있는 민족무용이 무용수의 우열을 가리는 경연대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모순이 있음. 모든 심사위원이 참가한 각국의 민족무용의 우열을 가려낼 만큼 전문성이 없을 때 민족 간의 갈등을 불러낼 소지가 있으며 소수민족이 그 나라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을 제외한 어느 선진국의 국제무용콩쿠르에도 민족무용이 경연대상이 되지 않음.

□ 개선 방안

- 시상식 때 통역 등 식순에 따른 행사진행 리허설이 필요함. 시상식의 진행이 너무 늦고 갈라 공연과 축하공연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조금 일찍 시작하거나 공연 시간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
- 해외 국제콩쿠르의 전례를 찾아 공식 의전 일정을 확정하고,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기용해 풀어야 할 것임.
-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이번이 제 2회임. 아직 역사가 짧아서 그렇겠지만, 앞으로 외국의 무용관계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참가유도가 필요함. 국제무용콩쿠르를 통해서 외국의 많은 무용애호가들이 행사 때마다 한국을 찾아와서 한국에서 세계무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

겠고, 또한 한국 무용의 우수성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함.

o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무용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 먼저 한국무용계가 국제무용콩쿠르에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또한 무엇보다도 인재 발굴과 한국무용계 발전을 꾀하는 콩쿠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함.

6. 총평

한국은 국민총생산 수준 세계 11위권인 경제 강국이다. 하지만 문화예술 수준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같은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수준에 맞게 국제 무용콩쿠르가 하나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올해로 2회지만 예비까지 포함하면 3회 수준이다. 공개 조직 등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어서 앞으로가 더 기대를 모은다. 특히 민족무용 쪽에서 주제를 주고 경연을 하는 형식은 아주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현대무용이나 발레가 모두 서양 중심 무용이라 민족적 정체성과 함께 춤의 다양성의 확보할 수 있는 민족무용을 하나의 아이টে으로 넣은 것은 큰 성과로 보인다.

민족무용은 지난 회까지 축제형식으로 펼쳐졌다. 그러나 콩쿠르에서 경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또 각각의 장점이 있는 민족무용을 어떤 하나의 잣대를 대고 수준을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을 일정한 주제를 주고 창작과 연결시켜 경연방식을 선택한 것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된다. 주제의 선정에 따라 콩쿠르의 의미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민족무용에 경연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 물론 이 같은 방식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준 높은 심사위원이 필수다. 그 중에서도 막강한 권위를 갖고 있는 심사위원장을 위촉해야 한다.

하지만 심사위원 선정이 결코 쉬운 일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번에도 심사위원장으로 당초 발표됐던 볼쇼이 프리마 출신의 에카테리나 막시모바가 결국 돈 문제(?)로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돈에 흔들리는 사람을 뽑지 말고 권위와 실력을 갖춘 인물을 선정, 뽑아야 한다.

콩쿠르 참여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 전년도 보다 참가자의 실력이 더 높아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니어부는 수준이 좀 올라갔지만 주니어부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콩쿠르 전문조직이 만들어져 보다 많은 지역에서 출전 무용수를 좀 더 엄선해서 뽑아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

이와 관련 매년 콩쿠르를 여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격년제로 열어 경비 등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현 상태의 운영으로는 국제적으로 이 사업의 공신력을 잃어갈 것이라는 매운 지적이 있었다.

콩쿠르 자체의 운영에 대해 평가가 엇갈렸다. 좀 더 많은 관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평가위원들의 중론이었다. 이를 위해 콩쿠르 장소를 중극장 규모로 바꾸고 날짜도 늘려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수 의견으로 관객들이 관련 전문가와 학생들 중심이지만 적정 수준을 차지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관객들의 대다수가 무용관계자인 것은 콩쿠르가 어차피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콩쿠르가 일반 관객들의 관심을 유도해 무용시장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스타들을 참여시켜 성대한 페스티벌 형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어렵게 초청한 심사위원들을 그냥 놀릴게(?) 아니라 워크숍, 세미나, 포럼을 여는 등 어렵게 초대
대한 유명 심사위원들을 더 많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관객에 대한 서비스는 비교적 잘 됐다는 평가다.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잘 했
다. 그러나 개, 폐막식의 진행, 의전 상 실수는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국제행사인데 전혀 국제행사답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선 개막식에서 발레 동호인 수준의 아마추어 사회자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사회를 보면서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모두 피곤하게 했다. 그리고 연출은 누가 했는지 공연 행사가 너무 많
이 끼어 있었다. 특히 콩쿠르의 사실상 주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심사위원에 대한 소개조차
없어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사지 않았나 싶다. 또 갈라 공연이 너무 길어 11시에 리셉션이 열리는
등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다.

폐막식도 마찬가지다. 무대와 객석이 연결이 안됐다. 아마 무대 위에 스피커가 설치돼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무대 아래서는 사회자의 진행이 한창인데 정작 무대 위에서는 무엇이 진행되는지 몰
랐고 심지어 상을 주는 어떤 이는 호명만 된 채 상은 다른 사람이 주는 촌극도 벌어졌다.

한국의 경제력에 맞는 국제콩쿠르가 하나 필요한 때가 됐다는 데 전 평가위원은 공감했다. 그러나
지금 현 수준의 콩쿠르로는 부족하다는 게 하나같은 지적이었다. 그렇다고 만들어놓은 것을 없애고
다시 하는 것도 소모적인 만큼 콩쿠르 운영조직을 좀 더 투명하게 하는 등 운영체제 개선을 통해
콩쿠르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2005 고궁가족음악회 평가결과 -

1. 사업명 : 2005 고궁가족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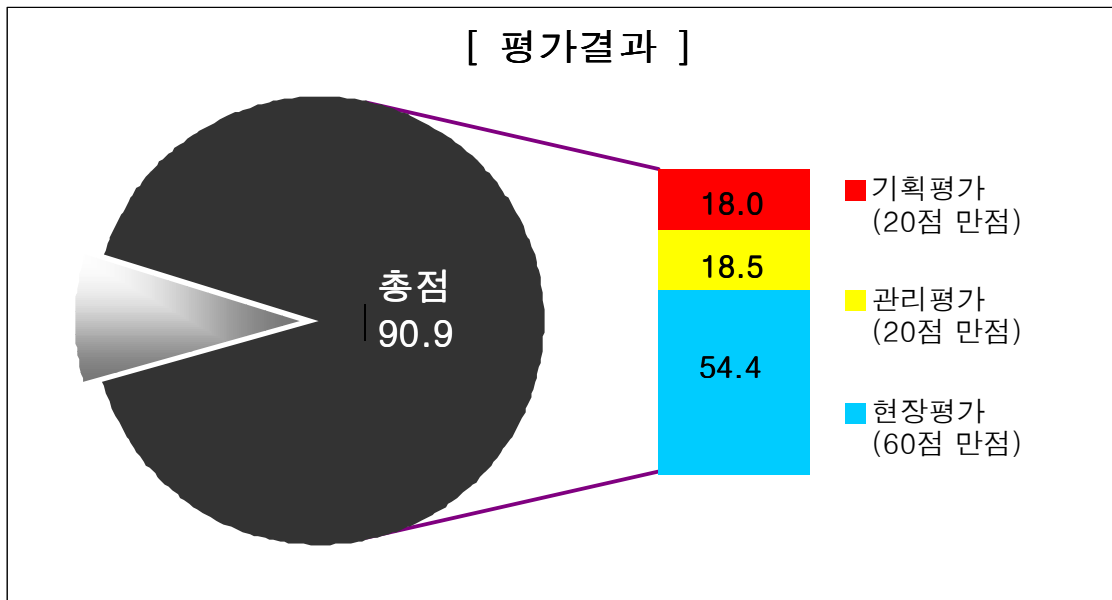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4월 ~ 10월
- 장소 : 경복궁, 창경궁
- 주최 : 문화관광부
- 주관 : 사단법인 꾸러기예술단, 서울모테트합창단, 서울튜터앙상블, CLIP service
- 후원 : 문화재청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5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4. ~ 10.) → 서면평가(2005. 12.) → 개별평가회의(2005. 12. 7)

4. 평가결과 : 90.9 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8.0 | 18.5 | 54.4 | 90.9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6.0/7.0 | 5.0/5.0 | 4.0/4.0 | 3.0/4.0 | 18.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55/3.0 | 7.95/9.0 | 8.0/8.0 | 18.5/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동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2) | 사업내용(34) | 관객서비스(14)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7.6/8 | 20.7/22 | 20.4/22 | 30.6/34 | 12.8/14 | 92.1/100 | 55.3/60 |
| B | 7.2/8 | 19.3/22 | 19.2/22 | 30.6/34 | 12.2/14 | 88.5/100 | 53.1/60 |
| C | 8.0/8 | 19.4/22 | 20.6/22 | 31.2/34 | 12.4/14 | 91.6/100 | 55.0/60 |
| D | 6.8/8 | 19.4/22 | 19.8/22 | 31.6/34 | 12.4/14 | 90.0/100 | 54.0/60 |
| 평 균 | 7.4/8 | 19.7/22 | 20.0/22 | 31.0/34 | 12.5/14 | 90.6/100 | 54.4/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공연, 뮤지컬 하이라이트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레퍼토리와 연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야외음악회로 자리매김함.
- 종래 덕수궁 한 곳에서만 하던 음악회를 창경궁 및 경복궁으로 공연장소를 이원화, 장소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냄.
-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문화향수 기회의 확충을 위하여 누구나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음악 공연을 표방하는 고궁음악회의 목적에 비추어 토요일 오후 가족과 함께 창경궁이라는 공간에서 시민이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유익하고 즐거운 음악회로 그 목적 자체는 충분히 실행되었음.
- 토요일 오후 가족들과 고궁을 찾아 우리 조상의 숨결을 체험함과 동시에 재미와 감동이 함께 하는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연예술의 향수기회를 확대 하고 특히, 가족 및 청소년들에게 고궁과 음악회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한 행사였음.
- 토요일 오후에 가족 음악회라는 것이 상당히 대중에게 유익한 것으로 호응도가 좋았고, 또한 열린 공간에서의 음악회는 날씨나 일기 변화에 제한은 받지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또 지나가다가도 잠시 멈춰 서서들을 수 있기에 공연문화 저변확대라는 목표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

□ 사업 운영

- 전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 행사 일정, 출연진 소개 및 변동사항 등 세부정보를 사전 고지

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연관람을 할 수 있게 했고, 특히 ‘초청장’을 홈 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편하게 공연에 참가할 수 있게 하였음.

○ 4개 단체가 유기적으로 제휴, 레퍼토리와 출연진의 고급화 등 수준 높은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각 공연마다 특색 있는 타이틀 예컨대 ‘푸름이 가득한 창경궁’ 등 당일 공연의 성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택의 기회를 폭 넓게 제공.

○ 경복궁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문 음악인들의 대중적 취미에 맞은 행사라는 목적에 비해 그 내용과 운영은 다소 미흡했다는 인상을 받았음. 즉 무난한 운영이라는 차원에서는 무리가 없었지만 시민과의 관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쉬웠음.

물론 대중에게 다가가는 음악회, 그러한 음악 자체가 주는 음악적 즐거움이 있는 음악회였지만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관객을 수용하는 태도가 사업운영 반영되었으며 함.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와, 고궁가족음악회 자체 홈페이지, 전 행사 공통 인쇄물 제작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고궁 입장전후 콘서트 안내요원들의 적절한 행사 안내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열린 장소이고 다소 격식에 뒤떨어져도 된다는 의식 때문인지 운영 자체는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관객이 스스로 열심히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효과적이었지만 관심 없이 그저 듣는 관객에게는 그리 깊은 인상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없었다는 인상이 들었음. 좀 더 관객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관중과 연주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 행사 내용

○ 종래 오케스트라 중심의 기악 공연에서 합창, 앙상블 및 지명도 있는 솔로리스트 중심으로 출연진들의 폭을 넓혀, 다양한 레퍼토리로 재미있는 공연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함.

○ 공연단체(3개 단체) 이외에 공연기획사(1개 단체)가 주관단체로 참여함으로써 오케스트라 및 합창 공연 등 단체 중심 공연과는 달리, 대중적 인지도가 있는 스타급 출연자들이 다수 출연, 관객들로 하여금 공연감상의 선택 폭을 넓혀 줌.

○ 행사내용은 전반적으로 내용과 진행에서 무난했지만 프로그램의 내용과 전체의 행사내용이 좀 더 참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음. 좀 더 상투적인 것이 아닌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대중에게 친숙한 클래식, 영화음악, 발레음악, 합창, 대중음악 등 누구나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레퍼토리 구성을 통해 야외무대라는 음악회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편안한 복장과 자세로 음악회를 접함으로써 국민과 공연예술의 친숙함을 높이고 예술상품 향유 대상의 광범화를 이루었다고 생각됨.

○ 여러 가지 다양하고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고궁음악회의 기능은 다 했으나 몇 회가 거듭되면 조금 식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일 수 있어 앞으로는 좀 더 차별화되고 테마적 요소가 있는 레퍼토리를 개발할 필요함. 또한 연주자들의 경우도 고궁 연주의 흥취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연주자세가 필요하고 관객이 참여하는 이벤트적 공연의 추가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관객 서비스

○ 매회 1천 여 명의 관객이 참여, ‘고궁가족음악회’가 호응도 높은 야외음악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함.

- 홈 페이지 이외 다른 매체 예컨대 일간지 등을 활용한 공연홍보 활동은 부족했음.
- 무난하고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됨. 단지 프로그램을 나누어 주는 안내원만 배치되었을 뿐 그 주위에서 움직이는 아이들과 관객의 안전사고에 대비 하는 인력배치는 전혀 없었음. 특히 일부 공연 음악회는 관객석이 뜨거운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게 하는 배치를 하는 등 좀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고궁을 찾는 관객의 재미와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레퍼토리 구성으로 음악회를 접한 국민들에게 작으나마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야외라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좌석 및 무대배치로 청중에게 보고 듣는 즐거움을 제공하였음
- 고궁 음악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관객 서비스였는데 날씨나 기온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배려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음. 또한 프로그램을 나누어 주는 기본적인 것 외에 유쾌하고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그저 곡을 소개하고 연주자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관객에게 작품의 개인적인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유인물이나 좀 더 친절한 사회자의 설명이 필요함.

□ 문제점

- 프로그램의 내용상 국악 연주자가 포함되긴 했지만, 국악단체의 공연은 없었음. 고궁에서 하는 음악회인 만큼, 국악 단체의 공연이 최소한 1-2회 정도 포함된다면, ‘고궁가족음악회’의 맛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고궁가족음악회=서양음악공연이란 관념이 고착되지 않을 까 우려됨.
- 경복궁 공연이 창경궁 공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응도(관객 참여도)가 높았음. 특히 영추문 앞으로 공연장소를 옮긴 이후 참여도가 높았음. 경복궁 공연이 전체 15회 중 3회로 적은데 이를 늘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진행과 프로그램의 참신함의 결여. 조금 더 친절한 관객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배려, 안전요원의 확충 필요.
- 연주에 있어 중요한 음향에 대한 배려가 없었음.

□ 개선 방안

- 보다 적극적인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물론 야외에서 벌어지는 음악회라는 것 자체가 주는 유쾌함과 즐거움을 기 때문에 고궁음악회는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무난하지만 상식적이고 상투적인 음악회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과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함.
- 주관 단체 선정 시 기획사 선정보다는 각 장르의 전문 연주단체 선정을 통해 음악회 준비 및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통해 공연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라는 본 사업의 목적을 보다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요구 됨.
- 안전요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음악을 전공한 음대생을 도우미로 기용해 관객들의 음악적 궁금증에도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함.
- 이동식 무대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여 소리의 전달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마이크의 적절한 믹싱 기술도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함.
- 잘 알려지지 않은 곡과 잘 알려진 곡을 적절하게 섞는다거나 연주 형태를 바꾸어 본다거나 혹은 연주자를 다양한 계층으로 섭외하여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함. 고궁 음악회라는 일반적인 틀에 묶지 말고 새로운 스타일의 연주 무대의 확대라는 사고 전환이 필요함.

6. 총평(평가위원 종합의견)

해를 거듭할수록 고궁음악회는 토요일 오후 가족과 함께 고궁이란 공간에서 시민이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유익하고 즐거운 음악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92년 덕수궁에서 처음 시작해서 10여년이 지난 이즈음 출연단체의 수적 증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고궁음악회를 삶의 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민 즉 관객의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 낸 것은 그 동안 출연했던 출연자들, 그리고 주최 측의 남다른 공력의 덕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소 주변이 번잡했던 지난해의 덕수궁 공연과는 달리 창경궁 및 경복궁으로 장소를 옮긴 올해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음악회가 개최된 두 곳 중 경복궁은 장소적 특성상 참여 관객이 많았으며, 창경궁 공연의 경우 경복궁 공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객들이 적었지만, 매회 1천여 명을 상회하는 등 두 곳 모두 고궁음악회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전용 홈 페이지를 개설, 운용하여 공연일정 및 내용, 변경된 사항 등 세부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 줌으로써 ‘매우 편리했다’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었으며, 공연 초대권을 홈 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한 것도 지난해까지의 시행착오를 보완한,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 준 관객 확보방안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연주단체 3개 단체가 출연했던 지난해 덕수궁 고궁음악회와는 달리 올해에는 3개 연주단체 이외에 공연기획사 1개사를 참여시켜 연주단체들의 한정된 레퍼토리를 벗어나서,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도 올해 고궁음악회의 기획상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색 있는 기획과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은 남아있다.

첫째, 좀더 적극적인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물론 야외에서 벌어지는 음악회라는 것 자체가 유쾌함과 즐거움을 주지만, 상식적이고 상투적인 음악회가 아닌 좀더 적극적인 프로그램과 아이디어 개발이 필요하다.

대중과의 친숙함을 도모하고자 한 참여단체들과 아티스트들의 노력은 고려할 만한 것이었지만 전체적인 행사내용과 진행의 모습 속에 보인 것은 수동적이고 상식적인 무리 없는 진행에 그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아 아쉬웠다. 더불어 고궁에서 하는 음악회인 만큼, 국악 단체의 공연이 최소한 1-2회 정도 포함될 수 있었다면 ‘고궁가족음악회’의 맛을 더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둘째, 안전요원의 확충과 같은 관객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배려를 좀더 충실히 하여야 한다. 특히 3개의 다른 단체들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관객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같은 인상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고궁음악회는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자리이고 예술가들은 이들에게 봉사하는 자리이다.

관객석의 편안함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무엇보다도 관객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고궁음악회를 주관하는 주체측은 음악회 그 자체의 즐거움과 아름다움, 참여한 예술가의 노력에 안주하지 말고 이를 안전하고 쾌적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요건의 확충 그리고 좀 더 시민과 가까워지려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주관 단체 선정 시 전문기획사 보다는 전문연주단체를 우선 선정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올해에는 연주단체와 함께 기획사를 주관단체의 하나로 선정하여, 일반 대중에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 아티스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긴 했지만, 특별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특별한 음악회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흔히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는 점과 당초 계획된 출연진 및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등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었다.

향후 대중적인 인기도에 편승한 프로그램 기획보다는 순수예술이 가진 대중적인 부분들을 찾아내 다양한 기획 아이템으로 접목시켜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도가 있을 때 본 사업이 지향하는 공연예술의 진정한 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항목별 평가의견은 다음과 같다.

- 사업 목적 : 토요일 오후 가족들과 고궁을 찾아 우리 조상의 숨결을 체험함과 동시에 재미와 감동이 함께 하는 음악회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연예술의 향수기회를 확대함. 종래 덕수궁 한 곳에서만 하던 음악회를 창경궁 및 경복궁으로 공연장소를 이원화하여 장소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냄.

- 사업 운영 : 전용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 행사 일정, 출연진 소개 및 변동사항 등 세부정보를 사전 고지해 줌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공연관람을 할 수 있게 했고, 4개 단체가 유기적으로 제휴, 레퍼토리와 출연진의 고급화 등 수준 높은 공연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각 공연마다 특색 있는 타이틀 예컨대 ‘푸름이 가득한 창경궁’ 등 당일 공연의 성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택의 기회를 폭 넓게 제공.

- 행사 내용 : 종래 오케스트라 중심의 기악 공연에서 합창, 앙상블 및 지명도 있는 솔로리스트 중심으로 출연진들의 폭을 넓혀, 다양한 레퍼토리로 재미있는 공연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함.

대중에게 친숙한 클래식, 영화음악, 발레음악, 합창, 대중음악 등 누구나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레퍼토리 구성을 통해 야외무대라는 음악회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편안한 복장과 자세로 음악회를 접함으로써 국민과 공연예술의 친숙함을 높이고 예술상품 향유 대상의 광범화를 이루었다고 생각됨

- 관객 서비스 : 고궁을 찾는 관객의 재미와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레퍼토리 구성으로 음악회를 접한 국민들에게 작으나마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야외라는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좌석 및 무대배치로 관객들에게 보고 듣는 즐거움을 제공하였음.

서울모테트합창단, 꾸러기예술단, 서울튜티앙상블 등 각 분야의 전문 연주단체가 공연예술을 처음 체험하는 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제공할 수 있는 레퍼토리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음이 느껴지는 행사였음

- 출연단체별 소견

·꾸러기 예술단(4회) : 오케스트라 연주 이외에 기악 혹은 성악 협연, 국악협연 등 다양한 레퍼토리와 출연진, 그리고 지휘자의 구수한 입담 있는 진행과 연주로 클래식 음악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게 구성 및 진행함.

·모테트 합창단(4회) : 합창 공연 이외에 브라스 앙상블, 기타 협연, 기악앙상블 등 기악 연주자도 적절히 안배, 재미있게 구성, 진행했고, 정세진 아나운서 등 지명인을 사회자로 등용, 구수한 입담으로 관객과의 친밀감을 이끌어 냄.

·서울튜티앙상블(3회) : 순수 클래식 음악 위주의 구성과 연주 및 앙상블 멤버가 직접 사회를 하는 등 가족적인 분위기의 음악회로 진행함. 특히 5월 28일 서울튜티앙상블의 음악회에서 보여준 발레와 클래식의 접목은 고궁의 멋스러움과 화려한 발레가 어우러져 음악회를 찾은 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였다고 생각됨.

·클럽 서비스(4회) : 자체 연주단체를 갖고 있는 많은 기획사인 만큼 출연자의 폭을 넓혀 대니 정과 함께하는 색소폰 콘서트, 바리톤 김동규와 함께하는 네오 클래식 콘서트, 이병우와 뮤지 도르프 등 다양한 연주자들로, 매회 특색 있는 공연을 보여주하고자 노력함.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2005 서울국제음악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2005 서울국제음악제 (2005 Seoul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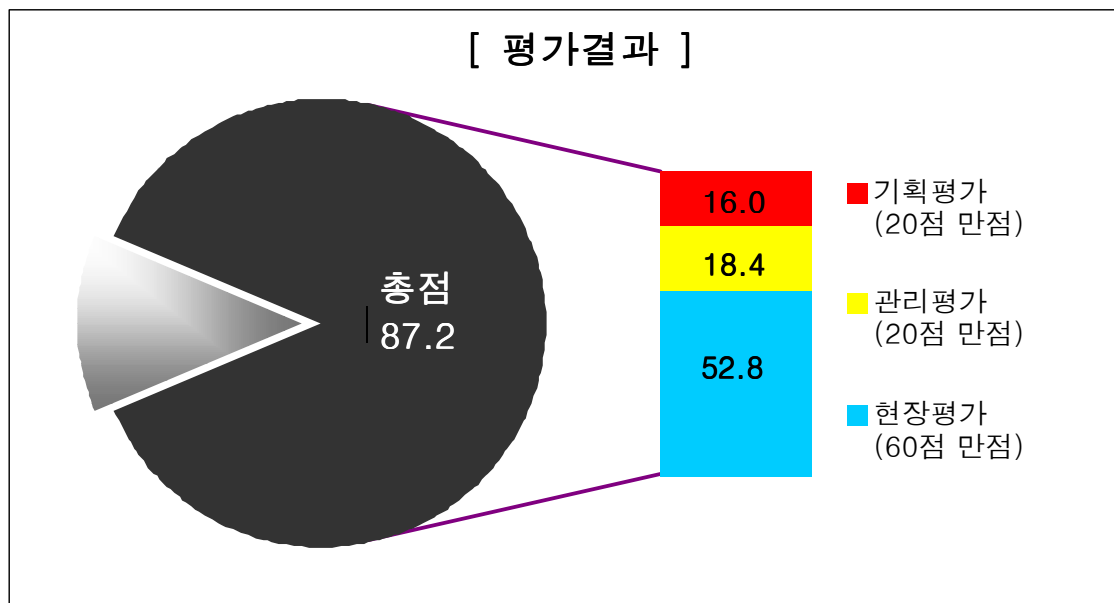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9월 22일 ~ 2005년 9월 29일
- 장소 :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예술의 전당
- 주관 : 서울국제음악제 집행위원회 사무국
- 후원 :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BS한국방송,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5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9 .22 ~ 9. 29) → 서면평가(2005. 11.) → 개별평가회의(2005. 12. 2)

4. 평가결과 : 87.2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6.0 | 18.4 | 52.8 | 87.2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6.0/7.0 | 3.0/5.0 | 4.0/4.0 | 3.0/4.0 | 16.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55/3.0 | 9.0/9.0 | 6.8/8.0 | 18.4/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2) | 사업내용(34) | 관객서비스(14)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7.2/8 | 18.9/22 | 19.2/22 | 30.6/34 | 11.4/14 | 87.3/100 | 52.3/60 |
| B | 7.2/8 | 19.7/22 | 19.8/22 | 31.6/34 | 11.6/14 | 89.9/100 | 53.9/60 |
| C | 6.8/8 | 20.6/22 | 19.6/22 | 28.8/34 | 12.8/14 | 88.6/100 | 53.1/60 |
| D | 6.8/8 | 19.8/22 | 19.0/22 | 28.4/34 | 10.4/14 | 84.4/100 | 50.6/60 |
| E | 6.8/8 | 19.0/22 | 21.2/22 | 31.2/34 | 11.4/14 | 89.6/100 | 53.8/60 |
| 평 균 | 7.0/8 | 19.6/22 | 19.8/22 | 30.1/34 | 11.5/14 | 88.0/100 | 52.8/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국외의 실력 있는 아티스트와 국내 연주단체 및 연주자와의 의미 있는 조인트 콘서트를 통한 음악적 교류라는 국제음악제가 지향하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행사였다고 판단함.
- 국내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위한 사업수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구성 이루어졌음.
- 창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과 국내 아티스트와 해외 아티스트의 협연을 통한 국내 음악계 발전을 위한 시도가 참신하였음.
- 광복60주년과 음악제 30주년을 내세워 국내외 음악인의 참여와 함께 한일관계를 고려한 일본 연주단체의 참여를 포함한 것은 긍정적 이었으며, 개막연주를 전통음악극으로 선정한 것도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됨.
- 국내 참가 음악인은 물론 펜데레츠키, 만하임극장, 크라우제, 프루츠만, 노라스, 샷포로 심포니 등 외국 음악인 및 단체, 모두 의미 있어 국제음악제에 모자람이 없었음. 그러나 광복 60주년과 서울국제음악제 30주년이라는 점에서 무엇을 의도 했는지 프로그램 구성은 목적과의 연계가 모호함.

□ 사업 운영

- 행사안내 TV 스포트 및 신문지면을 통한 행사의 홍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FM을 통한

공연 실황 방송을 통해 보다 많은 음악애호가들이 공연장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음악제를 함께 할 수 있는 등 성공적인 사업의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첫날 국악공연의 파행으로 행사진행에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효율적인 자원봉사자의 활용과 행사 홍보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한 사업의 운영이 이루어졌음.

○ 연주자 섭외와 실행에서 일어난 차질은 심각하게 반성하고 되짚어보아야 할 문제임.

○ 전체적으로 음악회 하나하나가 고유의 기획 의도를 엿볼 수 있어 사전 준비가 충분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7회의 음악회 중 전통음악회, 피아노 독주회와 한국바로크양상블 연주회를 뺀 나머지 4일이 오케스트라 음악회였다는 사실은 일반 음악제로는 과중했음. 예산과 더불어 음악 장르의 편중으로도 볼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 음악제마다 첫날에 반드시 연주되는 전통음악회 보다는 전통을 본 음악회에 융해하는 노력이 필요함.

□ 행사 내용

○ 서경선, 이건용, 이강을 등 국내의 대표적 작곡가와 독일의 크라우제의 창작 곡을 국내 최고의 KBS교향악단과 연주하는 의미 있는, 창작 발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가진 행사였다고 판단됨.

○ 폐막공연이었던 샤프트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피아니스트 김대진의 무대는 음악회의 의의만큼이나 감동적인 연주를 선보임으로서 본 음악제의 피날레를 성공적으로 장식하였다고 판단됨.

○ 국내외 창작품의 연주 등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초연 작품의 소개가 눈에 띄며 초청 연주자의 특성을 살필 수 있는 레퍼토리 구성이 이루어 졌으며 전반적으로 수준 높은 연주력을 선보임으로써 예술적 완성도 또한 우수하였음. 특히, 독창자들의 아카데믹한 곡 해석과 연주가 인상적이었음.

○ 9월 22일 개막공연 : 세계무형유산과의 만남 -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지휘: 김용진), 9월 23일 만하임극장과 코리안심포니 갈라 콘서트 : 만하임 극장으로부터 단지 지휘자 P. 줌머와 소프라노 J. 딕슨과 베이스 바리톤 M. 마르콰르트 두 명만을 초대, 국내 성악가 박현재와 더불어 모차르트, 베르디, 푸치니 오페라의 주요 아리아들을 연주한 것은 효과적이었음. 마치 만하임 극장이 옮겨와 연주하는 듯 느낄 정도로 코리안 심포니와의 호흡이 잘 맞았는데 이는 지휘자 줌머의 역량이었고, 많지 않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 했다는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이중창에서 초청 성악가들이 악보에 의존해 부른 점은 보기에 불안했고 감동도 덜했음.

○ 9월 24일 KBS 교향악단 특별연주회 : 우선 이날 음악회를 위한 레퍼토리 선정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했다. 광복 60주년은 아닌 것 같고, 서울국제음악제가 그간 배출한 곡도, 위촉한 것도 아닌 것 같음. 그러면서도 국내 작곡가 작품들 속에 유일하게 폴란드의 작곡가, 크라우제의 작품이 참여하게 된 것도 궁금하고, 크라우제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은 그 3악장이 경주라는 제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날 연주된 이강을의 “비오는 날” 역시 작은 피아노 협주곡과 같은 작품이어서 그러했다. 작곡가 본인이 피아노를 연주한 크라우제의 협주곡은 한때 대구 계명대에서의 작품은 이건용의 대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들의 노래”는 비록 일부지만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의미 있었음. 아쉬웠던 것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의 크기와 오케스트라의 규모로 볼 때 수원시립합창단과 안산시립합창단 연합이었기는 하지만 합창의 규모가 작았다는 점.

○ 9월 25일 S. 프루츠만 초청 피아노 독주회, 9월 27일 펜데레츠키와 A. 노라스 초청 서울바로크합주단 연주회 : 폴란드의 세계적인 작곡가 펜데레츠키는 이미 작곡가로서, 지휘자로서 여러 차례 선보인 적 있었지만 이번처럼 본격적으로 선을 보인적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기존 작품과 더불어 가장 최근작, “오케스트라를 위한 샤콘느”를 선보였으며 또한 슈베르트의 교향곡 5번을

지휘함으로써 일반 지휘자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음. 또한 그의 음악 전문 연주가인 첼리스트 노라스의 협연으로 보다 가깝게 그의 음악을 이해할 수 있었음. “현을 위한 신포니에타”는 서울 바로크합주단의 호연으로 빛났으며, 현악기만이 지닌 긴장된 음색과 폭넓은 표현력과 더불어 독주 단원들의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으나 이 호연은 두 번째 곡부터 사라져 점점 집중력이 떨어졌음.

○ 9월 28일 R. 감바와 A. 멜릭 초청 수원시향연주회 : 지휘자의 역량이 이렇듯 오케스트라를 변신하게 하는 것일까? 영국의 젊은 지휘자 R. 감바의 활기 넘치고 분명하고 명쾌한 지휘에 의해 수원시향은 다른 오케스트라처럼 변모했음. 첫 곡 아놀드의 “영국댄스 2번”의 현란한 관현악의 리듬과 색채, 마지막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9번의 에너지와 서정 등 기억에 남을 호연이었음. 단지 아쉬웠던 것은 슈만 첼로 협주곡을 협연한 A. 메릭이 그다지 어울리는 연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였다. 그 정도 협연자라면 초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평가됨.

□ 관객 서비스

- 많은 공연진행 인력이 참여하여 공연장 서비스에 있어 대체로 만족스러웠으며, 평소 접하기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관객들에게 새로운 음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됨.
- 관객 면에 있어 현 공연시장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수준 높은 아티스트의 섭외를 통한 연주력으로 관객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음.
- 예술의 전당 측의 전문적인 서비스와 또한 티켓 창구의 서비스는 비교적 훌륭했음.

□ 문제점

- 다양한 창작세계를 소개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이해되나 너무 많은 작품의 소개로 인한 청중의 집중이 다소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국내 작곡가와 해외 작곡가의 적절한 배합이 아쉬웠던 점으로 판단됨.
- 평소 접하기 어려운 수준 높은 해외 아티스트와 국내 아티스트의 조화로운 만남이라는 프로그램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해 보다 많은 층의 청중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남음.
- 사전에 계획한 연주자가 변경된 진행상의 문제. (서울 시향→ 수원시향)
- 광복 60주년과 연관된 기획이 무엇인지 모호함. 개막공연은 반드시 전통음악이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음.
- 훌륭한 음악제 내용에 비해 적은 유료 관객 수.
- 일부 연주자 및 연주단체의 부진, 오페라 아리아를 포함 오케스트라 연주회의 과다 편성

□ 개선 방안

- 국내외 연주단체 및 연주자의 조인트 무대를 통한 음악적 교류의 본래 목적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개인 연주자의 초청보다는 챔버 오케스트라 등의 연주단체의 초청과 보다 다양한 지역의 연주자 초청을 통한 진정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음악제로 발전이 요구됨.
- 본 사업이 흥행이 목적이 아닌 국내 음악계 발전의 촉매제 역할이라는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 구성을 가진 사업이라는 점에 자신감을 가지고 국내 음악애호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국고보조금으로 치러지는 사업임으로 흥행을 위한 유료 입장권 판매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경찰, 군인 가족 등 국가에 봉사하는 특수한 문화소의

계층에 대한 파악과 효율적인 초대 계획 수립을 통하여 수준 높은 음악 상품들을 체험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음악제 참가자의 연주능력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함.
- 다각도의 사전 홍보를 통해 애호가 및 일반 청중의 음악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작업 필요. 예를 들어 연주회로만 구성된 음악제가 아니라 초청 인사들의 강연회나 공개 마스터 클래스 등을 기획함으로써 청중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도 방법일 듯. 물론 일부 대학에서의 강연이 있었지만 그 경우 대학 학내 행사로 머문 느낌이 있음.
- 초청 연주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연주 레퍼토리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만하임극장 연주 시 이중창 경우처럼 악보에 의지함으로써 감상 분위기를 흐리는 일은 없었으면 함. 또한 기성 연주단체만이 아니라 신예 앙상블, 혹은 본 음악제를 위한 페스티벌 앙상블을 일시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임. 젊은 음악인들에게 좋은 해외 지휘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보다 충분한 연습시간을 확보할 것으로 확신함.
- 근본적으로 이 음악제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만 이루어짐으로써 콘서트홀이 지닌 특성에 맞추다보니 음악제가 지닐 수 있는 다양성이 결여됨. 즉 대규모 편성의 곡들 중심으로 레퍼토리가 구성됨. 소규모의 홀과 다른 시간대들도 활용하여 보다 포괄적이며 다양한 음악들이 선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음악제였으면 함.

6. 총평

30주년을 맞는 서울국제음악제는 국내의 척박한 순수음악 시장에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이는 행사를 통해 해외의 실력 있는 아티스트를 초청하고 이들의 연주력의 경험을 통한 신선한 자극제의 역할과 방한 아티스트들을 통한 우리 음악계의 수준에 대한 국제무대의 간접 홍보 효과를 기대하게 해온 대표적인 음악제라 생각된다.

서울국제음악제는 지난 1975년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실력 있는 세계적인 연주가를 초청하여 일주일가량 다양한 레퍼토리를 무대에 올려 국내는 물론 아시아권의 음악인들을 위한 축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악제로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실력 있는 아티스트의 초청과 흥행성을 갖춘 유명 아티스트의 초청 등으로 국내 음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국제음악제의 이번 2005년 프로그램은 국내외 연주자의 연주를 통한 음악 교류를 시도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였다.

또한, 참가 아티스트의 연주력과 창작품 소개에 주력하였던 프로그램 구성을 볼 때 우리나라 음악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출연단체의 파업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나 적절한 대안 마련으로 미흡하지만 원활한 행사진행이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청중의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경제상황에 기인한 중산층의 이탈로 인한 공연계의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여 “문화나누기” 등을 통한 음악회 참여 인구의 증대 등 대안을 마련하는 기획력이 부족하였다고, 해외 연주자와 국내 연주단체의 교류와 창작 활성화라는 기획의도가 눈에 띄었으나 참여 연주자의 범위가 보다 넓은 지역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유럽에 치중되었다.

개막 국악 공연의 파행으로 인해 운영에 있어 오점을 남겼으나 이후 공연의 안정적인 진행과 초청 아티스트와 국내 아티스트간의 호흡과 수준 높은 연주력으로 관객의 높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후로는 연주자의 초청 범위를 동유럽 및 러시아나 아시아권으로 보다 확대하여 좀 더 다양한 나라의 연주자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특히, 만하임극장& 코리안 심포니 갈라 콘서트에 출연한 베이스바리톤 마르콰르트와 폐막 공연 시 일본 삿포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2번을 협연한 피아니스트 김대진은 좋은 연주로 관객에 깊은 인상을 남겼으리라 생각된다.

실력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티스트와 국내 음악인들의 교류라는 순수 목적 실현의 이면에 존재하는 청중 부족문제에 관심과 의지가 부족한 행사였다는 점이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청중전략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느꼈다.

본 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현재의 격년 개최로 인해 발생하는 음악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저하를 극복할 수 있는 연례 개최의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례개최는 행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높은 관심은 보다 우수한 행사 프로그램 구성을 유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행사는 사업목적, 사업운영, 사업내용, 관객 서비스 등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본 행사가 가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대체로 잘 진행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본 행사가 더 많은 음악애호가의 관심 속에 이루어지고 보다 많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봉사하는 사업으로도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2005 대구국제오페라축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2005 대구국제오페라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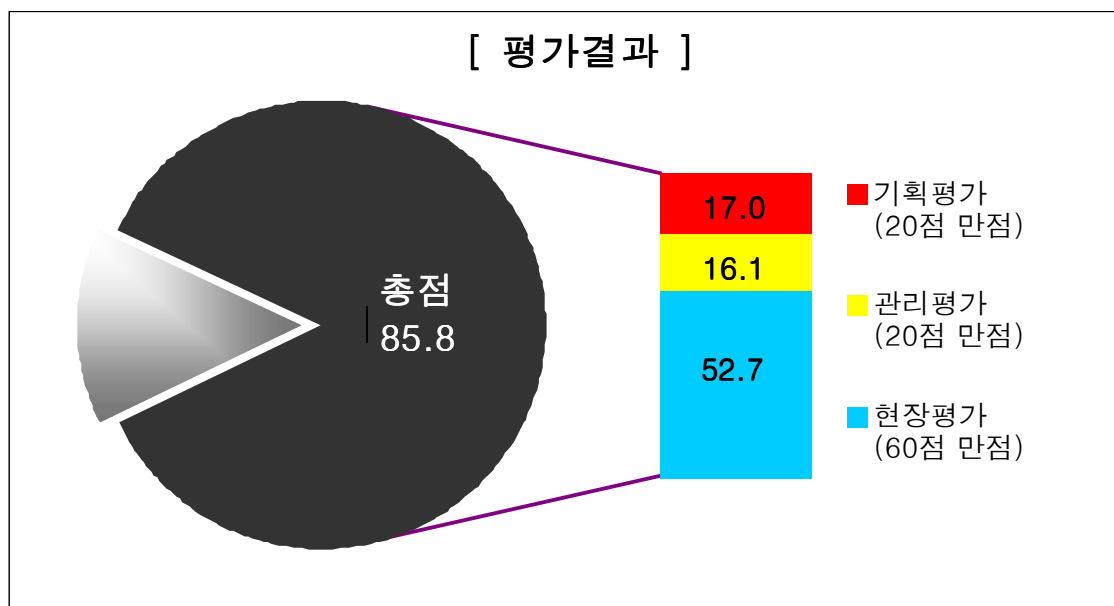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9월 29일 ~ 2005년 10월 29일
- 장소 : 대구오페라하우스 공연장, 야외무대, 봉산문화회관
- 주최 : 대구광역시(대구오페라하우스)
- 주관 : (사)대구국제오페라축제 조직위원회, 참가 오페라단
- 후원 : 문화관광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주한 체코 대사관, 국무총리복권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문예회관연합회, KBS대구방송총국, 대구MBC, TBC대구방송,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신문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9 .29 ~ 10. 26) → 서면평가(2005. 12.) → 개별평가회의(2005. 12. 14.)

4. 평가결과 : 85.8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7.0 | 16.1 | 52.7 | 85.8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7.0/7.0 | 4.0/5.0 | 2.0/4.0 | 4.0/4.0 | 17.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55/3.0 | 7.2/9.0 | 6.35/8.0 | 16.1/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2) | 사업내용(34) | 관객서비스(14)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6.4/8 | 19.4/22 | 18.4/22 | 27.2/34 | 12.6/14 | 84.0/100 | 50.4/60 |
| B | 7.2/8 | 20.3/22 | 19.8/22 | 31.2/34 | 14.0/14 | 92.5/100 | 55.5/60 |
| C | 7.2/8 | 19.8/22 | 19.8/22 | 28.4/34 | 12.0/14 | 87.2/100 | 52.3/60 |
| 평 균 | 6.9/8 | 19.8/22 | 19.3/22 | 28.9/34 | 12.9/14 | 87.9/100 | 52.7/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문화도시로서의 대구를 포지셔닝한다는 의미는 물론, 고급문화의 저변화, 공연 예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음. 장기적으로 행사의 내용 확장되어야함. 콘텐츠의 선택/확보에 더 많은 신중함과 노력이 필요함.

○ 축제의 목적은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페라 축제의 창출과 자리매김을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오페라 축제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아직 생소하고 미미한 상태에서 지방의 대표적 도시로서 대구에서 거행된 이번 축제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적합한 지정학적 문화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됨.

○ 국제오페라 축제라고 하기에는 참여규모 면에서 2004년에 비교해 볼 때도 오히려 규모가 축소된 듯한 느낌이었음. 외국 오페라단은 살레르노시립극장과 프라하 국립극장뿐이었으며, 그 중 살레르노극장은 대구오페라하우스와 합작으로 공연을 준비했으므로 오페라단 전체가 다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국 외국 오페라단 2개와 국내 오페라단 2개만이 메인 공연에 참여했고, 그밖에 것들은 소규모 오페라에 불과했으므로, “국제”란 이름을 붙이기엔 미흡하였음.

□ 사업 운영

○ 기획, 운영, 현장 진행 등 우수함. 앞으로의 문제는, 한 달이라는 긴 기간 동안보다 더 “밀도”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는 것. (빈 시간이 너무 많다는 느낌). 공연장 진행을 맡는 전문성을 가진 현장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하며, 대구를 벗어난 전국적인 홍보에 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함. 또한 매해 기획 단계에서 주된 홍보 이슈를 만들어, 이를 통해 긴장감과 관심들을 유발시킴으로써 매해 다른 색깔의 행사가 되었으면 함.

o 사업운영 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주행사와 부대행사들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사업 진행자와 안내요원들이 매우 친절하게 관객들을 돕는 모습이었으며, 오페라 공연 이외에도 오페라 이벤트와 찾아가는 오페라, 맞이하는 오페라, 함께하는 오페라 등 관객들의 흥미를 끄는 많은 행사들이 동시에 진행된 점은 이 행사를 축제답게 만드는데 기여하였음.

□ 행사 내용

o 공연장 안팎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다각적으로 열리고, 관객을 위한 부스도 설치되는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오페라 공연도 어느 정도의 수준 이상이었음. 특히 올해에는 창극도 대상 공연물로 선정되어 한국적 공연물까지 오페라 축제에 포함시킨 점은 바람직한 기획으로 평가됨. 그러나, 외국 성악가들의 기량이 한국 성악가들에 비해 뒤처지는 등, 참여 외국 오페라단이 수준급 공연을 보여주지는 못한 점이 아쉬웠음. 2004년도의 경우 다양한 한국의 오페라단들이 축제에 참여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국립오페라단과 대구 시립오페라단, 두 단체만이 메인 공연에 참여하였고, 기타 민간 오페라 단들은 축제에서 완전히 소외된 점은 한국오페라계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평가됨.

o 부가 행사와 본 행사, 관객들을 위한 전시회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성공적인 기획의 한 단면임. 오페라 공연들이 요일에 관계없이 좀더 지속적이고 압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더욱 좋았을 것으로 생각됨. 무대 작업에 소모되는 시간과 관객 확보 등의 측면에 대해 좀 더 고민한다면 기간을 압축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지 않음. 또한 소극장 오페라와 대극장 오페라의 질적 수준적 편차를 최소화해서 소극장 오페라 나름대로의 자리매김을 해야 함.

o 독일권, 불어권, 이태리어, 한국어 오페라 등, 레퍼토리의 다양성을 염두에 둔 기획. 외국 유명 오페라단의 참여로 행사의 “국제화”를 시도했음. 하지만 어떤 작품을 어떠한 연출/연주로 올릴 것인가는 숙고가 필요함. 예를 들어, 체코 프라하 국립극장의 경우 전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프로덕션이었지만, 연주자들은 극단의 베스트 연주자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오케스트라와의 호흡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 카르멘의 경우는 새로운 연출과 해석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음. 앙상블(군중)의 모션과 연주도 아쉬움을 남김. 또한 불어대사의 어색함이 작품의 흐름을 방해. 외국 오페라단의 경우, 극단 top 연주자들이 주/조연을 맡는 것이 중요함.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 연주와 앙상블의 연주에도 아쉬움이 남음 (더 많은 연습기간이 필요함).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어 고전성과 모던함의 밸런스가 있었으면 함.

□ 관객 서비스

o 관객서비스는 매우 좋은 편이었음. 특히 공연장 안팎으로 도우미들이 많이 배치되어 공연 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도왔으며, 도우미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친절하였음. 관객점유율도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 관객들의 호응도 매우 높았으며, 전시회와 부가 행사 등은 참신한 아이디어라 생각됨.

o 자막 서비스는 큰 불편은 없었으나, 오페라 전문 극장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궁극적으로는 개인 좌석에 자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봄.

□ 문제점

o 전반적으로 참가 단체들의 성격이 좀 더 일관된 색깔을 갖추어야 하며, 외국에서 초대되는 오

페라 단들이 좀 더 다양해서 명실 공히 국제적 페스티벌을 만들든지 아니면 국내의 우수한 민간 오페라단들의 경합의 장소가 되든지, 등등의 고유한 축제 성격을 확립해야 함.

○ 메인 공연이 국제오페라축제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빈약한 점, 외국인 성악가들의 기량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 민간 오페라 단이 이번 오페라축제에서 소외된 점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됨.

□ 개선 방안

○ 보다 다양한 외국오페라단의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참여 외국 오페라단이 유럽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아시아권의 오페라 단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 “외국오페라단” 혹은 “외국성악가”라는 것이 국제오페라축제를 구성하는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음. “좋은 외국오페라단” 혹은 “좋은 외국성악가”를 유치해야만 전체 국제오페라축제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으며, 한국 오페라계의 위상도 더불어 상승할 수 있음.

○ 대구오페라축제를 대구만의 지역 행사로 한정하지 말고 전국적인 행사로 개방하여, 민간 오페라 중에서 지속적으로 완성도 있는 공연을 개최하고 있는 오페라단을 선별하여 축제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외국 단체의 초대로 드는 경비를 최소화하고, 국내 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간 오페라 단들이 경합을 벌이는 장소가 된다면, 오페라 축제로서의 의미로 커질 것으로 평가됨.

○ 매해 축제(프로그램)의 차별화가 필요하며, 행사의 이슈화 공연이 필요함.

○ 행사의 이슈화 공연이 필요하며, 매해 축제(프로그램)의 차별화를 통해 축제 기간의 공연 분량의 밸런스를 조절해야 하며 주말 공연의 경우 프로그램 공연시간을 오후 6시 정도로 조정하여 대중교통(KTX)을 이용하여 서울 또는 다른 지역의 관객이 참여 할 수 있는 관객 다양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6. 총평

국제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행사로 자리 잡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요청되는 일이다. 더군다나 ‘오페라’라는 대규모 공연물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행사는 공연의 기획과 구성, 실행 면에서 타 행사의 몇 배에 해당하는 예산과 노력이 필요한 행사이다.

본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대구는 우수 오페라 인력들과 시립 및 민간 오페라 단이 다수 활동하고 있고, 오페라전문 극장도 갖추고 있는 등 국제오페라축제의 주관 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또한 본 행사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참여도와 호응도도 상당히 높아 향후 지역행사로서 본 행사의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본 행사가 국제오페라축제로서의 위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사항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음 또한 사실이다. 첫째는 처음 기획 단계부터 어떻게 하든 외국 오페라 단을 유치하기 위해 주어진 예산에 맞는 오페라 단을 섭외하려는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외국의 우수 오페라단과의 접촉을 통해 예산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오페라 축제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시 단위의 예술교환 프로그램 등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둘째는 국내외오페라단의 섭외에 있어 철저하게 수준이 검증된 오페라단, 혹은 예술인들만을 초청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리콜레토> 공연의 경우 한국성악가들의 기량이 외국성악가들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자칫 세계 오페라 계에서 한국 오페라 계를 우습게 생각하는 폐단으로 결과 될 수 있다. 한국의 오페라 수준도 이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계수준급 인력들이 많

이 축적되어 있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세계 오페라 계와 어깨를 겨루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는 본 행사가 진정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오페라단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시립오페라단과 국립오페라단 등 공립오페라단의 참여로만 본 행사의 문을 좁게 한다면, 음악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힘들게 되며, 본 행사가 대구 지역에 한정된 의례적 행사로만 그치기 쉽다. 대구국제오페라 축제의 주관단체에서 <한국오페라대상>을 마련하여, 수상단체는 본 축제에 참여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오페라단을 본 축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거시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리라 본다.

넷째는 대구국제오페라 축제의 참여 대상 프로그램을 서양오페라로만 한정하지 말고, 한국창작 오페라를 포함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2005년도에는 국악분야의 창극 <춘향전>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상당히 바람직한 시도였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한국창작 오페라 중에서도 예술적 완성도를 갖춘 공연이라면 적극적으로 본 행사에 유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오페라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연계뿐만이 아니라 창작계도 함께 발전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오페라축제를 관람하고 오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진다. 많은 행사스태프들이나 안내요원, 자원봉사자들이 밝은 얼굴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스스로가 귀중한 대접을 받고 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좋은 오페라공연장, 그 주변의 북적거리는 풍경 등 하나하나가 참 소중한 추억거리이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더해서 어떻게 오페라를 대상으로 한 국제축제가 이렇게 성사될 수 있을까 하는 경이감, 찬사 같은 것이 어우러진다. 사실, 오페라 공연 하나만 제작하는데도 족히 2억여 원 정도가 소모되는데, 총 예산 9억여 원으로 이렇게 큰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국제행사로서의 위용을 갖추어갈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기를,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축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가 점차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2005 제주국제관악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2005 제주국제관악제 Jeju Summer Band Festival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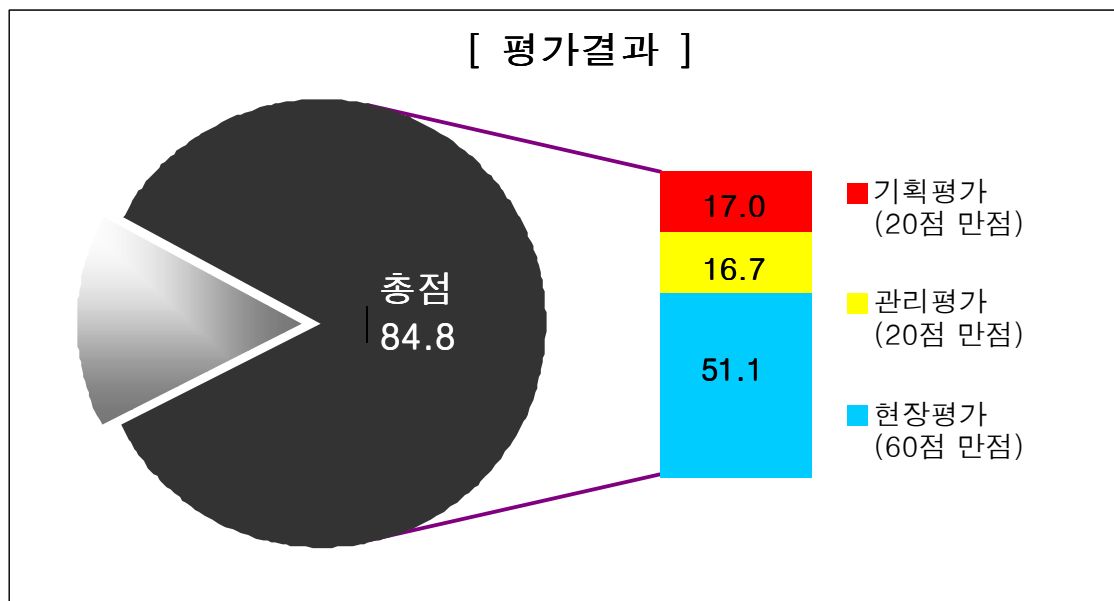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8월 12일(금) ~ 8월 20일(토)(9일간)
- 장소 : 제주시(해변공연장, 문예회관, 한라아트 홀), 서귀포지역(천지연 야외공연장), 관악캠프(회천관광타운 전원리조트)
- 주최 : 제주시·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 주관 : 제주시·제주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지방검찰청, 국립제주박물관,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원, (사)제주문화포럼,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 뉴시스제주본부, KBS제주방송총국, MBC제주문화방송(주), JIBS제주방송, CBS제주방송, 제주도관광협회, (사)세종예술음악협회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8. 12 ~ 8. 20) → 서면평가(2005. 11.) → 개별평가회의(2005. 11. 21)

4. 평가결과 : 84.8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7.0 | 16.7 | 51.1 | 84.8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6.0/7.0 | 5.0/5.0 | 4.0/4.0 | 2.0/4.0 | 17.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55/3.0 | 7.35/9.0 | 6.8/8.0 | 16.7/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2) | 사업내용(34) | 관객서비스(14)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7.2/8 | 19.3/22 | 19.2/22 | 30.6/34 | 11.6/14 | 87.9/100 | 52.7/60 |
| B | 6.4/8 | 18.0/22 | 17.6/22 | 26.0/34 | 10.2/14 | 78.2/100 | 46.9/60 |
| C | 7.2/8 | 19.8/22 | 19.8/22 | 30/34 | 12.6/14 | 89.4/100 | 53.6/60 |
| 평 균 | 6.9/8 | 19.0/22 | 18.9/22 | 28.9/34 | 11.5/14 | 85.2/100 | 51.1/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관악축제로서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관광 축제로서, 또한 관악을 통한 국제 문화 교류 증진이라는 본 국제관악제가 지향하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행사였다고 판단함.
- 2005년도 제주국제관악제의 사업목표는 (1) 제주의 여름과 어우러진 전문 관악제로서 제주도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연대감을 고취, (2) 평화의 섬, 제주를 국제 사회에 알림, (3)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루 추구하는 세계적 관악축제 만들기, (4) 국제문화교류로 요약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관악을 통해 시민화합의 축제와 전문관악 축제임.

□ 사업 운영

- 제주문예회관과 해변공연장에서 하루 3차례 7개 단체의 연주를 병행하는 빡빡한 일정의 축제를 큰 무리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순회연주와 캠프 등을 제주 전 지역에 골고루 개최함

으로써 제주 전 지역에 축제의 기운이 살아 숨 쉬게 하는 성공적인 사업의 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효과적인 축제이다.

□ 행사 내용

○ 11개국 54개 팀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준비되어 제주문예회관의 오전 해외 초청단체 연주와 오후 국내외 아마추어 단체의 연주 및 저녁 해변 공연장에서의 국내외 단체의 연주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짐으로써 축제의 분위기를 충분히 연출하였음.

○ 동호인관악단 경연대회, 관악기 수리, 전시 등의 보조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연주뿐만 아니라 관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심어줄 수 이벤트를 선보였다고 판단됨.

○ 19일 이강일이 이끄는 계명대학교 관악단의 공연과 20일 독일 바이젠 금관앙상블과 중국서안 음악학원 관악단의 연주는 유럽과 우리의 관악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연이었으며 과거에 비해 한 단계 도약한 우리의 관악 수준을 살펴볼 수 있었던 행사였다고 판단됨.

○ 애초 16개국 29개 관악단(국내 14, 국외 15)을 계획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해외 7개국의 15팀과 더불어 제주도 25팀, 국내 14팀이 참여했음. 초청 인사들의 국적(프랑스, 헝가리, 벨기에, 이탈리아)을 포함한다면 12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가까운 일본의 관악단이 한 팀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올해가 “한일 문화교류의 해”라는 사실과 더불어 제주를 알린다는 근본 목적을 생각한다면, 관악의 강국인 일본이 불참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지난해도 사실 일본의 여고 밴드 한 팀만이 참여했었는데 음악제 전체를 통틀어 매우 인상적인 연주였음.

○ 전반적으로 참가팀들이 전문집단이라기 보다는 대학 악단, 그리고 일반 아마추어 동호 밴드들이어서 음악적 성과를 논할만한 내용은 드물음. 연주 팀들은 2~3 팀으로 그룹지어 장소를 달리 하면서 2~3회 공연을 했으며, 지난해와 달리 국내 팀은 외국 초청연주자와, 외국팀은 국내 초청 연주자 및 합창단과 협연을 시도, 국제 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지난 해 지적 사항이었던 창작곡 부재는 박동욱 선생의 위촉곡 발표함.

○ 과다한 행사 진행 : 동시다발로 열린 음악회들 외에 수많은 행사들이 시도됨으로써 음악제의 집중도가 떨어지며, 구성이 방만하다는 느낌 이었고, 관악 캠프와 더불어 축제사진전, 초등학교 합주 경연대회(7월 7일), 올해 새로이 시작하는 대한민국 동호인 관악단 경연대회(8월 14일), 제주 윈드 오케스트라의 서울공연(8월 18일)이 있었음. 종합적인 문화예술축제분위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행사 하나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오랜 준비와 계획이 따라야 되는 것들이어서 염려가 되었음. 여러 종류가 행사를 병행함으로써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많아진 부수 행사들로 공연한 예산이 투입되며 행사 진행에 있어 집중도 역시 떨어짐.

□ 관객 서비스

○ 50여개 이상의 단체의 공연을 통해 관객이 관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90여회에 이르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진행으로 관람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양호한 진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무료 관람이기 때문인지 안내 등에 있어서 산만했다. 천지연 폭포 야외 공연장의 경우 PA System이 열악하여 소리가 귀에 거슬렸고, 야외공연장의 규모가 관악합주에 적절하지 않아 답답한 느낌을 줌.

○ 세계 각국의 관악연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고 전국적으로 모인 제주국제관악제를 끌여가기에 관객들의 서비스뿐 아니라 행사 진행이 순조로웠음.

□ 문제점

- 7개국 15개 팀의 해외 단체의 초청으로 국제 행사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고 판단됨. 또한, 참가 해외 단체와 국내 단체 간의 조인트 공연 추진을 통한 음악인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판단됨.
- 참가 단체 수가 지나치게 많아 전반적으로 음악제 수준이 낮았고, 한 음악회에 참여한 단체들 간 수준차가 심하여 감상 분위기를 저하시킴.
- 경연대회, 음악 캠프, 서울공연 등 기간 중 부수행사들로 관악제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지 못함.
- 비교적 수준 있는 음악회가 오전 11시에 배정되어, 조직위의 수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광장에서 해도 될 음악회와 음악회장에서 해야 될 음악회의 구분되어야 함.
-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영문 홈페이지는 아직도 2004년 행사에 머물고 있음. 국제적으로 홍보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됨.

□ 개선 방안

- 향후 해외 연주단체의 확대를 통한 명실상부한 국제관악제로의 도약이 필요하며 초청단체와 국내 참가 단체의 합동공연을 통한 음악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사로서의 변모가 필요함.
- 연륜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대로 보아 제주 국제관악제는 이제 질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외적인 모양새를 따를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때임. 참가 단체의 심한 수준차로 좋은 단체의 연주조차 가치가 희석되어서는 안 됨. 전반적으로 주최 측은 이 음악제를 이벤트성 축제로 생각하는 느낌이었음.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음악제가 되려면 음악회 구성에 신중했어야 하며, 이제는 초청 단체의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하여, 음악제 참여가 영예로운 일이 되도록 스스로 음악제에 대한 고품위 이미지를 만들어야 함.
- 서귀포 야외공연장에 대한 시의 개선이 필요함. 앞으로도 계속 공연이 있을 것이라면 공연장의 확충이 절대 필요함.
- 국제행사로서의 대외 홍보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듯. 올해 열린 싱가포르 WASBE의 경우 바로바로 홈페이지에 외국 관악 지도자에 의한 음악회 리뷰가 올랐으며 참가자들의 생생한 사진들도 올림으로써 제주만의 관악제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음악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

6. 총평

제주국제관악제는 자생적인 지역축제에서 국제행사로 변모한 성공적인 행사이며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관악”이라는 장르의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판단됨. 국내 음악계가 직면하고 있는 음악인구의 저변취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아마추어 음악인들의 비활성화를 극복하기 위한 관악부문의 가교 역할을 하는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됨.

제주 전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공연 및 부대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전 지역이 관악으로 하나가 되는 진정한 축제의 장을 연출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판단됨

국내외에서 약 2,800여명의 관악인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로 발전하고 있으나 해외 관악인의 참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해외 연주단체의 초청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0개 이상의 단체가 90회 이상의 공연을 진행하여 국제행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며 그동안의 진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행사진행을 통해 관객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발전된 행사로의 도약이 눈에 띈

본 행사가 추구하는 문화예술의 교류라는 또 한축의 목표에 보다 근접하기 위해 참가 해외 단체와 국내참가단체간의 합동연주회 및 연주자간의 교류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2005 경남국제음악콩쿠르 평가결과 -

1. 사업명 : 2005 경남국제음악콩쿠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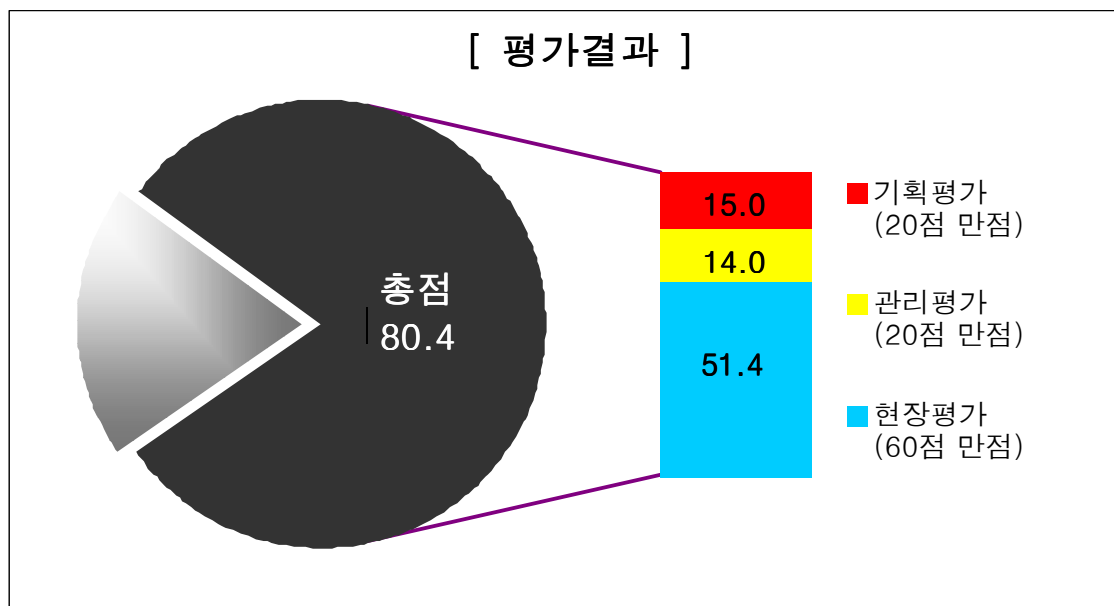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10월 29일(토) ~ 11월 5일(토)
- 장소 :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 양산문화예술회관
- 주최 : 경상남도, 통영시, 마산 MBC
- 주관 : (재)통영국제음악제
-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문예진흥원, 월간객석, 금호문화재단, 아시아나항공, 국제윤이상협회, 경남음악협회, 벅스타인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10 .29 ~ 11. 5) → 서면평가(2005. 12.) → 개별평가회의(2005. 12. 2)

4. 평가결과 : 80.4 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5.0 | 14.0 | 51.4 | 80.4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7.0/7.0 | 3.0/5.0 | 2.0/4.0 | 3.0/4.0 | 15.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1/3.0 | 6.3/9.0 | 5.6/8.0 | 14.0/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동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6) | 사업내용(32) | 관객서비스(12)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7.2/8 | 18.6/22 | 25.0/26 | 28.8/32 | 8.0/12 | 87.6/100 | 52.6/60 |
| B | 5.6/8 | 16.0/22 | 22.6/26 | 28.8/32 | 7.6/12 | 80.6/100 | 48.4/60 |
| C | 6.8/8 | 19.1/22 | 23.2/26 | 30.7/32 | 8.8/12 | 88.6/100 | 53.1/60 |
| 평 균 | 6.5/8 | 17.9/22 | 23.6/26 | 29.4/32 | 8.1/12 | 85.5/100 | 51.4/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을 연중 진행하면서 가을시즌에는 부상하는 우리의 음악적 역량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국제적 콩쿠르의 개최라는 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기획임. 더구나 몇 개의 국제규모 콩쿠르들이 개최되는가 하면 바로 사라졌던 우리의 현실에서 지속적 생명력을 도모하며 기대할 수 있는 국제 콩쿠르의 존재의 큰 의미로 평가됨.
- 국제음악제로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하고 바람직함.

□ 사업 운영

- 연륜 깊은 여러 해외 콩쿠르들을 벤치마킹한 사전 노력과 전반적 행사계획의 치밀성 등은 수준급이었음. 진행상의 디테일도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며 모든 과정이 대체로 매끄러운 편이었음.
- 음악제 운영은 우수하나 명실상부한 국제음악제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

□ 행사 내용

- 심사위원들의 수준, 참가자들의 수준은 개최 3년차이며 피아노 부문에서는 첫해인 올해로 볼 때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고 보이나 앞으로 명실상부한 아시아권 정상급 국제 콩쿠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보다 활성화된 볼 구성과 참가자 면면의 업그레이드도 과제로 남음.

○ 심사위원이나 심사의 절차 방법은 우수하나, 참가자의 수준이 행사의 목표에 다소 미흡한 것 같음.

□ 관객 서비스

- ‘서비스’자체는 수준급이었으나 사전 홍보 및 청중동원에 있어서는 적잖은 문제점을 보였으며, 본인이 참관했던 1차 예선 예선 줄곧 20명 남짓한 청중들만이 자리를 채웠음.
- 주차에서부터 관계요원의 도움이 부족했고 행사장의 요원들도 친절함과 서비스의 적극성이 미흡했다고 보여 짐.
- 수준 높은 국내외 청중들의 보다 높은 관심과 관람이 필요함.

□ 문제점

- 우선 홍보면 에 있어서 주최 측에서는 나름대로 세계 각국에의 공문 및 정보 발송을 비롯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는 하나 우선 국내 홍보자체가 미흡했음.(예; 가장 광범위한 피아노 저널인 ‘피아노 음악’같은 곳에도 홍보가 되지 않았다.) 우선 국내에서의 관심과 환호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향후 행사는 한계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한편 국제콩쿠르로서의 희귀한 기회를 청중을 위한 서비스 정신으로 접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 거의 무시된 듯 함.
- 현재의 교통시설과 숙박시설로는 음악제의 전 국화 내지 동아시아 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통영국제음악제의 높은 수준에 비하여 관심 있는 국내 외 고급 청중의 참여도가 미흡함.

□ 개선 방안

- 1차적 홍보대상으로 국내 학교들(예고, 예중, 음대 등)을 공략해야할 듯. 그리고 유수의 음대, 예고생, 음악 지망생들이 이 콩쿠르를 참관할 수 있었다면 미래를 위한 여러 면에서의 좋은 기회가 되었을 터인데 이 부분 향후 각별히 유의해야 함. 심사위원과 참가자가 중심이 된 행사 자체를 무사히 치루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광범위한 관심과 애호층을 확보하는 것이 콩쿠르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
- 윤이상 선생의 고향에서의 개최에 명분은 있으나. 개최지의 변경을 고려해봄이 어떤지 사료됨. 현재의 장소는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너무 고립되어 있음.
- 본선 경연의 반주를 한 오케스트라가 왜 외국에서 초청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음. 당연히 우리나라 오케스트라가 해야 할 일이며 이는 문화적 수리라 생각함. 또한 초청된 외국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매우 낮았음에도 문제가 있음.
- 통영시를 음악의 수도로 만들기 위한 종합개발계획이 필요하며, 국제규모의 행사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6. 총평

대한민국이 낳은 작곡가 윤이상을 기념하여 시작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써 가을시즌에 열리는 국제콩쿠르는 아직 이렇다 할 국제규모의 콩쿠르가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 그 존재의미가 충분하고도 남는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시도되었던 몇몇 국제 콩쿠르의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채 사라져갔던 전례를 돌이켜 볼 때 벌써 세 번째를 맞는 ‘경남 국제 음악콩쿠르’는 올해를 고비로, 물론 속단하기엔 좀은 이르지만, 한 고비를 넘긴 느낌을 받았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콩쿠르가 펼쳐질 수 있는 내, 외적 여건이 성숙했음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콩쿠르의 목적이나 의의 그리고 그 당위성은 21세기,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한국 음악계를 위한 힘센 견인차 역할로서 타당함을 넘어선 필연이다. 즉 이 콩쿠르의 존재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사건임을 전제로 ‘경남국제음악콩쿠르’이라는 명칭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붙여졌겠지만, 차라리 ‘통영국제음악콩쿠르’로 부르는 것보다 어필하는 힘이 약한 듯싶다. 도의 이미지와 명칭이 그토록 부각되어야 할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차라리 ‘윤이상 국제 음악콩쿠르’가 더 낫다. 이제 어떤 행사에서 외형적인 이미지나 느낌이 갖는 전파력과 흡인력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렇다면 굳이 ‘경남 콩쿠르’이라는 명칭을 써서 웬지 지역적이고 한정된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보다 광범위한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전향적인 명칭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 열린 피아노 부문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의 수준은 무난한 편이었다. 독일의 클라우스 헬비히를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원들의 면면은 대체로 만족할 만 했다. 다만 앞으로 이 콩쿠르가 외형적인 포장의 힘을 입으려면 적어도 세계적 스타급 피아니스트의 심사위원 영입을 고려해볼 만도 하다고 느꼈다. 참가자들 수준 역시 일정 레벨을 유지하는 양호한 것이었다. 다수의 참가자들은 이미 몇 번의 국제 규모의 콩쿠르에서의 입상경력이 있는 이들이었다. 욕심을 부리자면 이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참가자들을 다음번에는 보고 싶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기획, 홍보, 포상 내용의 구체성 거기에 더해서 콩쿠르의 연륜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한편 자국 주최 콩쿠르의 경우 자국 출신 참가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탈락된 그룹의 연주자들에 한국 출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 또한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테이프 심사로 이루어진 선심(先審)에서부터 자국 출신들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를 냉정하게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홍보와 청중동원의 문제였다. 이 정도 규모의 국제 콩쿠르라면 행사 자체로 이미 큰 하나의 연주 이벤트라 할 수 있다. 그저 한국의 작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참가자와 심사위원의 잔치가 아닌 얼마든지 어떤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행사였던 것이다. 우선 연 이틀에 걸쳐 이루어지는 1차 예선(본인이 참관한)만 해도 귀중한 음악체험과 학습의 현장이 되기에 족한 것이었다. 주최 측에서는 콩쿠르 정보와 공문을 세계 유수의 대학과 기관들에 보냈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 가려진 곳이 바로 국내이다. 예컨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피아노 관련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월간 ‘피아노 음악’ 같은 매체에는 이 행사가 광고되거나 다루어진 적이 없다.

물론 국내거주 피아노 학도가 에서 직접적으로 이 콩쿠르에 참가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국제적 행사의 홍보와 붐 조성에도 국내에 먼저 불붙이기는 필수이다.

일단 잠재 참가자들이라 할 수 있는 국내 유수의 ‘음대’와 ‘예고’들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며 동시에 그들을 콩쿠르 참가 청중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시급하다. 이런 정도의 행사는 듣는 것만으로도 음악 도들 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에 광범위한 청중과 관심 층을 끌어들이고 형성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그저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만이 무사히 치르는 콩쿠르가 아닌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배우고 감상하고 즐기는 총체적 축제의 일환으로서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일이 시급하다. 콩쿠르 축제의 일부로 삼아 감상자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향후 행사에는 예고들, 음대들에 접촉하여 콩쿠르 기간을 ‘수학여행’이나 ‘연수기간’으로 삼아 청중으로서의 음악 도

들을 흡인하는 일을 시도하면 좋을 것이다. 실제로 필자가 접한 예고, 음대생들은 이런 기회가 있는 줄도 몰랐고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국제콩쿠르 참관의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많이들 아쉬워했다. 아울러 다소 비싸게 책정된 콩쿠르 참관 티켓 가격(1회;2만원)도 청중 흡수 차원에서 대폭 인하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나 콩쿠르 자체 진행의 계획성은 안정된 편이었다. 단, 심사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본인으로서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 사건임을 전제로, 1차 예선 때 인상 깊게 들었던 중국의 두 참가자는 모두 탈락했다. 물론 심사위원 전원의 공정한 평균점에 의한 결과였겠지만 이 부분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의 공개 기회가 마련된다면 보다 설득력 있고 투명한 콩쿠르가 될 것이다.

외형적인 진행의 세부적 측면에서의 미숙함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스텝들과 자원 봉사자들 그리고 주최 측 인력의 노력과 성의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콩쿠르의 존재의미와 진행방식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보다 포괄적이고 동시에 구체적인 홍보와 청중 확보를 비롯하여 거시적인 안목에서 대회 끌고 나가기 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 보고서가 국고지원을 받는 행사를 위한 평가를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국고지원의 타당성은 확실하다고 본다. 오히려 현 수준보다 더 투자할 가치도 있는 행사이다. 단, 그 진행상에서의 효율성과 진취성 면에서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있다고 본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제2회 대관령국제음악제 평가결과 -

1. 사업명 : 제2회 대관령국제음악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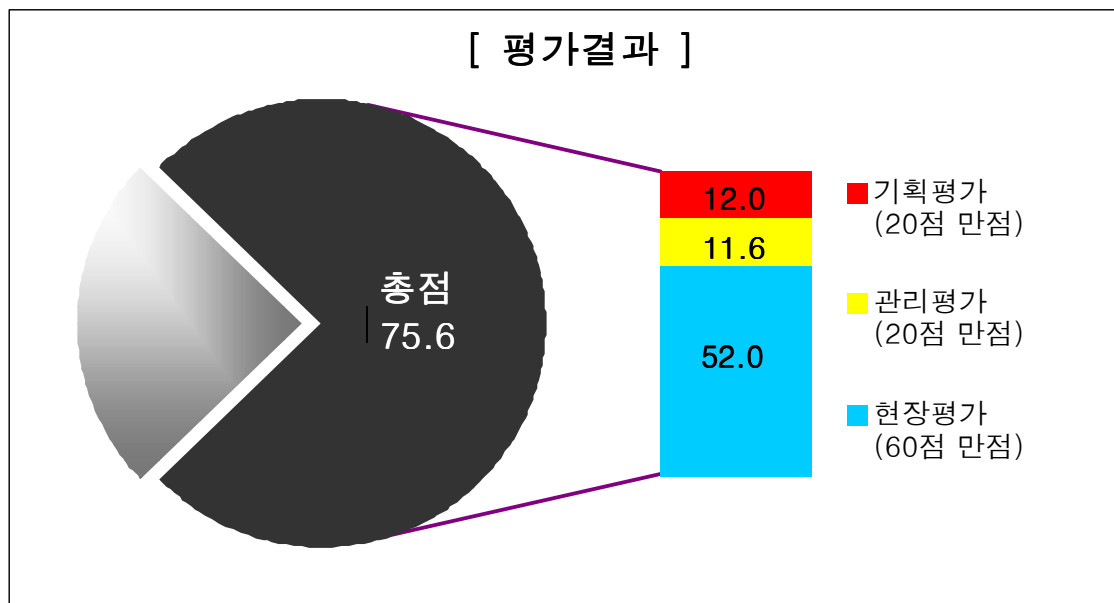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 간 : 2005년 8월 3일 ~ 2005년 8월 19일 (17일간)
- 장 소 : 강원도 대관령 정상(용평) 및 도내 시군
- 주 최 : 강원도, KBS한국방송
- 주 관 : 강원문화재단(대관령국제음악제축제진위원회), KBS춘천방송총국
- 후 원 :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관광공사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5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8. 3 ~ 8. 19) → 서면평가(2005. 11.) → 개별평가회의(2005. 11. 23)

4. 평가결과 : 75.6 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2.0 | 11.6 | 52.0 | 75.6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5.0/7.0 | 2.0/5.0 | 2.0/4.0 | 3.0/4.0 | 12.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1/3.0 | 4.65/9.0 | 4.85/8.0 | 11.6/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2) | 사업내용(34) | 관객서비스(14)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7.2/8 | 19.4/22 | 19.0/22 | 31.2/34 | 12.6/14 | 89.4/100 | 53.6/60 |
| B | 6.4/8 | 19.8/22 | 19.0/22 | 30.6/34 | 13.4/14 | 89.2/100 | 53.5/60 |
| C | 7.6/8 | 19.4/22 | 19.8/22 | 32.1/34 | 12.6/14 | 91.5/100 | 54.9/60 |
| D | 6.4/8 | 17.9/22 | 17.8/22 | 30.6/34 | 12.2/14 | 84.9/100 | 50.9/60 |
| E | 6.0/8 | 16.2/22 | 16.2/22 | 27.8/34 | 12.0/14 | 78.2/100 | 46.9/60 |
| 평 균 | 6.7/8 | 18.5/22 | 18.4/22 | 30.5/34 | 12.6/14 | 86.7/100 | 52.0/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남과 북의 분단의 아픔, 전쟁아픔을 아직도 냉전현장의 DMG의 옛 철원노동당사 앞에서의 콘서트를 함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음악제, 전 세계에 평화에 대한 염원을 전파하였음. 동서양의 문화교류를 통한 세계가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 천혜 자원과 청정환 경속에서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생명의 음악제임.

○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자원이 부족한 강원지역에 국제음악제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발전적으로 지양, 문화예술 발신지로서 지역(강원도)의 위상 제고함.

○ “전쟁과 평화”라는 주제로 평화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음악축전으로 준비된 대관령국제음악제는 대한민국의 아스펜 음악제로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세계 유명 음악가가 참석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음악제를 통한 국내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위한 사업수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구성이 이루어졌음.

□ 사업 운영

○ 30여회의 연주회와 15일간의 음악캠프가 큰 차질 없이 운영되었으며 행사 홍보에 있어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음.

○ 기획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역량을 찾을 수가 없었음. 숙소배치나 식사와 같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 행사 내용

- 전쟁과 평화 음악제 주제로써 DMG 철원노동당사 앞 콘서트를 시작하였다. 저명 연주가의 시리즈 연주, 세계적인 음악가와 신예 음악학도 참여했음. 신예 음악도 120명, Meister Class 학생 30명, 국적 한국 90명, 외국인 약 40명 등으로 동서양 신예 음악도 대거 참여함.
- 특별프로그램으로 ‘DMZ 평화생명콘서트’등 지난해에는 없었던 새롭고 신선한 프로그램을 신설, 평화와 화해, 환경친화적 음악제로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음.
- 위촉 창작곡 베자르 란즈바란의 ‘깨어남’, 김진희의 ‘한 하늘’ 등 창작곡을 세계 초연, 예술생산 기지로서의 대관령음악제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함.
- 메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국악관현악단 연주회를 개최, 문화적 다양성의 발현 및 음악축제로서의 정체성 확립의 기틀 마련함.
- 축제 참가 유명 연주자의 지역 시향과의 협연(춘천,강릉,원주), 산사음악회(양양), 찾아가는 마스터 클래스(춘천, 원주, 강릉), 평창 동계올림픽유치기원 음악회(평창 문예회관)등 메인 행사장 이외 도내 각 지역에서 개최된 공연도 도민들에 대한 향수권 신장이란 차원에서 지역정서와 잘 융합된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음.
- 부 공연장인 에메랄드 홀에서 개최된 학생연주회도 일단은 교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의 연주회인 만큼, 대관령국제음악제의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는 좋은 연주회였음. 다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개최되는 연주회이기는 하지만, 늦게 입장하는 관객 등 분위기가 어수선했던 점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관객 서비스

- 주 공연장인 ‘눈마을 홀’에서 개 폐막공연을 비롯한 메인 콘서트가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연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데스크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았음. 특히 용평 리조트에 자주가지 않는 내방객의 경우, 공연장소 및 공연시간, 교육장소, 공용식당, 종합안내실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부족하여 사전 주변 환경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
- 메인 콘서트를 실시간 중계하는 잔디밭 영상음악회는 좋은 발상이었으나 근접한 곳에 야간임에도 놀이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다소 번잡했고 의자 등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다소 불편했음.
- 유명 음악인들과 참가 음악 도들의 수준 높은 연주로 음악제를 찾은 관객들에게 질 높은 음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객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음.
- 소위 VIP관객이라 할 수 있는 초대 손님들에 치중하느라 정작 중요한 캠프 참가자들과 자발적 관람을 원하는 일반 관객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음.

□ 문제점

- 초청교수진이 세계적 음악제의 위상에 맞게 미국과 유럽 교수진이 잘 배합되어야 함.
- 국제음악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유명 음악가들의 참가로 행사의 내용에 있어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국내 음악가들의 행사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내 음악계와는 괴리된 행사로 준비되어 국내의 실력 있는 유망 음악 도들이 참여하지 못한 행사였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음
- 음악적인 부분을 예술 감독에 맡긴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부분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할 것이고 예산을 뒷받침하는 강원도 측과의 역할분담도 정확해야 함.

□ 개선 방안

- 홈페이지 등 매체를 이용, 교통편에 대한 안내는 충분했으나, 용평 리조트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안내가 불충분했음. 인근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과도 연계, 음악제 관람자들에 대한 할인 혜택, 교통편 제공 등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임.
-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을 풀가동하여 안내와 운영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나, 내방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생소하여 ‘그들만의 음악제’라는 인상을 받았음. 국제적 음악축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임.
- 세계적인 음악제를 통한 국내 음악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본 음악제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명 음악가 초청에 치중하고 있는 본 음악제의 현실에서 탈피하여 국내의 유명 음악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의 변화와, 이를 통한 국내 유망 음악 도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수준 높은 음악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행사의 목적부터 새로 정립해야 함. 여러 가지 목적을 충족시켜야 한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고 그렇게 정해진 목적과 우선순위를 행사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프로그램 선정부터 음악가 섭외까지를 예술 감독에게 위임한다 해도 행정적인 부문과 예산의 운용을 책임질 전문가는 따로 영입함이 마땅하고 그의 책임 하에 행정조직과 체계를 전면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6. 총평

올해로 2회째 개최되는 <대관령 국제음악제>는 예술 감독의 노력과 축제관계자들, 그리고 상주 단체인 세종솔로이스츠 단원들을 비롯하여, 미리암 프리드, 알도 파라소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측면 지원과 이들의 수준 높은 연주회로 ‘여름철 휴양지 음악축제’로 비교적 단 기간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음악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음악회와 교육이 융합된 국제적인 음악제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행사를 함에 있어서 여전히 해결해야 될 미흡한 부분이 있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홍보 활동-다변화, 다양화 : 국내 순수공연 관객들의 특성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공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유로, 시간, 돈, 정보부족을 꼽고 있다. 특히 정보가 부족해서 참여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다. 대관령 국제음악제도

이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다변화 된 홍보가 필요하다. 도내 각 매체를 통한 홍보는 활발한 것 같았으나, 중앙지 등에서는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은 것 같다. ‘휴양’과 ‘음악’과 ‘국제성’을 결합한 구체적 홍보활동으로 관객을 흡인할 수 있는 요인 개발이 필요하다.

- 안내 및 진행 인력관리 : 음악제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적 음악축제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인상을 받았다. ‘대관령’이란 지역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숙박시설 중, 음악제 관련 숙소가 어느 곳인지, 시간단위로 진행되는 각종 행사가 어느 곳에서 진행되는 등에 대한 현지 안내가 부족했다. 물론 유인물 등으로 사전 숙지를 하고 가겠지만, 통상 현장 안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측면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 일반관객 흡인방안 개발 : 대관령국제음악제는 2003년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 대관령뮤직페스티벌(6.12-15)부터 따진다면 3년째가 된다. 이제 음악제 단골 고객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

아의 아스펜'으로 대관령국제음악제가 명실 공히 음악의 생산기지로써, 문화예술 관광 상품으로써 국제적인 명성을 획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보다 많은 국내외 관객을 확보하여야 한다.

우선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음악제는 세종솔로이스츠 중심의 실내악 공연으로 일관하고 있다. 아스펜 음악제의 경우 200개가 넘는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 예산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되겠지만, 실내악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을 까.

점진적으로 연주단체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상주단체인 세종솔로이스츠 이외 풀 편성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단계가 된 것 같다. 국악공연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악공연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을 까. 예컨대 프레 오프닝 공연으로 국악공연을 도입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음악제 운영체제의 정비 : 각종 행사의 성공 요체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초기 기획단계에서 장래 법인체로 독립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출발했던 것으로 안다. 독립된 법인체로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론의 소지가 있지만,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전문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권장되고 있는 운영체제이다. 이 음악제가 '유구한 강원문화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세계 속의 음악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체제를 갖추어 출발하는 것이 보다 빠른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제8회 한민족창작음악축전 평가결과 -

1. 사업명 : 제8회 한민족창작음악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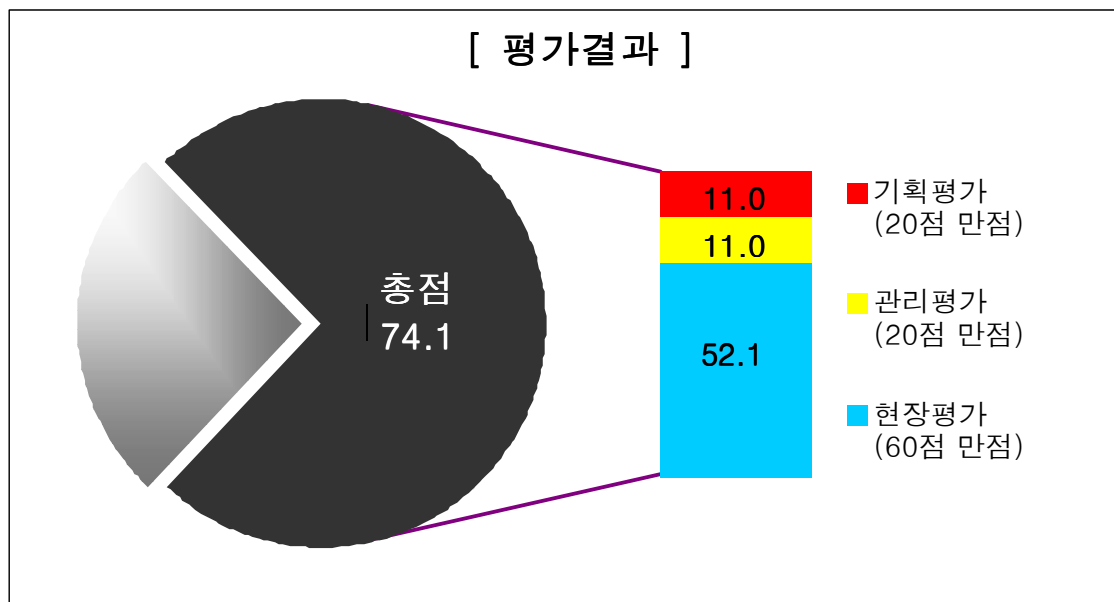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11월 25일 오후 8시
- 장소 : 단국대학교 난파음악관
- 주최 : (사)한국음악협회
-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11. 25) → 서면평가(2005. 12.) → 개별평가회의(2005. 12. 9)

4. 평가결과 : 74.1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1.0 | 11.0 | 52.1 | 74.1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4.0/7.0 | 3.0/5.0 | 3.0/4.0 | 1.0/4.0 | 11.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1.65/3.0 | 4.5/9.0 | 4.85/8.0 | 11.0/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6) | 사업내용(32) | 관객서비스(12)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6.4/8 | 17.8/22 | 24.2/26 | 29.0/32 | 9.6/12 | 87.0/100 | 52.2/60 |
| B | 6.4/8 | 16.8/22 | 20.8/26 | 26.9/32 | 8.8/12 | 79.7/100 | 47.8/60 |
| C | 7.6/8 | 20.7/22 | 25.0/26 | 30.0/32 | 10.4/12 | 93.7/100 | 56.2/60 |
| 평 균 | 6.8/8 | 18.4/22 | 23.3/26 | 28.6/32 | 9.6/12 | 86.8/100 | 52.1/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국내외 거주 작곡가들의 활발한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타당하나 세부적인 운영사항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정된다고 사료됨.
- 행사의 목표는 명확하게 설정이 되었지만, 목표의 달성을 위해 행사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가라는 물음에는 사람마다 답을 달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민족창작음악축전’이란 명칭을 사람마다 달리 해석할 것이기 때문임. 행사 내용이, ‘한국신인음악가 관현악곡 창작콩쿠르’에 가깝게 보였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공연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판단됨.

□ 사업 운영

- 공모에서 입상자 시상식까지 외견상 별 문제는 없어 보임.
 - 행사의 기획 능력이나 조직의 운용 면에서는 우수하였지만 행사 장소가 다소 부적합하였고, 홍보 면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음.
- 진행은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스태프의 전문성적인 면에 있어서도 탁월함.

□ 행사 내용

- 1차와 2차는 악보심사로 이루어지므로 그 세부사항을 파악할 방법이 없으며, 결국 공개 연주로 치러지는 본선이 행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경연대회의 성격 상 무엇보다 중요한 심사의 측면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루어졌다는 것이 본 행사의 최대 장점이나, 한국의 작곡가로만 이루어진 심사위원의 구성 방식에는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평가됨.

□ 관객 서비스

- 홍보, 연주 장소, 청중 서비스 등의 면에서 취약함.
- 행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관객 확보율이 적정했다고 보여 진다. 해당분야에서의 관심도는 높았지만, 해당분야에 치우친 분위기가 우려됨.

□ 문제점

- 해외 동포의 참여를 위해 각 재외 공관에 응모 요강을 발송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며 또 응모조건에 한국 음악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필요성을 이해 할 수 없음. 또한 응모 장르를 ‘관현악곡’으로만 제한한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음.
- 심사평이나 과정을 어떤 식으로든 공표할 필요도 있다고 봄. 한편 행사에 관한 홍보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사료. 이 행사는 경연대회이면서 동시에 공연의 성격이 강한데 공개 연주 전, 후 어떤 정보도 언론에서 접할 수 없었음.
- 연주회 장소 적절하지 않았음. 좀 더 일반 청중의 접근이 용이한 연주장소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대학교의 강당을 택한 점 이해하기 힘들.
- ‘한민족창작음악축전’보다는 ‘한국신인음악가 관현악곡 창작콩쿠르’에 가까운 행사였다는 점, 외국 동포 작곡가의 작품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한국 신인 작곡가의 작품 일색이었다는 점, 심사위원이 너무 한국의 현대음악 작곡가로 한정되어 스스로 행사의 성격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평가됨.

□ 개선 방안

- 작품공모에서부터 공개 연주까지 좀 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발상이 요구되며, 심사과정을 객관화할 것이며 보다 많은 청중 확보를 위해 홍보와 장소 선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외국에 살고 있는 동포 음악가들의 작품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코너 신설 필요.
-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포 작곡가의 작품을 초청 작곡가의 작품 또는 위촉 작품으로 하고 그를 국내로 초청하여 심사도 겸하는 구성을 제안함.
- 심사위원을 작곡가로만 국한 시키지 말고, 지휘자, 연주자, 평론가 등으로 넓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중이 참여하는 ‘청중상’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6. 총평

‘한민족 창작음악 축전’은 1, 2차는 악보로 본선은 공개연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작곡 경연대회이다. 참가자격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외 거주 한민족으로 되어있다. 작품 선정의 기준은 새로운 음악어법으로 한민족의 열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발상과 성격의 곡으로 명시했다. 참신한 창작곡을 발굴하고 신진 작곡가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의도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경연대회에 대해 알고 있는 작곡 전공자들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의문이다. 해외 동포를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응모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좀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응모 홍보가 필요하다.

본선만이 공개 연주로 이루어지기에 그 이전, 응모작들의 평가와 선정의 과정은 베일에 쌓여 있다. 어떠한 심사평이나 후기를 접할 수 없었다. 심사위원들의 면면은 국내의 대표적인 원로, 중진 작곡가들임엔 분명하나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것은 문제다.

다만 본선에 올랐던 네 작품을 근거로 이 경연대회의 수준과 결과의 타당성을 유추해볼 수 밖에 없었다. 네 작품이 모두 우수했던 것은 아니다. 본 평가위원이 그 중 뛰어나다고 여기는 두 개의 작품이 결국 본상과 대상을 타긴 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작품과의 편차는 자못 큰 것이어서 1,2차 심사과정을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응모 장르를 관현악곡으로 제한 한 것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장르를 넓게 잡고 단지 시간제한의 기준을 두는 것이 훨씬 유연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행사 후 입상작들의 연주를 위한 어떤 장치나 노력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이 행사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대외적인 홍보와 청중 서비스 그리고 연주 장소의 문제 등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공개연주라고는 하지만 일반 청중에게 다가가려는 어떠한 노력도 목격하기 힘들었다. 연주회에 관한 어떤 언론의 보도도 접할 수 없었다. 연주회 표는 분명 유료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 프로그램도 2000원을 받고 팔고 있었는데 그에 걸맞은 장소와 진행이었는지 의문이다. 70-80 명 내외의 청중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참가자의 가족, 친지 관련 학생들뿐인 듯 했다. 연주 장소를 단국대학교 강당으로 한 것은 결정적인 오류다. 음향상 태도 그렇고 전반적인 시설과 진행은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 보다 일반적인 연주 장소를 구할 예산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는바 너무 소극적이고 안이한 발상으로 보였다.

이런 유의 경연대회는 자칫 어떤 진취적인 시도도 없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형태이다. 한국음악협회를 주축으로 한 그저 ‘집안잔치’나 요식적 행사로 그칠 위험이 다분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응모 홍보에서부터 심사의 객관성 확인 장치 마련, 본선 연주회를 보다 이벤트화해서 더 넓은 청중을 확보하는 일이 요청된다. 보다 널리 알려지고 접근하기 쉬운 공개연주장을 선택하는 일도 중요하다. 한마디로 모든 부분에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행사라고 여겨진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아! 고구려고구려 광개토 호태왕 평가결과 -

1. 사업명 : 오페라 아! 고구려 고구려 광개토 호태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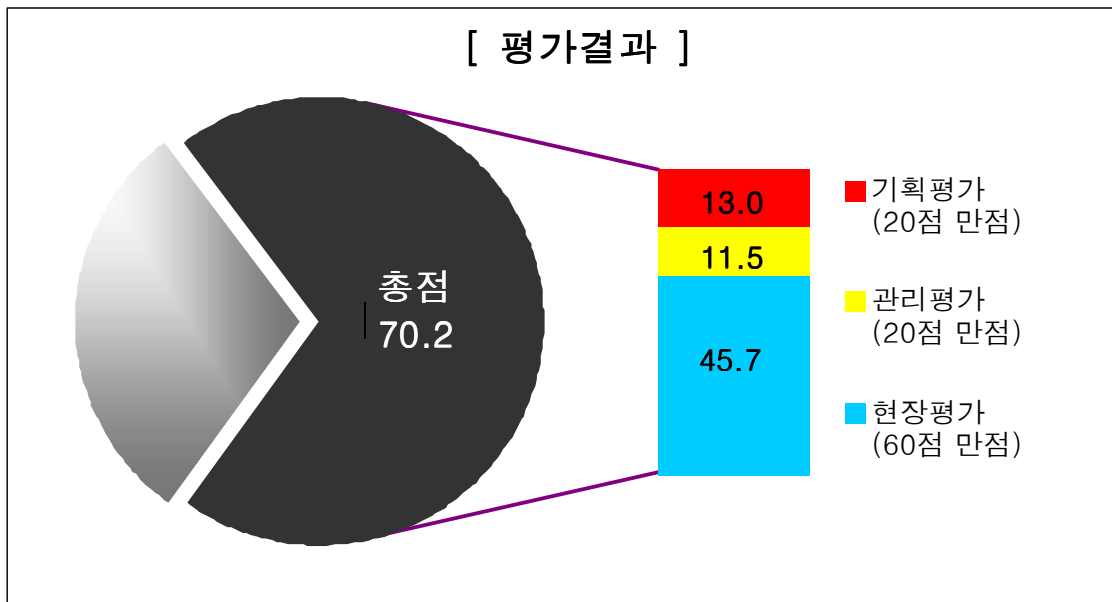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 3. 30 ~ 4. 2
- 장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 : 사단법인 뉴서울오페라단
-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방송공사 KBS, YTN, 고구려 연구재단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3 .30 ~ 4.2) → 서면평가(2005. 5.) → 개별평가회의(2005. 6. 23.)

4. 평가결과 : 70.2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3.0 | 11.5 | 45.7 | 70.2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4.0/7.0 | 5.0/5.0 | 4.0/4.0 | 0.0/4.0 | 13.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1.65/3.0 | 5.1/9.0 | 4.7/8.0 | 11.5/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동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2) | 사업내용(34) | 관객서비스(14)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5.6/8 | 17.2/22 | 16.8/22 | 25.2/34 | 11.6/14 | 76.4/100 | 45.8/60 |
| B | 6.0/8 | 17.2/22 | 15.4/22 | 24.8/34 | 10.6/14 | 74.0/100 | 44.4/60 |
| C | 6.0/8 | 17.6/22 | 17.6/22 | 25.0/34 | 11.6/14 | 77.8/100 | 46.7/60 |
| 평 균 | 5.9/8 | 17.3/22 | 16.6/22 | 25.0/34 | 11.3/14 | 76.1/100 | 45.7/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목적

- 창작오페라를 초연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함.
- 그러나, 사업목적의 달성이나 공연예술 발전에의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미흡.
- 한국 문화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민족의 정체성 확립하겠다는 목적이 부각되지 못함.
- 한국적 소재와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한국 춤, 검무 등의 삽입에도 공연 예술적 완성도는 상당히 떨어짐.
- 앞으로의 지방공연, 해외공연, 남북공연 추진 등의 문화교류에 현 상태의 작품으로는 어려움.

□ 사업운영

- 공연을 제작한 오페라단은 지속적으로 창작오페라 제작에 의욕을 보이고 있어 높이 평가함.
- 공연에서 무대장치와 의상, 무용 등 공연제작비 면에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보임.
- 특히 무대장치는 장엄하고 웅대함을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을 보임.
- 전반적인 행사 계획이나 운영은 별무리 없이 진행.
- 단지 홍보에 있어서 본 공연과 같은 시기의 다른 오페라 공연과 비교해볼 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

□ 사업내용

- 고구려의 역사적인 일로 중국과 불편함을 느껴온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 고구려국의 위상과 역

사를 확인 시키려는 의도 등은 높이 평가할 만함.

- 본 공연은 창작오페라였지만 공연의 내용이나 연출은 전혀 오페라답지 못했음.
- 버라이어티쇼와 같은 구성으로 작곡가의 작곡의도를 살릴 수 없고 작품의 일관성을 떨어뜨림.
- 참여인력의 예술성은 보통이상이나 몇몇 단역들의 소리가 빈약해서 전체공연에 흠이 되었음.
- 무엇보다도 대본이 평면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극적 흐름이 원만치 못함.
- 합창단이 줄곧 합창대열로 서서 움직이지 않는 등 극적 특성이 살리지 못함.
- 양악 부분과 무용 반주부인 국악 부분이 완전히 분리된 문제점이 노출.
- 무용이 전체 줄거리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많이 삽입되어, 작품의 완성도보다는 볼거리만 치중.
- 전반적으로 오페라의 특성이 살아나지 못했고, 작품의 통일성이나 완성도 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난 공연.

□ 관객 반응 및 서비스

- 창작오페라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객석점유율이 높았던 것은 높이 평가함.
- 객석점유율 중 유료관객의 비율은 23%로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은 개선 필요.
- 객석점유율이 높았음에 비해 작품의 전개방식으로 인해 관객의 호응도가 낮았음.
- 관객의 편의성면에서 부대시설이나 접근성, 좌석표 교환 등의 어려움은 없었으나, 안내책자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것은 지적할 만한 사항임.

□ 문제점 및 발전방향

- 예술적 완성도 : ‘한국적’특성을 표방하기위해 ‘예술적’특성을 간과해버린 공연이었음. 전체 줄거리를 3막 내지는 4막이라는 압축된 장면으로 풀어야 하는 음악극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은 점.
 - 평면적이고 극적흐름이 약한 대본에 대한 보완.
 - 서양적 특징과 한국적 특징이 분리된 음악의 조화.
 - 극의 줄거리에 상관없이 너무 많이 삽입된 합창, 무용, 검무의 재구성 필요.
 - 무용과 합창의 부분을 축소하여 전체 극이 통일성을 가지고 흐를 수 있도록 함.
 - 무용 부분의 음악에 국악기를 첨가한 오케스트라 음악의 재구성은 작품의 예술성에 기여함.
 - 궁중무, 검무등도 오케스트라 반주에 의해서 공연하면 보다 훌륭한 작품의 완성도를 보였을 것임.
- 참여인력의 예술성 : 모든 참여인력의 예술성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몇몇 단역들의 소리가 너무 빈약해서 오페라 전체 공연에 흠이 되어 주역을 돋보이지 못하게 하는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
- 관객의 편의성 : 광고 수입만으로도 내용물의 페이지의 프로그램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현실에서 내용이 많지 않는 책자의 높게 책정된 프로그램 판매는 관객의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은 관객 편의성 측면에서 적정한 판매금액 산정이 필요함.
- 홍보의 적합성 : 홍보 면에서도 타 공연에 비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예술적 상업성을 표방한 공연이라면 매표 부분에서도 보다 당당하게 임해야 함.
- 재원의 적절성 : 국고집행 부분에는 별다른 문제를 찾을 수 없으나, 자체기금, 혹은 후원이나 협찬으로 정리된 부분의 내역은 과연 그 정도로 지출이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며, 보다 체계적인 투명한 재원의 활용이 요구됨.
- 예술적 기여도: 완성도 높은 창작오페라로 앞으로 지속적인 공연을 하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주최 측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수정, 혹은 재편성이 필요를 요함

6. 총 평

한국적인 소재로 작품이 창작되고, 한국의상을 입고, 한국 춤이 포함되면 과연 ‘민족오페라’ 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민족정체성 확립, 한국 문화의 자존심, 고구려의 기상 재현, 예술적 상품성, 해외 및 남북 문화교류를 표방하며, 제작비 약 10억이라는 엄청난 의욕을 가지고 공연된 뉴 서울오페라단의 <아! 고구려 고구려> 공연은 한 마디로 말해 실망이었다. 소위 ‘한국적’이라는 특성을 표방하기위해 ‘예술적’이라는 농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일면을 간과해버린 공연이었다고나 할까.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애는 많이 썼는데, ‘다시 공연되었으면 하는 오페라’로 남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공연이었다고 하겠다.

이번 공연은 오페라라기보다는 합창, 독창, 오케스트라, 북, 무용, 검무까지 합세한 일종의 버라이어티쇼였다고 설명해야 할 듯하다. 장면마다 등장하는 합창은 극적 전개를 막았으며, 숫자 면에서나 기량 면에서 빈약했던 합창단의 연주는 극의 클라이맥스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스펙터클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 첨가된 무용과 검무는 느닷없이 극의 흐름을 끊고 갑작스레 국악 반주에 맞추어 그냥 끼어들어간 형식으로 공연되었다. 처음 한두 번은 신기함 때문에 그러한 춤 장면에 빠져들어 갔지만, 계속되는 춤의 나열은 극의 지루함을 더해주었다.

대본에도 많은 허점이 있었다. 고국원왕-소수림왕-고국양왕의 시절을 거쳐, 광개토왕의 탄생 장면이 나오더니, 곧이어 광개토왕의 18세 때 다주를 만났던 일, 광개토왕의 승리와 위철의 반역, 다주의 죽음, 광개토 호태왕의 즉위식 등이 그야말로 평면적으로 전개된다. 쉽게 요약하면, 전체 줄거리를 압축된 장면으로 풀어가야 하는 음악극의 특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대본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음악적인 면에서는 전체적인 음악의 흐름과, 무용이 삽입되었을 때의 음악이 너무나 소통성이 없었다는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서양식 오케스트라 편성의 반주가 주를 이루다가, 무용이 들어올 때는 오케스트라는 가만히 앉아 있고 국악기 중 주로 타악기에 의존해 음악이 이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음악적 완성도는 확연히 떨어졌다. 양악 부분의 음악적 완성도는 매우 높은 편이었다. 무용 부분의 음악도 국악기를 첨가하여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재구성한다면 작품의 완성도를 훨씬 더 끌어 올릴 수 있다.

연출 면에서 오페라답지 않은 장면이 너무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군중의 합창 장면이 마치 합창발표회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무 움직임 없이 노래만 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웠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모든 참여인력의 예술성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출연한 성악가들은 전반적으로 기량이 우수했다. 그러나 몇몇 단역들의 소리가 너무 빈약해서 오페라 공연 전체의 완성도를 떨어뜨렸다. 좋은 재목들을 가지고 훌륭한 건물을 짓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전체 공연의 운영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무리가 없이 진행되었으나, 홍보 면에서도 타 공연에 비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창작오페라치고는 그런 대로 객석점유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전체 객석점유율 69.96% 중에서 유료 관객율이 23.07%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은 좀 의아스럽다. 좌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초대장을 대량 유포하였기 때문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예술적 상업성을 표방한 공연이라면 매표 부분에서도 좀 더 당당하게 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예산집행 부분은 세부 품목별로 약간의 부풀리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고집행 부분에는 별다른 문제를 찾을 수 없으나, 자체기금, 혹은 후원이나 협찬으로 정리된 부분의 내역은 과연 그 정도로 지출이 되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 또한 총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상이나 무용단 비용 등에서 조금의 낭비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다 완성도 높은 창작오페라로 만들어 지속적인 공연을 하고 외국에까지 나가서 공연을 하고 싶다는 주최 측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수정, 혹은 재편성이 필요할 듯하다. 물론 수정에 수정을 더해서 완성도 높은 창작오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05년도 공연예술분야 국고지원사업 - 2005 인디뮤직페스티벌 평가결과 -

1. 사업명 : 2005 인디뮤직페스티벌 (2005 Seoul Indie Music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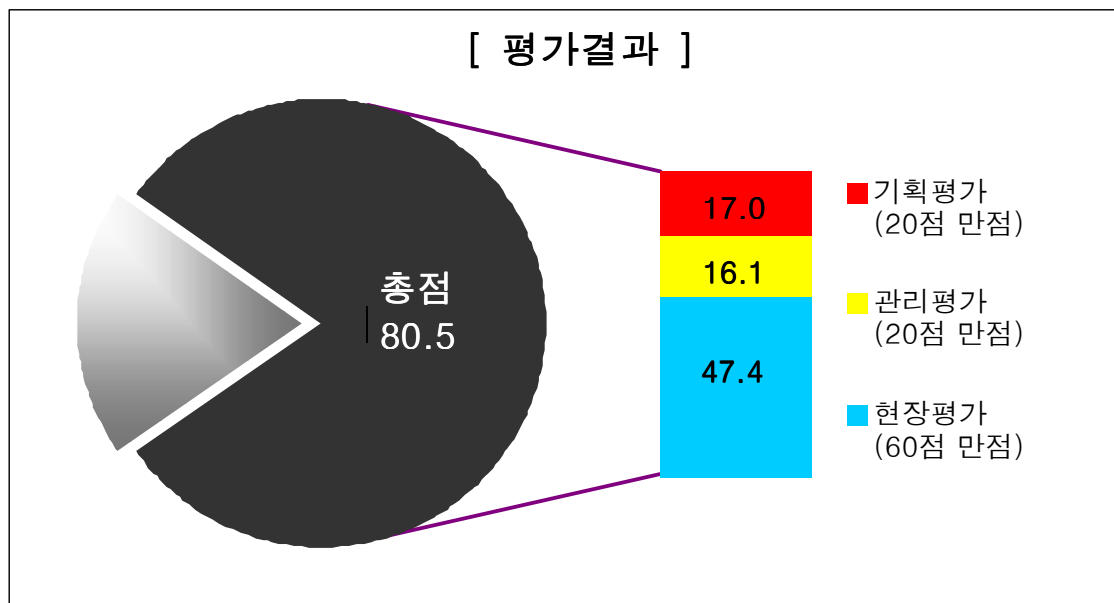
2. 사업개요

- 기간 : 2005년 10월 21일(금) ~ 2005년 10월 22일(토)
- 장소 : 홍대 앞 일원(주차장골목, 걷고 싶은 거리)
- 주최 : (사)라이브음악문화발전협회
- 주관 : 인디음악축제 추진위원회
- 후원 : 문화관광부, 서울시, 홍대앞문화예술협동조합

3. 평가방법

- 평가유형 : 현장평가(60%) + 기획평가(20%) + 관리평가(20%)
- 평가위원 : 3명
- 평가진행 : 현장평가(2005. 10. 21 ~ 10. 22) → 서면평가(2005. 11.) → 개별평가회의(2005. 11. 16)

4. 평가결과 : 80.5점



◦ 평가결과

| 기획평가 | 관리평가 | 현장평가 | 평가결과 |
|------|------|------|------|
| 17.0 | 16.1 | 47.4 | 80.5 |

◦ 기획평가

| 사업운영능력(20) | | | | 합계 |
|--------------|--------------|----------|----------|-----------|
| 행사운영의 효율성(7) | 예산진행의 적절성(5) | 관객확보율(4) | 발전가능성(4) | |
| 6.0/7.0 | 4.0/5.0 | 4.0/4.0 | 3.0/4.0 | 17.0/20.0 |

◦ 관리평가

| 사업관리능력(20) | | | 합계 |
|------------|----------|-------------|-----------|
| 충실성(3) | 신뢰성(9) | 사업목표 달성도(8) | |
| 2.1/3.0 | 7.65/9.0 | 6.35/8.0 | 16.1/20.0 |

◦ 현장평가

| 구 분 | 공통평가 항목 | | 고유평가항목 | | | 합 계 | |
|-----|---------|----------|----------|----------|-----------|---------------|----------------|
| | 사업목적(8) | 사업운영(22) | 사업운영(22) | 사업내용(34) | 관객서비스(14) | 총점 (100만점) | 반영비율 (60%)* |
| A | 6.8/8 | 17.6/22 | 17.6/22 | 26.0/34 | 9.8/14 | 77.8/100 | 46.7/60 |
| B | 7.2/8 | 18.2/22 | 19.0/22 | 28.2/34 | 11.6/14 | 84.2/100 | 50.5/60 |
| C | 6.0/8 | 16.5/22 | 16.8/22 | 25.6/34 | 10.0/14 | 74.9/100 | 44.9/60 |
| 평 균 | 6.7/8 | 17.4/22 | 17.8/22 | 26.6/34 | 10.5/14 | 79.0/100 | 47.4/60 |

* 점수 산정방법 : 총점 × 60% = 평가별 반영비율

5. 항목별 평가의견

□ 사업 목적

- 인디음악 행사를 진원지이며 활발한 곳인 홍대 앞에서 펼쳐 가시화하고 정례화하며 그 발전을 꾀함. 인디 1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기념하는 행사임.
- “인디음악 10년을 맞이해 시민들과 함께 인디음악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행사”라는 사업목적에는 부합하는 행사였음. 또한 현장 인디음악인들이 중심이 되어 펼치는 인디 록 페스티벌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도 부합했음. 하지만 원론적인 문제를 거론한다면 “왜 시민들과 인디음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보임. 이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발전시키자는 것인지에 대한 불명확성을 낳게 만들고 있음.
- 주류 미디어가 음악 산업의 질적, 균형적 발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유기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인디음악계와 보편적 다수 대중 사이의 단절은 피할 수 없는 귀결이며, ‘인디 뮤직 페스티벌’은 대중과의 자유롭고 직접적인 만남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 괴리감을 좁히고자 한 인디음악계의 능동적인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대두케 하는 사안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더불어, 태동 10년을 맞은 인디 음악계의 과거와 현재를 결산하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독립적 대안 문화세력 지향의 미래에 대한 이정표로서 화두를 제시하는 의미 또한 괄목할 것으로 평가됨.

□ 사업 운영

- 페스티벌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기획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무

국이, 그것도 단시간 동안 운영되는 형태여서 행사를 치르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음. 이는 첫째라는 한계 때문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페스티벌의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프로그램 기획이 되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임.

○ ‘인디 뮤직 페스티벌’의 사업운영상 문제는 인디 음악계가 처한 현재의 한계 상황과 다름 아니며, 바로 그 근본적인 한계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었음. 그 사업목적의 높은 이상에 비해 예산과 인원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운영진은 결국 의욕과잉과 불가항력이라는 대척적 상황과의 끊임 없는 줄다리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초 이 사업의 규모와 범위부터가 그 취지 - “인디 음악계의 대중적인 기반 마련, 진정성 있는 대중음악 페스티벌의 필요, 라이브 클럽과 라이브 문화의 대중화”의 의미를 획득하기에는 극히 미약한 것이었다. 때문에 이 사안의 관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선 다윗의 처지였을 운영진의 역량을 논하기에 앞서, 것처럼 무모해 보이는 도전으로 스스로를 내몰 수밖에 없었던 한계 상황의 실상을 인식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은 자칫 사업목적 자체를 위배하는 패러독스가 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궁극적인 과제임을 재고시킨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화두를 제시하고 있음.

□ 행사 내용

○ 홍대앞 주차장 골목에서 ‘라이브 클럽 페스트’공연,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와우 스테이지’공연,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에서 ‘프리 스테이지’ 공연, 주차장 골목에서 그간 발매된 앨범을 파는 부스 운영, 세미나를 통해 인디음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소집.

○ 대등한 규모의 외우스테이지와 라이브클럽 페스트스테이지, 작은 규모의 쇼케이스 스테이지가 동시다발로 펼쳐지는 형식을 취함. 그래서 홍대지역 라이브클럽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뮤지션들이 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지역 라이브클럽들의 지형도를 단시간 내에 알 수 있게 하였음. 또한 행사장에 같이 인디음악박람회(인디레이블부스, 라임클럽부스)가 운영되었고, 인디음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열렸음.

○ 거리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금번 ‘인디 뮤직 페스티벌’이 그동안 국내에서 치러졌던 크고 작은 페스티벌들과 차별되는 점을 찾기 힘들었음.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의 장치화 실패, 인디 음악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도울 만한 프로그램 부재, 인디 음악이 자생력을 가져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한 홍보 미비 등은 이 행사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그 노선과 좌표에 명확히 대응하지 못하였음을 뜻함.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방송국의 쇼 프로그램이나 단순한 유니버스 공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개념적 접근에 대한 철저한 모색이 아쉬웠다는 점도 물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그 또한 기본적으로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란 점은 반드시 재고해야 할 부분임

□ 관객 서비스

○ 공연장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무대규모가 작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이 따름. 그리고 현장홍보(인지)가 부족해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뮤지션을 알기 힘들었음.

○ 운영진과 자원봉사자들의 자세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수동적 친절에 머물지 말고 능동적 접근으로 관객들에 구애하지 못한 부분은 일말의 아쉬움을 남김. 오히려 문제는 장소였음. 노상 주차장을 배경으로 한 협소한 공연장소의 문제는 상냥한 태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며, 안전사고의 위험은 둘째 치고,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의 미비함은 때마침 차가워진 날

씨 앞에서 집객의 어려움을 극심하게 배가시키는 결과 초래. 더불어 관람객들의 동선이 끊어질 수밖에 없도록 분산된 무대 배치의 문제도 공연장소 자체의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각각의 무대들은 하나의 페스티벌로서 시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개별적인 소공연들의 산포처럼 비취질 수밖에 없었고, 관객들에 대한 서비스 또한 그와 함께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노출하였음.

□ 문제점

- 가장 아쉬운 것은 목표에 상응하는 관객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점. 일단은 갑작스러운 한파에 의해 행사장을 찾는 관객들이 매우 적었고, 무대 앞에서 환호하는 소수 관객들 외에 주차장 골목이든 길고 싶은 거리든 한산했다는 것은 1억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은 행사로는 볼 수 없을 만큼 치밀하지 못했음을 드러냄.
- 인디음악페스티벌에 대한 존재당위성을 설정하고 홍보하는 데 미흡. 사전홍보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함.
- 현장진행에서 공연에 서는 뮤지션들을 소개하는 장치가 부족함.
- 무대가 작아서인지 악기를 2세트 준비하지 못해서, 뮤지션들 간의 교체시간이 다소 많이 소모되었고, 그래서 관람객들을 지루하게 만들었음.
- 인디음악박람회(인디레이블부스, 라임클럽부스)의 내용이 불충분함.
- 금번 ‘인디 뮤직 페스티벌’은 현재 국내 인디 음악계가 직면한 한계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에서 그 문제점들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음.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점들이 사실상, 이 행사를 통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곳에서 비롯하는 것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큰 숙제를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것은, 동시에, 이 행사가 얻어낸 가장 큰 성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음. 물론 그것은 이 사업을, 인디 음악계의 내부 당사자들에게는 보편 다수 대중의 눈높이와 저변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함으로써 보다 치밀하게 계획된 접근방향의 좌표 설정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로 삼고 이 사업을 지원한 정부에는 보다 폭넓은 관심과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의 기회로 만드는 근본적 태도 변화의 선행을 요구하는 전제되어야 함.

□ 개선 방안

- 관객 유치에 실패할 것을 대비한 동원 시스템을 가동했어함. 관객에 민감하고 기본적으로 관객 열기에 의존하는 인디 공연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여러 대안을 강구했어야 함. 또한 아무리 추운 날씨였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홍보의 부족을 드러낸 셈. 홍보를 충실하고 밀도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음.
- 페스티벌 존재당위성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사업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야 함.
- 사무국을 좀 더 일찍 가동해서 사전홍보를 제대로 해야 함.
- 현장에서 뮤지션들을 소개하는 장치(소개동영상, 유인물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
- 여러 뮤지션들이 한 번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니만큼 악기를 2세트 준비하는 것은 필수로 해야 하고, 교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부스 형식과 운영에 대한 고민이 필요. 내용이 없으면 아예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인디 뮤직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대부분이 그 자본과 인원의 한계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행사의 외양이나 만듦새에 대한 개선책은 단순명료하게 요약될 수 있

음. 그러나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것은 극히 지엽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들이다. 관건은 그 같은 행사들이 대중에 대한 실질적인 소구력을 갖추기 위해 전제되어야 함. 지금 이 나라의 대중음악계에 필요한 것은 다양한 전술을 포용할 수 있는 전략임. 현재와 같은 방식의 간헐적이고 단발적인 행사들의 병렬로는 힘들며, 전투에 이기고도 전쟁에 패하는 귀결에 가깝다. 우리나라 인디음악계의 제반 현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치밀한 전략이 최우선적으로 요청됨. 지속적이고도 일관된 행사들을 연속적으로 개진해 나감으로써 분위기를 점진적으로 전환시키거나, 대대적이고 강력한 파급력의 대규모 페스티벌을 조직하여 확실한 인상을 남기는 양면의 전술을 병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거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떤 개선안에 관해서든, 최우선 조치가 되어야 함.

6. 총평

<2005 서울 인디 음악 페스티벌>의 잘 만들어진 리플렛에 써있는 문구는 ‘Go! Go! 홍대로 가자!’였다. 하지만 홍대로 와서 인디음악을 만끽해야 할 사람들은 10월21일과 22일 홍대로 오지 않았다. 갑자기 불어 닥친 한파 때문이었다. 무대 앞에서 아티스트에게 환호하는 사람들마저 바람과 추위에 떨어 제대로의 흥을 내지 못했다. 관객의 반응에 민감한 아티스트들은 주어진 몫만을 했을 뿐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내년 행사 때는 전문 홍보 에이전시에게 홍보를 대행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관객동원에 대한 묘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인디 음악 페스티벌에 대한 문관부의 지원액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올해는 공연시스템을 갖춘 것으로도 수확이라고 보며, 행사에 앞서서 주변상가와 페스티벌주관 팀 간의 입장이 충분히 조정되어야 하며 여기에 문관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라이브 음악 문화발전협회’에서 상가와 입장 차이를 조정하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예상한대로 토요일과 일요일 가장 손님이 붐비는 날에 상인들이 영업을 포기하거나 자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큰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본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인근 대학들인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홍익대 노천극장에서 행사를 여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만약 인디음악계가 우리 음악의 산소공급지가 되어 콘텐츠의 다양화를 이룩하려는 뜻이 정말로 있다면 문관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

인디뮤직은 한국대중음악사에서 90년대 이후 ‘창작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가장 중요한 음악이자 썬(활동 공간, 시스템)이다. 1992년 서태지가 데뷔한 이래로 주류대중음악계는 스타 메이킹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여기서는 더 이상 ‘작품으로서의 앨범’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디뮤직은 소비자들에게 음악적인 다양성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의 음악 산업이 장차 성장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현재 주류시장에서 ‘작품’이 사라지니까 그 귀결로써 음반시장이 붕괴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서 ‘다양성’이 상실됨으로써 유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디 뮤직썬을 활성화해서 음악시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고, 이게 바로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2가지 문제가 상존한다. 첫째는 인디뮤직을 ‘창작’ ‘작품’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있는 일반인들을 포함한 매체종사자들, 정부정책당국자들의 인식의 문제가 있다. 둘째로는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철저히 봉쇄된 홍보, 유통 환경이 문제다.

일례로 일본 같은 경우 3,000개의 라이브클럽들을 기반으로 인디뮤지션들이 자급자족식의 활동을 하는 것에 비한다면(이래서 일본의 인디뮤지션들은 굳이 공중파방송에 나오지 않아도 ‘홍보’에

문제가 없다), 한국에서는 채 40개가 되지 않는 라이브클럽 기반 밖에는 없다. 여기서는 인디뮤지션들이 음반 발표하고 나서 홍보, 유통은 고사하고 공연도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다.

인디뮤직페스티벌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존재해야 하는 당위성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페스티벌을 주최하는 협회는 반드시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페스티벌은 단순히 공연 차원을 넘어서서 일반인들에게 인디뮤직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기획' 이 되어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단순히 현재 있는 라이브클럽들을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를 기획하면서 정책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하고 홍보, 유통, 공연 인프라를 포함해서 콘텐츠기획자를 양성하는 인력양성방안과 해외진출 모색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디 음악이 대중과의 친밀성을 획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음악은 일종의 반복 학습에 의해 체득되는 것이다. 들어보지도 않은, 혹은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던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방송, 신문, 공연, 그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인디 음악에 대한 대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최우선 당면과제라는 말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주류 미디어들이 보여준 태도는 오피니언 리더로서 주류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자본의 노예에 대한 자임이 었다. 인디 음악계가 싹을 틔웠던 10년 전, 저급한 센세이션의 차원에 한정된 시각으로 그 시작을 보도한 이래 주류 미디어가 인디 음악계를 다루는 방식은 변한 바가 거의 없다. 그 같은 현실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근거이다.

‘인디 뮤직 페스티벌’은 지난 10년을 악전고투해온 인디 음악계가 자구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지원을 빌어 완성한 행사라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처럼 한정되고 단발적인 행사만으로 대중과 인디 음악계의 화합의 접점이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의 전략이 절실한 것이다. 다행인 것은 고단했던 지난 시간들이 인디 음악계에 긍정적인 내성을 배양하는 기간으로도 작용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요구가 비용절감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작업 방식을 정착시켰으며, 보다 다양한 성격의 시도들을 포용하기 위한 소규모의 개성적 단위 레이블들이 등장한 사실 등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디음악계의 자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효율적인 노하우를 제도화해나가는 일이 거기에 보태질 차례이다.